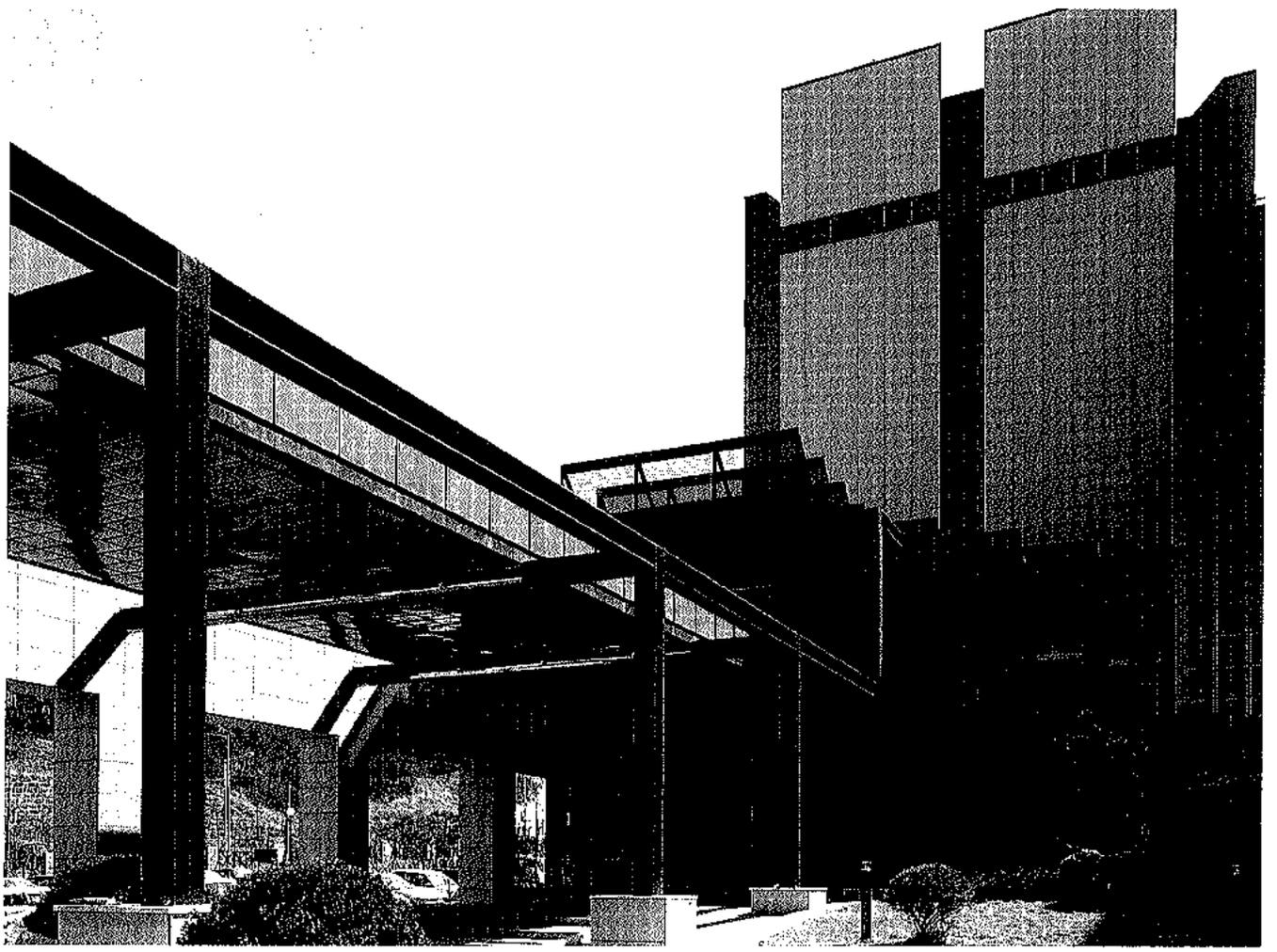
月刊 建築士 1994년 4월호
통권 300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5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12월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KOREAN ARCHITECT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pril 1994



칼럼
건설업체의 건축사법 23조 개정추진은 언어도단이다/이종관

기획진단
건설업체의 건축사업 진출시도에 대해/최찬환, 이호진
건축사보수기준개정, 이렇게 생각한다/이영희, 강기세

회원작품
연구소/건원국제건축
/동우건축
-이원호
집

건축비평
옵티미즘의 건축/박길룡

특집
21세기를 대비한 건축3단체의 역할과 변화

건축기행
고딕성당건축(2)/박효순

현상설계
대전시 중구 실버토피아
서울대 분당병원 부지이용계획
대전신협회관

자료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운영지침

J
540.5
대92ㄱ
300c. 3

4
APRIL

'94

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출품자격

○건축사부문 : 1994년 현재 개업건축사
○신 인 부 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학 생 부 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내인자도 응모할 수 있음)

■ 출품내용

○건축사부문 : 91년~94년 작품 마감일까지 준공을 필한 작품으로서 본 행사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
○신인 · 학생부문 : 테마구분없이 자유

■ 작품접수

○건축사부문 : 일시/94년 8월 12일까지 패널 제출
장소/건축사회관 4층 홍보부
(작품제출시 작품집 제작(원색인쇄)에 필요한 자료제출—슬라이드 필름 또는 컬러사진 5~6매, 잉킹도면, 설계개요, 원고지(200자 기준)2~3매 정도의 설계소묘)
○신인 · 학생부문 : 일시/94년 8월 16일 18시까지
장소/건축사회관 1층 접수처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건축사부문 : 90cm×90cm의 규격패널 1~4매
(모형출품도 가능하며, 규격제한 없음)
○신인 · 학생부문 : 90cm×90cm의 규격 패널 1매 및
60cm×60cm규격의 모형 1점(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신인 · 학생부문에 한함)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할 것.
—패널 및 모형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신인 · 학생부문에 한함)

■ 시상내용

○건축사부문 : '94한국건축전대상(7) : 상장 및 트로피
○신인부문—최우수상(1) : 상금 500만원 및 상장
—우 수 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장 려 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학생부문—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우 수 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장 려 상(10) : 상금 50만원 및 상장
—각시 · 도 건축사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입선(다수) : 상장
※학생작품 최우수상 수상자는 ARCASIA 학생잼버리 파견특전 부여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부(전화 581-5711~4, 587-8504)

大韓建築士協會

차례/1994년 4월호 통권 300호

권 頭
건설업체의 건축사법 23조 개정추진은 언어도단이다／李鍾寬 12
기획전담기
건설업체의 건축사업진출시도에 대해／崔燦煥／李好璡 14
기획전담2
건축사보수기준개정, 이렇게 생각한다／李永熙／姜基世 19
일하며 생각하며
뿌리를 지키고 살찌우자／尹汝郁 22
회원작품
한국이동통신 대덕 연구소／(주)건원국제건축 24
서울 불암국민학교／(주)동우건축＋李好璡 30
소망수양관／崔東奎 36
SJ빌딩／金春雄＋李元浩 40
거촌빌딩／兪元在 44
탑스튜디오／崔英集 50
비 평
옵티미즘의 건축／朴吉龍 56
개원작품
한국청소년 중앙공원／金永雄 58
소 개 지
어느 대학의 동창회관／安秉義 60
기 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3)／李根昌 62
회원광장
새로운 시작에 서서…／金錫桓 64
건축사의 의식형성과 위상 재정립／金基斗 66
특 집
21세기를 대비한 건축3단체의 역할과 변화
朴英健／董政根／金慶洙／金光鉉／姜 琳 67
건축기행
고딕성당 건축(2)／朴孝洵 78
현상설계
대전시 중구 실버토피아 90
서울대 분당병원 부지이용계획 96
신협 대전시 연합회 회관 100
기획연재
영국의 건축(2)／金龍昇 102
자 료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운영지침 108
통 계
1994년 1월분 전국 도서신고현황 110
회사소식 112

發 行 人：吳雄錫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 員 長：李俊憲
委 員：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馥, 金宗植
編輯・取材：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 行 處：大韓建築士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070
電 話：代表 (02)581－5711, 581－5712 ~14
팩시밀리：(02)586－8823
登錄番號：서울 라－26(月刊)
登 錄：1967年 3月 23日
U. D. C.：69／72(054－2)：0612(519)
印 刷 人：李鳳秀／正文社

표지사진 : 한국이동통신 대덕연구소
(설계 : 건원국제건축)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1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2-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5, 445-521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0158 · 종로분회/종로구수송동46-18,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3-5251 ·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충무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7-660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52-8468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88-1486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7-3071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53-2892 · 중랑분회/중랑구면목동156-46, 437-7356 ·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110, 922-5117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1, 852-2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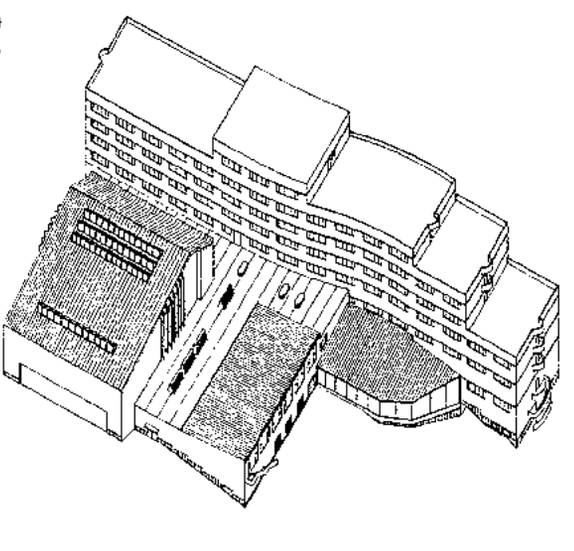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범천동847-18, 28 (051)634-4973~9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8, (053)753-8380~5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97-1, (042)255-9350~4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5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876-0458 ·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343-22, (0333)666-6153 · 고양분회/고양군원당주교3동력16호트, (034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이천군이천읍중리192-1, (0336)635-0545 · 광명분회/광명시원산동220-2, (02)684-584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시흥분회/(032)691-4121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3-7250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

CONTENTS VOL.300. APRIL 1994

COLUMN
Construction Company's Reforms Demend for Architect Law Article 23 's beyond Expression/Lee, Chong-Kwan 12
FOCUS[1]
As to Construction Company's into Architect Business/ Choi, Chan-Hwan/Lee, Ho-Chin 14
FOCUS[2]
This is What I think-Revised of a Standard Architect Emolument/ Lee, Young-Hee/Kang, Ki-Se 19
ESSAY
Let's Keep the Basis of Architectual Culture/Yoon, Yeo-Wook 22
WORKS
Korea Mobile Telecommunication(KMTC)/Kunwon International Inc 24
Seoul Bulahm Primary School/Dong Woo & Lee, Ho-chin 30
Somang Retreat Center/Choi, Dong-kyu 36
Sangji Building/Kim, Choon-Woong & Lee, Won-Ho 40
Keochon Building/Yoo, Won-Jae 44
Top Studio/Choe, Young-Jeap 50
CRITICISM
Architecture As Optimism/Park, Gil-Lyong 56
PROCESS WORK
Korea Central Youth Park/Kim, Young-Woong 58
SKETCH
An Alumini Center/Ahn, Byung-Ui 60
FEATURE
What Should Be Changed? (3)/Lee, Keun-Chang 62
PLAZA
Now Comes Up to the Starting Point/Kim, Suk-Hwan 64
The Recovery Direction of Architect's Phase/Kim, Ki-Doo 66
ISSUE
3 Architectual Organization's Role and Revolution against the 21th Century/ Park, Young-Kern/Dong, Jeong-Keun/ Kim, Kyung-Soo/Kim, Kwang-Hyun/Khang, Hyuk 67
ARICHITECTURE TRAVEL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2)/Park, Hyo-Soon 78
COMPETITION
Silvertopia, Taejeon City 90
Practice Use Plan for Pundang Hospital Site of Seoul Univ. 96
A Federation of Taejeon Credit Cooperative Association 100
REPORT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in Britain(2)/Kim, Yong-Seung 102
MATERIALS
Management Guide of Architecture Design Competition 108
STATISTICS 110
KIRA NEWS 112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391)41-7371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4)31-8708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흥1리960-12, (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가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제천시의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6)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6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온리239-1, (054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835-2217 · 대전분회/대전시대흥동197-10, (0452)34-3367 · 서산/(045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륭빌딩508), (065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52-3796 · 군산분회/군산시신창동35-4, (0651)43-3816 · 남원분회/하정동106-2, (06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83-238(추선희관), (062)346-75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72-3349 · 순천분회/순천시장천동51-1(0661)74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652-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동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801-4, (0561)2-4710 ·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영주분회/영주시하망3동341-12, (0572)34-5560 · 점촌분회/점촌시중앙동280-3, (0681)53-6677 ·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7, (0582)32-5868 · 경산분회/경산시중방동859-5, (053)812-6721 · 달성분회/달성군화원읍천내리113-3, (053)634-6336 · 영천분회/영천시창구동26-10, (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47, (055)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진주시본상동7-20, (0591)745-6403 · 충무분회/충무시서호동169-18, (0557)645-7420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 (0525)35-5692 ·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1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금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건설업체의 건축사법23조 개정 추진은 언어 도단이다

Construction Company's Reforms Demend for Architect Law Article 23 is beyond Expression

李鍾寬/본 협회 홍보위원장
by Lee Chong-Kwan

황희 정승이 싸움을 하는 두 노비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을 다 옳다고 했다. 이를 본 부인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자 부인말도 옳소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양쪽 말을 다 들어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설계권 부여방침」계획은 황희 정승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당국의 즉흥적 처신의 일례라 여겨진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편승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만을 주장하는 건설시공업체의 말만 듣고 성급한 결정을 하려는 당국에게 한 노비의 심정으로 황희 정승의 자질을 감히 요구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해 국내 건축·건설 시장이 완전 개방시대를 맞게 되어 우리 건축·건설업체들이 안방에서까지 세계 유수의 건축·건설업체들과 완전경쟁을 치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시기에 국내 건축·건설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은 중요한 당면 과제다. 또한 이러한 절박한 과제에 양계가 합심,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과정에 일방의 주장만 반영되어 결론이 도출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건축용역업 진출 규제완화」국민제안 건은 소외된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축사 자격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에게 건축설계 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이 제안내용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경쟁력 배양, 솔직히 표현해서 이윤추구라는 명목아래 건축사의 영역을 넘보려는 대형 건설업체의 자본논리가 내재해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법률 개정의 위법성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건축계와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대형 건설회사에 설계권만 부여하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의 위험성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건축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결정해 버릴 일회적 경제행위가 아니라 예술 행위로서의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다.

국내 건축·건설시장 상황은 태동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60, 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건축·건설의 발전은 기획, 설계, 건축감리 등 소프트웨어(Software)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 시공부분인 하드웨어(Hardware)에만 치중되어 발전해 왔다. 이 결과 우리의 건축·건설문화는 소프트웨어에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단순 시공업체인 하드웨어에 규정받는 역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행주대교 붕괴, 지하철 현장에서의 빈번한 사고 등 부실시공의 근원적 이유는 건축·건설계의 이런 왜곡된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건축설계권을

“
건설 당국 그리고 건설업계에 당부한다. 붉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고 보면 푸르게 보인다. 붉고 푸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진대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면 결국 적녹색맹과 다를 바 없다. 편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황희 정승의 지혜가 후세의 귀감이 되는 것은 편견의 무서움을 미리 간파한 혜안 때문이 아닐까?
”

건설업자에게 주면 건축·건설구조의 기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부실시공의 원인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건축설계 분야의 낙후성을 건축사만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건축설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 자본력이 있는 건설업체에 건축설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원에는 현 단계 건축설계 후진성의 책임을 모두 건축사에게 넘기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한 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토양의 여부에 달려 있다. 박토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건축사 본연의 업무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막아온 건축주 및 건축업자의 횡포를 간과하고 설계의 후진성을 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설계권을 건설업체에게 주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즉흥적 발상에 집착하기 전에 왜곡된 현재의 건축설계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단기적인 경쟁력 확보(이윤 추구)에 급급한 법령개정은 장기적인 대외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건설 선진국의 면면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건축설계, 시공, 감리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계, 감리 등 소프트웨어부분이 하드웨어를 규정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벡텔, 파슨즈그룹 등은 기술용역을 주업무로 하여 시공까지 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분야는 대부분 별도 운영하여 설계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있다. 이는 원천적으로 건축부조리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고양시키려는 합리적인 사업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소프트웨어가 자본의 사슬에 매어 하드웨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설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거니와 장기적으로 기술용역업의 경쟁력 악화를 자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은 예술의 한 형태란 사실이다.

건축은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인간의 문화와 존엄성이 수용되어야 하는 생활 공간이다. 불국사, 남대문, 덕수궁 등 역사적 건축물을 통해 우리는 선조의 정신세계를 유추하고, 삶의 질을 판단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단순한 기능적 측면으로만 보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불국사가 기능만 있을 뿐 예술미가 없다면 지금껏 우리의 사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선조의 정신과 손길이 묻어 있는 건축은 민족 문화의 한 부분인 것이다. 더구나 국경을 넘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건축의 문화적 기능을 무시하고 집짓는 기능적 문제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건설 당국 그리고 건설업계에 당부한다.

붉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고 보면 푸르게 보인다. 붉고 푸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진대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면 결국 적녹색맹과 다를 바 없다. 편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황희 정승의 지혜가 후세의 귀감이 되는 것은 편견의 무서움을 미리 간파한 혜안 때문이 아닐까?

건설업체의 건축사업 진출 시도에 대해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업역구분

Business Demarcation of Architecture & Construction

崔燦煥/서울시립대 교수
by Choi, Chan-Hwan

1. 머리말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건설회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등록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기 업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관련법으로 이를 보호하여 왔다. 이는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업역의 구분이며 그에 따라 건축분야가 상호협력과 보완 그리고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축활동도 크게 신장되었으며 새로운 기술·공법·자재 등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건축분야도 전문화되었고 국제경쟁력의 높은 파고위에서 해외로 진출하여 값진 경험과 새로운 기술축적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설계용역업 분야도 다양한 업종이 독립된 전문설계사무소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건설회사도 단순한 시공회사의 형태를 벗어나 엔지니어링 회사를 산하에 두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기술분야에 상당한 수에 달하는 고급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와 시공이 통합발주되는 턴키제도 등에 대비하고 기술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예술성보다는 고도의 종합기술을 요하는 공장이나 특수공법의 공사 등의 설계를 담당해 왔다.

한편 건축사사무소는 열악한 건축환경과 여건하에서 소자본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건축조형예술을 창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건축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가 불가피한 여건변화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진로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회사는 시공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한 기술축적과 경영합리화 그리고 부실공사의 방지라는 새로운 미해결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건축사사무소는 확고한 작가정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벗어나야 할 처지에 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건설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라는 설계업무를 새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설회사가 고유업역의 한계를 벗어난 극히 부당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이 건축계에 발전에 바람직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여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크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몇 차례 뜨거운 쟁점이 되어 논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양자의 의견대립적 양상은 더이상 진행되기전에 하루빨리 종식되고 각각의 소승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축계의 질서를 구축하고 역할분담을 확실히하여 제자리 매김을 올바르게 함으로서 상호이해나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체를 구축하고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책임을 지는 대승적자세가 우리나라 건축계 발전과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업역구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업역구분현황

현재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업무는 설계와 공사감리 그리고 시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건축사법 제4조, 제2조) 건축사는 설계와 공사감리, 조사, 감정,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대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건축사법 제19조) 또한 건축사의 업무는 등록건축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등록제도는 외국의 예나 국내 유사 자격도 모두 등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등록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건축행정·세무 등 전반적인 관리는 물론 등록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건설회사는 건설업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여 건설업법의 목적이 건설공사의 도급, 시공, 기술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여 시공이 업무로 되어있음은 확연하다. 업역보호를 위해서 특수 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을 두어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시공에 대한 업무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건축공사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축사사무소가 담당하고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회사가 담당하도록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업역이 구분되고 있다.

또한 건축사법에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 등은 등록건축사가 아니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공장이나 특수공법의 건축물은 엔지니어링 소속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설계사무소의 설계업무중 건설회사가 필요로 하는 특수설계업무는 현실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예술적 창의성 보다는 여러분야의 고도한 기술력에 의해 설계되어야 하는 성격의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엔지니어링 회사소속 건축사의 설계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 조치이다.

3. 건축활동의 본질

건축은 조형예술과 기술경제성이 결합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 성격, 내용에 따라 그 비중의 경중은 있겠지만 결코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아 조형예술성은 디자인이라는 설계작업을 통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지며 기술경제성은 시공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취급되어진다.

따라서 설계업무를 주도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조형예술을 근간으로하는 창작활동이 주가되는 반면 건설회사는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이익추구의 경제성 논리에 의거 시공기술에 치중하게 마련이어서 각기 특성을 가진 설계와 시공이 건축활동의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가지면서 상호보완하고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바람직하다. 창작활동은 자본과 규모, 조직의 논리보다는 작가개인의 정신적작업과 능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보장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필요로하며 그와같은 분위기와 여건위에서 성숙될 수 있다.

물론 전문화, 고도화된 오늘날 개인작가의 독자적인 활동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설계에 관련된 여러분야의 협동조직과 여러작가의 협업적 공동작업이 수반될 때도 많지만 조형예술을 창작하는 근원은 작가의 창작정신이며 이를 살릴 수 있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예술활동의 예를 비추어 보아도 명확하며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한편 건설회사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기업정신과 조직으로 시공관리와 기술, 자본과 인력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설계라는 조형예술의 창작이 "무엇을" 그리고 "어떤것을" 만들것인가라는 점을 추구한다면 시공은 주어진 도면을 건립하는 방법, 즉 "어떻게" 할 것인지에 과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과정에 이어지는 설계와 시공은 건축활동의 한 울타리안에서도 당연히 독립된 다른 성격의 업역과 분위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설 계	조형예술성, 작가의 창의적 정신과 작품성 추구, 공공성이 강조	Design-Oriented
시 공	기술성, 경제성, 자본과 기술중심으로 이윤추구의 상업성이 강조	Engineering Oriented

그러므로 현행의 업역구분이 상호의 업역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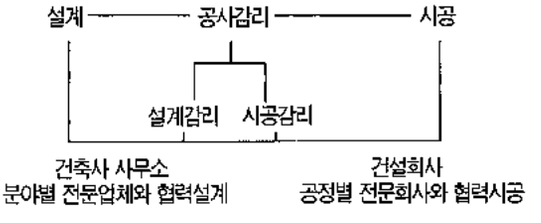
4. 설계와 시공업무의 성격

설계—공사감리—시공으로 이어지는 건설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의 담당과 그 역할이 부여된다. 또한 설계에도 기획—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며 기획 및 계획단계에서는 시장성검토, 개발타당성진단, 규모산정, 개발방향과 방침 등 건축외적인 분야의 협력과 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도 구조, 설비, 조경, 토목 등 여러전문분야와의 협력설계가 필요하다.

시공은 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므로 인력·자금·공정·자재 등의 시공관리와 품질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공정별 전문하청업체를 거느리고 현장을 통제 관리한다.

또한 설계와 시공의 가교적 역할로서 공사감리는 하게 되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그 설계의도와 설계기술을 시공과정에 전달하고 설계의 현장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보완하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하며 시공업자는 시공관리에 대한 자주적 시공감리로 설계에 필요한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설계에 전달하는 상호기술교류와 협력 그리고 상호조정과 견제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로 인한 새로운 시공기술개발을 유도하거나 촉진하게 되며 설계 또한 시공과정에서 축적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정보 및 기술교류체재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상호 교류·조정되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은 수 많은 전문기능을 가진 부품이 조립된 기계와도 같이 각자 전문적 고유업역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호협력으로 기술이전과 환류(feed-back)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의 독점적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의 업역구분과 질서체계를 무시하고 건설회사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설계권을 가지겠다고 이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와 공사감리의 연장선상에서 건축설계를 끝까지 실현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시공권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업역의 전문화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역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무등록 건축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건축계의 행정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자칫 무자격자가 자본을 앞세워 건축사를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건축활동을 좌우하는 무질서한 건축활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큰 폐해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물론 등록된 건설회사에 소속된 건축사에 국한하여 설계권을 한정한다 하여도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계 및 시공의 통합은 건축사법 및 건설업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법의 자격/면허/등록/업무/권한/책임 등을 규정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 및 제도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의 등록건축사가 대표자가 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제한은 필요하며 다만 설계사무소의 소속건축사가 등록건축사와 공동명의로 설계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되 책임건축사는 등록건축사가 되도록 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시하면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의 설계에 공동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같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으며 건축주로부터 시공을 먼저 맡은 시공업자가 건축사사무소를 선임하여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시공 중심으로 설계를 하도록 주문하거나 강요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와같은 현상이 오늘날 많이 성행되고 있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건축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하나의 큰 현실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이던 설계·공사감리·시공을 어떤 조직체가 통합수행하겠다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폐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유업무 밖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고유업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상호보완적 견제기능인 공사감리와 시공이 분리되지 않는 법리적 모순이 있고(공사감리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를 지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가 감독기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마치 국가조직이 입법·행정·사법으로 고유한 업무에 의한 분리로 상호 견제와 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인 회사의 회계결산 업무를 편의를 위해 자체 회계부서에 맡기지 않고 외부의 독립된 별도공인 회계사에 위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공사감리와 시공의 통합은 자체 감독기능 밖에 없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부실위법시공이 은폐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전체 공사에서 설계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설계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여 설계비가 수주의 희생물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설계가 부실해지거나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는 시공에 맞추어 설계되는 등 구조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설계용역업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소는 건설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 건설회사의 하청설계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되며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건설회사의 수주경쟁이 지나치게 과열하여 예정가에 턱없이 미달하는 덤핑입찰이 성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부실공사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건설회사의 하청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에서 고유업역인 설계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시공에 종속되는 것으로 변질된다면 건축계의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개연성이 크다.

설계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설계감리하고 건설회사가 기술적인 시공을 하도록 현행 업역의 분담이 바람직하다.

설계 용역이 시공에 앞서 시행되고 설계가 이루어진 후 시공업자가 결정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반대로 시공업자가 먼저 결정된 후 그 영향하에 설계자를 결정함으로써 설계과정에 건축사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를 제약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와같은 건축 환경과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 건전한 건축계의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간구한다.

5. 바람직한 업역구분

건축사사무소는 창의적예술활동이라는 특성때문에 소수의 조직적 설계를 하는 대형설계사무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뜨리에와 같은 소규모 영세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적 여건으로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건축사가 모든 설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인 다기능보유자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건축사사무소가 설계 및 공사감리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자체 사무소안에서 모든 설계업무를 처리하기는 거의 어렵다. 왜냐하면 설계사무소 안에 다양한 전문 설계과정의 고급인력을 고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설계팀에 협력설계를 하는 외부발주를 한다.
구조·설비(위생·냉난방·전기·소방 등)
토목·조경·인테리어와 견적 등 많은 전문 협력설계팀을 두고 있다.

또한 설계 과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든 종류의 설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계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다. 설계사무소도 잡화점이 아닌 전문점의 형태로 전문화되어야 하며 현재의 지나친 영세규모의 난립현상과 비전문화에 따른 과잉경쟁은 건축설계의 질적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물론 설계용역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아 작가의 예술적 창의성은 규모의 대소와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확대는 필요하다.

건설회사는 합리적 시공관리와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력·자재·공법·신기술 그리고 수많은 공정별 하청업체의 전문시공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으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근본적인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건설회사가 수많은 종류의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그에 적합한 전문설계조직을 자체에 두고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 비경제적이다. 이것은 설계용역업의 흡수통합이라는 업역확장을 떠나서 건설회사 자체의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력과 신용을 앞세워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자체조직내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하고 인허가를 득하여 공사감리 및 시공을 함께 하면 편리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오도된 단순한 논리이며 전문화와 협력체제가 근본적인 경쟁논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 안목에서 편리와 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 제도하에서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가 협력 및 공조체제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대형건설회사는 설계와 시공의 협동조직을 가지고 있다. 어떤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계열회사의 성격을 지니면서 자본의 지배와 비전문가의 경영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독립된 회사로 건축사가 설계사무소를 등록하여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등 현행법규제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를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건설회사 소속의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건설회사는 시공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공을 위한 세부설계(Working Drawing, sharp Drawing)를 할 수 있도록 시공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설계팀을 가져야하며 이는 시공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시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또한 도면의 분량이나 작업량으로 볼 때 설계사무소에 못지않은 분량의 도면을 작성해야하며 여기에 필요한 설계인력이 건설회사에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회사의 설계팀은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와같은 고유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이다.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는 성격이 다른 업종으로 동일한 업종의 통합이 대형화를 이루는 것이지 다른업종의 경우 통합보다는 고유업역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파트너쉽, 과제별 콘소시움 등의 협력체제를 융통성있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사무소는 전문화와 함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해낼 체제를 갖추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건설회사는 시공에 대한 관리와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유용하다.

즉 대형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는 전문화와 파트너쉽 등 협력체제 구축으로 본연의 주어진 업역을 지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공사감리가 설계와 시공의 가교적인 역할로 상호 정보와 기술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건설업면허를 받은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
- 삭도의 제작과 설치
- 주거용건축물 : 660㎡ 초과
- 기타의 건축물 : 495㎡ 초과
- 기타 :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함)

건설업체의 건축사업 진출 시도에 대해

건축사의 소명과 위치

Architect's Royal Summons and Posture

李好璡/건국대교수
by Lee, Ho-Chin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마음은 두 갈래인 것 같다. 하나는 물질적인 무한한 발전을 기하여 풍요로움을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것 보다 우리를 돌아보며 모든 분야에서 正道를 걸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자는 생각이다. 뜻있는 사람들은 후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줄 안다.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려면 각 분야에서 전문인의 올바른 계획과 판단과 이행이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러한 원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하면 최근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건축사법 23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건축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진흙속에 파묻혀서 자기를 빚고 있는 도공들이 아름다운 한국의 청자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인들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끝에 탄생시킨 자기 작품을 보며 흐뭇해 하는 생각은 이것이 나의 천직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건축설계 전문인이라고도 칭할 수 없다.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서 창조의 아픔을 참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에서도 건축설계를 하는 이들의 긍지는 그 건축속에서 인간에게 인간영유의 권리를 주며, 인간본능을 충족시키며, 인간개발의 희망을 주며, 그 시대 사회를 대변하는 조형물을 창조하고 있다는 자긍심인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큰 자본이 이를 방해해서도 안되고 이에 전문인이 아닌 사주(社主)의 영리위주의 원칙에 타협을 할 수도 없다. 만일 이러한 것이 이뤄진다면 건축설계자의 긍지를 다 이뤄나갈 수 없으며, 자동적으로 그 건축은 상업위주의 건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건축사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사의 윤리와 소명의식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우리의 소명, 즉 설계자 하나 하나의 작품이 서울의 얼굴이요, 부산의 얼굴이지 않은가? 기업적이고 상업적인 이윤 추구자에 의해 이러한 작업이 이뤄진다면 이는 많은 제약속에서 제한된 작품으로 달성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설계자는 한국인의 건강과 사회상과 환경유지를 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열악하고 불건강할 수 밖에 없는 고도의 건축밀도, 인구밀도에서 건축적으로 탈출하여 건강한 사회와 환경을 창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생활수단으로의 건축직업 이전에 건축인의 소명의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나만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속의 한국문화의 얼굴을 후세에 이어주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설계는 미래 지향적이며 옛 전통을 전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사(건축설계)의 긍지와 윤리정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며,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참다운 건축사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한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고 UR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건축은 시각 예술이며, 조형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물론 사용하기 좋은 기능성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최종적인 건축의 표현은 예술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다면 건축설계라는 것은 예술의 장르에서 그 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예술가가 어떤 자본주 밑에서 간섭을 받고, 그 조직속에서의 일원으로 창작을 하여야 하고, 그 예술작품이 잘 팔려서 이윤추구를 얼마나 할까 하는 측면의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 않은가?

앞으로 한국 건축계의 체계는 정말로 제자리 찾기 운동을 벌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형 예술가의 위치에서 수준높은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사(가)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고, 이 설계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적이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세에서 이룩하는 시공자들의 위치가 확연히 구분되어 제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본다. 두개의 분야는 서로 대립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조화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先史이래 인간사회는 끊임없는 분화의 과정을 거쳐오고 있다. 현재는 과거보다 더 전문화된 사회일테고, 미래는 지금보다 더더욱 그러한 사회일 것이다. 부연하자면, 미래사회는 전문집단이 유기체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사회일 것이다.

이런 상식에 비춰볼 때 시공 전문회사인 건설업체가 "설계"라는 또다른 전문영역을 넘보는 행위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사회의 발전은 이것을 이루는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 충실할 때 실현되듯이 건축계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건축사는 "설계", 건설 업체는 "시공"이라는 본연의 영역에 충실할 때 조화로운 발전이 있는 것이며, 건축문화창달이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건축계가 추구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혼란된 논리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때라고 생각된다.

건축사보수기준 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축사

Architect's Social Responsibility

李永熙/(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Hee

우여곡절을 거쳐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이 1993년도 마지막하루를 남기고 개정, 공포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을 면치못하지만 이번 개정이 건축, 건설 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겠다.

건축사 보수기준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 협회가 제정,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포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본협회는 6년전부터 보수기준 개정작업을 간헐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당국에 건의하여 왔으나, 물가정책의 큰산맥에 막혀 한발자욱도 진전하지 못하였다. 보수기준의 현실화는 92년도 회장선출시 본인의 주요 공약중의 하나였으며, 취임후 서둘러(1993.1.27)건축학회의 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성숙되었기 때문에, 93년 5월까지 승인을 득하여 94년 정부 예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추진계획의 목표였다.

우리 분야와 유사한 과학기술처 관장하에 있는 토목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 용역 대가기준은 1975년에는 건축사보수기준에 비하여 60% 수준이었으나 1993년도의 기준은 역으로 1.8배로 현실화 되었다.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기준은 1988년도에 이미 2배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상기할 때, 1975년 이후 18년동안 대한건축사협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자조적인 질문만 남는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야말로 국가경영의 지상목표일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산업의 경쟁력에 기초를 두고, 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서부터 출발한다. 건축, 건설, 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인 설계, 기획분야가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건축설계분야가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 두뇌집단이 건축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좋은 건축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좋은 건축의 정의는 무엇인가? 건축은 다양한 그 시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기능면에서 최대 생산치에 접근하여야 하며, 장소성, 사회성, 역사성 등이 총화를 이룬 공간배분과 창의적인 조형미가 부각되어야 하며, 내구적이고 경제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좋은 건축은 건축사 한사람의 스케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련된 많은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장인적인 협력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개정전의 건축사보수기준 하에서 우리의 설계환경은 어떠하였는가, 25년간 한우물을 파온 체험으로 비춰볼 때, 한마디로 요약해서 계속 바빠야 겨우 먹고 산다는 말이 적절할 지 모르겠다.

일정량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질을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각박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건축설계사무소가 고급인력을 조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술축적이란 요원하며, 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가 아니겠는가.

이번 보수기준 개정에 즈음하여 상승비율이 왜곡되게 인식됨으로 해서 일부 소규모 주택건설자들을 중심으로 탄원과 항의가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종전보다 3배가 올랐다고 야단들이었다. 여기에 일부 우리 회원인 건축사들도 다 받지도 못할 것인데, 세무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려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개정내용에서, 상승률은 정확히 말해서 평균 76%선이며, 용역대가만 상향된 것이 아니다. 건축사업무 내용과 책임이 보다 확대강화 되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2배보다 3배다 하는 뜻은 제대로 받지 못한 종전요율을 기준한 지업적인 수치일 것이다. 차제에 우리협회 내부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협회 창립이래 각종 회비를 각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를 해마다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 실적회비 산출기준이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으로 둔갑하여 지역 건축사회에서는 관행으로 적용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젠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협회운영비는 단위 면적당 징수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무관계는 실 매출액이 근거가 됨이 분명한데도, 우리 내부의 모순된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운영관계로 협회는 회원에게 20여년간 세무부담만 가중시켜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우리 건축사도 동참하자는 결의와 구호는 요란하였지만, 진정 우리 내재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가? 다같이 자기 성찰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면허에만 의존하여 지역적 울타리만을 강화함으로서 집단이기를 극대화 하겠다는 단순 논리가 더이상 만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선행될 때 공정한 경쟁은 성숙될 것이며, 우리 건축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건축사보수기준 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현실화의 배경과 우리의 자세

Revision Import and Our Mental Attitude

姜基世/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
by Kang, Ki-Se

건축설계감리 분야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및 엔지니어(P.E)들 같이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며 대가를 받는 직업이다. 재료비 보다는 인건비 비율이 높고, 인력수준에 따라 과정과 결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건축설계감리분야의 인력수준, 인건비수준을 타분야와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럽기 한이 없다. 원인이야 어떻든 건축사와 변호사, 의사, PE 등과 비교할 때 대학출신의 건축사들과 타분야 대학출신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원인이 인력과잉 때문일까, 프라이드가 없기 때문일까. 어느쪽이던 간에, 건축설계감리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타분야보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것만은 사실이다.

이 원인은 인건비가 적기때문에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았는 지, 저렴한 설계비 때문에 인건비를 줄였는 지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설계감리분야의 발전을 저해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는 UR로 인하여 수준높은 인력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아니, 이미 밀려들어온 것이다. 건축주들은 질좋은 설계를 요구하며 찾아다닐 것이다. 과거와 같은 사고와 인력으로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두운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기분이다. 연약한 건축설계비를 받으며 건축문화 창달을 부르짖고, 건물의 질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쓴 부류도 있었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고 주어진 설계비로도 만족하고 살아왔던 부류도 있다.

우리는 과거이래 오늘날 까지도 선진국에서 과거에 사용하였던 공사비, 건물별에 의한 설계비요율을 적용하고, 이를 최저로 한 설계비에 기타 추가사항의 비용들을 받을 수 있게 건축사들끼리 합의 문서식으로 건축설계 활동을 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근본인 수요공급이나 자유경쟁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식 설계비의 협약은 당초부터 의미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설계비란, 작가의 능력이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과 양, 기간, 건축주의 요구사항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다 건물의 규모, 질 등에 의한 공사비 등에 좌우되며, 건축하려는 위치와 새로운 공법 등의 채택 등도 설계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같이 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한 다음, Man Power에 의하여 정산하는 방법이 건축 설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규모, 건축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면, 그리고 신뢰성 등이 열악하여 선진국 방식의 선택은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요율적용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금번 보수요율 상향조정은 늦은 감은 있으나 건축설계분야의 획기적인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간 건축설계분야는 토목이나 전기, 통신분야 등의 용역비에 비하여 절반의 수준으로 활동 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무소의 규모면이나 CAD화 등이 타분야보다 영세하고 안정이 되지 못하여 전전긍긍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된다.

수차 설계비를 상향조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물가안정이라는 미명아래 관철되지 못하였다가 부실시공과 UR이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건축설계비가 정상화 되었음은 천만다행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상향된 건축설계감리비가 중요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건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설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러기 위하여는

“금번 상향조정된 보수요율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총공사비 대신에 건물규모로 표시하고 인력투입인원의 기준을 중급기술자 보다는 건축사로 기준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새로운 보수요율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건축주를 설득시킬 수 있고 덤핑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건축물 속에서 후손들이 생활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수준높은 인력과 적정한 기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실력을 기르고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감리비를 금번 상향된 수준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과거에는 적은 설계감리비에 건수를 많이 소화하여 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설계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업무량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번 상향된 시점에 각 건축사들이 “제 값 받고 잘해주기” 정신으로 임한다면 현재 업무량의 2/3~3/5 수준으로도 사무실의 경영에 타격을 받지 않으며, 서비스면에서도 2배에 가까운 노력과 인력 투입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설계감리의 수준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건설부공고 제 227호(1993. 12. 31)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을 살펴보면 종전의 기준보다 진일보하여 접근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1. 설계감리비를 인력투입량(Man Power)으로 접근하면서도 인력당 비용을 산정하여 전체 설계감리비를 산출하였다는 점
2. 빈도가 낮은 종은 삭제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5종에서 3종으로 조정한 점
3. 총 공사비의 단계를 55단계에서 20단계로 현재 경제규모에 맞게 조정한 점
4. 결과적으로 설계감리비가 과학기술처 용역 대가기준에 접근한 점
5. 설계의 업무구분에서 계획설계 단계를 삭제하고 기본설계 단계에 통합시킨 점
6. 감리의 비중을 높여 감리비를 설계감리비의 35% 수준으로 상향한 점
7. 감리를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여 설계와 감리를 분리 시킬 수 없는 해석
8. 설계감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업무, 특별업무, 보수 이외의 업무 등 내용을 명확히 한 점
9. 동일 건축물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고 단순함에 따라 설계감리비의 10%를 하향 및 상향할수 있도록 한 점
10. 상주감리대상 건물에서 상주비를 전체 설계감리비에 10%~20%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
11. 건축물대장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작성 보수금액 책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상향조정된 설계감리비의 배경에는 우리 건축사들의 책임이 뒤따르고 있는 점을 감지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는 소비자가 왕이라는 기본관념과 국제화 때문에 설계 감리의 하자가 분명하여졌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응분의 배상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설계감리비를 덤핑할 경우, 설계감리의 하자가 초래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요인이며, 이로 인하여 건축사들의 명예와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

다만, 금번 상향조정된 보수요율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총공사비 대신에 건물규모로 표시하고 인력투입인원의 기준을 중급기술자 보다는 건축사로 기준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새로운 보수요율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건축주를 설득시킬 수 있고 덤핑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건축물 속에서 후손들이 생활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뿌리를 지키고 살찌우자

Let's Keep the Basis of Architectual Culture

尹汝郁/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자연의 순환과 연속성에 벌거벗은 채 열지어 서 있는 앙상한 나목(裸木)들의 멀거니 지지(支持)해 있는 모양이 새 봄이 오면 푸르고 고운 옷을 새롭게 입는다는 미구의 희망을 갖게 하는 인고의 기다림이긴 하여도 행인들의 옷깃을 세우게 하는 때인지라 한층 더 거리를 을씨년스럽게 한다. 특히나 문명의 발달이라는 한가지 목표만을 위해 전체의 환경, 아니 미래의 환경을 긴 안목으로 판조하지 못하고 고식적 최면상태에 빠져 도발적 개발을 자행했다.

수단과 방법이 선의의 목적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헤아리기 조차 힘든 수 많은 공해요소를 뿜어내, 급기야는 생태계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심각한 지경에 처한 오늘의 실상이다.

나무에서의 잎, 줄기, 열매들은 계절의 순환법칙에 의하든 외부의 강제적 힘에 의하든 병멸이 가능하지만, 멸멸이 있어서도 안되고 쉽사리 소멸되지 않는 것은 뿌리이다. 뿌리가 생명력을 잃으면 나무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되고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태 전 초여름 어느날 자연을 벗삼아 교외로 드라이브했던 때의 일이다. 간간이 오가는 자동차들의 씨—웅 하는 마찰음이 귓전을 때리면 부질없는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차창 밖으로 파아란 하늘과 싱그러운 신록이 펼쳐지고 한가로이 풀을 뜯는 우공(牛公)의 되새김질 하는 모양이 약간 우습긴 하여도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심취되어 자동차를 갓 길에 세워두고 감상하던 중 그리 멀지 않은 과수원에서 이순을 훨씬 넘었을 노인이 삶의 고락을 이마에 모두 새겨 넣은 것처럼 주름살이 깊게 패인 얼굴로 배나무로 보이는 나무의 가지치기와 열매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 그 분야의 무지렁이인 나로서는 아까운 것들을 왜 저러실까— 하는 의문이 생겨 아내 실례를 무릅쓰고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 도대체 가지와 열매를 왜 그렇게 버리십니까?"

"버리는게 아니고 솎아 내고 있는 중이여."

"솎다뇨?"

"배게 나있는 열매들을 성기게 하여서 맛있고 탐스러운 과실을 얻고자 하는 경작법이라오."

"그럼 왜? 뿌리치기는 하지 않으신지요?"

"옛끼! 이 양반아!"

하시며 농스러운 질책과 진심어린 풍성한 대접을 받고서 돌아온 기억이 새롭다.

이러하듯 만고풍상의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도 추호의 흐트러짐이 없이 편리공생관계(片利共生關係)인 흙과 물을 통해 양분을 공급하고 나무를 고정하는 뿌리야말로 자연계의 중추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에서의 뿌리는 혹한 내지 혹서와 가지, 잎사귀 등이 생겼다 사라지는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지키는 암석과 같은 것이다.

암석은 겉으로 표출된 부분은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땅 속에 감추어진 부분은 실로 웅대함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 파도가 치고 해풍이 일며 삭풍이 몰아쳐 외형은 기암괴석을 이루기도 하고 때론 형체가 없어지는 듯하여도 그 근저(根底)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의 터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북극에 이어 남극을 정복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남극 하면 빙하벽이 떠오르고, 빙하벽 하면 하얀 빛의 향연인 킬리만자로의 아름다움이 연상된다. 또한 수 많은 얼음조각들이 유랑하는 빙하군을 연상하게 된다.

빙하군을 가득 채우는 얼음덩어리들은 수면위에 드러난 부분만 보면 작은 얼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수면하에 감추어진 부분은 실로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큰 산, 즉 빙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다 한다. 빙산의 일각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처럼 시각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속 부분이 심대하고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어떤 물질이든 전일성(全一性)을 이루기 위해선 바탕이 되는 물질의 견고함이 있어야 성사되듯이, 뿌리란 원천에서 흐르는 본류이지 결코 지류는 아니다. 지류는 자의든 타의든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되기도 한다. 즉 피동적이고 소극적이지만, 본류는 동적이며 적극적이기에 강압적인 강제적 소멸을 시키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인간의 심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인간은 본디 착하다 아니다로 철학자의 구분처럼 성선·악설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희생적 자아가 필요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전체의 소멸은 파멸의 지름길이자 공멸의 앞잡이인 것이다.

“

우선 당장 취하고 보자는 자의적 제안보다는 총체적으로 각 영역간 불협화를 최소화 하는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것이다. 우리의 총의가 담긴 협회의 대응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뿌리이자 모체인 건축사의 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사명이다.

”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무슨 일(직장)을 하더라도 조그마한 어려움에 봉착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 버리는 유약함과 조급성은 선조로부터 전래되고 물려받은 설화속의 곰(우직성과 끈기)과의 엄청난 괴리가 생김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이는 물질에 예속된 지나친 이기심때문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공생의식의 결핍이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의 전인교육의 부실화, 아니 잘못된 가정교육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뿌리교육의 소홀함이 사회적, 국가적 병폐로 나타날 때, 효는 무덤에 묻히고 거리마다 효의 장송곡이 널리 울려 퍼지면 그땐 진짜 혼란과 무질서의 아수라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불행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한 징후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지니고 뿌리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여타의 것을 위해 뿌리가 존재하지 뿌리를 위해 여타의 것이 존재하지 않듯, 뿌리는 경박함이 없이 묵직함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철저한 겸손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땅에 굳게 박혀 모진 세파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철옹성인 것이다.

우리 협회가 산고를 거듭한 끝에, 1965년 10월23일 해산하여 출산의 기쁨을 가진지 어언 28돌을 지나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청년기가 목하(目下) 진행중에 있다.

지나온 역사를 찬찬히 조망해 보면 과연 회원의 총의가 담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냈는지 자신있게 주장할 수 없는 어두운 역사로 점철되었고, 때론 그것이 자괴심이 되어 전신을 휘감아 우리의 정당한 주장까지 슬그머니 거두어 버리는 비겁자의 모습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외부의 강제적 힘의 논리에 다소 생채기를 입기도 하였으나, 그나마 치명상을 입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됨은 우리 건축사의 오기(뿌리)가 끈끈한 생명력이 되어 지금까지 건재함을 기쁘게 여기면서도 한가지 기우아닌 기우를 피력하고자 한다.

어떤 단체이든 구성원간의 불협화음이 커지면 파열되어 소음으로 되고, 화음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선율로 전파되면 많은 청중을 감동시키듯, 한 나무를 비유로써 회원 개개인이 가지와 잎이라면 협회는 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뿌리없는 나무는 죽은 것이기에 뽑혀 아궁이에 던져질 뿐이고, 뿌리있는 나무는 아름다움을 번성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 줄 것이다. 자신의 뿌리가 소중하면 할수록 남의 뿌리도 소중하게 여기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함이 없이 공생해야 하는 이타성도, 뺄 놓을 수 없는 뿌리로써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안건중 하나가 현재의 건축사법 제23조 등록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라 한다.

그 내용을 적시(摘示)하자면 단기적으로는 건축사 자격 소지자를 보유한 재벌회사에서 건축설계업무 용역을 허용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건축사법을 폐지하여 건축법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으로서는 제출한 주체의 불투명성과 제안내용의 부당함을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없긴 하지만, 우리의 진운과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두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자금력 등을 앞세운 재벌회사의 영역 침범으로 건축사의 입지는 잠식되어 좁아지고 결국에는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려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설계대상의 예술성도 상업성에 짓밟혀 황폐화되는 권외의 폐해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당장 취하고 보자는 자의적 제안보다는 총체적으로 각 영역간 불협화를 최소화 하는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것이다. 우리의 총의가 담긴 협회의 대응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뿌리이자 모체인 건축사의 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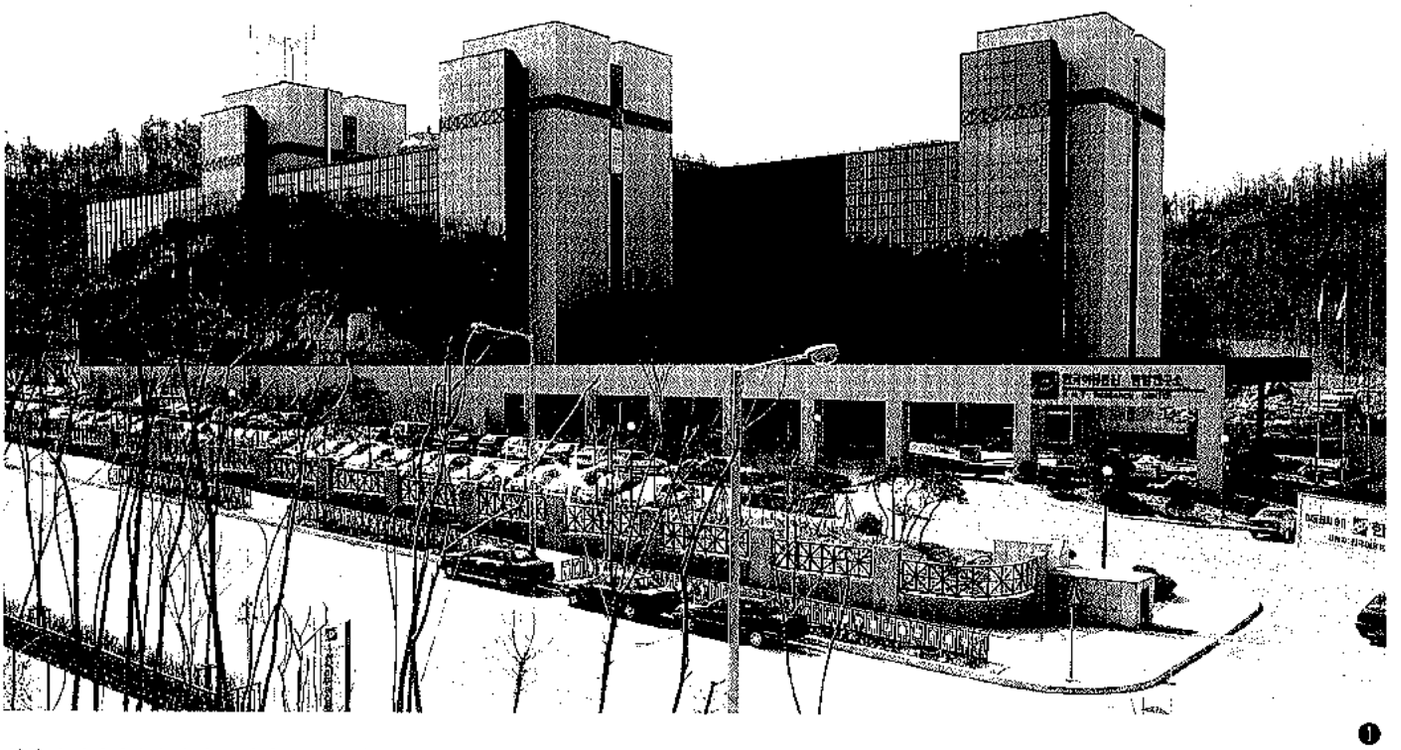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각 부문과 업종간 세분화와 전문성을 살려 시야를 멀리 밖으로 돌리어 거세게 밀려오는 국제화, 세계화, 지구촌화의 조류에 합류하여야 한다.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합류한다 함은 줏대없이 내어 맡기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가꾸고 발전시켜 첨단기술과 기법을 응용하는 신창조로써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토착미를 심어 세계와 어깨를 같이하는 생명력, 즉 뿌리의 착근에 심혈을 기울일 때다.

뿌리! 뿌리! 뿌리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자 시작과 끝이다.

한국 이동통신 대덕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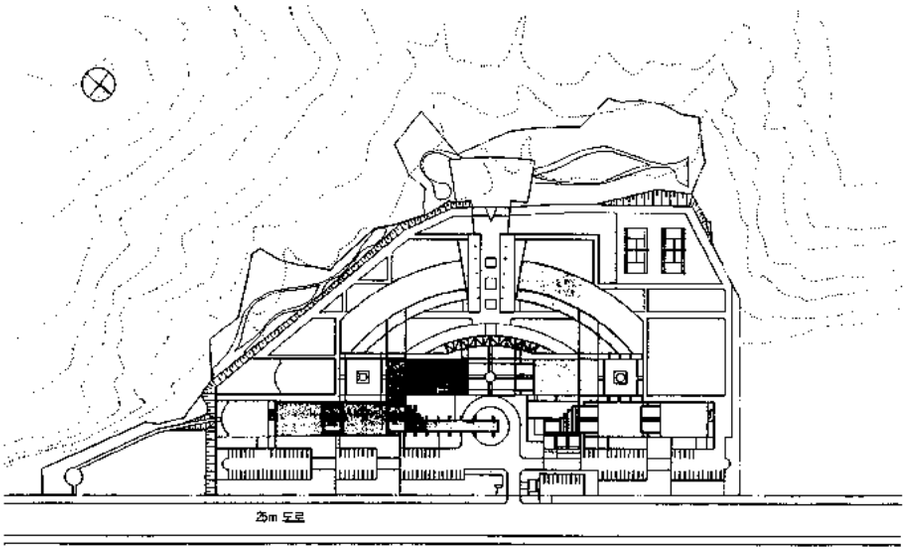
Korea Mobile Telecommunication(KMTC)

(주)건원국제건축
Designed by Kunwon International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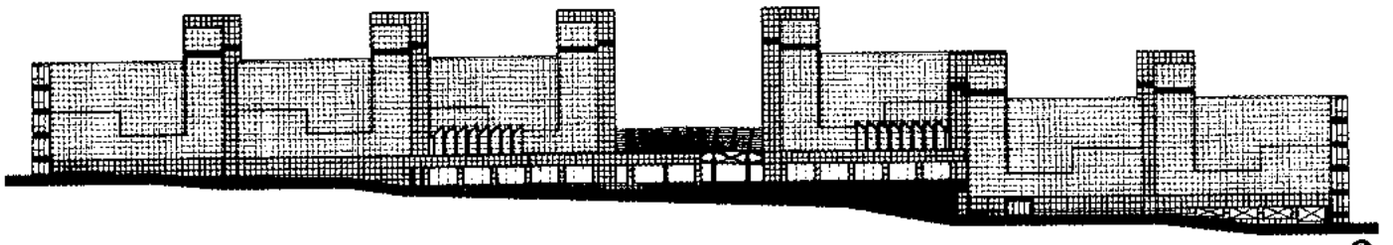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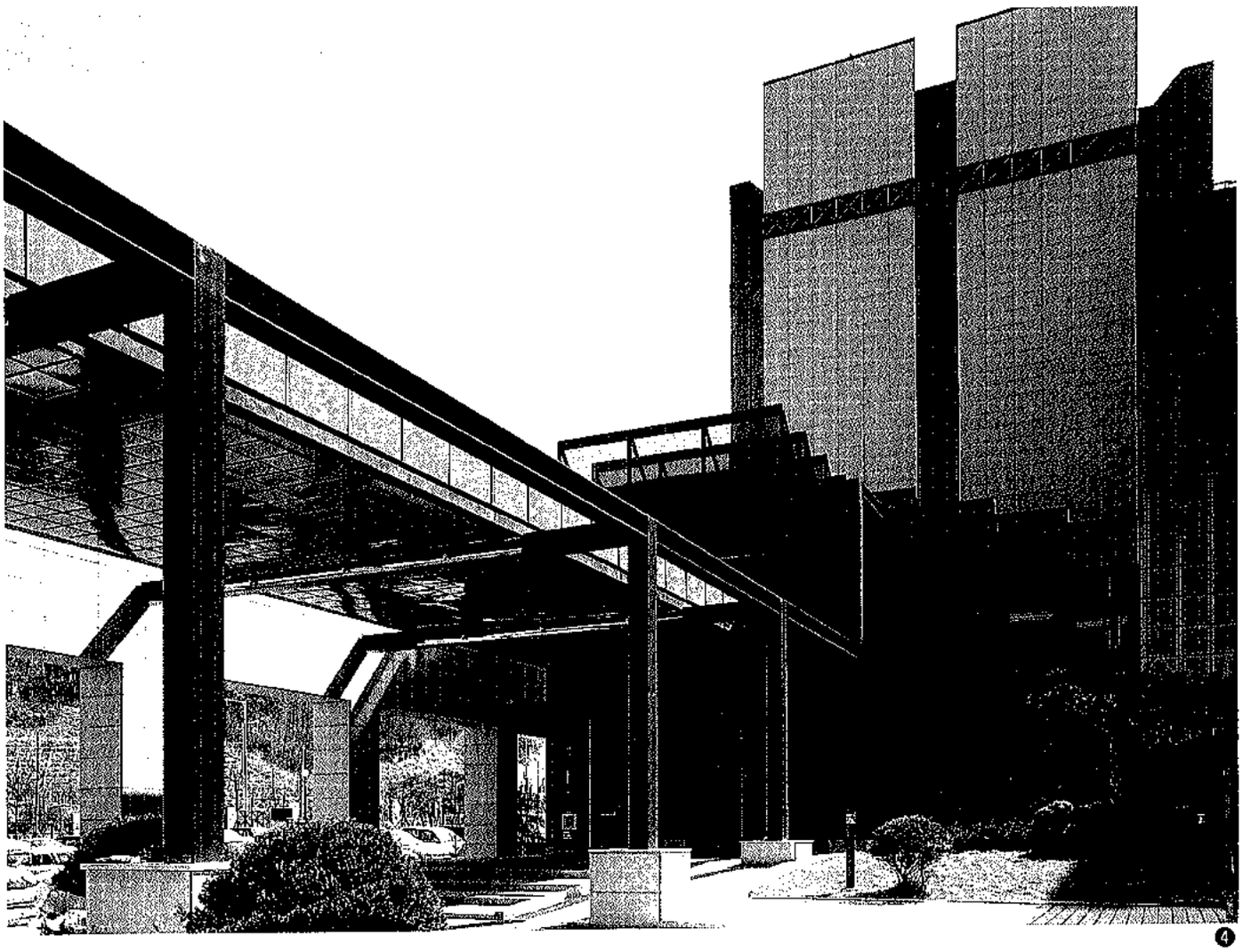
위치 / 대전직할시 유성구 화암동 58-4외 2 필지
지역 / 자연녹지지역, 연구단지
용도 / 연구소
대지면적 / 44,298㎡
건축면적 / 2,412㎡
연면적 / 8,421㎡
건폐율 / 5.45%
용적률 / 16.07%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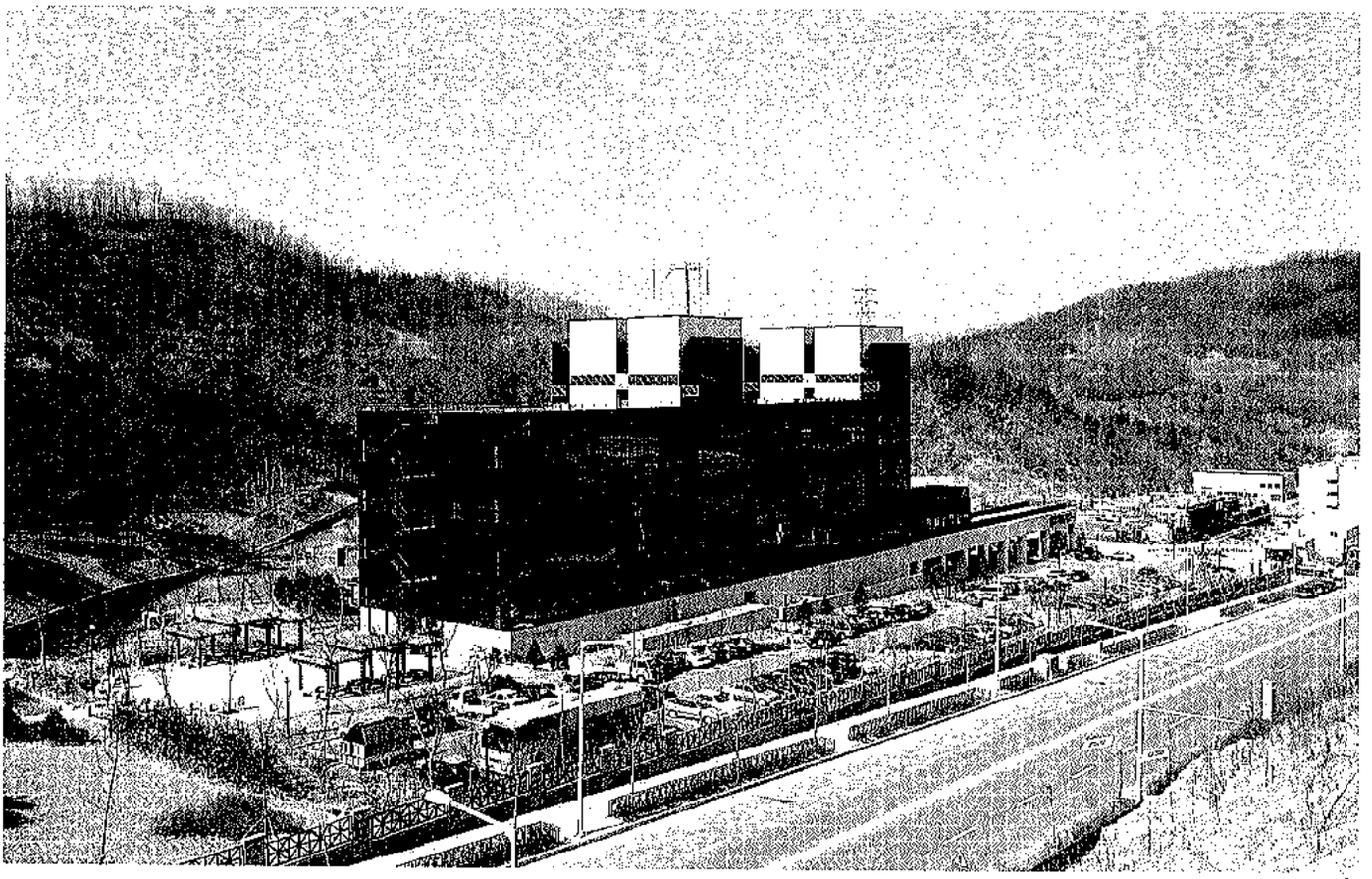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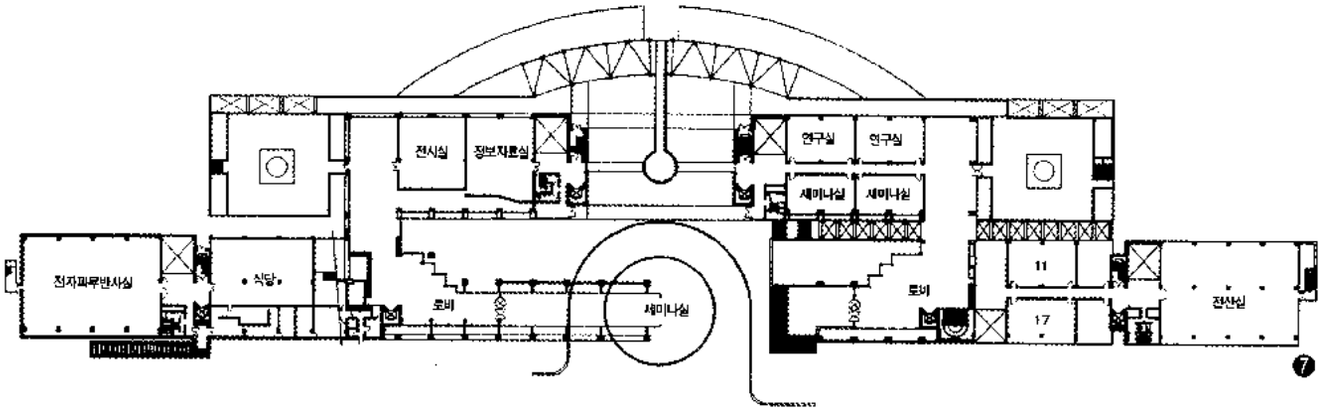
❹

❺

❶ 북서측 원경
❷ 배치도
❸ 정면도
❹ 주출입구 캐노피
❺ 로비에서 본 주출입구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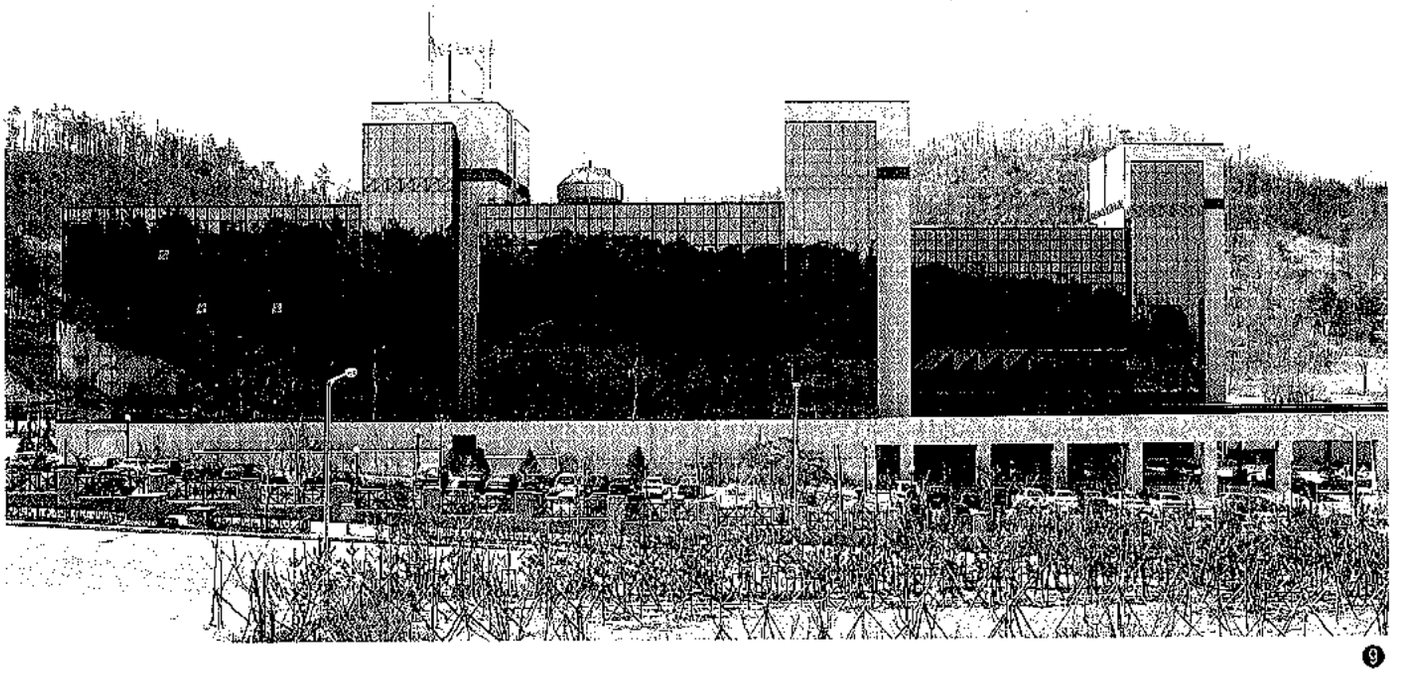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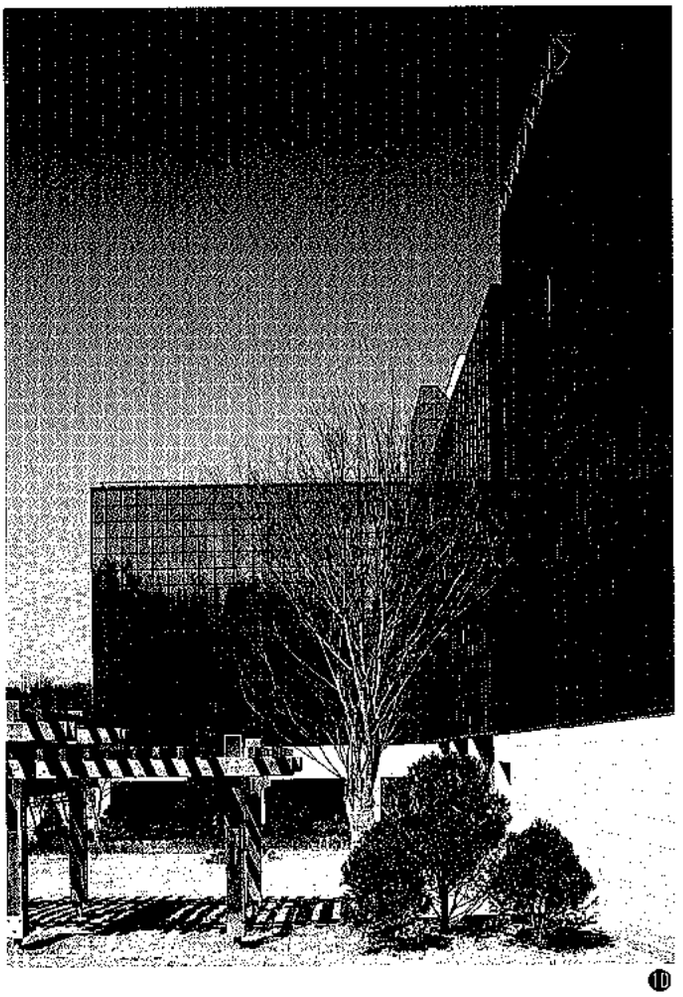
⑧

91년 3월 경에 이루어진 계획팀이 최초 대지답사 당시에는, 단지 조성작업이 완료된 후라 땅의 분위기를 읽어 낸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 있었다. 다만 자연적 정서를 상실해 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미 도시적 스케일로 계획된 전면 도로와 대지의 관계, 장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빈약한 일조등이 선결되어야 할 내용으로 거론되었고, 이동 통신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 구현, 연구소의 성격상 단계적 증축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하는 등의 주제가 요구 되었다. 대지 전면 도로변에는 Mass로 경계를 한정하여 대지 후면의 안정성을 유지하였고, 전면 도로에서 파생된 축을 가시화 하여, 그 축을 따라 행위의 연속, 공간의 위계, 개방과 폐쇄에 의한 공간 패턴의 연결을 계획하였다. 공간은 행위의 종결점까지 단계적 Scale의 확장과 투명성을 부여, 심리적·공간적 전이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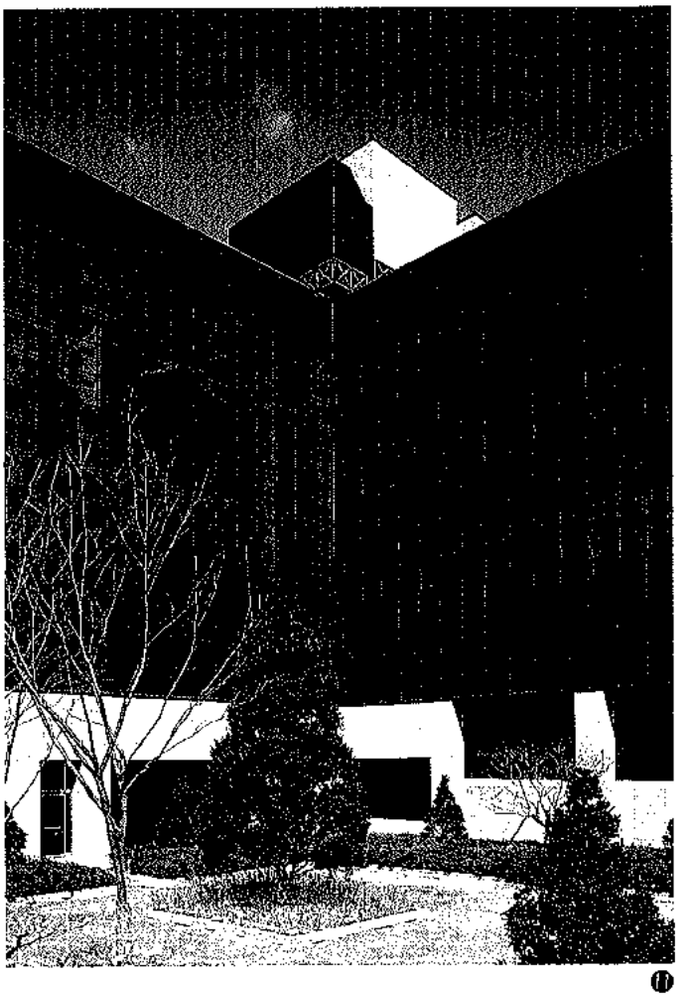
조형 계획은 형태 및 내부공간과의 일관성 획득을 전제로 하여, 동일 형태 반복에 의한 시각적 질서를 유추함으로써, 공간과 기능적 단위의 동질성을 표출하도록 의도하였다. 완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우리는 아직 결과를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완공후에는 좀더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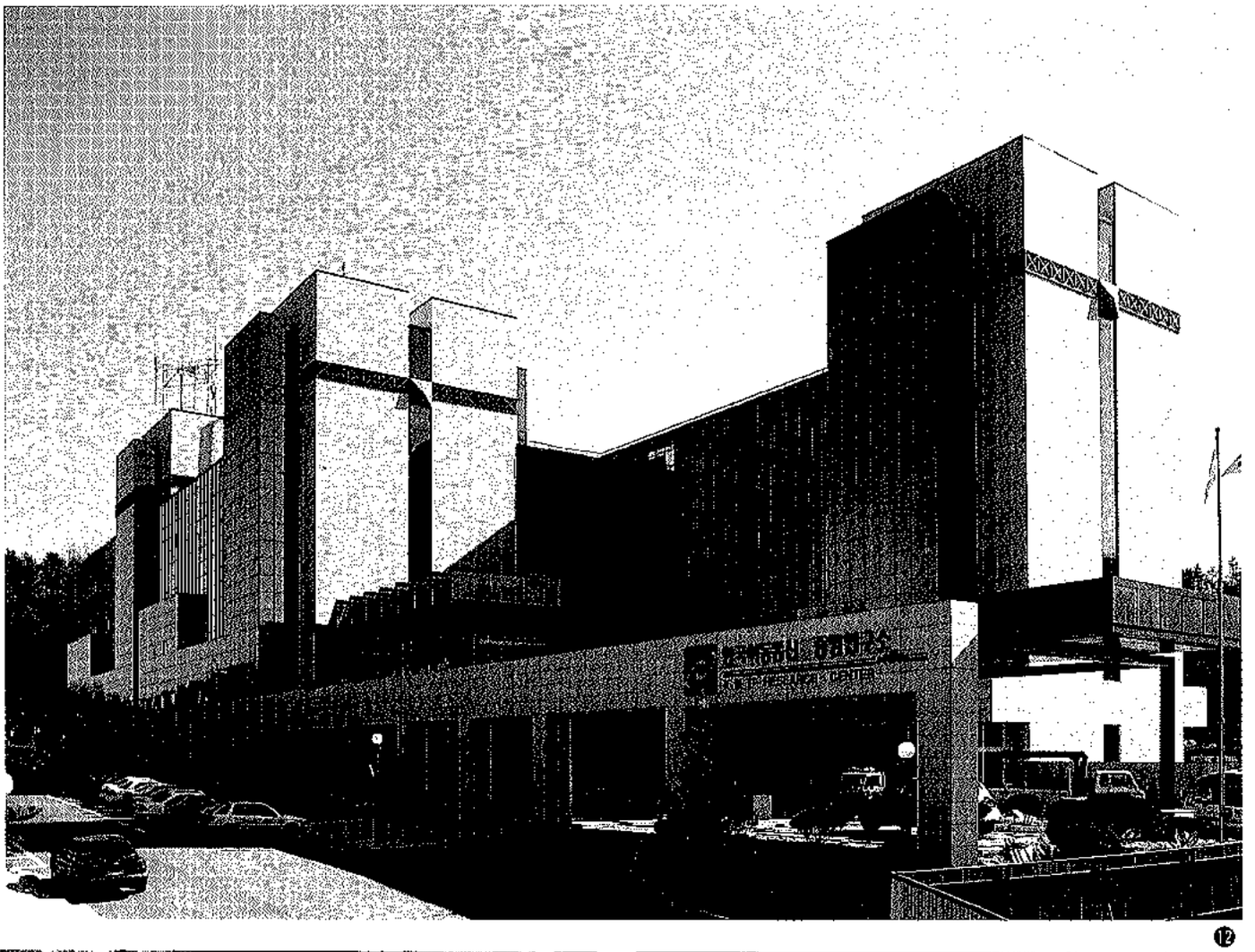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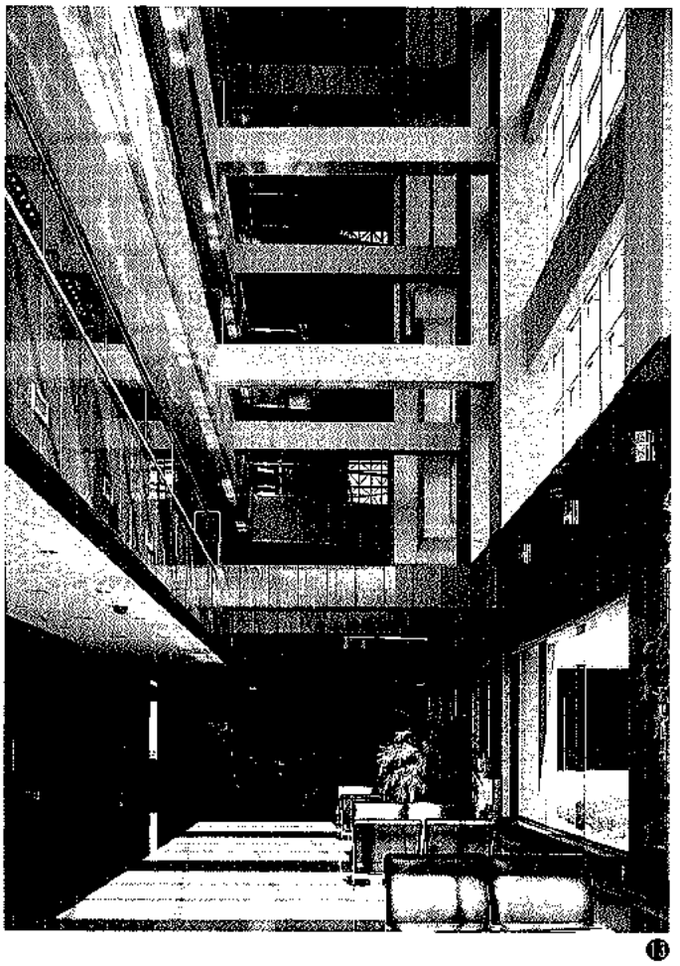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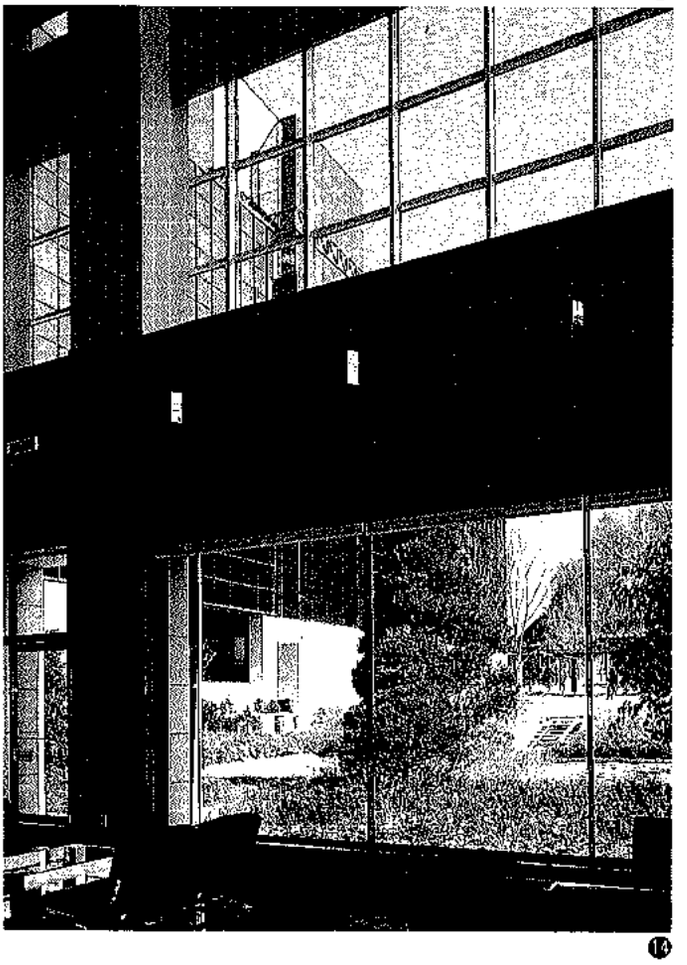
❻ 동측 원경
❼ 1층 평면도
❽ 기준층 평면도
❾ 북측 입면
❿ 남측정원과 외벽상세
⓫ 남측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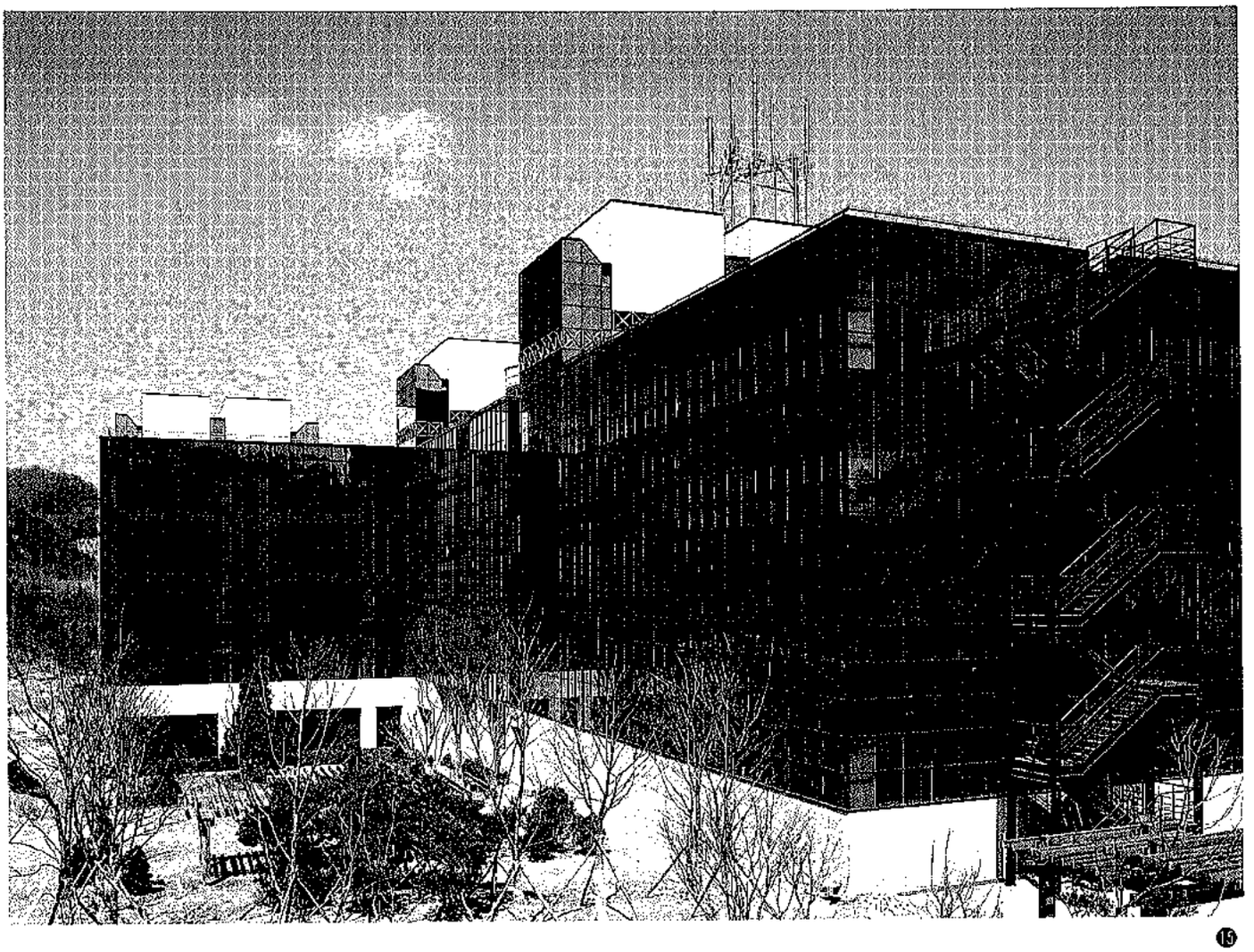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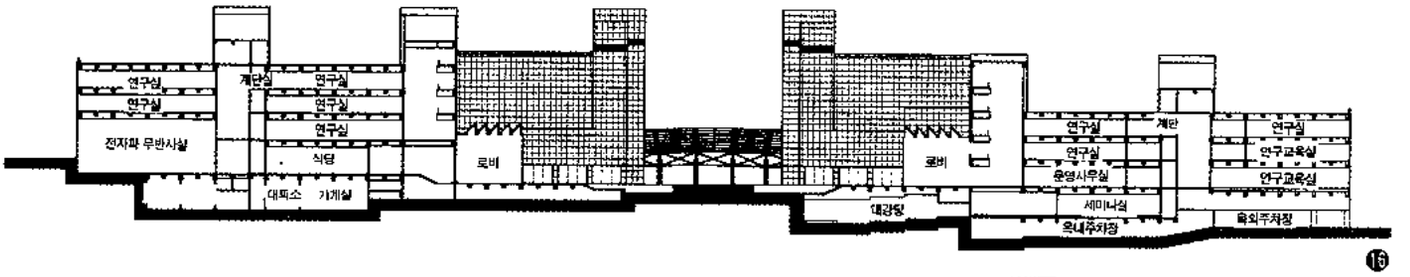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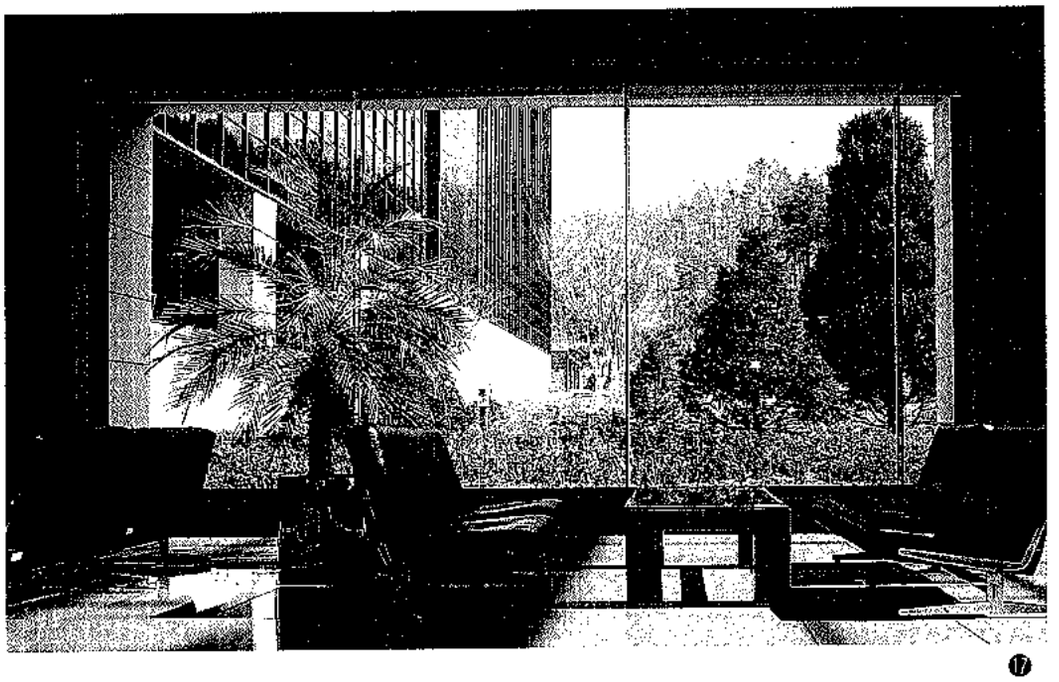
⑭



⑮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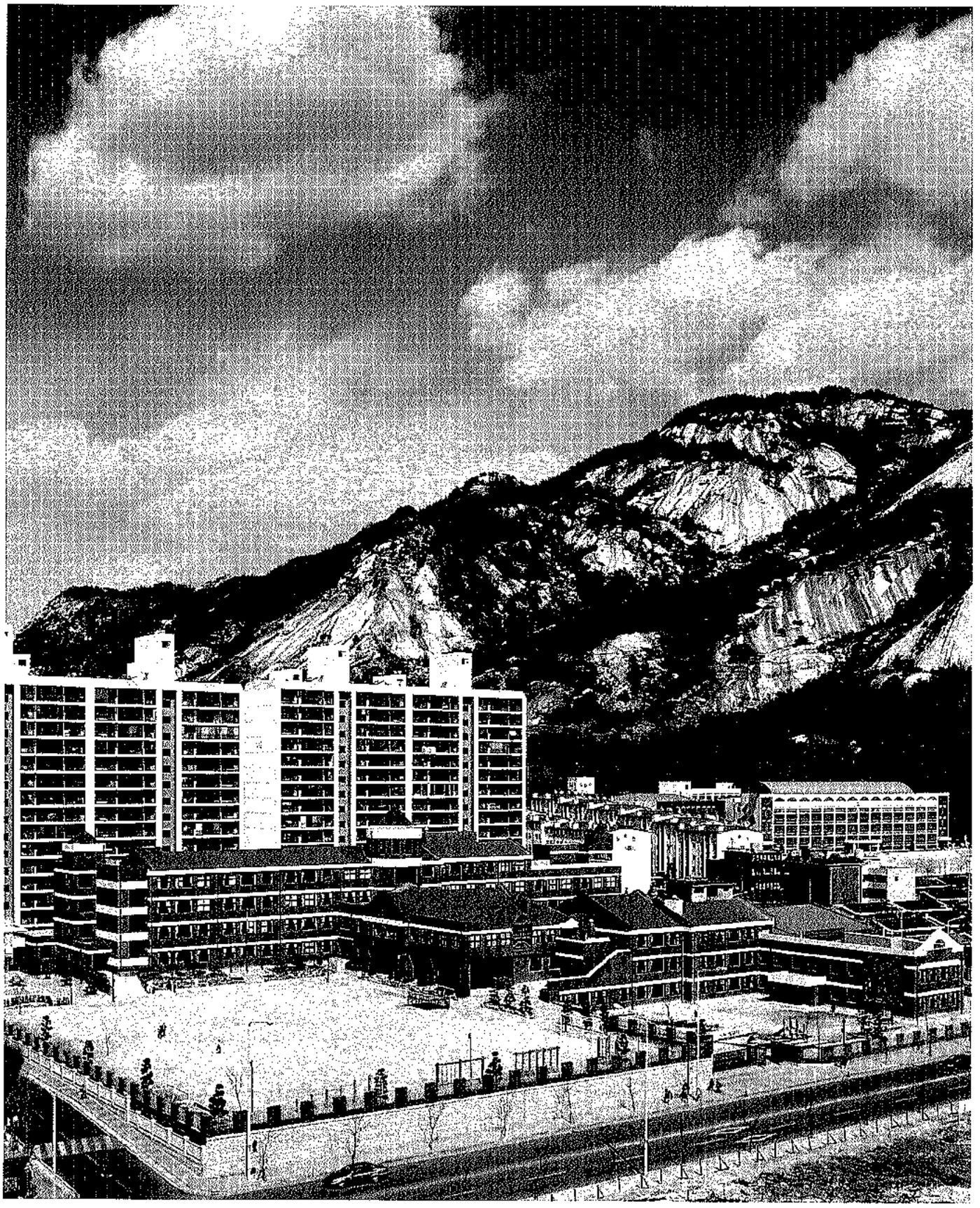
⑰

⑫북서측 전경
⑬모이드 된 로비
⑭로비에서 본 남측 외벽
⑮남측전경
⑯횡단면도
⑰로비 창을 통해 본 남측정원

서울불암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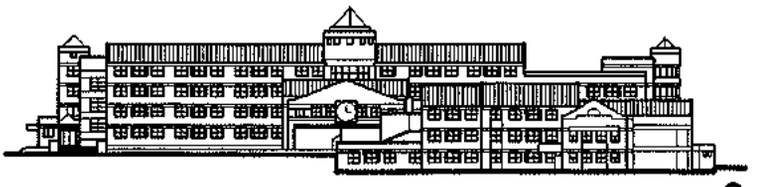
Seoul Bulahm Primary School

(주)동우건축+李好璡
Designed by Dongwoo & Lee, Ho-C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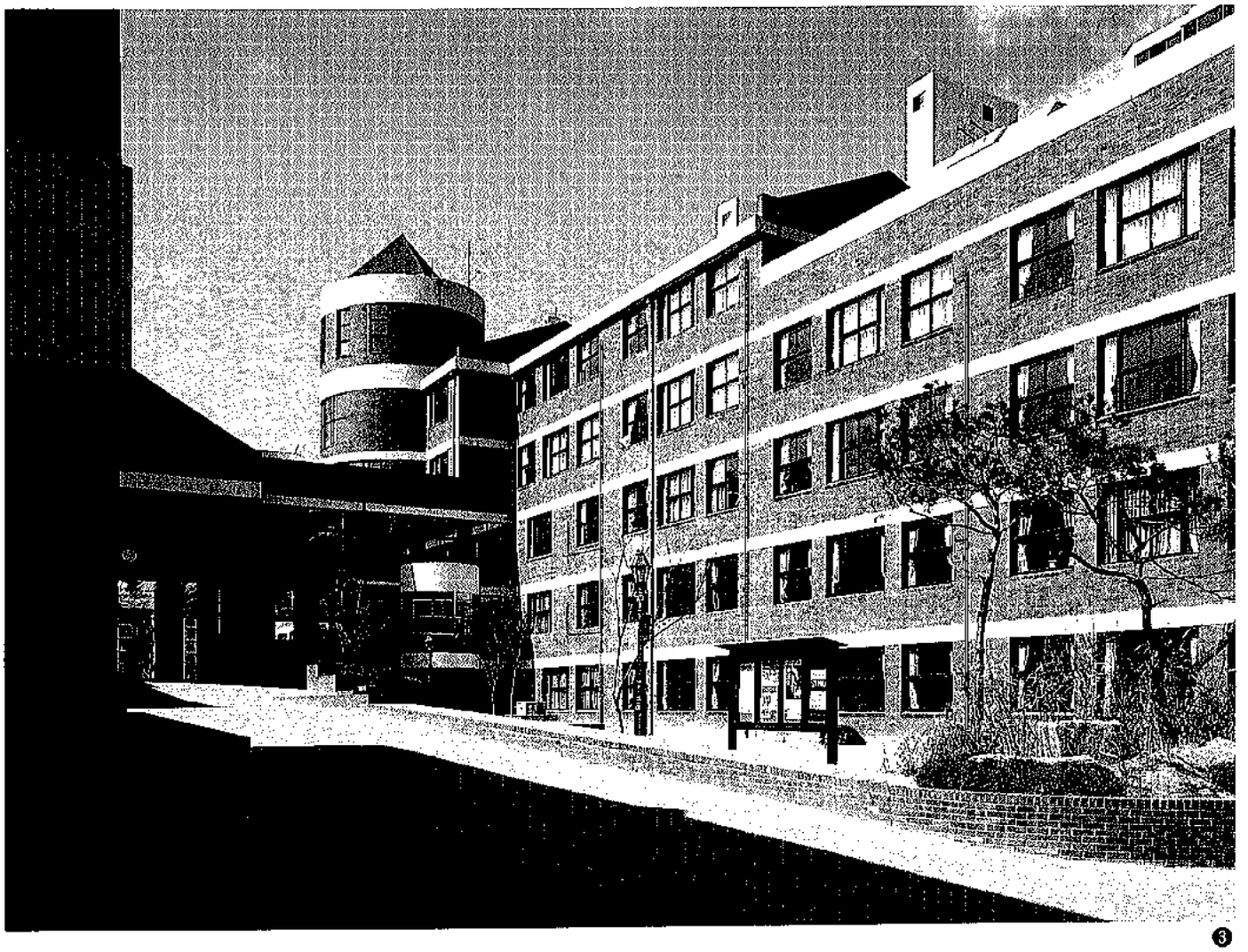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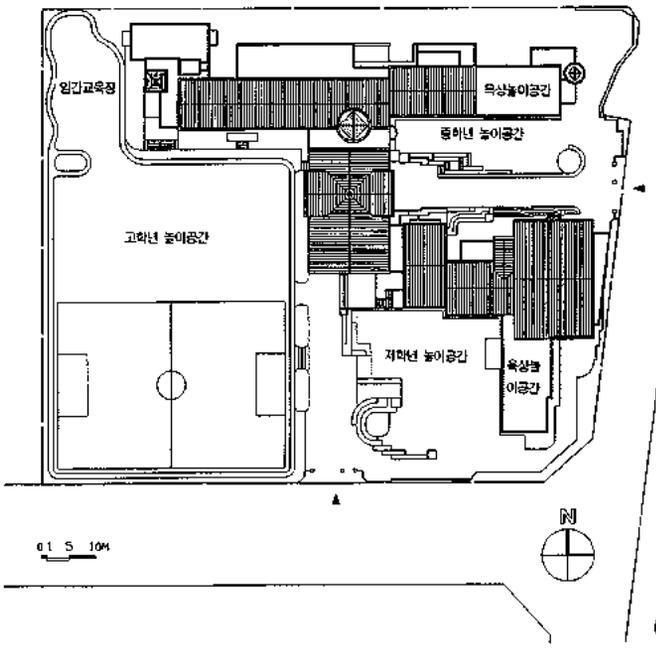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257
대지면적 / 11,800㎡
건축면적 / 2,768㎡
연면적 / 8,043㎡
건폐율 / 23.4%
용적률 / 68%
규모 / 지상4층(42학급+강당)
구조 /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 적벽돌 치장쌓기
설계참여 / 이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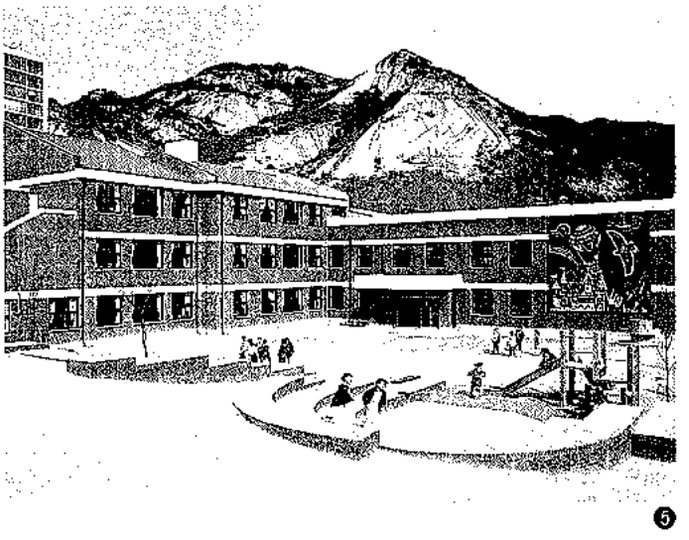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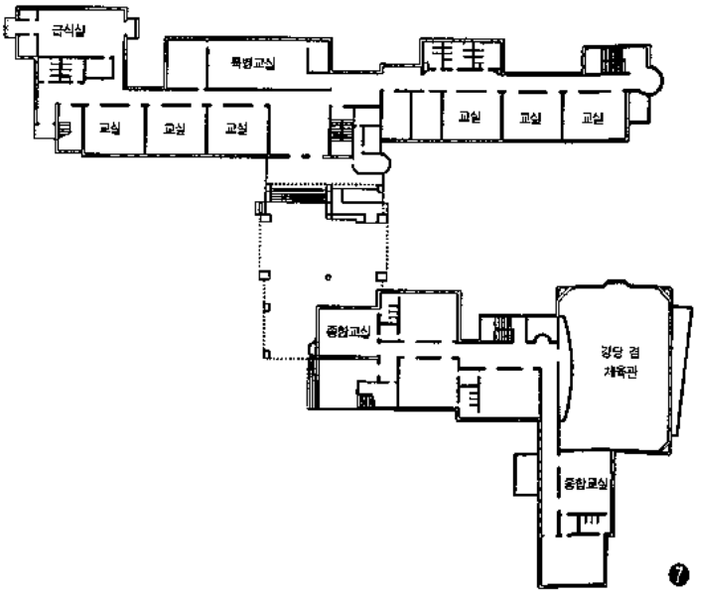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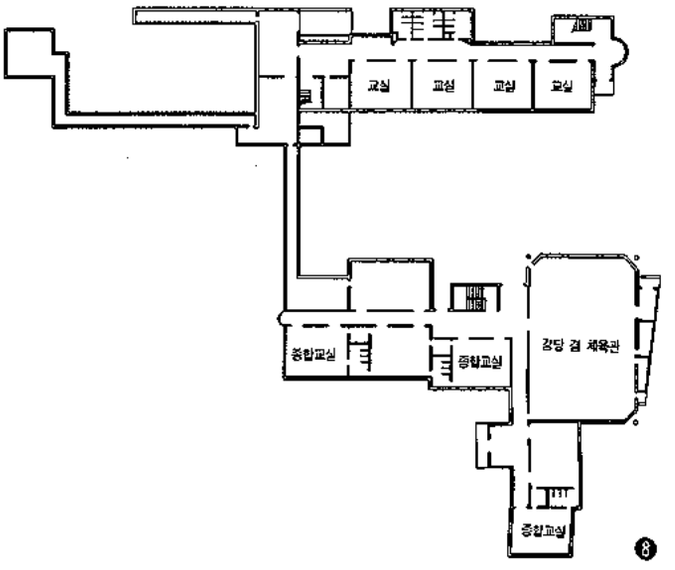
❺

❶ 전경
❷ 정면도
❸ 정문진입로
❹ 배치도
❺ 저학년 놀이공간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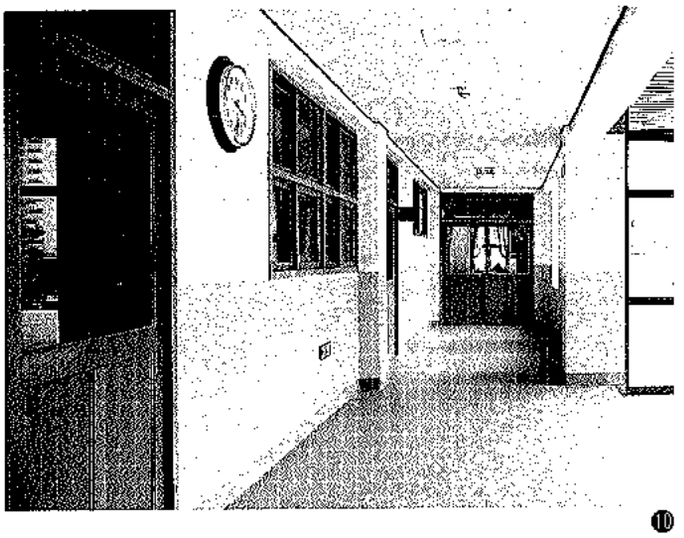

급식실
특별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중합교실
강당 겸
체육관
중합교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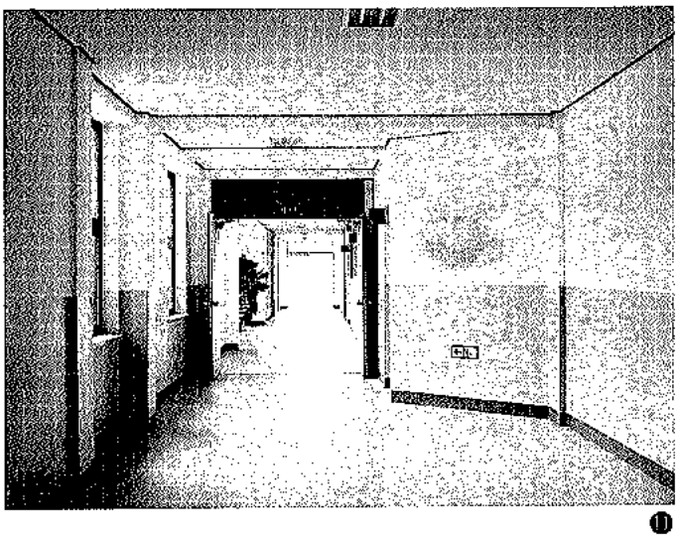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중합교실
중합교실
강당 겸 체육관
중합교실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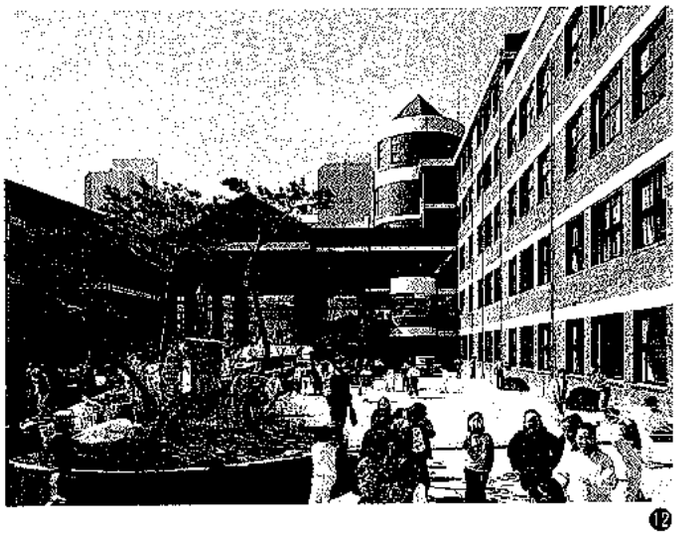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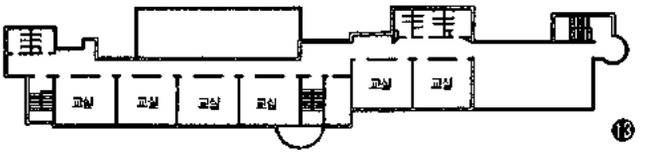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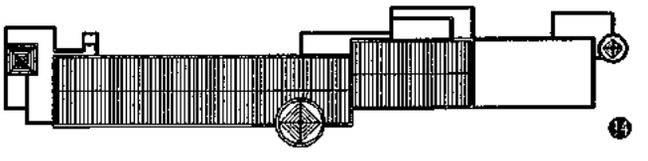
⓫



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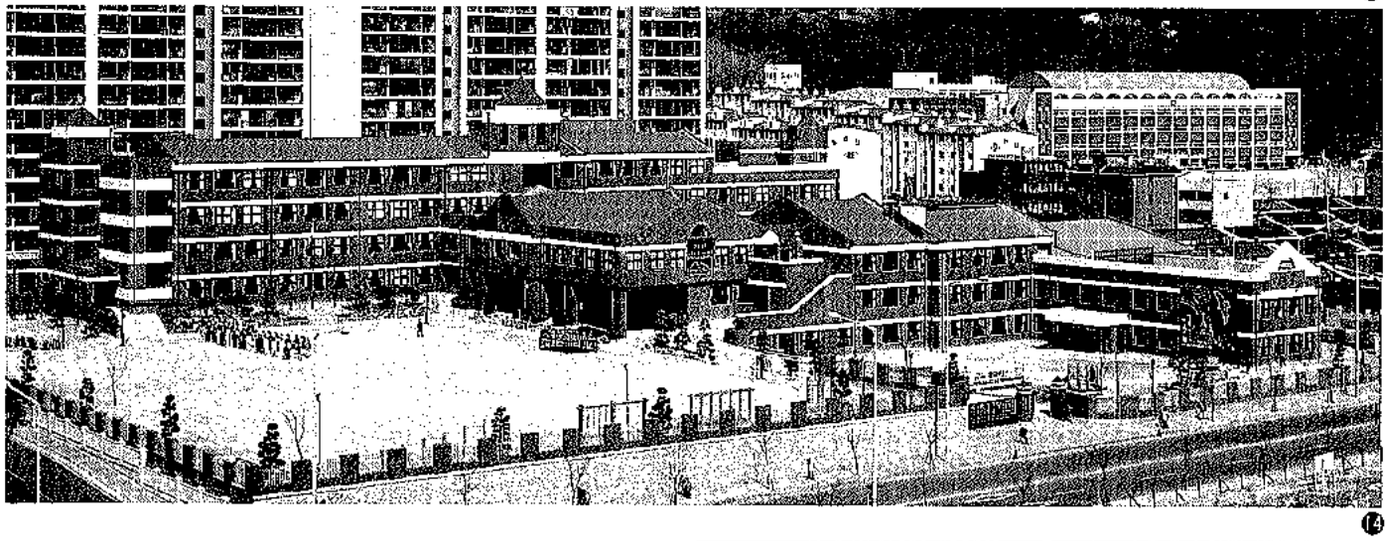
⓭



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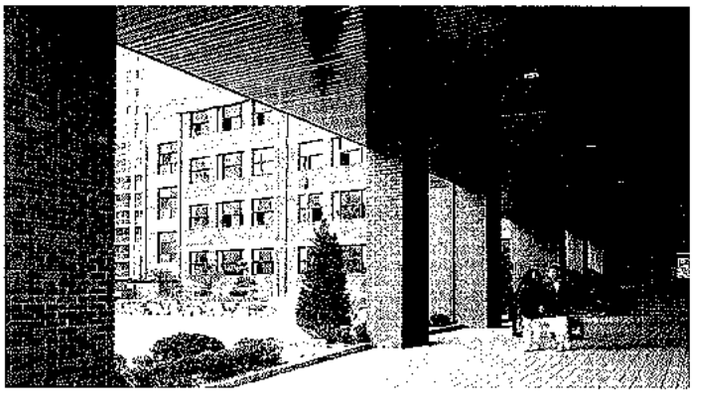
❻ 행정동 및 진입부
❼ 2층 평면도
❽ 1층 평면도
❾ 측면전경
❿ 실내색채 계획실 복도
⓫ 실내색채 계획실 복도
⓬ 중학년 놀이공간
⓭ 5층 평면도
⓮ 지붕층 평면도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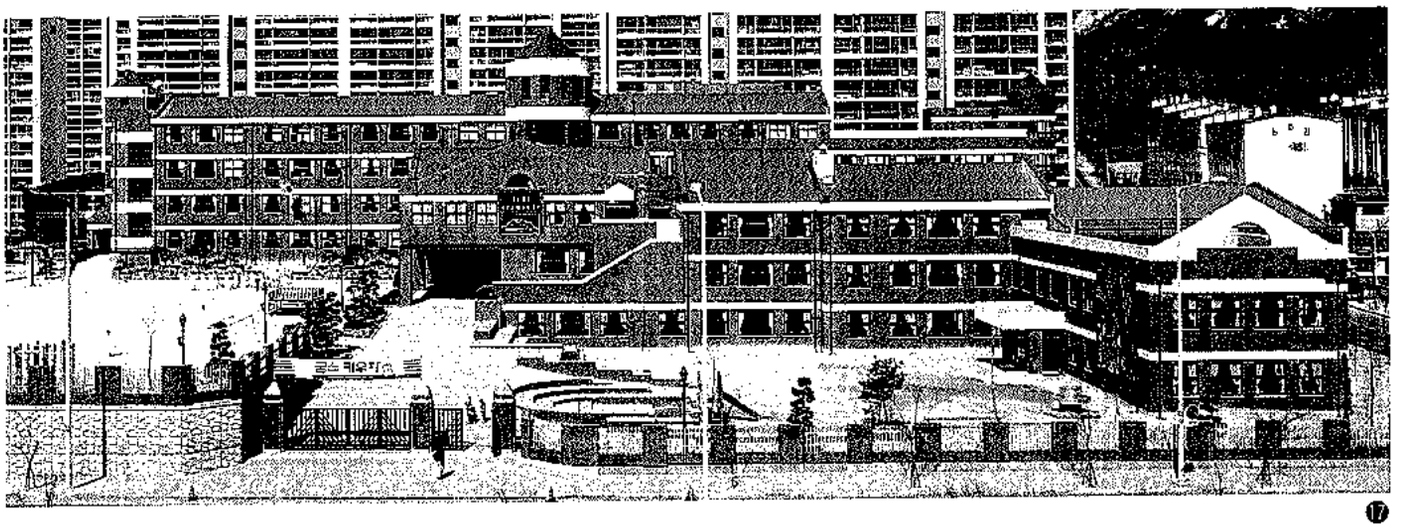
⑭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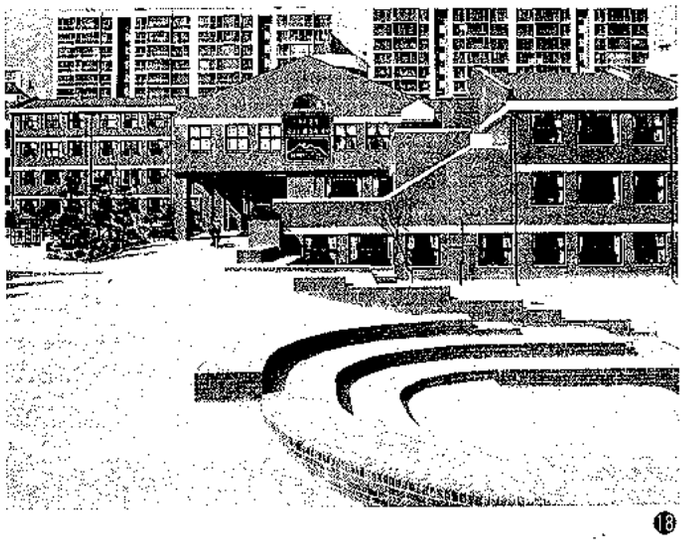


⑯

⑫ 고학년 놀이공간
⑬ 전경
⑭ 측면도
⑮ 행정동 하부
⑯ 교문 및 정면부
⑰ 저학년 놀이공간
⑱ 행정동 및 피로티
⑲ 4층 평면도
⑳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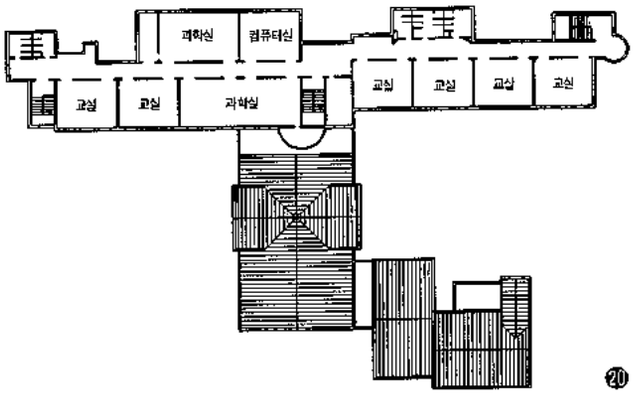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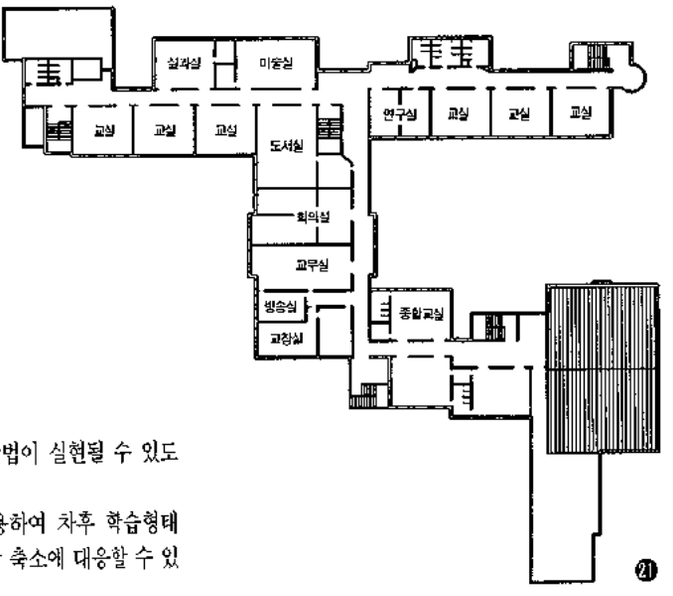


⑱

⑲



⑳



㉑

기존의 학교가 지닌 제반 교육환경과는 달리 미래 교육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건축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건국대 이호진 교수에 의해 '국민학교 건축계획의 모형연구'란 제목으로 교육부에 제출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해 최초로 계획 설계된 시범학교가 서울 불암국민학교이다. 기존 표준도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는 달리 모듈변경, 아동들의 성장에 따라 저학년 놀이공간, 중학년 놀이공간, 고학년 놀이공간 등으로 옥외공간을 분리하였고, 학년별로 교사실, 교사 휴게실 및 연구실 등을 선설하였다. 저학년 교실은 2개 교실당 1개의 교사실과 교실별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종합교실로 계획하여 아동들과 교사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며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3×2.5로 기본모듈을 적용하여 차후 학습형태의 변화에 따른 교실의 성장 축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도 부여하였다.

배치에 있어서는 저학년동은 교문에 근접배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실은 고학년동에 인접시켜 상호 연계성을 원활히 하였다. 또한 강당은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하였다.

형태에 있어서도 연구안을 최대한 적용, 기존 학교의 사각형 형태를 탈피, 아동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삼각형이나 원형을 사용하였다. 특히 내부 색채계획은 아동들의 선호색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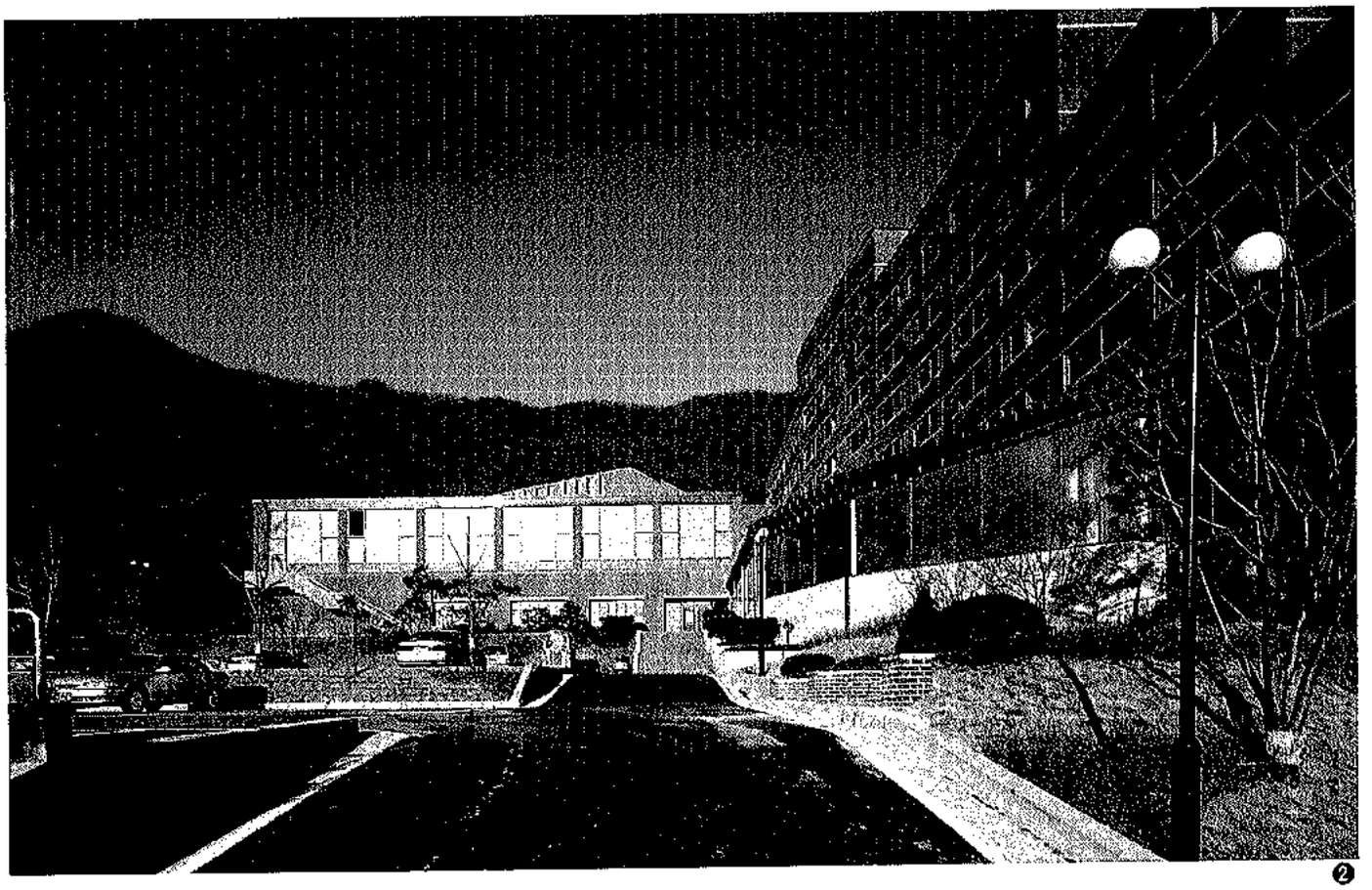
상기의 연구·계획이 불암국민학교를 통하여 실체화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의 교육환경으로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지만, 교육 전반적으로 볼 때 극히 국부적이고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열린 교육을 위해서는 시설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제반학자, 행정가들의 지속적인 연구, 협조 및 투자가 요망된다.

소망 수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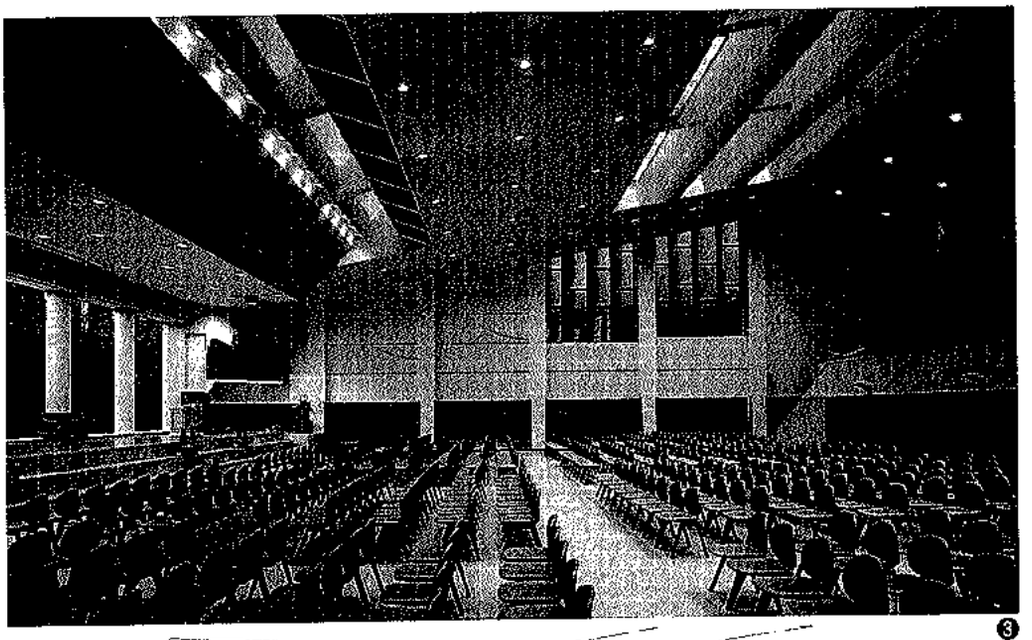
Somang Retreat Center

崔東奎/(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Kyu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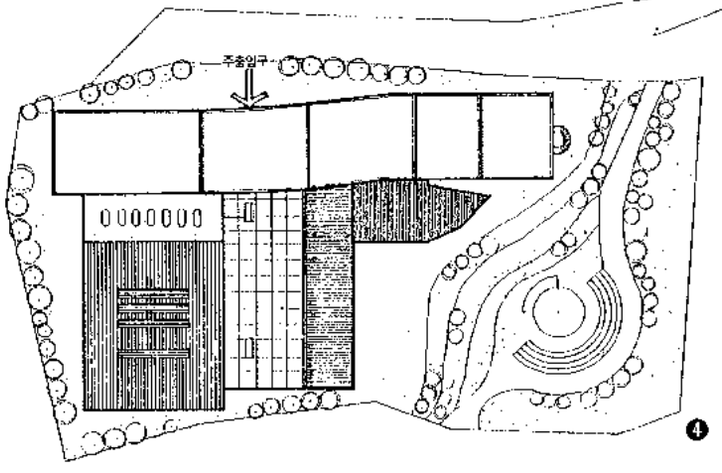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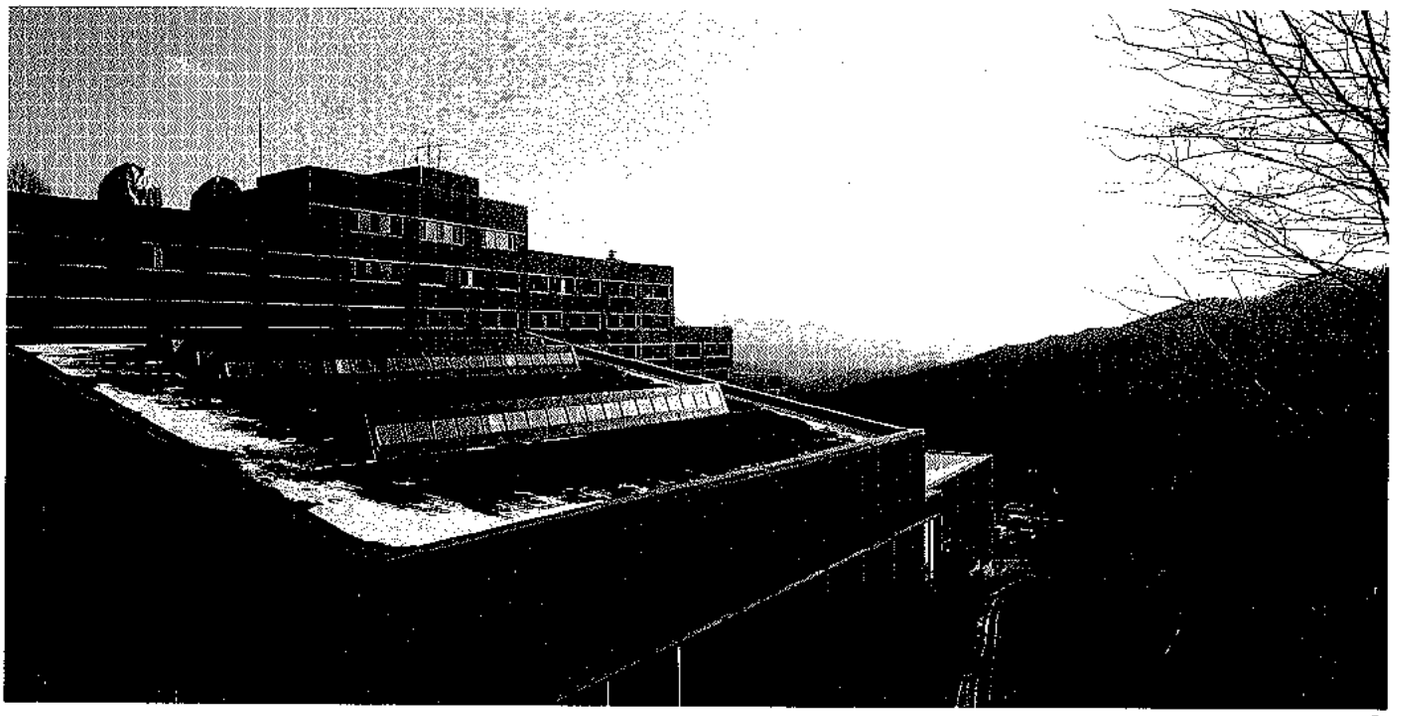
❸

❶ 주진입로에서 본 남동측 전경
❷ 주차장에서 본 전경
❸ 대성전 내부
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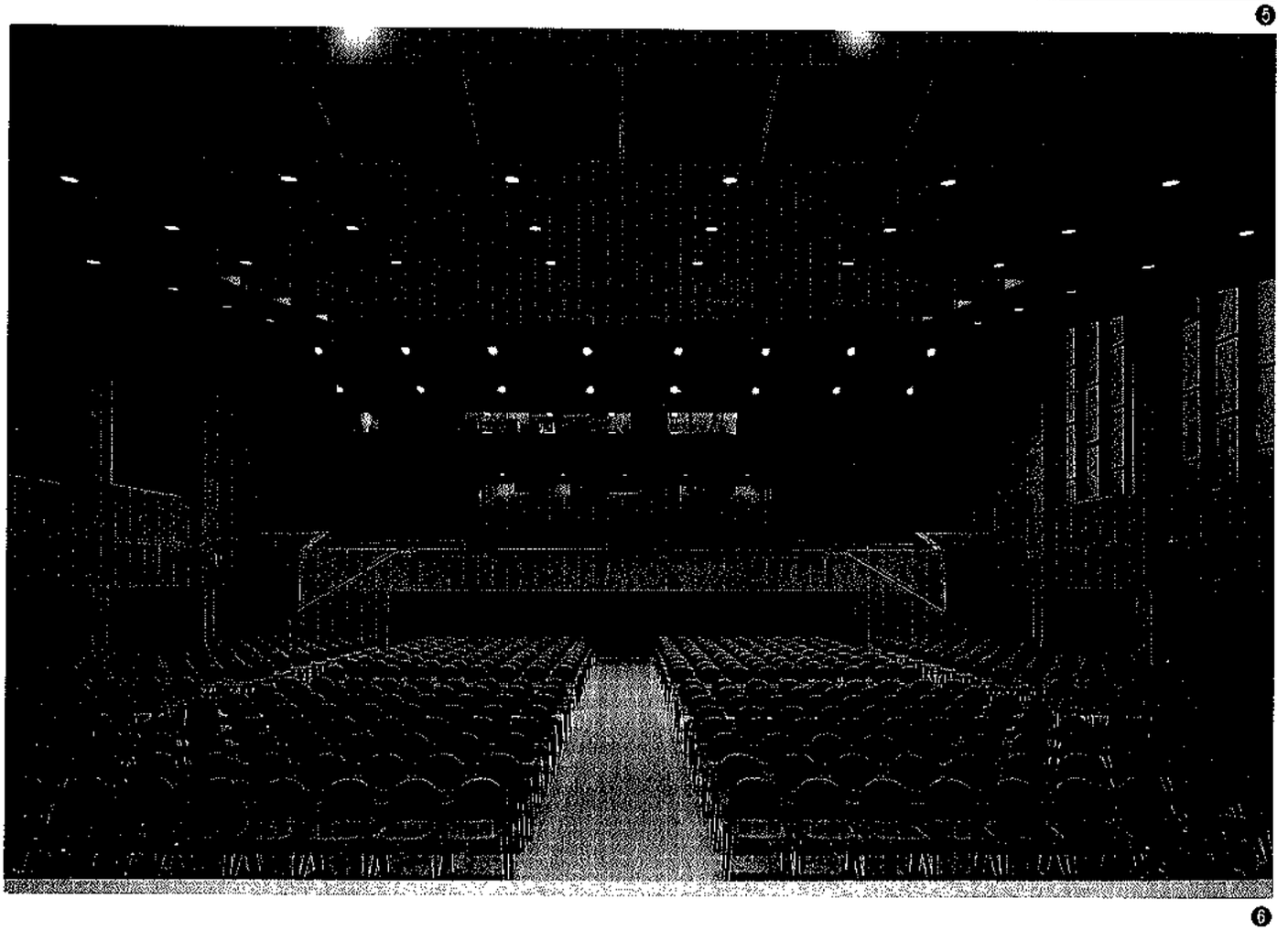


❹

위치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산 51
지역·용도 / 자연녹지지역, 종교시설
대지면적 / 9,069㎡
건축면적 / 3,725.39㎡
연면적 / 14,276.88㎡
건폐율 / 41.07%
용적률 / 145.68%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적벽돌
지붕-목자판(평슬라브), 대성전
(아스팔트싱글)
설계담당 / 오상열, 손윤호, 정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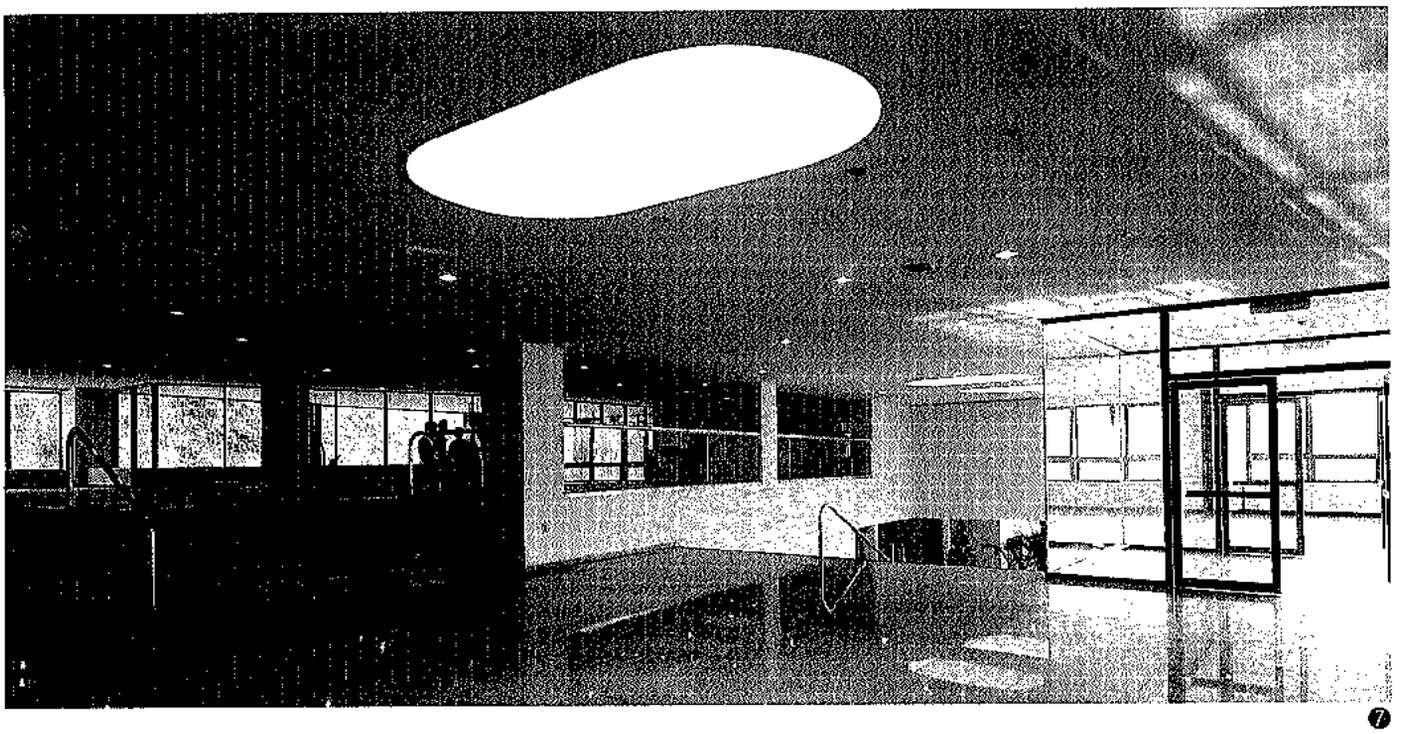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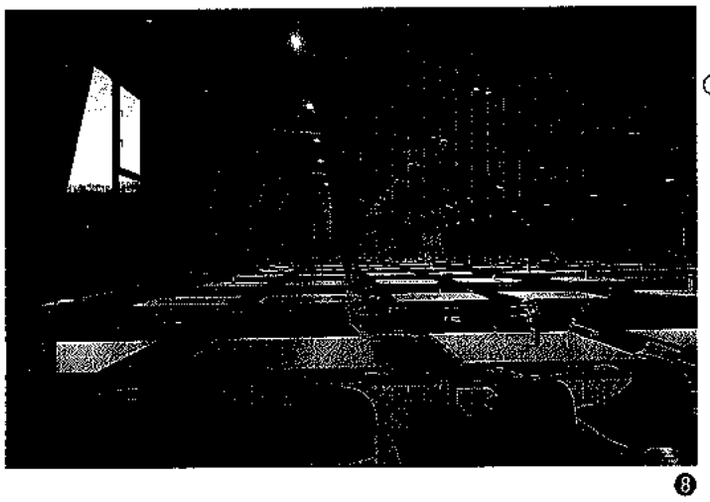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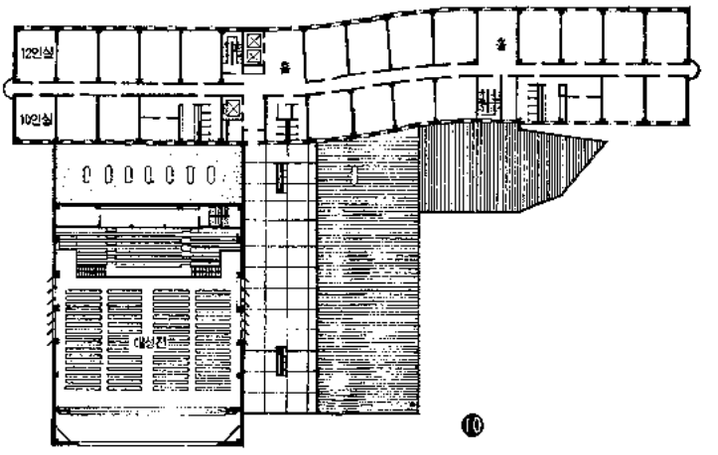
산에, 그것도 깊은 산에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환경파괴요, 잘해도 좋은 소리 듣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1천명이 일시에 모이고, 식사하고, 잘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행동이 산속의 정적을 깨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숙박동의 볼륨이 7층이나 되는 것에 당황했지만, 기껏 그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2개층씩 후퇴시켜 구성한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 내 머리 속에 숙제로 남아 있던 종교시설의 수양관이 일반회사의 연수시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테면 Corbusier가 설계한 La Tourette의 수도원을 상상해 보면서 종교시설의 연수원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게된 것이다. 깨달음이 항상 사후에 오는 것, 그것 또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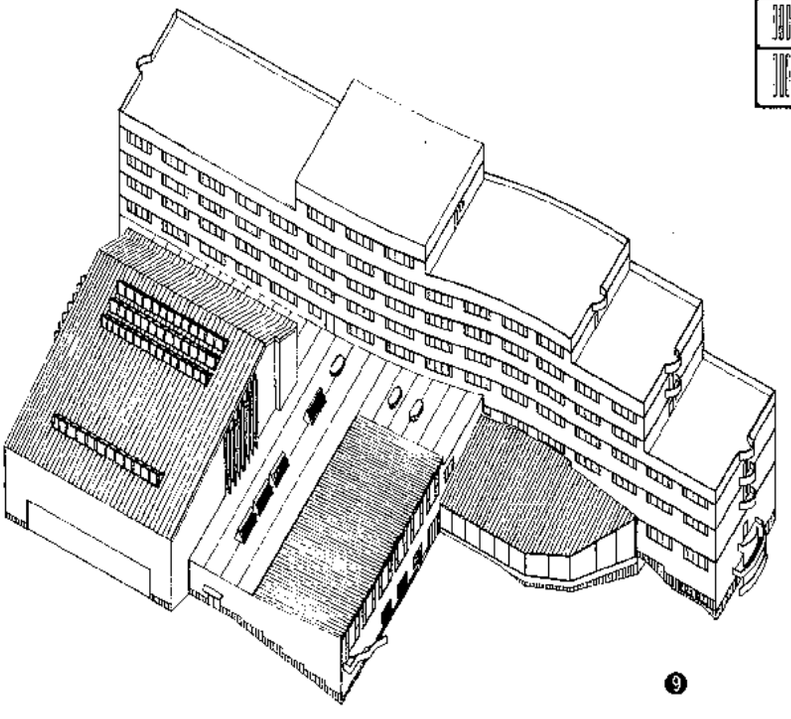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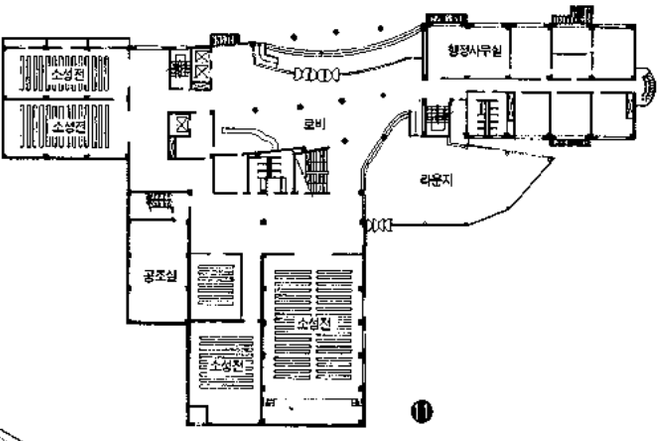
❽



❿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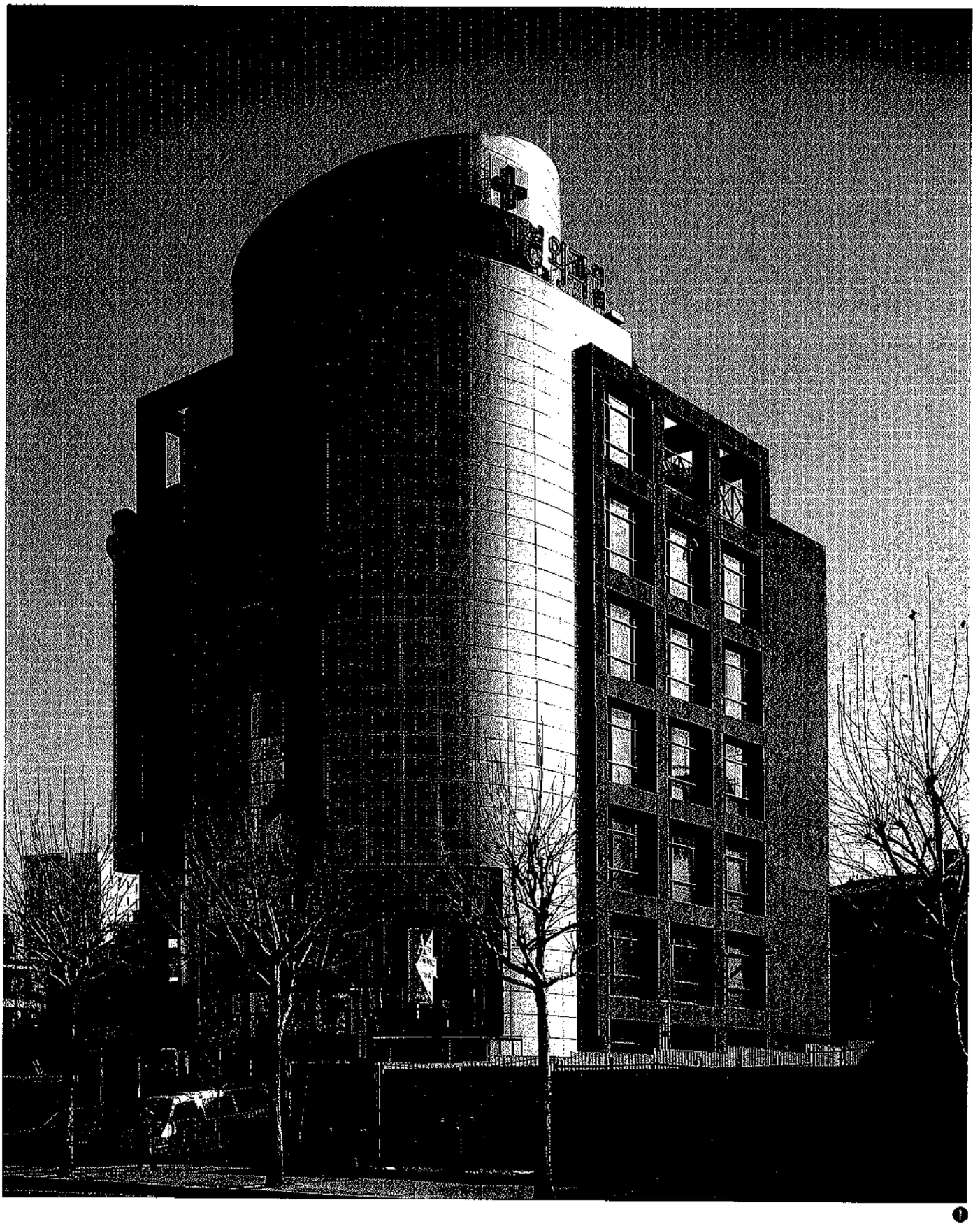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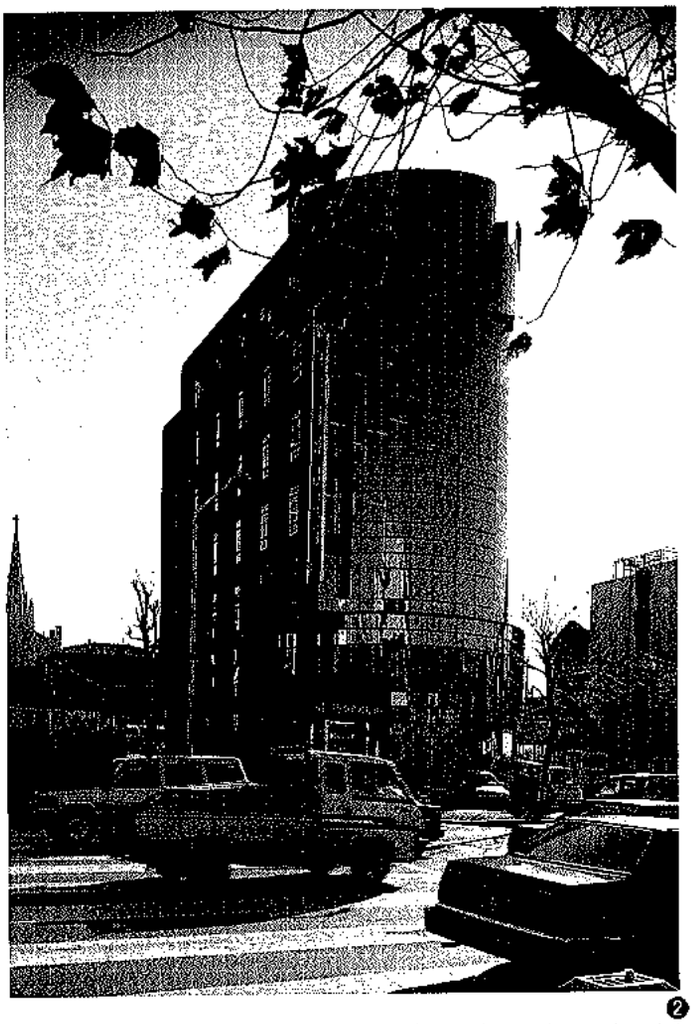
❺ 남서측 외부 전경
❻ 대성전 내부
❼ 2층 내부 전경
❽ 식당 내부 전경
❾ 엑소노메트릭
❿ 3층 평면도
⓫ 1층 평면도

S·J 빌딩
Sangji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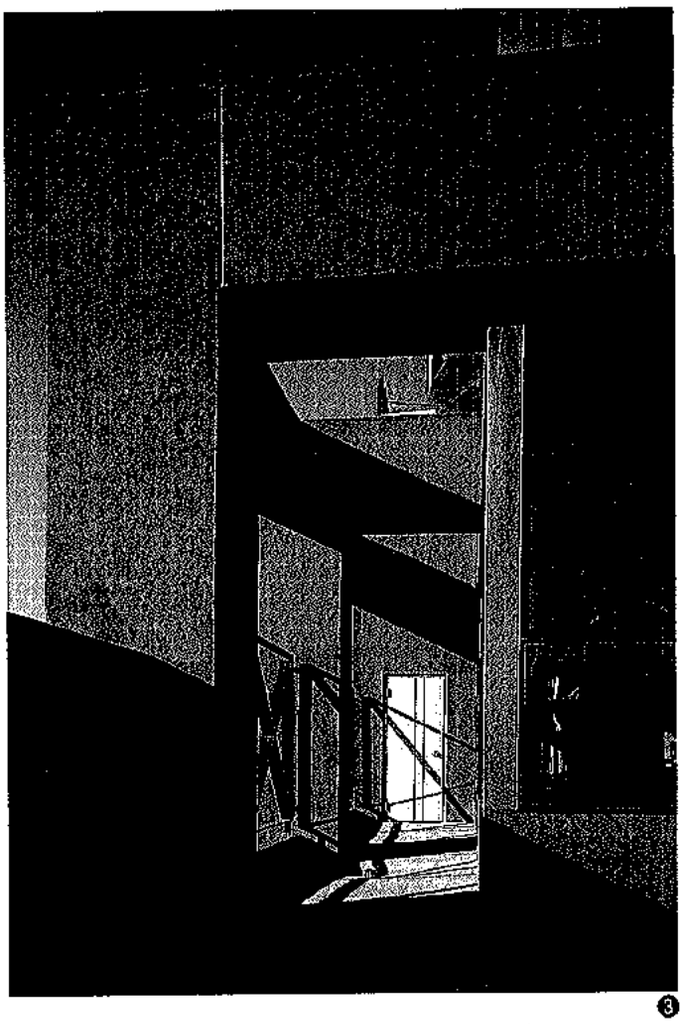
金春雄+李元浩/상지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oon-Woong & Lee, Won-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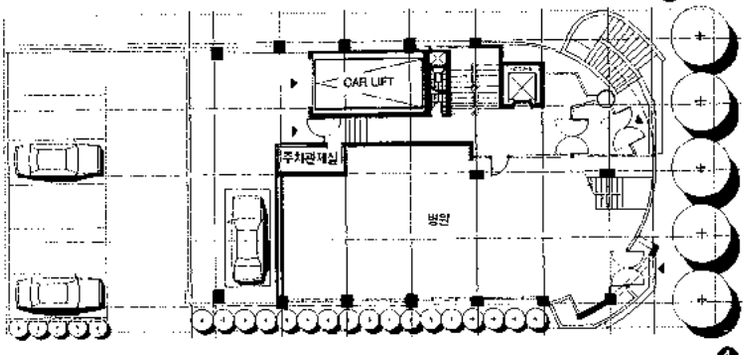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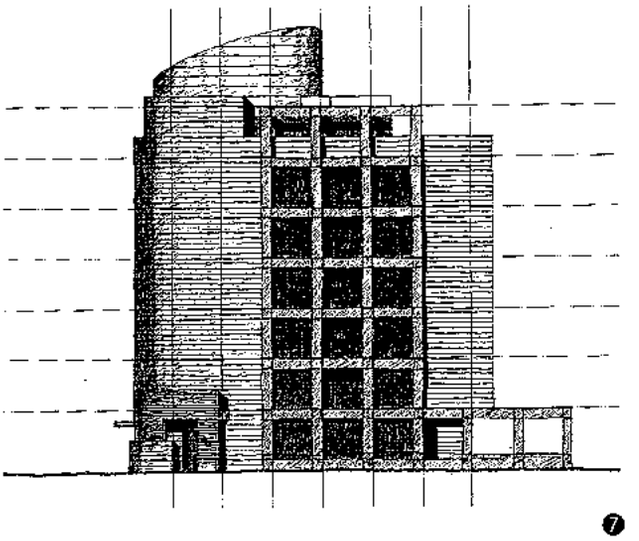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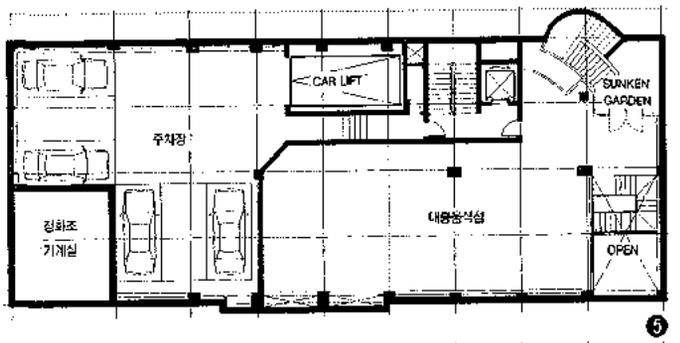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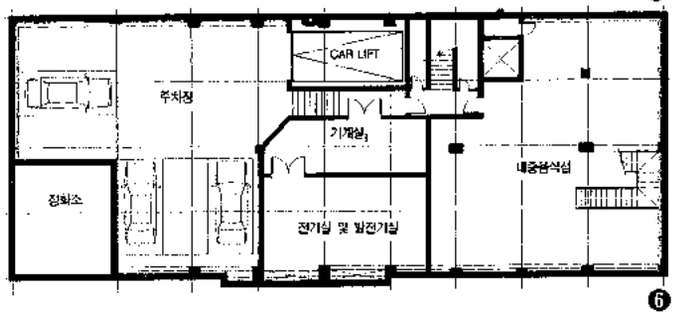
❹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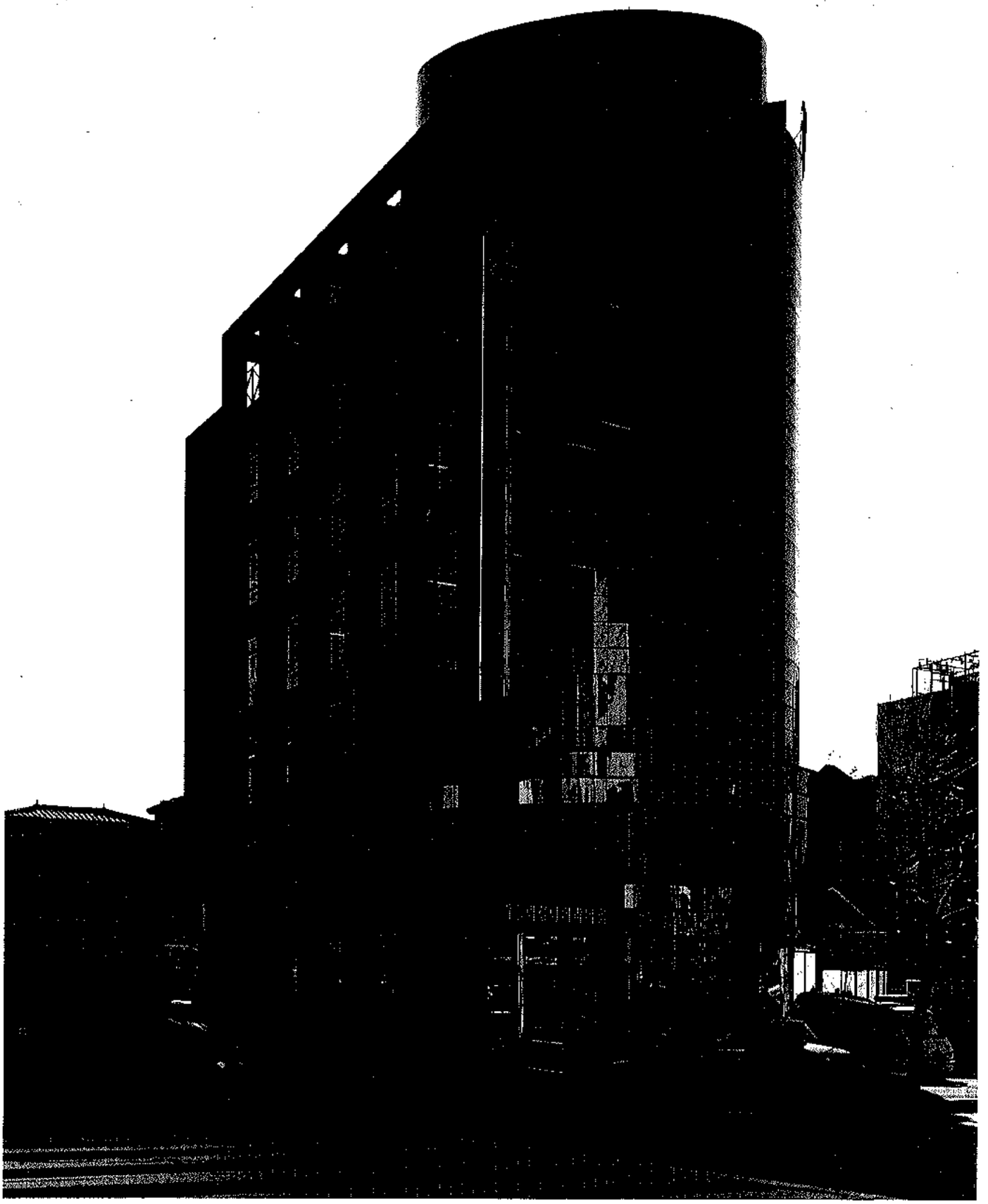
❺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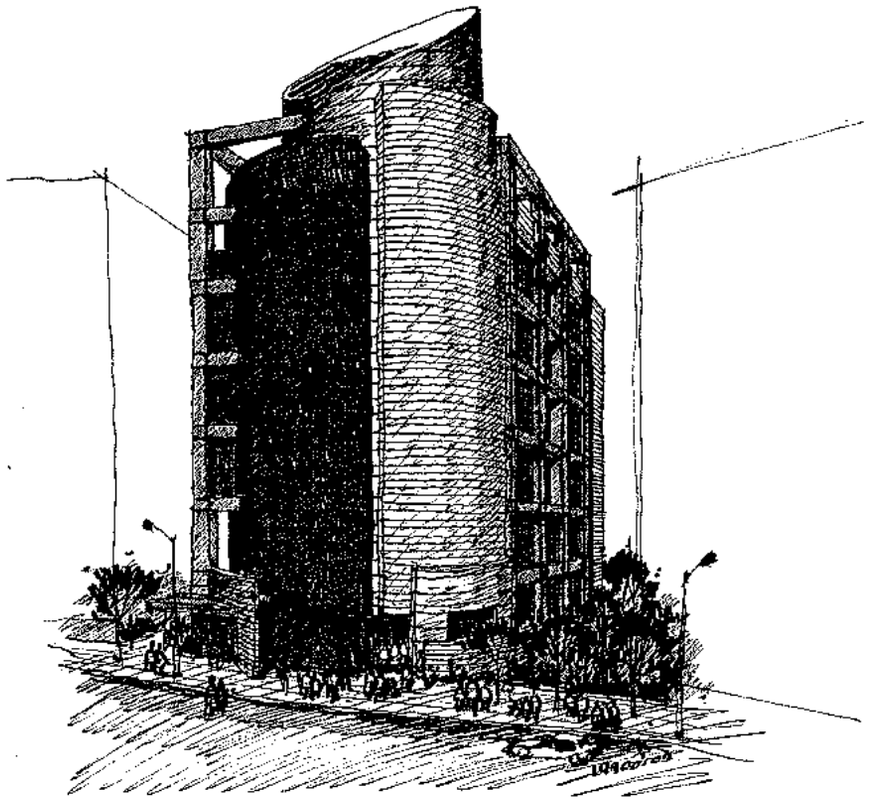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1-5,6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598.60㎡
건축면적 / 298.34㎡
연면적 / 2,617.70㎡
건폐율 / 49.84%
용적률 / 298.49%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외부마감 / 알루미늄 복합패널, 아이소코트T 24컬러복층유리

❶ 우측전경
❷ 정면전경
❸ 옥상부분 디테일
❹ 1층 평면도
❺ 지하 1층 평면도
❻ 지하 2층 평면도
❼ 입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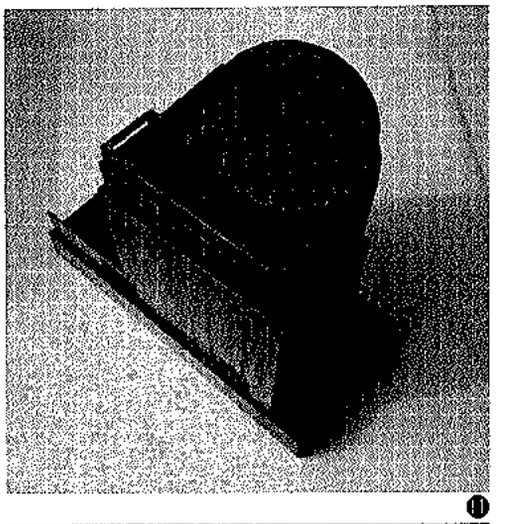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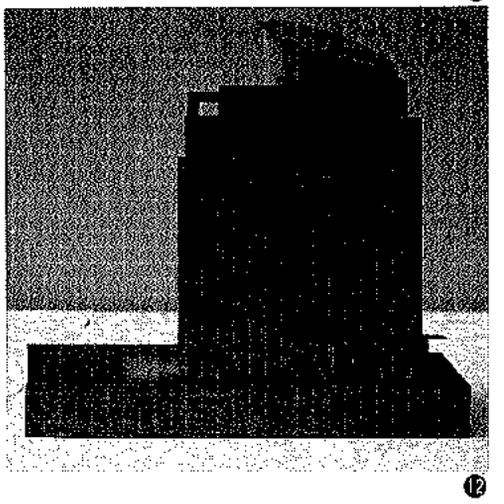
❽ 좌측전경
❾ 최종안 스케치
❿ 초기안 스케치
⓫ 모형 1
⓬ 모형 2
⓭ 7층 평면도
⓮ 4~5층 평면도
⓯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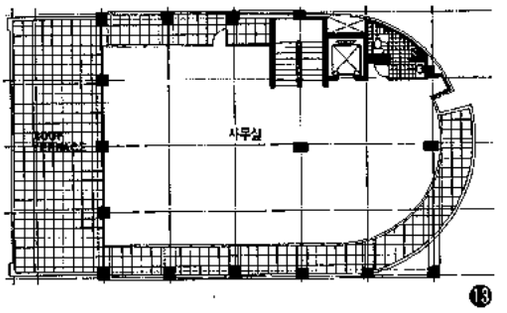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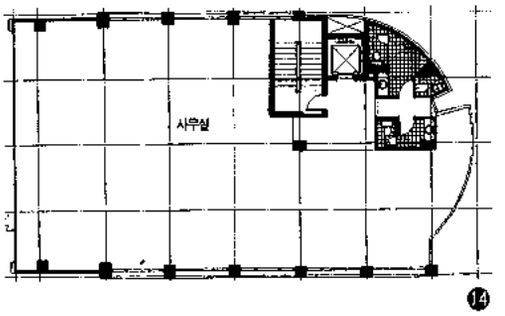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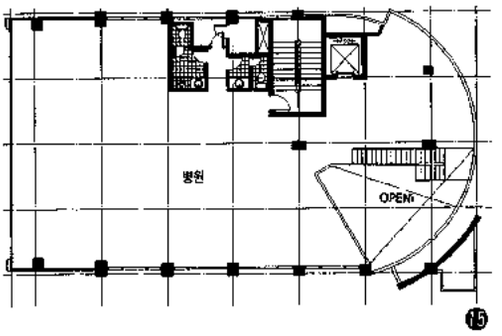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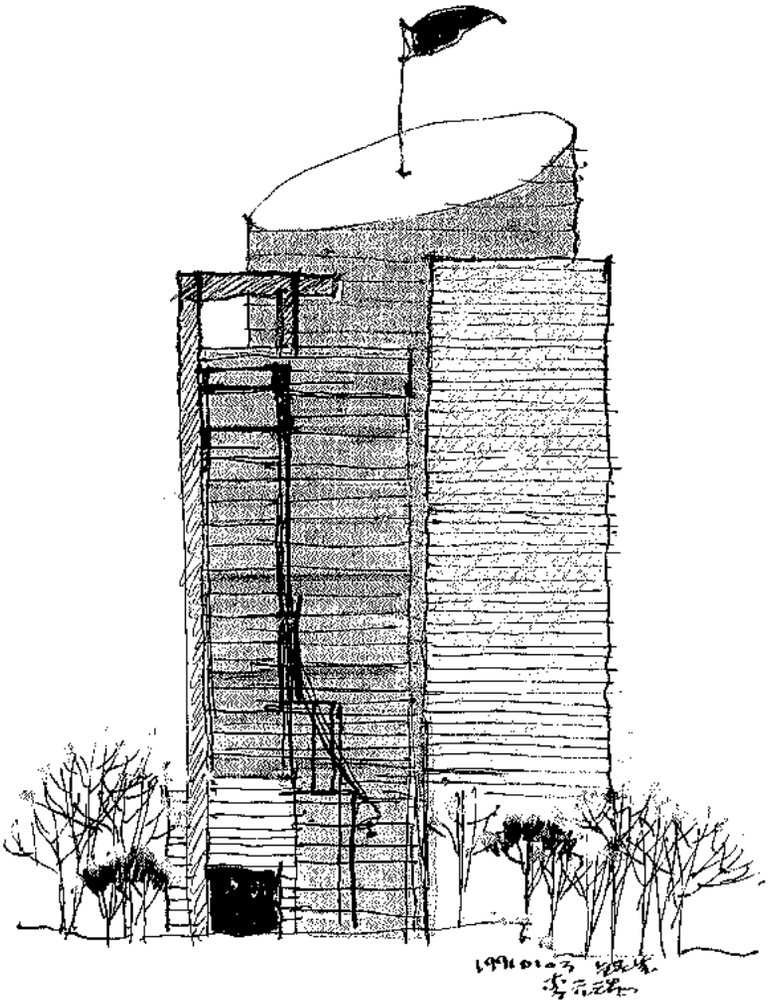
⑬



⑭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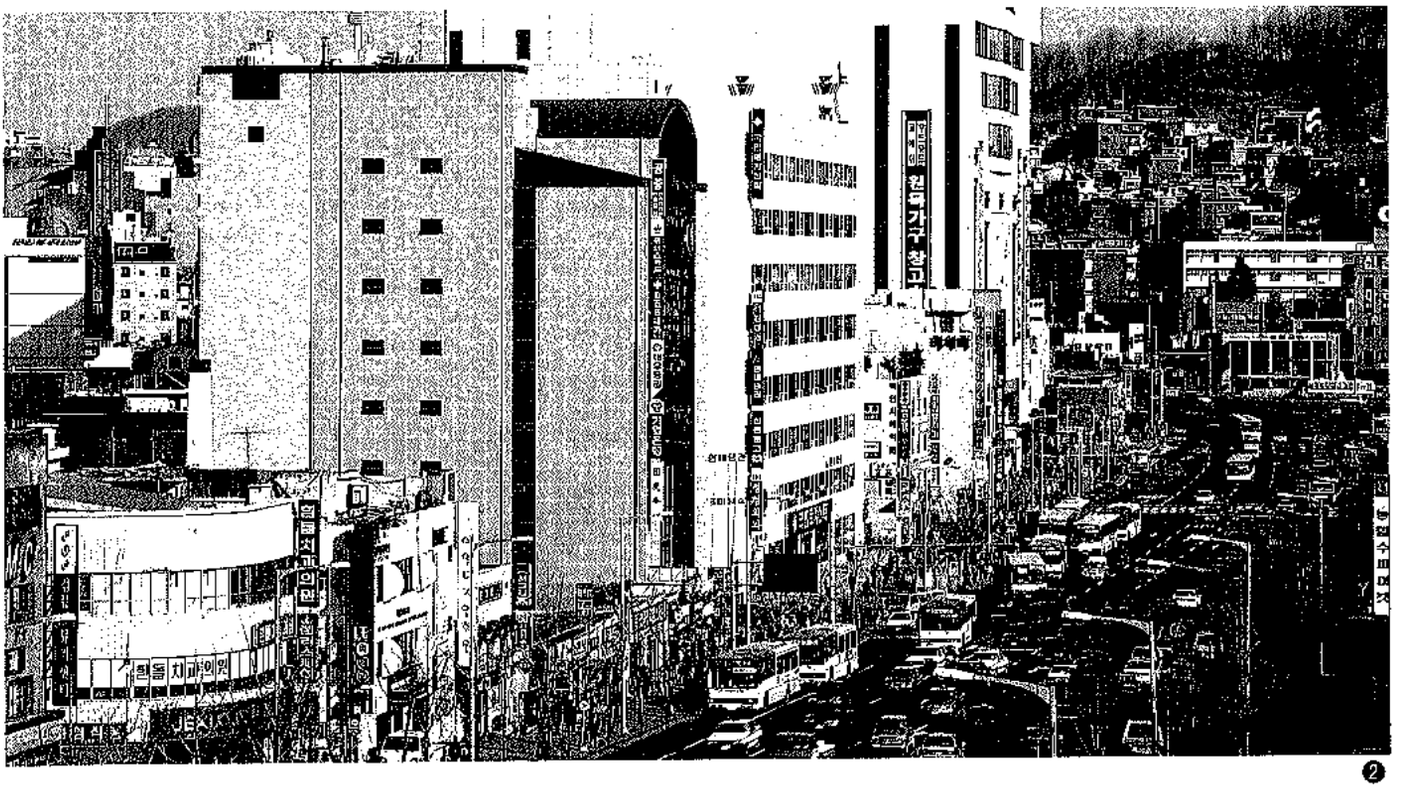
⑩

거촌빌딩
Keochon Building

兪元在/종합건축사사무소 다건축
Designed by Yoo, Won-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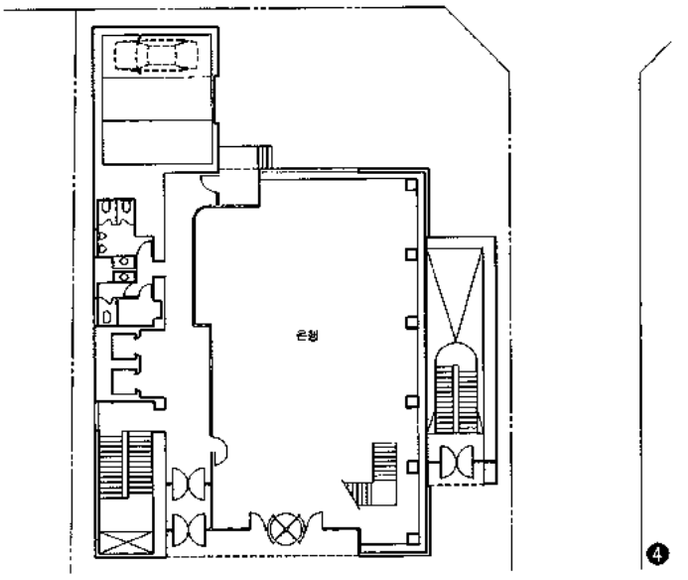
❶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72-19, 20, 21
지역·지구 / 일반주거·준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794.8㎡
건축면적 / 455.24㎡
연면적 / 4,046.99㎡
건폐율 / 57.27%
용적률 / 357.71%
규모 / 지하2층, 지상8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외벽－THK 30 화강석 버너구이
THK 24 복층 파스텔 유리
지붕－THK 0.5 동판잇기
설계담당 / 채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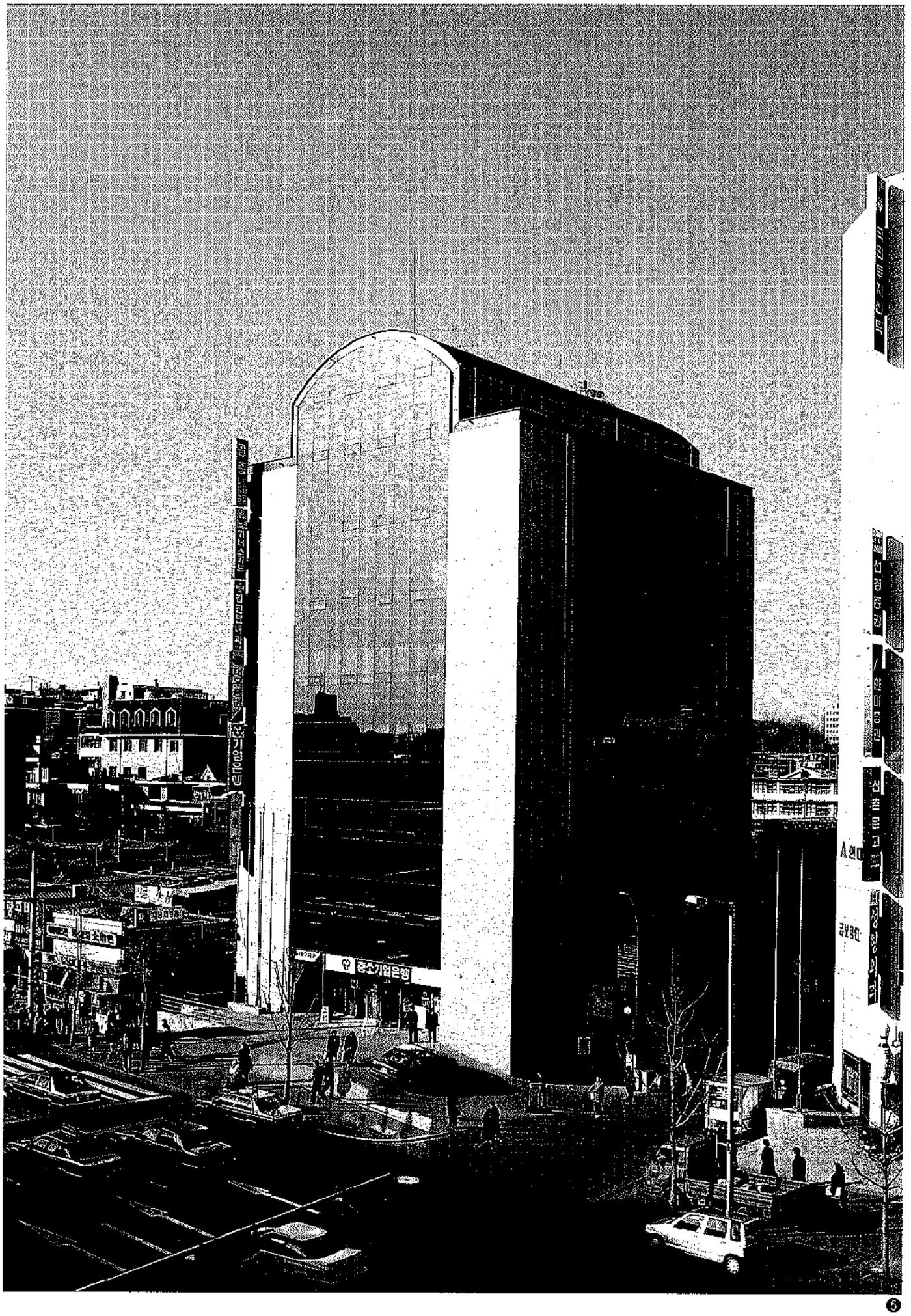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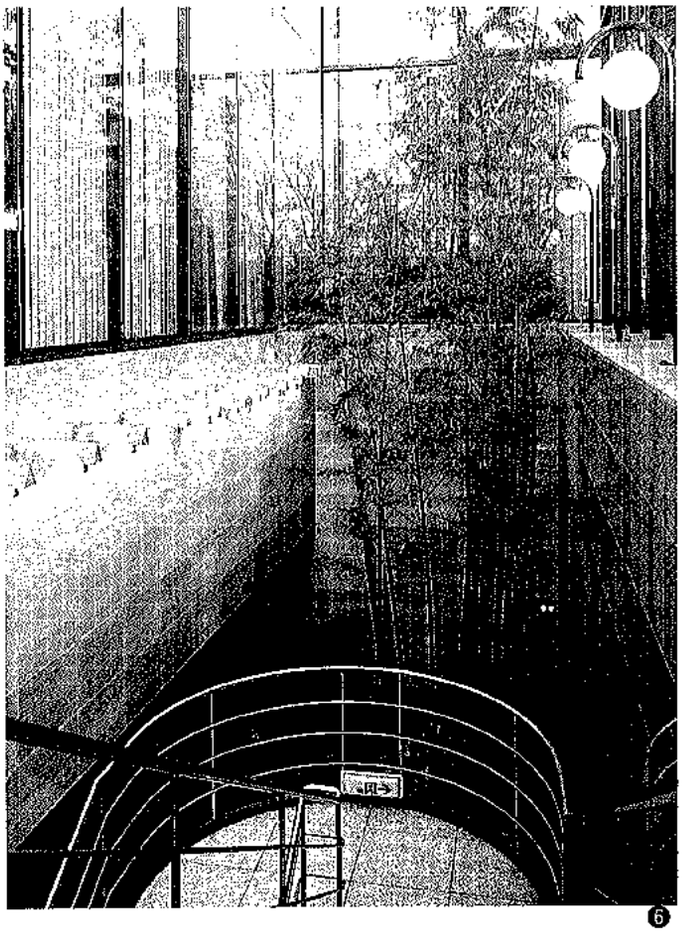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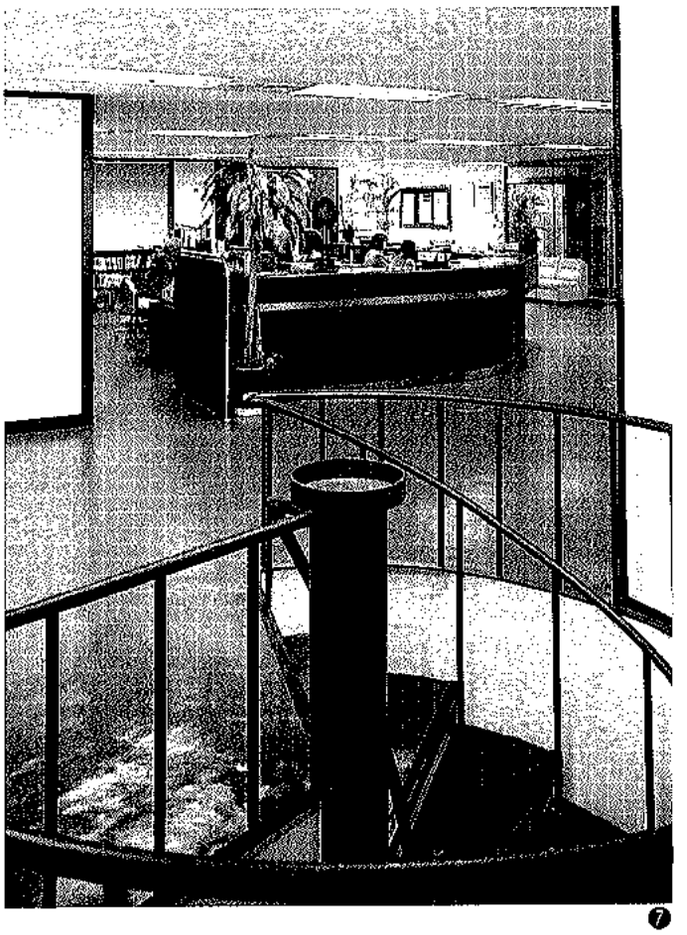
❶남서측 전경
❷남서측 원경
❸로비에서 본 주출입구
❹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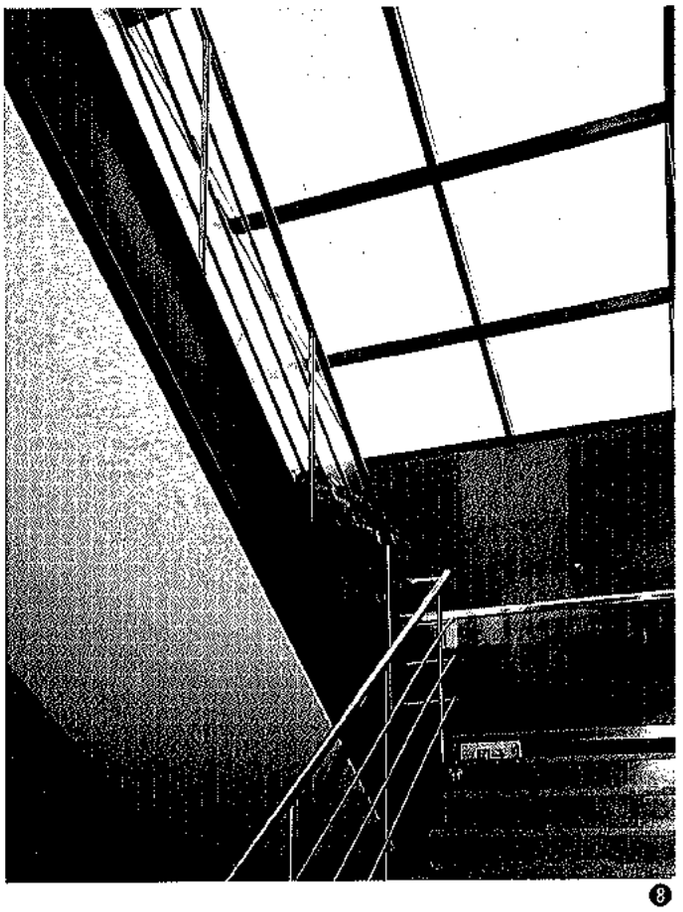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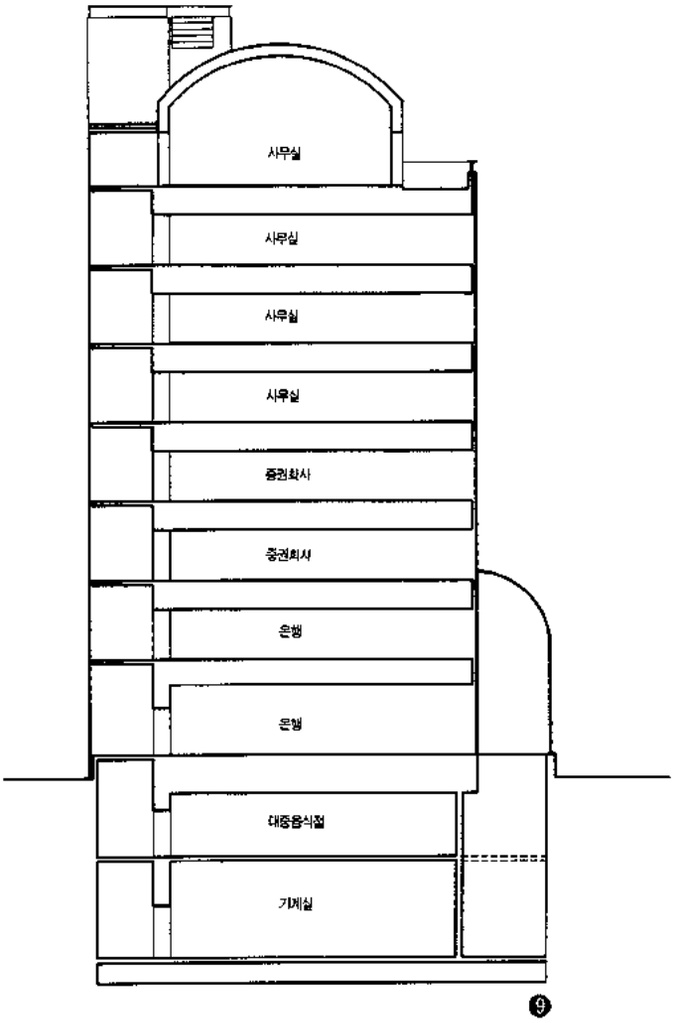
❻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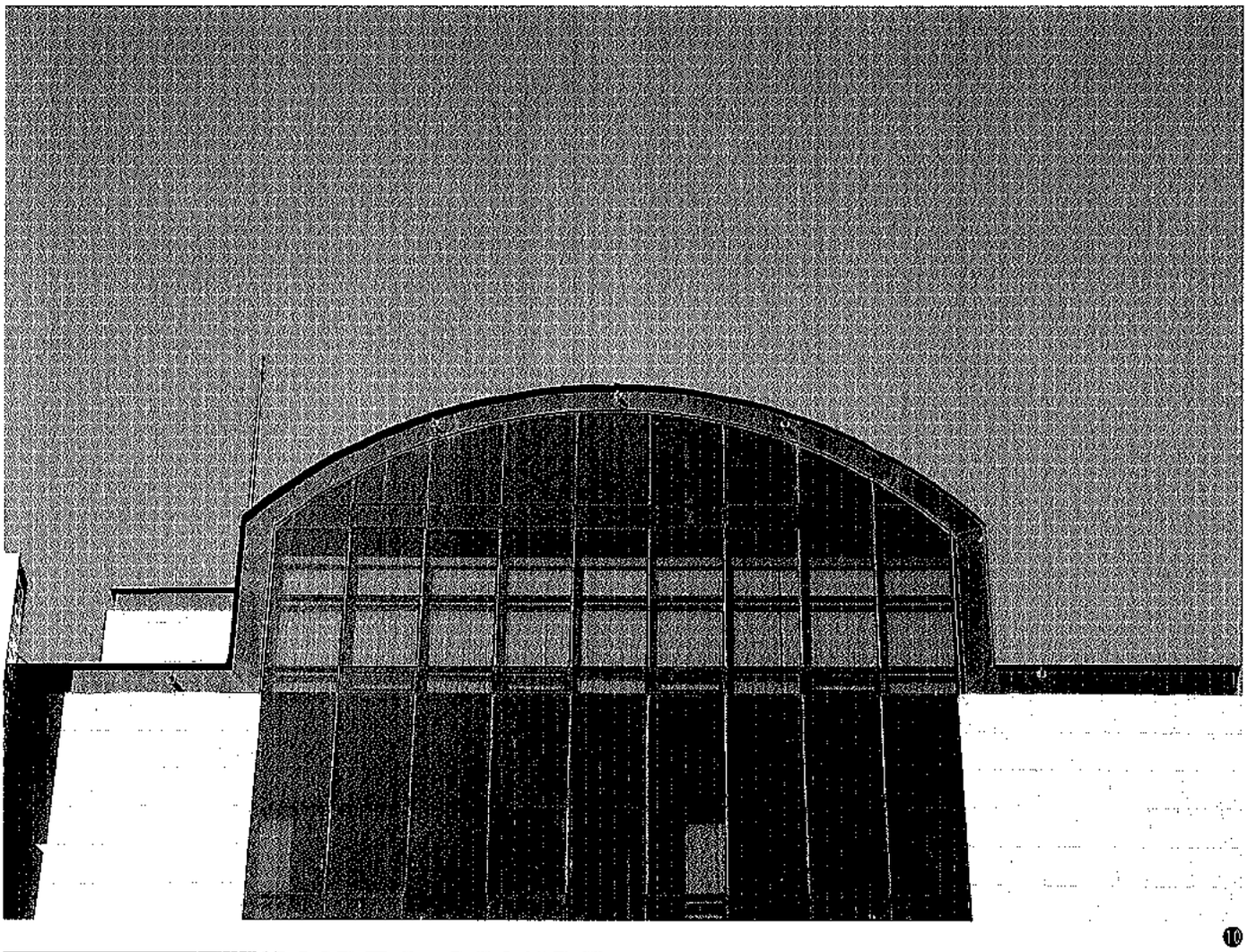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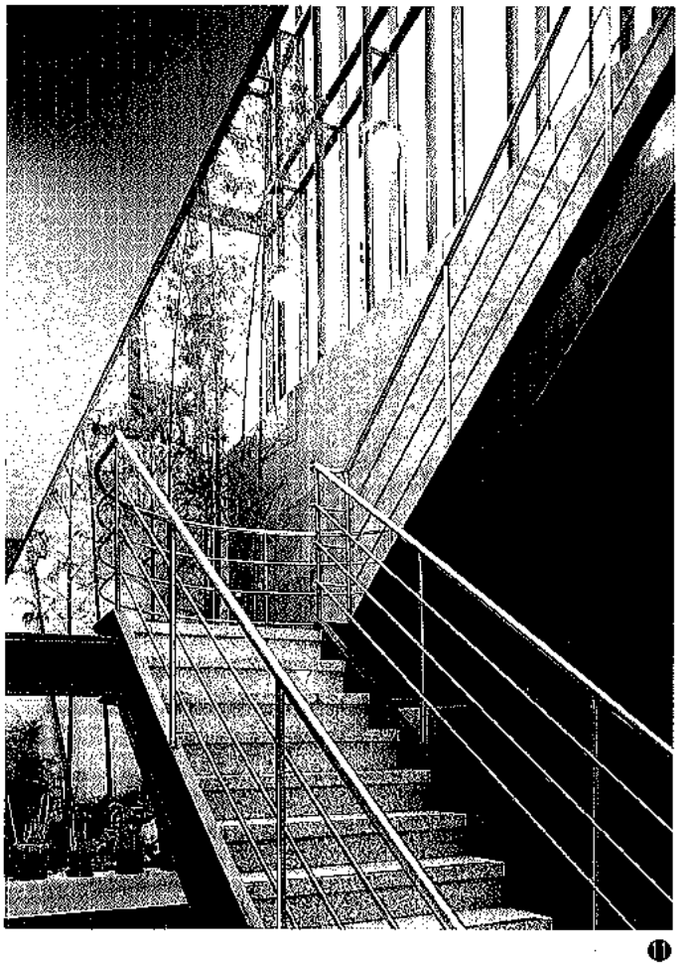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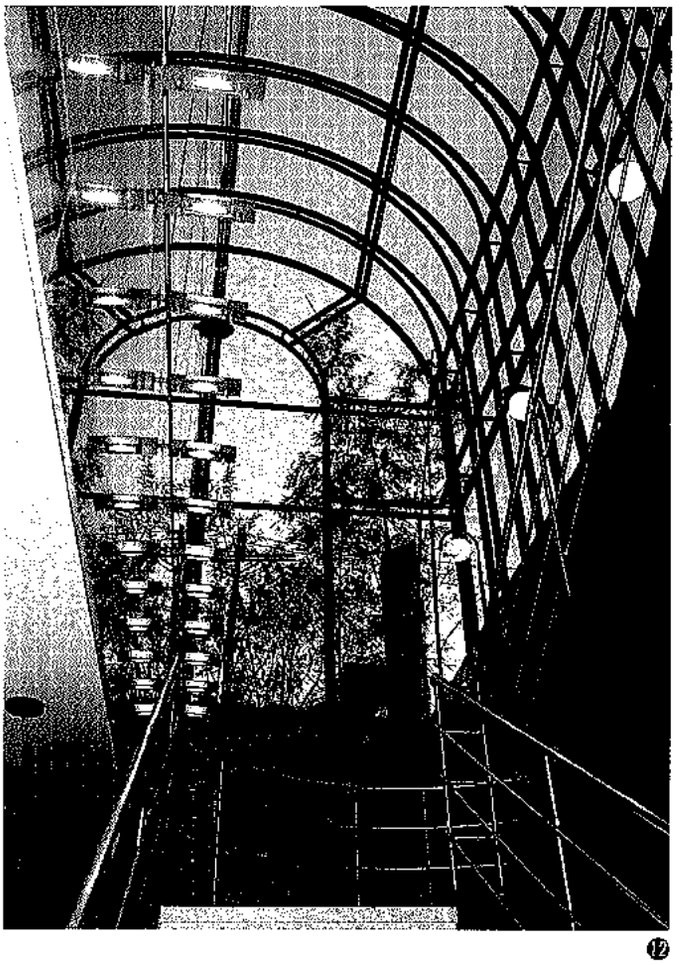
❺ 남동측 전경
❻ 아트리움 1
❼ 2층 원형계단
❽ 계단부
❾ 주단면도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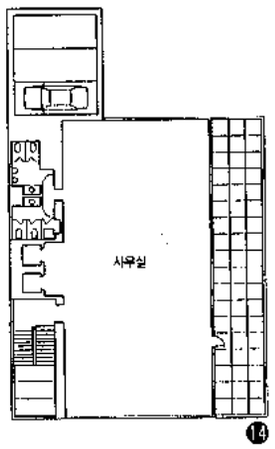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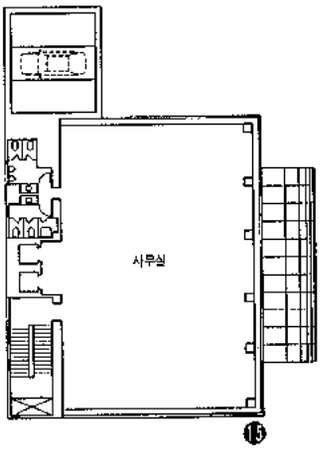
⑫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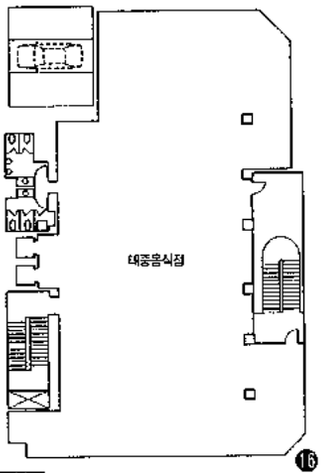
⑬ 상부상세
⑭ 아트리움 2
⑫ 아트리움 3
⑬ 식당
⑭ 8층 평면도
⑮ 기준층 평면도
⑯ 지하 1층 평면도
⑰ 남측전경
⑱ 서측벽면상세



⑭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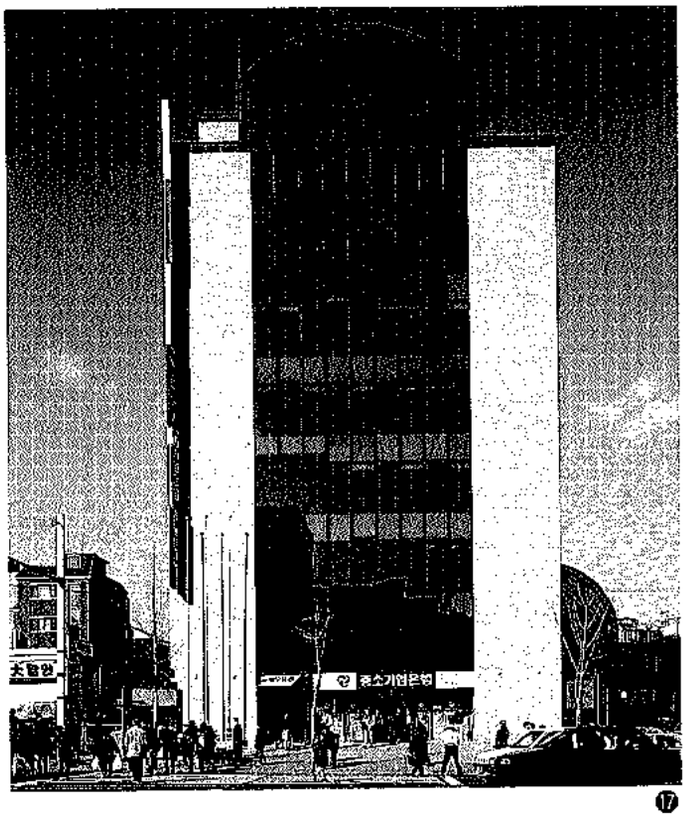
⑯

신촌로터리 동교동 방향의 간선도로에 면한 부지로 곧 개발될 듯한 단층 구옥들과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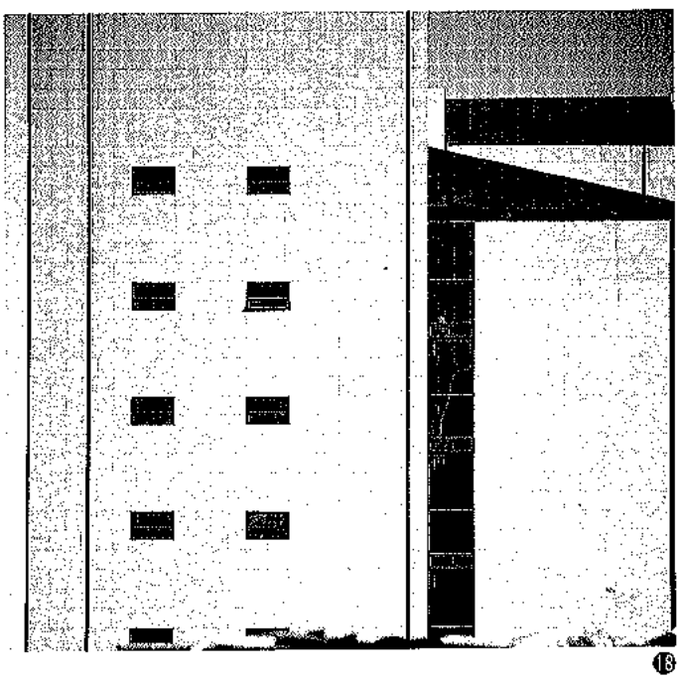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가로 환경이 단정한 모습으로 되도록 의도하였다.

평면은 부지 3면이 도로와 만나므로 인접대지 방향에 일자형 코어를 배치하였고, 사무공간의 효율성과 실분할의 다양성을 갖도록 무주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전면도로에서 유입이 쉬운 위치에 지하층 출입계단을 설치하였고, 그 주위를 썬큰가든과 아트리움을 만들어 햇빛과 공기를 끌어들여 활기있는 지하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코어부분을 제외한 3면은 좋은 조망을 갖고 있어 되도록 많은 창을 두어 도시의 파노라마를 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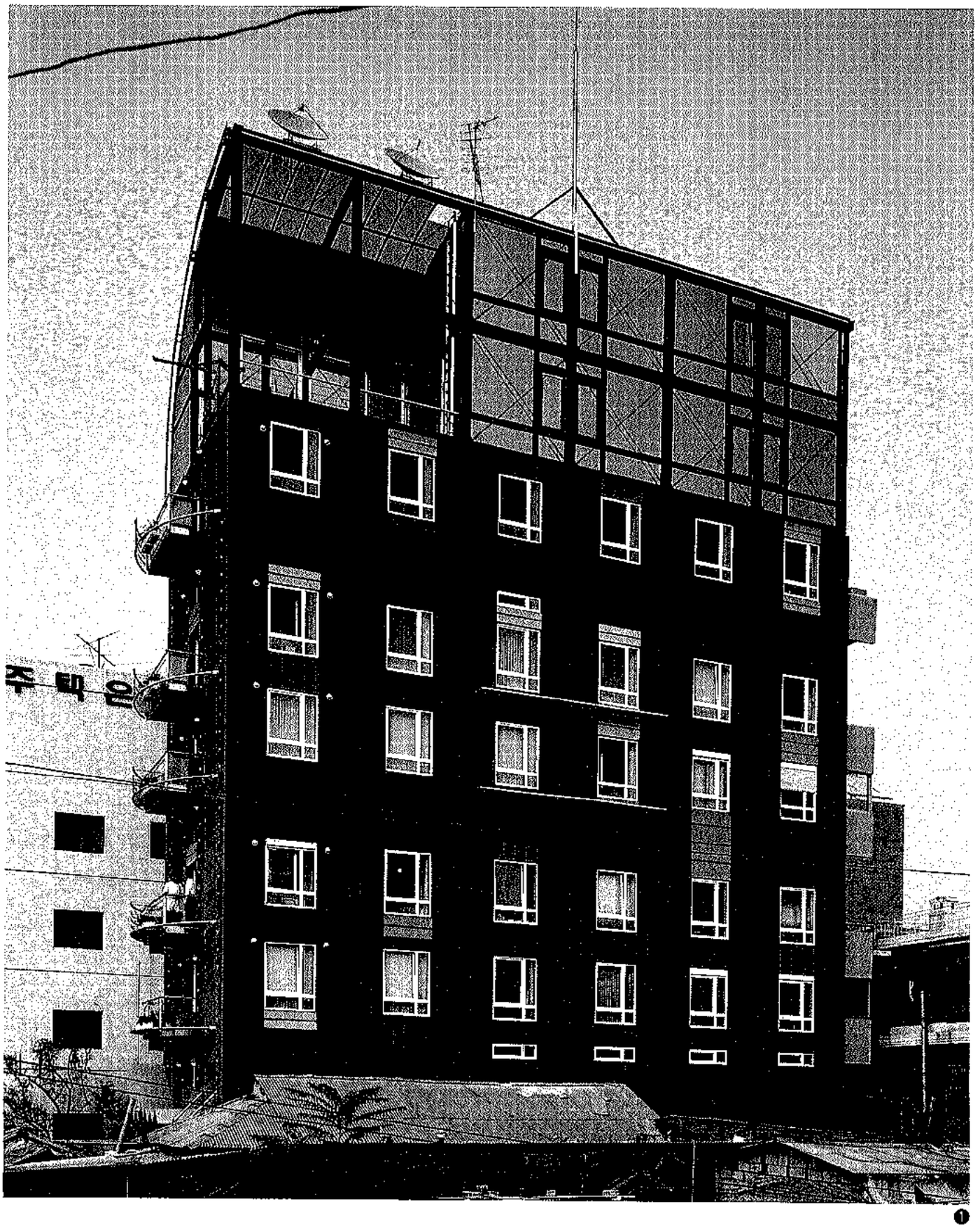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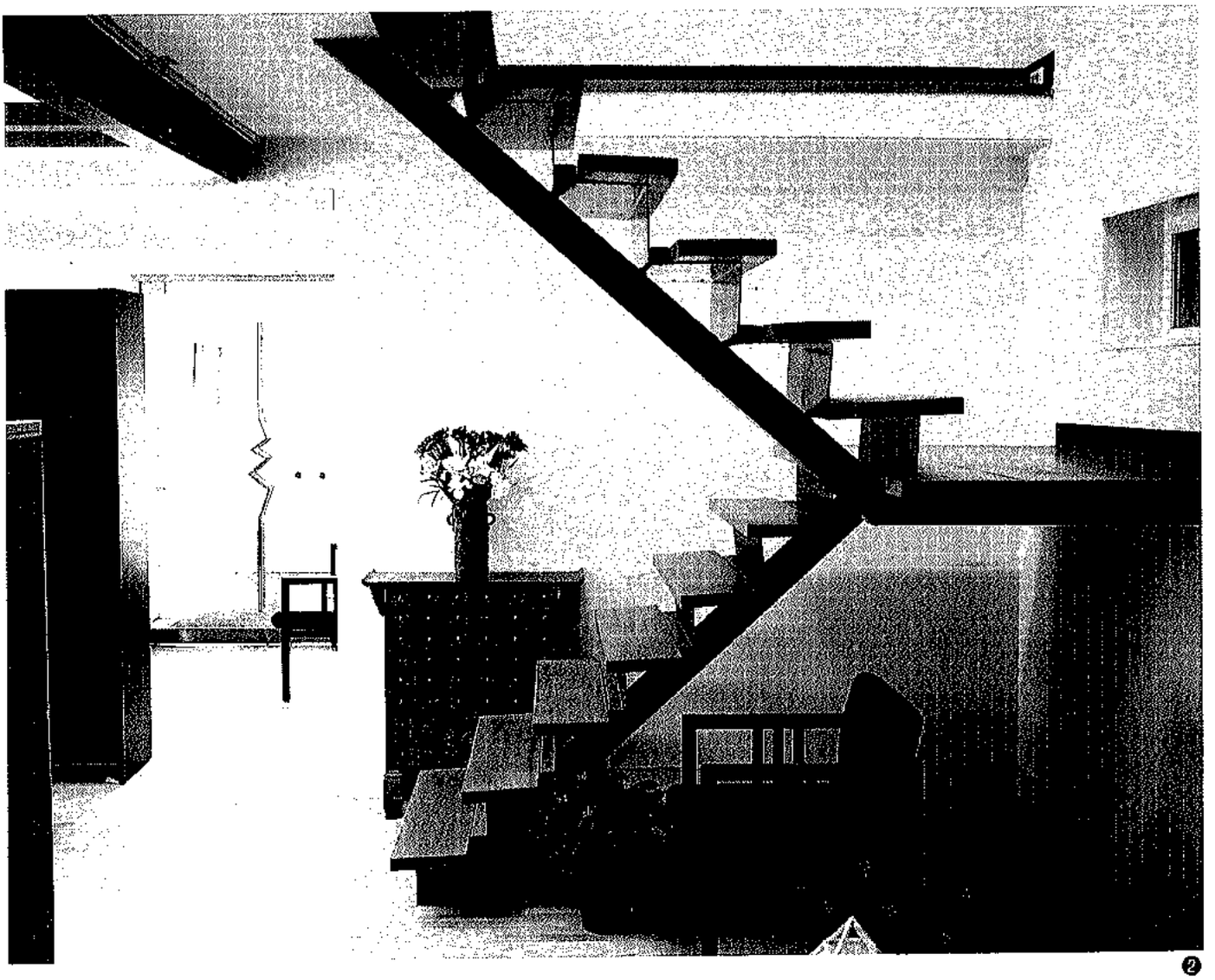
⑱

탑 스튜디오
Top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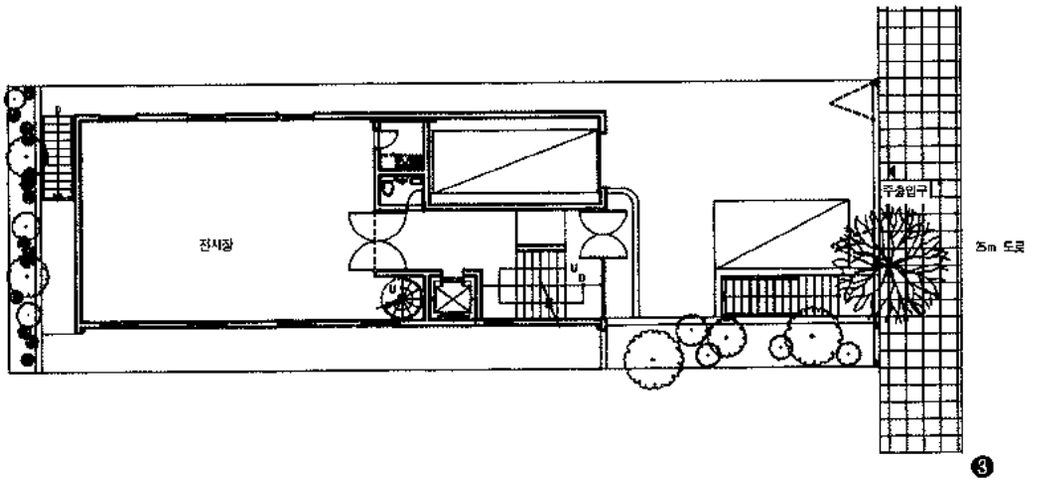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탑
Designed by choe, Young-Jeap



❶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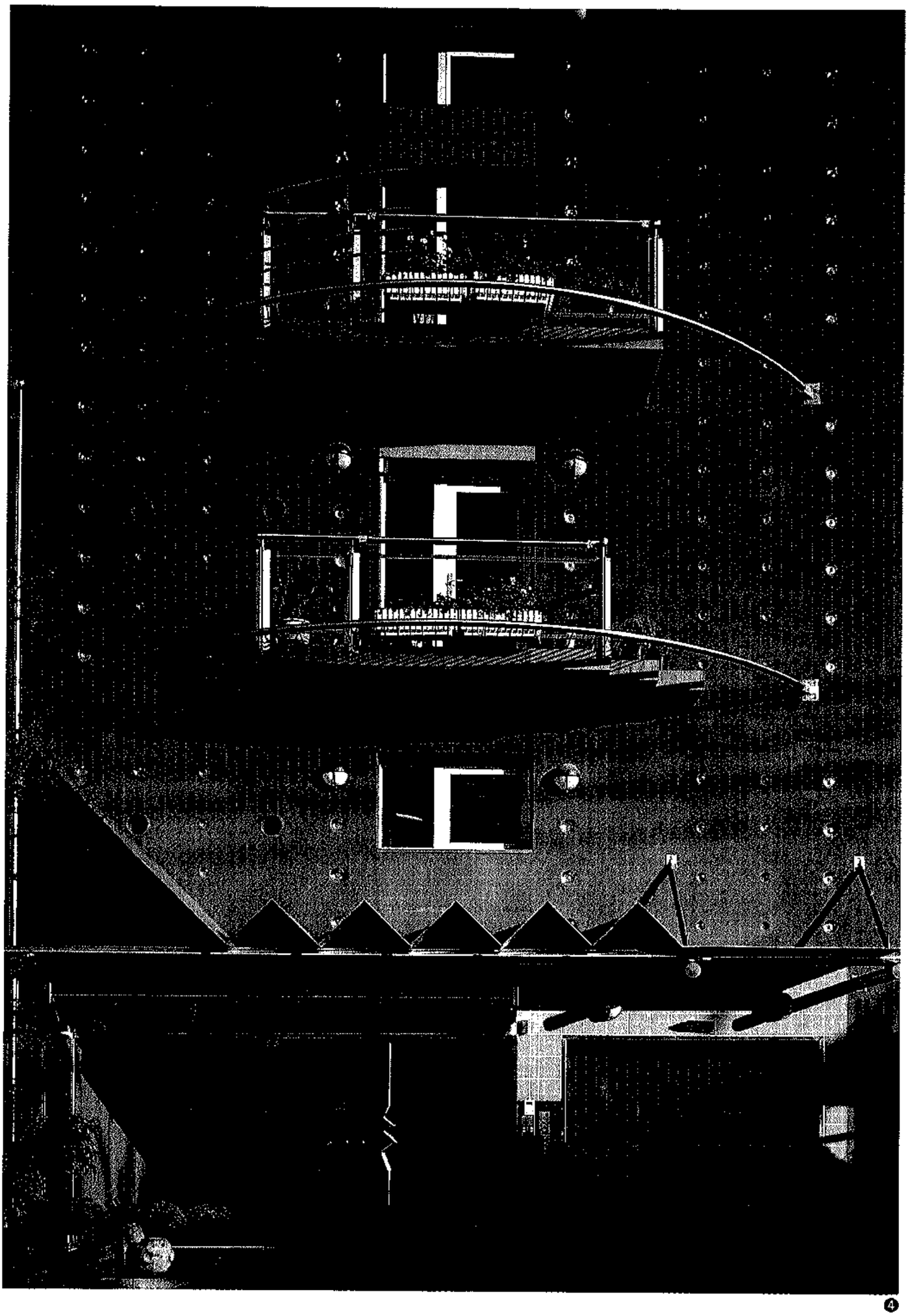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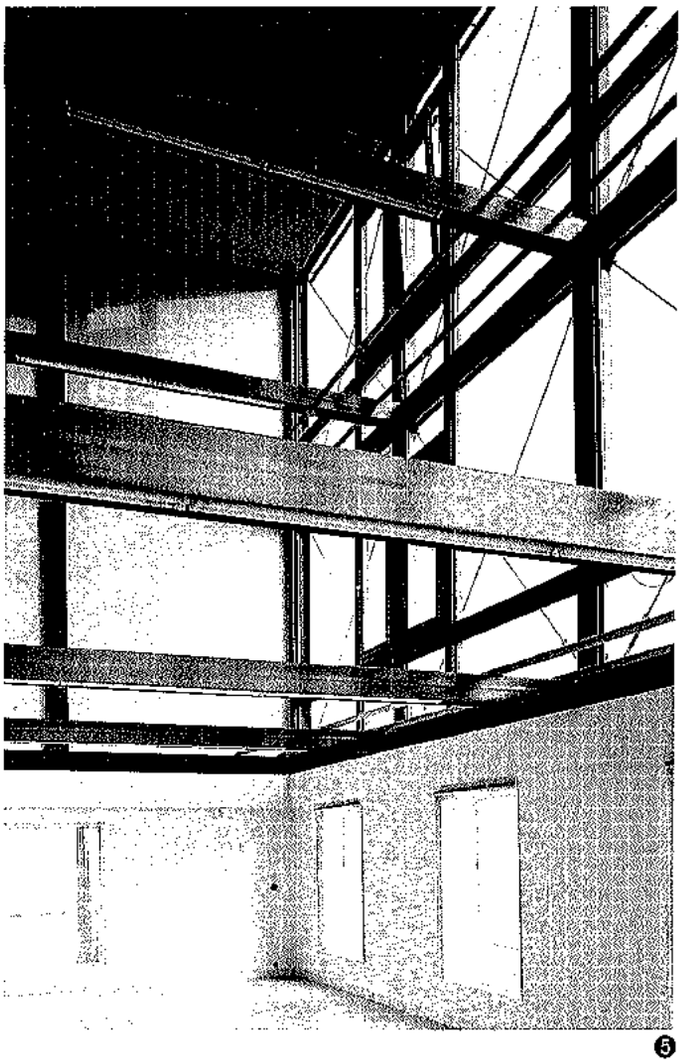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48-3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299㎡
건축면적 / 147㎡
연면적 / 1,308㎡
건폐율 / 49%
용적률 / 295%
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외부마감 / 벽-외벽단열시스템
철골조,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내부마감 / 바닥-야트타일(3-6층)
일부플로링(지하1층전시장, 1층 갤러리, 2층)
벽, 천정-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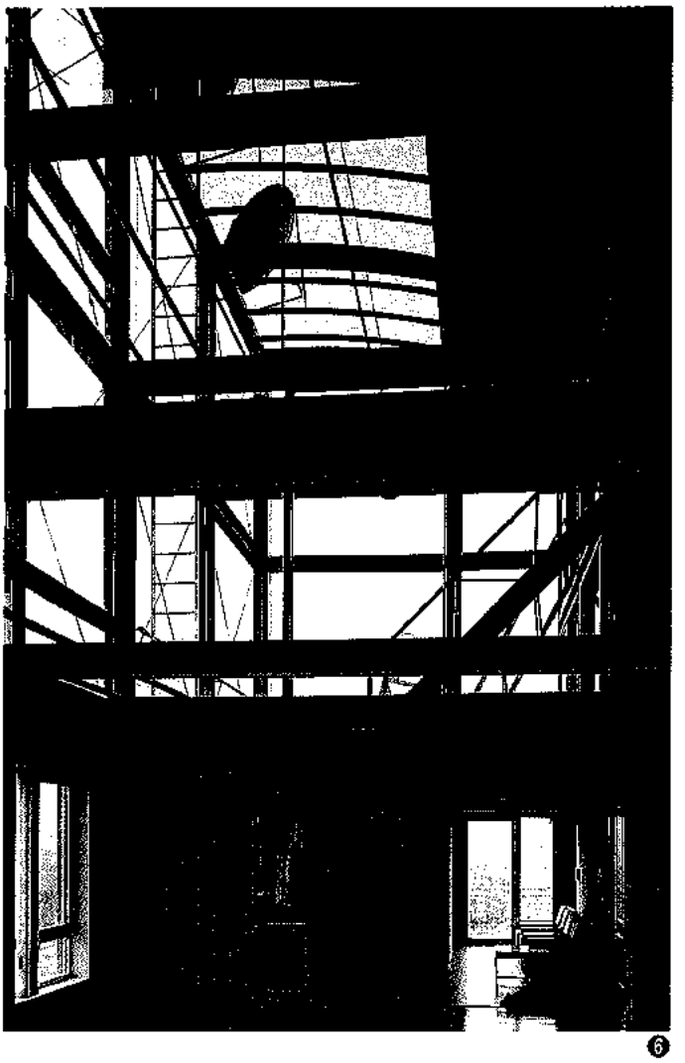
❶우측면 전경
❷1층 계단실
❸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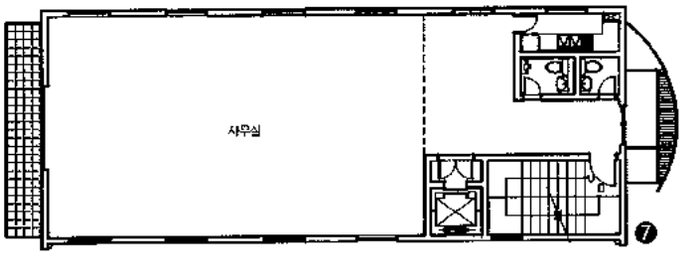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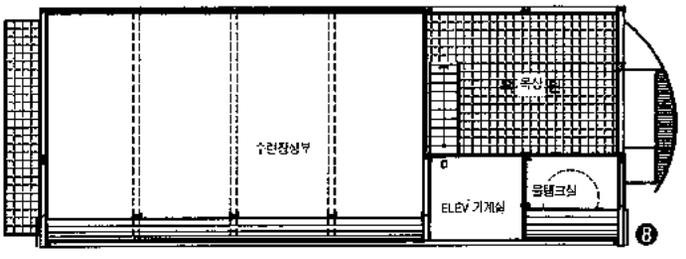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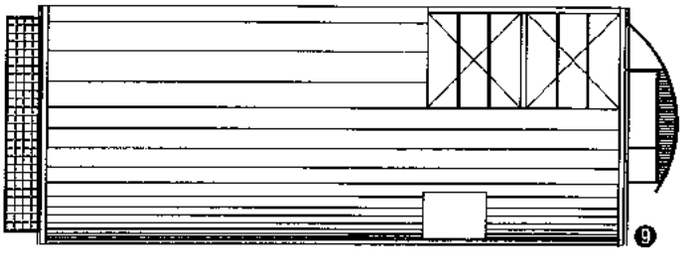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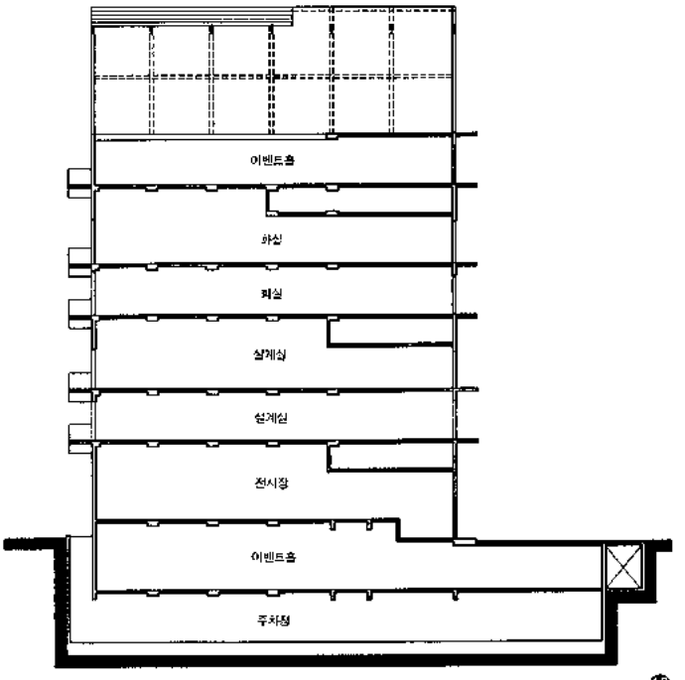
❼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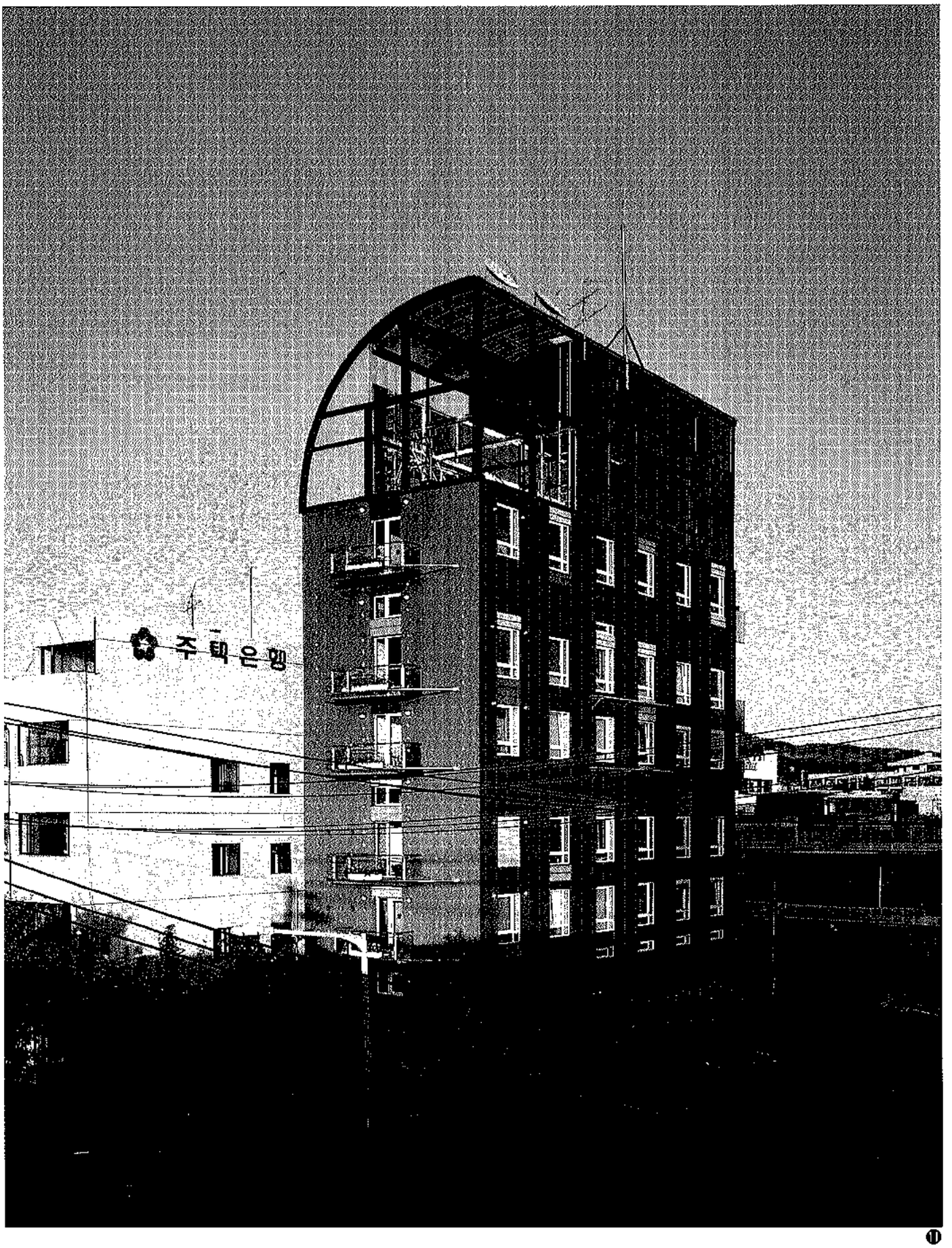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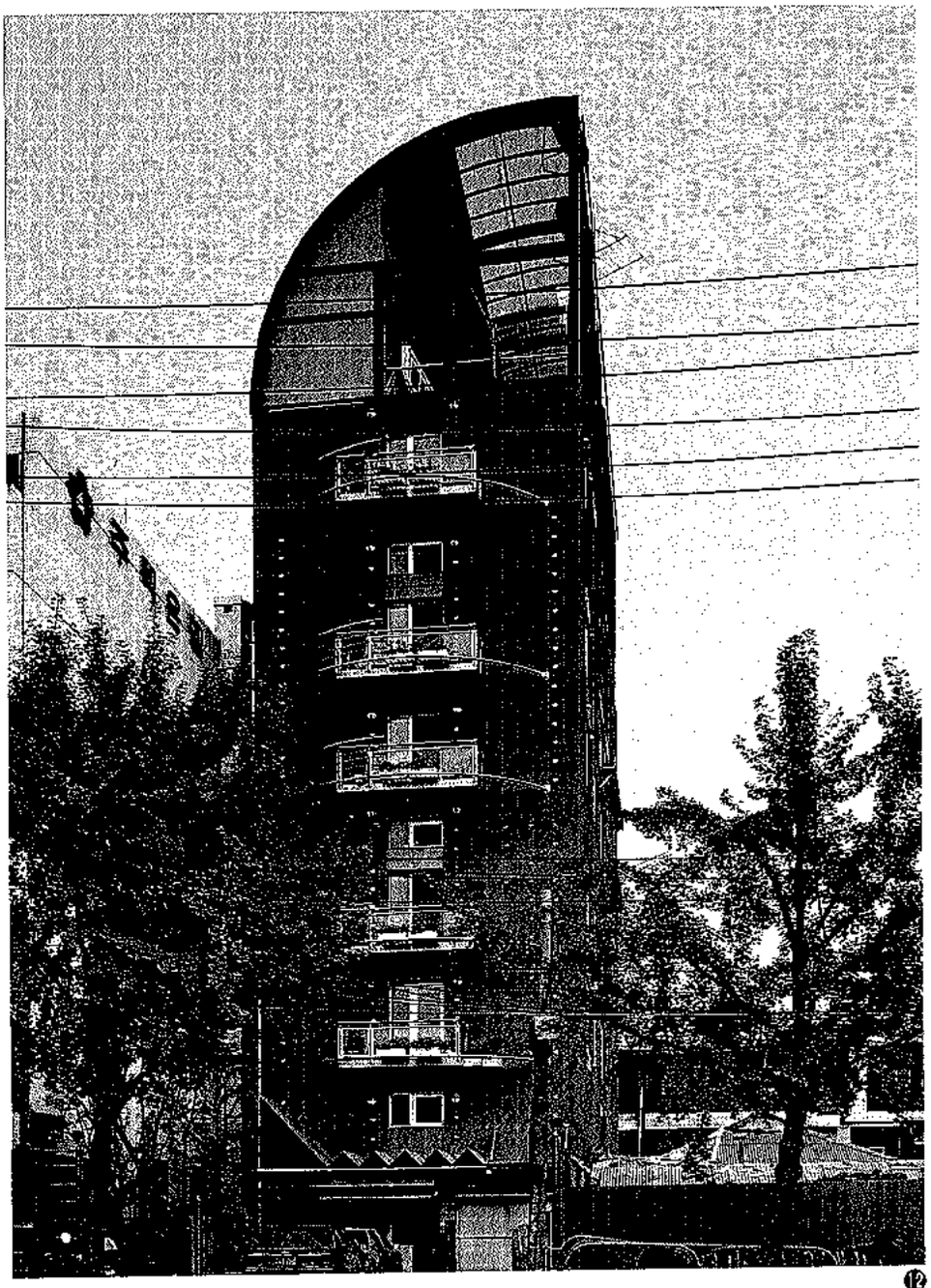
❿

❹ 정면 창호디테일
❺ 옥상층 창호디테일
❻ 옥상층 지붕디테일
❼ 기준층 평면도
❽ 옥상층 평면도
❾ 지붕 평면도
❿ 단면도



⓫

⓫남서측전경
⓬남측전경
⓭주출입구에서 본 1층 내부
⓮정면도
⓯우측면도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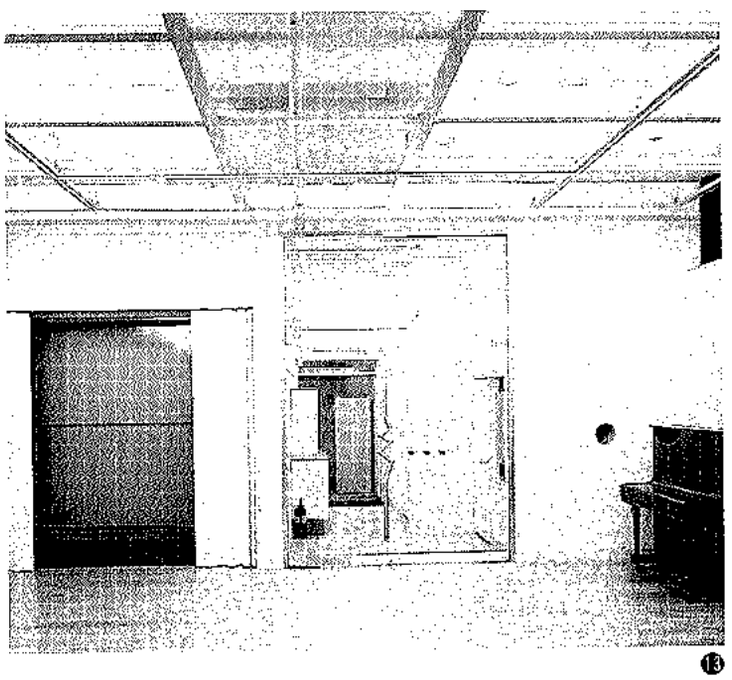
탑스튜디오는 예술가의 스튜디오이자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설계된 스튜디오, 아뜰리에, 갤러리, 콘벤숀 홀 등의 복합건물이다. 그동안 서울 강북의 오래된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소외되었던 문화의 사각지대인 청량리 지역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소규모 건물로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도시 가로건축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완벽한 기능의 해석, 단순한 형태이지만 풍부한 표정이 현대건축이 추구하는 목표를 개성있게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로 향해 미소짓는 창,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화분용 정면 발코니 디자인, 작지만 보석같은 마당과 조형물 등이 어우러져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하는 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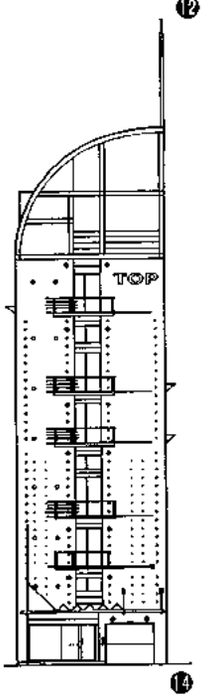
지루하기 쉬운 벽면의 과감한 그래픽 디자인, 다이나믹한 상징적 형태가 지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쳐다보게 만드는 매력을 풍기고 있어 건축과 거리, 건축과 도시의 대화를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크고 기념비적인 공공건물만 좋아야 건축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작더라도 개성있게 개인 건물들이 가로를 하나씩 하나씩 책임있게 채워나갈 때 서울의 거리는 보다 쾌적하며 아름다운, 거닐고 싶은 거리로 건축에 의해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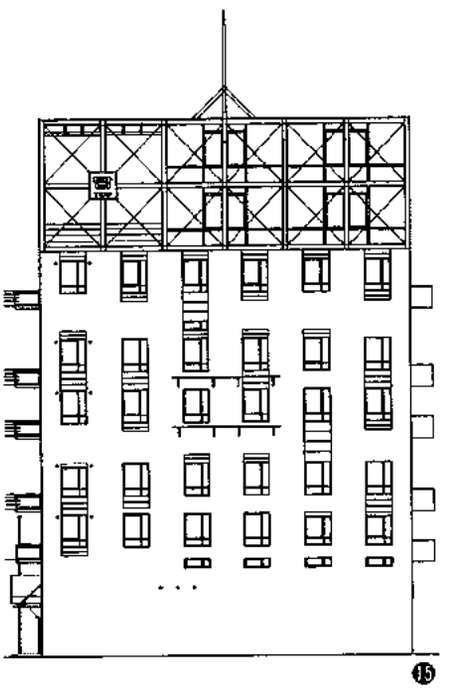
그동안 대작위주로 시상되던 「서울시 건축상」에서 「탑 스튜디오」가 금상을 받은 것은 그런 뜻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작더라도 건축가의 혼과 의지가 서려있을 때 가치있는 건축이 탄생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우치게 한다.



⑬



⑭



⑮

옵티미즘의 건축

Architecture As Optimism

— 최영집 作 탑 스튜디오 —

朴吉龍/국민대 교수
by Park, Gil-Lyong

최영집의 건축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에게 있어 항속적인 것은 넉넉한 낭만적 기질이며, 대신 변용하여가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다.

최영집에 있어서 건축 수련과정은 대부분이 독자적인 입신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인 면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어떤 대가의 영향 밑에서 거두어지는 구조적 틀을 벗을 수 있었다. 대신 아직 그의 건축은 어떤 확신으로서 항성(恒性)보다는 대상 마다 적절한 방법을 찾는 수단이 개연적이게 된다.

여전도 회관(서울/1987)을 근처로 하여서는 클라식 리바이벌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도가 기억된다. 그것은 대형의 도시건축적 구도에서 장식과 수사가 낭만적으로 결부되는 것이었다. 강현교회(서울/1989)를 비롯한 몇 개의 교회 건축에서 만나는 온건한 상징체계, 키모드 빌딩(서울/1987~88)에서 보이는 이지적 낭만성, 표질의 장식적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금문빌딩(1988)의 조형, 평화의 탑(서울/1990)에서 형태 솜씨가 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있어서 전통은 상당히 구체성을 띠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장석교회(1992)에서의 한국적 표현에 대한 역사적 직접성과 수성헌(1993/경기도 포천군)에서 보이는 한옥에 대한 애착도 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마다 수단을 달리하기 보다는, 똑같지 않을 조건과 프로그램 때문에 개연적으로 모든 건축은 개별적이기 마련이라는 전제 아래, 중요한 것은 그 과제를 향한 작가의 최선성이라고 한다. 그러한 후 건축 마다에 침잠되어 있을 작가의 체취가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용은 시간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반복되거나 반전되기도 하면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원래 모더니즘에 익어 있으며, 그 한쪽 손에는 낭만성에 연결되어 있다. 사실은 이러한 이중성이 그의 건축적 다변성(多辯性)의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최영집의 전체성 속에서 이 탑 문화센터는 형태 우선의 또 다른 수단을 보인다.

우리가 오늘의 한 젊은 작가에게서 낭만성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의외이다. 대체로 한 작가에게 있어서 청년기란 이지(理智)가 앞서게 되고, 냉소적이기는 쉬어도 포섭적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자칫 로맨틱하나는 것이 곧 진부하여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선입감으로 갖기 때문이다.

자기집 짓기

우리의 건축 중에서 건축가의 「자기집 짓기」는 대부분의 건축가의 사옥에서와 같이, 간섭받지 않는 개념, 제한되지 않는 제작기간, 시공에 이르기까지 면밀을 기할 수 있는 생산관리 등의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의 최선을 기대하게 된다.

최영집에게서 탑문화센터 역시 약 3년간에 걸쳐 과제를 진득이 붙들고 앉아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이었을 것이다.

탑 문화센터는 매우 즐거운 건축이다.

전체적인 윤곽의 구도로는 조직적 정연함을 유지하면서도 상세의 낭만성, 재료와 색조를 표현으로 이끄는 관심이 관자에게 쉽게 감정이 이입되며 이 건축의 즐거움을 이룬다.

즐거웁다는 것은 반드시 해학적인 것만이 아니며, 대중적 가벼움만은 아니다. 이 건축이 유지하는 상당한 격조와 함께 심각하지 않은 특별함을 느끼는 것은 도시건축의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한 작가가 자신의 개념을 만들며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대부분의 개념이라는 것이 관념적이게 되고, 특히 철학적 의미를 바탕에 두고자 할 때, 그것은 자칫 심각하거나 어둡게 비추어지기 쉽다.

최영집의 심성에서는 항상 낙관적인 사고를 읽게 한다. 일찌기 미술에 의해 눈떠진 감성의 눈을 통해 관조된 세상이기도 하고, 그의 종교에서 익힌 수용성인지 모른다.

주변성의 이해와 프로그램

탑문화센터가 위치하는 곳은 일상적인 관점으로 보아 매우 척박한 주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곳은 어떤 도시적 정연함으로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 강북의 곳은 우리 지난 사절의 빈곤하였던 흔적을 머금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성이다.

쌀집, 거사의 철학관, 분식집이 있는가 하면 은행건축이 있고, 보통 크기의 근린시설들에 의해 선점된 주변은 어쩔줄 모르게 하는 답답함, 막연함으로 인상지어진다. 짙은 밀도로 차지된 일상성의 답답함은 그것이 아무리 친숙한 컨텍스트라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성을 누루하게 한다.

그러한 중에 이 탑문화센터는 일견 그의 주변성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작가는 이러한 주변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긴 고뇌를 가졌으나 그에 대한 해결의 확신을 미루고, 우선 내적 효용의 모색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아마 주변에 대한 이해에서 닥친 어려움이란 그 산만한 성격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떻든 그 결과로서, 작가는 이 건축이 주변에 대해 하나의 신선한 문화적 충격으로서 입장이 지지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분명히 이 건축은 주변이 경험하여 보지못한 건축문화의 양태로서 자리하며, 실제 기능으로도 근린문화를 포섭하고자 한다.

기능 내용에서 근린문화 성격을 갖는 것만하여도 춤, 무예, 건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적 특질은 주변에 대한 애착으로 표현된다.

다만 그가 시도하는 또 다른 문화기능으로서 역할은 상당히 고급문화의 내용이다. 특히 건축미술관으로서 프로그램은 매우

높은 질량의 쓰임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건축이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양향성을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선 입지가 접근성에 곤란함을 겪게 되며, 이웃하는 도시 기능상 도시문화 양태의 연속성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성 증진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생동감을 유지하는 일과 끊임없는 대중에의 전달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적극적인 큐레이터의 기능과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영적 문제까지 우리가 어떤 노파심을 가지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인내력있는 지속성으로 유지 못할 때, 모처럼의 귀중한 사회적 의도가 쇠잔되는 경우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문화적 사회기능 이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작가의 설계 스튜디오와 동양화가인 그의 부인을 위한 화실이다.

무엇보다 한 조직에서의 종사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의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다.

건축방법

이 건축을 위해 작가는 건축적 풍요를 위해 대상을 분해하기 이전에 일단 통어된 구조 속에 기능적 효용을 잘 조정하며 증진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와같은 외적 통어와 내적 분화의 타협적 방법은 대부분 복합건축에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90평 대지에 꼭 절반인 45평을 차지할 평면을 위해 배치는 자동차의 접근만큼 셋백된 후 정확히 직방형으로 대지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8m에 지나지 않는 전면 폭에 대해 2배 이상의 깊이를 갖는 직방형 평면의 프로포션을 경제화시키는 것은 코어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적 영역을 최소화 시키는 일이다. 그로서 안 깊이를 차지하는 실기능공간이 편안하게 보전된다.

이 건축 조형에 지배 요인으로 작용하는 슬랜더한 프로포션에서 건물 상부를 치켜 깍은 곡면이다. 그 안에 밀도 높은 상세의 미학이 담겨져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이 만든 개연적 형상일 것이다.

이 곡면의 모티브는 다시 발코니에서 평면상으로 반복되는데, 색조와 질료, 손잡이의 디테일 등에서 덴디한 상세의 솜씨를 보인다. 특히 계절이 좋으면 화분이 나 앉을 발코니의 형태와 상세에 깊은 집착을 보이는 것은 이 부분이 가로와 대중에 대한 건축적 서비스라는 것이다.

푸짐한 상세의 향기를 맡는 즐거움은 건축이 시각적인 대상인 한 중요한 가치이다. 대신 그 요소들은 군더더기가 아닐 필요가 있다. 그 적절성을 간단히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지만, 요소의 부가가 과잉되기를 제한하여야 하며, 정서적인 관점을 포함하여 정확한 상세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부의 색조는 그의 부인인 장혜용(張惠容)의 그림을 닮았다. '굵은 건성(乾性)의 붓으로 칠하여져 있는 투박한 필치 속에 빛나는 원색의 채움, 형상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강한 것'이 그러하다. 이렇게 하여 얻은 풍부한 건축의 표정은 그늘진 주변을 밝게 한다.

공간방법

셋백의 자리잡기와 빈약한 접근공간의 형식으로서 가로에 대해 불확실한 의도를 보이는 것은 도시건축의 입장에서 보아 불편한 관계를 불가피하게 한다. 그것은 건술한 바와 같이 산만한 주변에 대해 물러섬으로서 선택인지, 또는 50%를 유지하기 위한 건폐율에서 설정된 것인지 모르지만, 향후 주변이 정연함을 회복하고 난 후에라도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가의 기대가 여전히 막연하다. 다시말해 가로가 이 건축에 좀더 친숙히 접근하고자 할 때, 불편한 태도이다.

건축의 최종공간인 현관과 리셉션에서 공간이 인색한 것은, 이 건축 역시 프로그램상 용적의 압박이 가한 불가피성이기를 바란다. 대체로 이만한 규모의 근린적 건축에서 겪는 용적의 압박은 보통 겪는 경험이다.

그 대신에 각층의 공간은 모두가 프로그램된 기능에 의해 형식이 갖추어지므로 모두가 개별적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인 칫수로 통일된 공간에 기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정된 평면의 윤곽 안에서라도 가능한 융통적 구성을 꾀하고 있다.

공간법으로 말하면 전체의 큰 공간안에 내포된 하위 공간이 그룹을 만들며 중간포(包)를 만들고 그 안에 다시 세부기능의 공간적 용도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건축은 크게 3개의 포로 나누어진 죠닝이 지상 6개층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기준층고'라는 개념을 벗어나 계단의 단높이 모듈(R ; 15㎝)에 의한 2.7m, 4.7m 등으로 각층의 층고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융통성은, 평면상 윤곽의 변화가 제한될 경우에, 공간의 조직적 융통성으로 유효하다.

제 2~3층의 설계실은 일단의 통합된 공간이나 두 개의 레벨로 나누어 쓴다. 여기에서 두 공간 간의 시각적 연계가 도모되지 못한 것도 실용면적의 압박때문으로 보이다. 4~5층의 화실은 대형 화면작업을 위한 층고와 소형 작업을 위한 이중의 층고를 가진다.

최상층인 6층의 다목적 홀은 훌쩍한 천장고에 1/4 원호의 볼트형 공간과 만나게 된다. 이 공간이 외관에서는 지배형태가 되던 머리부분이다. 이 공간의 높이는 단면상 몇 개의 헛보가 가로 지나가고 있으므로 상징적인데, 전폭적으로 빛을 실내에 쏟아 넣기 위한 구조이기도 하다.

그것은 구조적 제한이 벗어지는 최상층에서 도모할 형태와 공간의 자유로움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천공(天空)과 가까이 있는 환경감이다. 확실히 이러한 체험은 도시생활의 일상적인 답답함을 벗게 하는 지각적 일탈로서 유효하다.

이 건축에서 최영집 자신의 만족도보다도, 이 건축을 사용하는 종사자, 고객 그리고 주변의 만족도가 이 건축적 결과의 격조를 지지한다. 앞으로 작가에게서 이 자가(自家) 이상의 어떤 중요한 동기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향후의 작업에 어떤 확신으로 작용할 체험의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 건축물이 수상한 금년도 서울시 건축상의 의미일 것이다. 서울시 건축상은 실로 오래간만에 그 상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을 발견하였다.

보통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음울한 도시성 조차 애정의 대상이 되듯, 이 곤혹의 대상들이 그의 낙관적 심성으로 더 잘 쓰다듬어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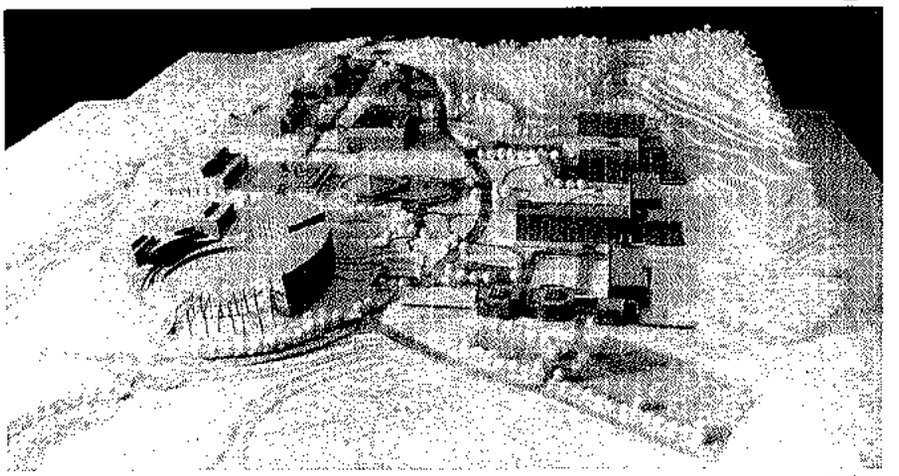
장혜용 작품

한국청소년 중앙공원
Korea Central Youth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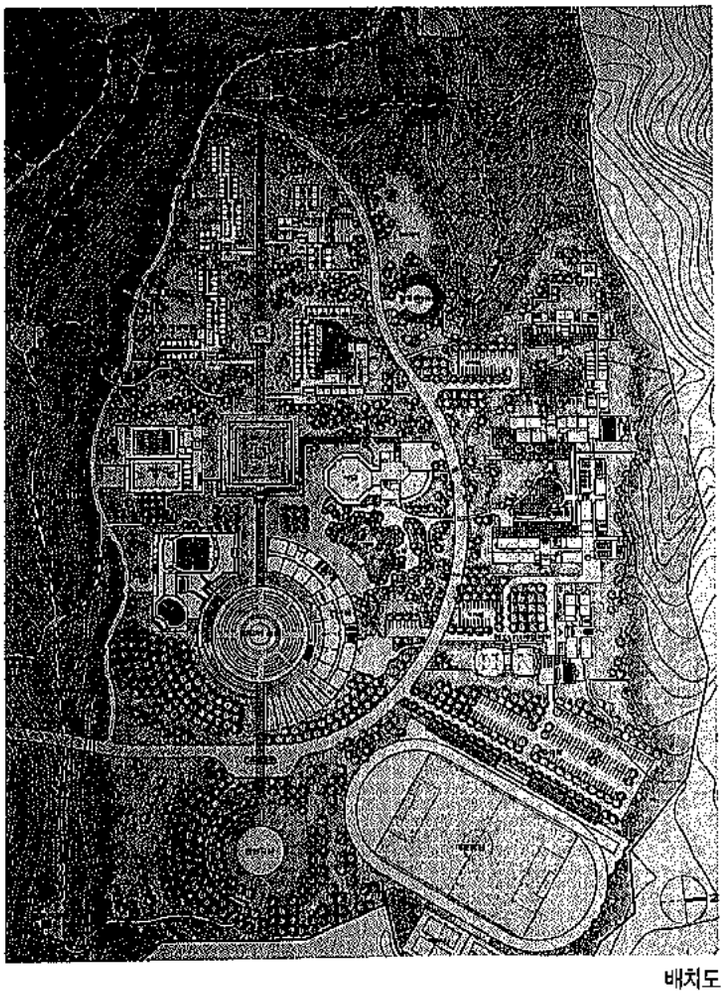
金永雄/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 토우
Designed by Kim, Young-Woong

조감도

대지위치 / 충남 천안군 목천면 남하리(독립기념관내 농곡)
대지면적 / 약 367,300평(유보지 제외)
지역지구 / 개발촉진지역내 시설 용지지구
건축면적 / 17,608.26㎡(5,326.5평)
연면적 / 43,206.1㎡(13,069.8평)
건폐율 / 1.5%
용적률 / 3.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427대(소형주차 375대, 대형주차 5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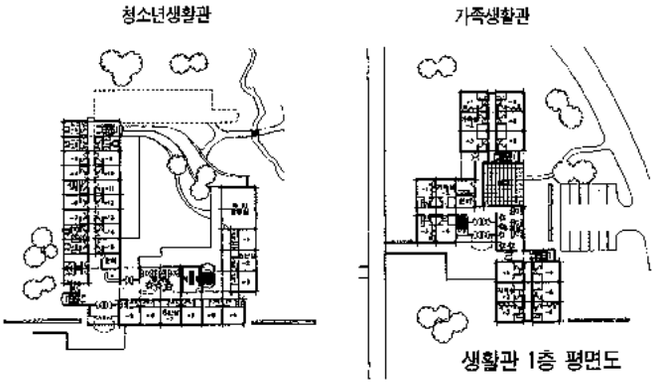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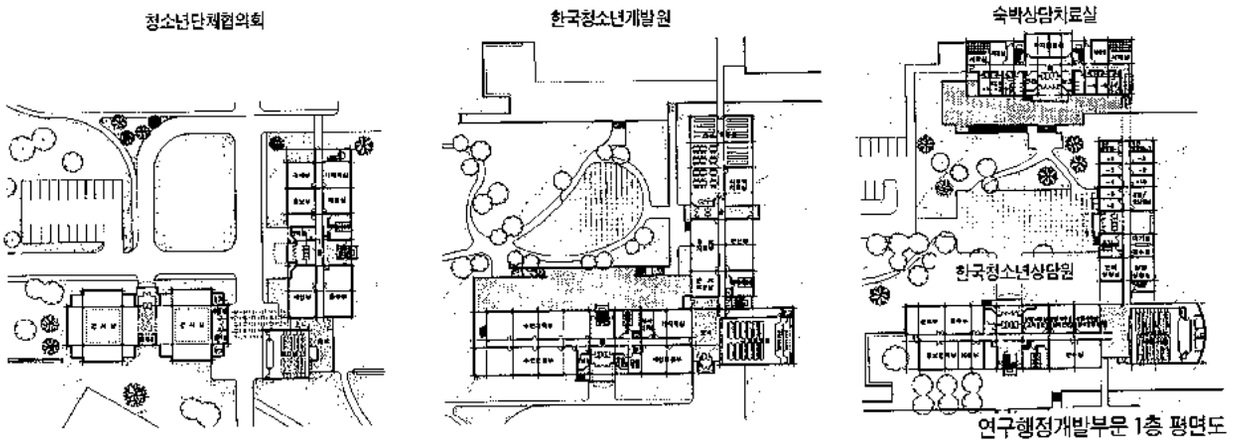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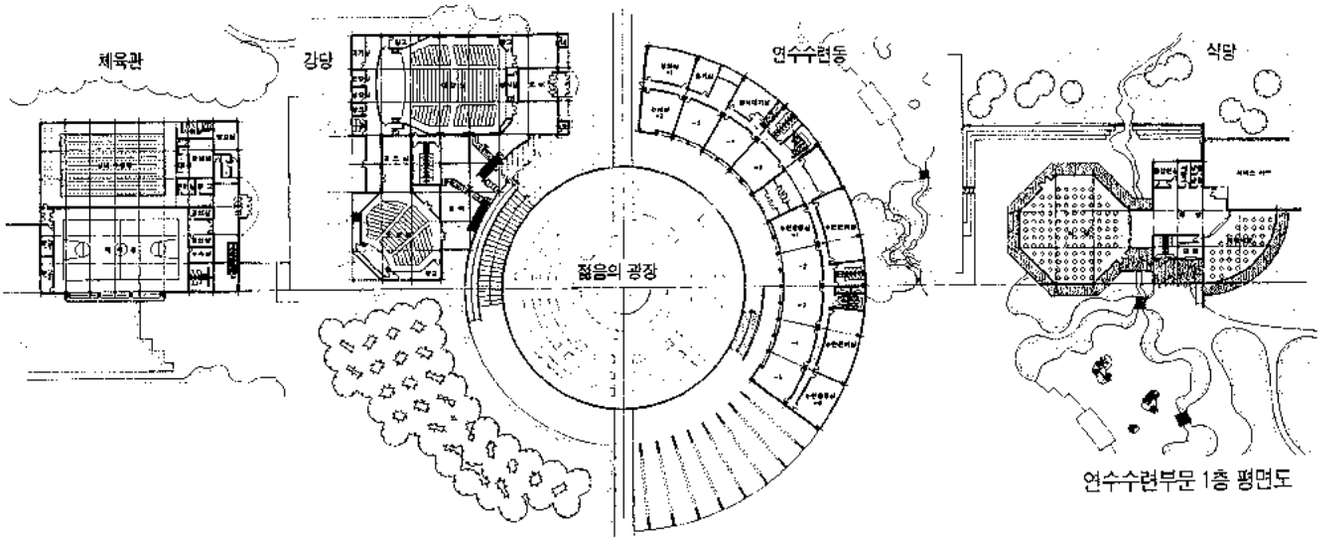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대안검토결과 대지북단의 평활지에 시설은 집중배치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선택하였으며, 시설별 구역으로 연구, 개발, 행정구역은 연구·수련 시설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기능적으로는 식당 및 강의동, 연수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구 정면에 배치했으며, 생활관 구역은 연수수련동 및 자연체험 시설과 연결성이 좋은 계곡상단에 배치하였으며 식당은 공동 이용시설로서 전체시설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생활관 1층 평면도



연구행정개발부문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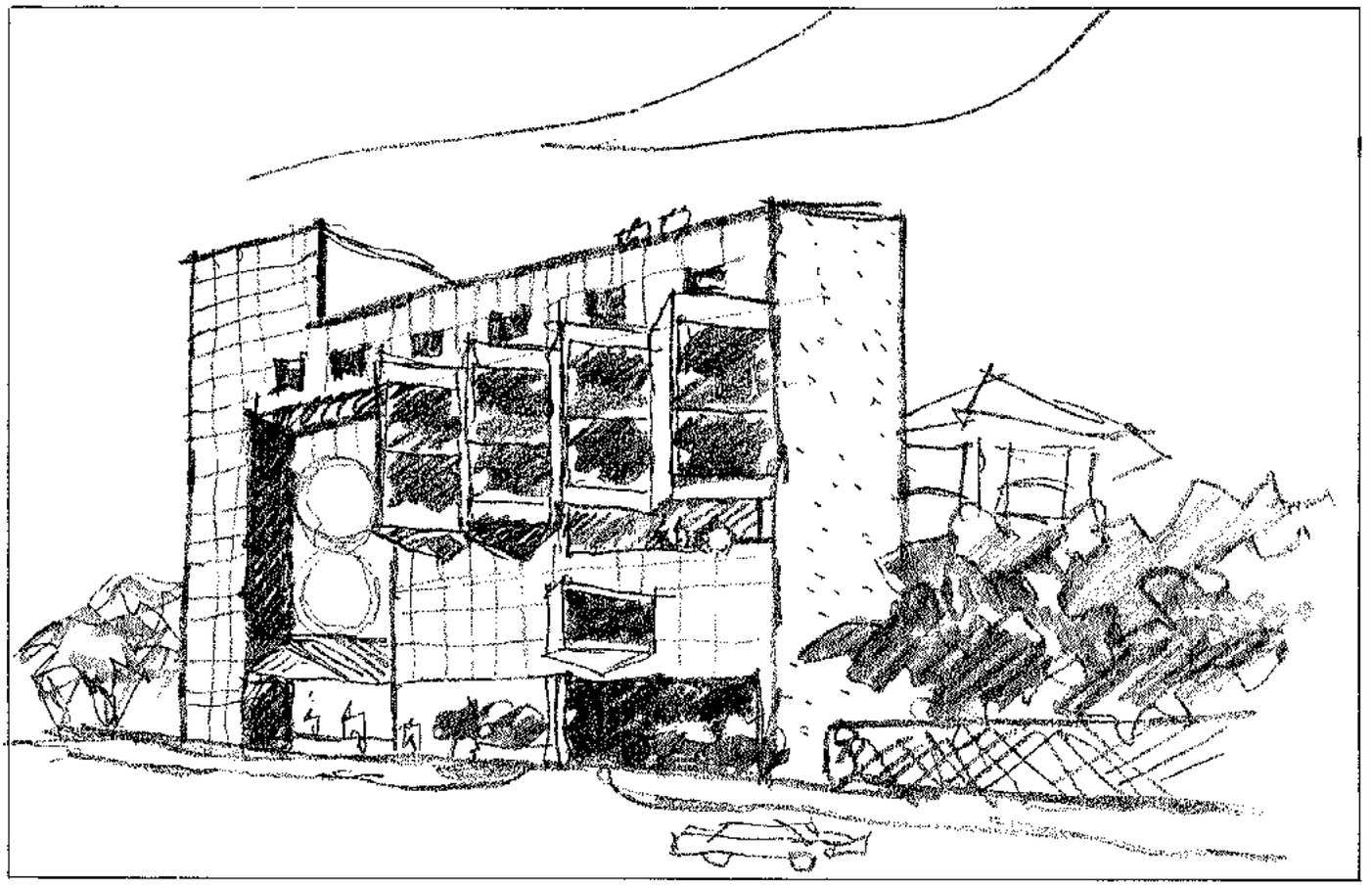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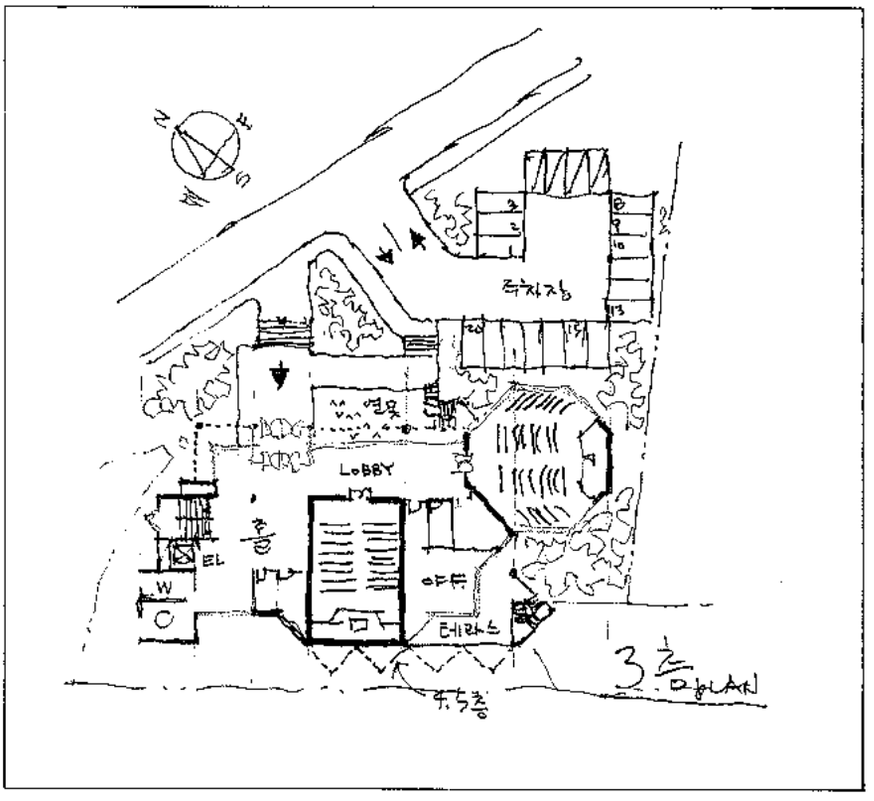
연수수련부문 1층 평면도

어느 대학의 동창회관

An Alumini Center

安秉義/(주)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Byung-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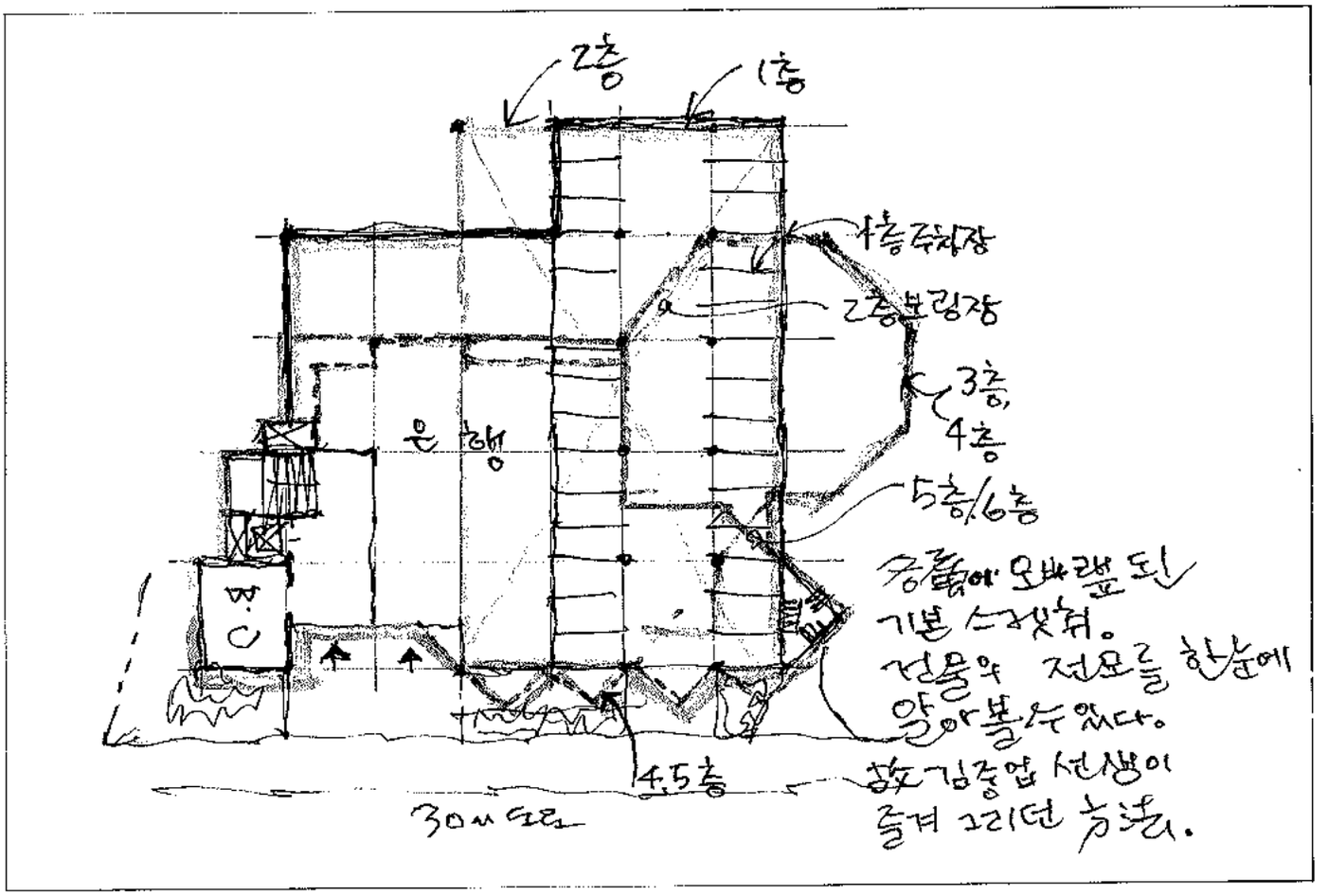
이 건물의 대지는 약 8m, 두층분의 고저차가 있는 약 2000평의 언덕진 땅이다. 얕은 부분은 30m 대로에 면하고, 높은 부분은 이 대학의 교정에 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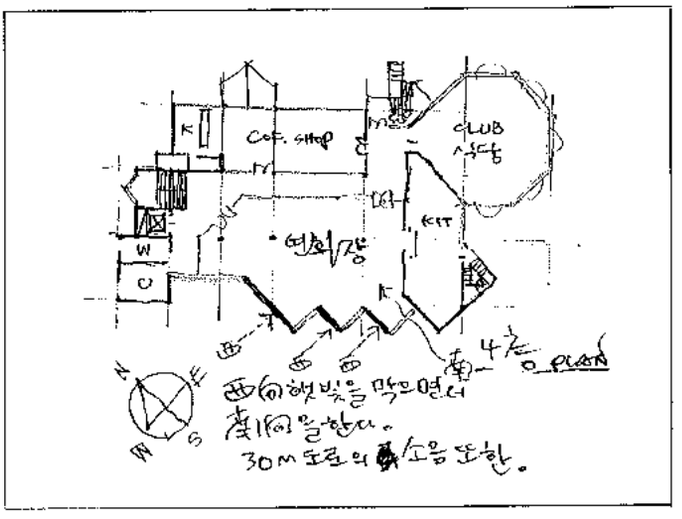
대학의 동창회관이 으레 그렇듯이, 동창회를 위한 사무공간, 결혼예식장, 이를 위한 연회장, 크럽식당, 커피숍, 그리고 사무실운영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링장과 임대용 은행지점 등이 이 건물의 주된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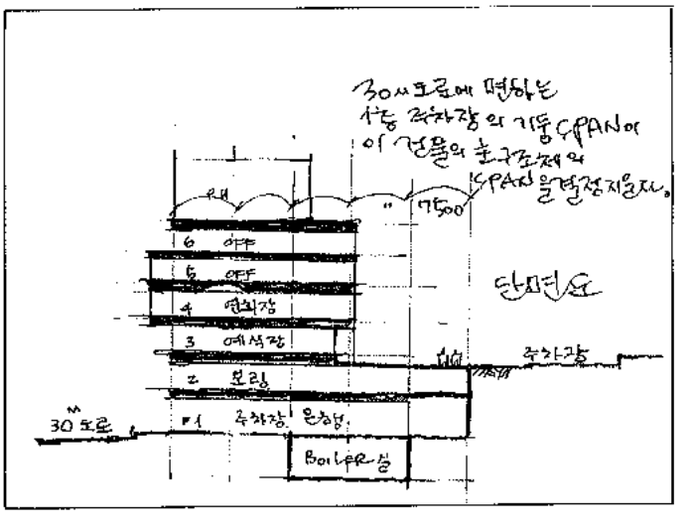
은행지점은 당연히 30m 도로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1층에 계획하고, 주차장이 이에 부속된다.

2층에 보링장, 당구장이 마련되고, 교정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3층에 예식장이 꾸며진다. 연회장, 식당, 동창회 사무실, 임대용 사무실 등은 차례차례 4, 5, 6층으로 배당된다.

30m 도로쪽이 바로 서향으로 서쪽 햇빛과 자동차 소음을 적당히 차단하면서도 남쪽 햇빛을 될수록 많이 받아들이도록 애를 썼는데, 그것이 이 건물의 대로변의 주 입면이 되었고, 심플하면서도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준다.







3층에 있는 예식장의 출입동선이 가장 붐비리라 짐작되는데, 1층에서 최상층으로 직통되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 건물의 주구조스팬은 대개의 오피스빌딩이 결국은 그렇게 되듯이 1층에 있는 주차장의 경제적인 스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이다. 더러 보링장등 일부분, 긴 스판이 어쩔수 없이 생겼지만 그런대로 무리가 없는, 평범한 구조계획이다.

3층에 있는 예식장과 크럽식당이 주건물에서 돌출되어 있는 것은, 첫째 이 건물의 주구조체에서 독립시켰고, 둘째 주건물에서 떨어짐으로써 색다른 효과를 노린 결과인데, 아직 좀 어색한 것 같다.

본 설계 단계에서 신중히 다듬어야할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3)

What Should Be Changed ?

李根昌/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본 협회 국제위원
by Lee, Keun-Chang

이 글은 15년간 미 극동공병단(Corps of Engineers)에서 설계실, Project Manager, Engineering/Construction Coordinator 등 여러 부서를 거치고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지 3년 동안 현실을 경험하면서 불합리하게 느꼈던 점과 그 대응책을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다.

세계시장이 개방되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접하고 있으나, 그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감리,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설계·감리비의 인상은 기술료가 비싼 외국기술자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축사들의 각성에 의해 우리의 지위향상에 일조하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다.

Ⅲ. 공사의 품질

배경

건설공사의 품질은 그 생산작업이 여러 산업분야의 생산품과 기술을 혼합하여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응용과학으로 지정된 자연적 여건에서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어서 이루어지는 결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생산 활동의 품질은 현실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는 사회, 역사, 환경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예술의 일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품질은 과학적이고 그 시대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다양한 산업기술이 분·초를 다투어 개발되고 그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대량 생산으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역시 대형건축물과 시설이 축조 되므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건설공사의 품질은 발주자의 사용 목적과 이익추구의 틀을 벗어나 그 시대를 조명하고 그 시대를 움직인 행정가와 산업인 특히 건설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것이다.

국제 건설시장이 각국마다 자국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확대 적용키 위하여 기술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고조되는 시점에 국내시장의 문이 열릴 때 샅바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재 점검하고 격차가 있다면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건설 기술의 부족함이 일석일조에 극복되지 않고 건설기술 자체의 개발이 건설시장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연관된 산업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전제로 하고 건설기술의 향상과 올바른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하는가를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토의

고도의 기술과 자금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려는 선진국의 공룡형 건설사들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부실시공이라는 누명하에 발생되는 빈번한 대형사고와 후진국형 하자 발생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야기는 과연 건설사의 전적인 책임일까? 문제의 발화점은 건설사의 전반적인 수준 즉, 수주경쟁, 기술력개발의 미흡, 기능공의 숙련도 부족, 경영부실 등의 공사품질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분석과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다.

경쟁시대에 수주는 생존과 직접관련이 되어있고 어느 누구가 쇠고랑을 차고 싶겠는가 마는 이제는 엄밀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품질시공과 안전이라는 대명제를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하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계약조건(Unfair & Unreasonable)으로 치부하고, 부적절한 사회적 관행으로 뭉뚱그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콘크리트를 부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불리한 계약의 체결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눈감아주어, 다주고 뺨을 맞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의 밥그릇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불행(?)을 방지하려면 우리 건설인 자신이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그와 연관된 도면, 시방서 계약조건 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요구된 조건으로는 어떠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 인식시키고 계약 조건이 건설사의 최소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인정신과 자존심을 지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 새역사의 참된 일꾼으로 성숙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은 1)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2)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3) 시공자 자신의 능력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4) 국가와 국민에 해가 되지 않아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중을 달리할 수 없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행으로 투자하는 건축주와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남기고자 하는 건축가와 신기술의 개발과 기술력을 자랑삼고 싶은 시공자 그리고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여러 분야의 제품업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이익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원활하게 하려면 만족스러운 품질이 뒷받침돼야 한다. 만일 품질을 뒷전에 두고 타성에 젖어 있다면 결국 국내 건설사들은 최고의 품질을 Know-How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선진해외 건설사의 하도업자로 전락하여 또다시 초반기 해외 공사에서 외국인 감독관에 의해 많은 일들이 좌지우지 되거나, 우리 국내 현장에 국외의 수법(Construction Management)이 무게를 잡고 운용될 수도 있다는 과거의 전철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갈길을 단편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주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건축물을 제공하겠다 하는데, 어느 투자자(건축주)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품질은 투자비와 정비례한다는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적정한 품질은 최소의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입찰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나 엄격한 품질 위주의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수행하기에는 Dumping 하여서는 절대 수행할 수 없도록 계약요건인 계약서, 도면 시방서 등을 적정 품질이 달성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둘째,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 Hi-Tech의 경쟁으로 돌입하는 현 시점에서 원가를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축적을 해야 한다. 품질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개발에 의한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자체 기술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와 같은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에 의한 절감 부분을 Incentive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설계도와 시방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건설사 자체의 기술력과 협력업체와 함께 제공된 설계서에 입찰에 분쟁소지여부(Biddability), 시공상의 난점여부(Constructibility), 완공후 작동과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Operability)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명확한 답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넷째, 공사의 품질을 절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요자재에 대한 시장성 검토를 해야 한다. 즉, 도면에 표기된 자재가 생산업체에서 계속 생산되는지(?).

가격이 저렴하고 더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기타 설치 후 주요하자 발생 요인 등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더불어 본 자재의 시공능력이 있는 현장요원의 수급 및 확보여부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현장배치 인원의 조직 및 공사계획의 수립을 실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현장배치 인원의 수급에 있어 신촌역 앞을 서성거리거나 청량리역에 이른 새벽에 나가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품질의 최종결정은 기능공의 손끝에 달려있고 그들의 심신상태가 모아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잘 훈련된 기능공의 배출과 더불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 배치되면 최초단계(Initial Phase)에 공사에 대한 유의사항 등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같은 품질의 공사가 연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현장업무계통의 수립을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통수립은 본 기고의 (2)편에서 제시한 공사전 회의를 통해 사안별 처리계통과 행정을 숙지해야 한다. 건설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조합하여 일구어내는 작업이므로 유능한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조직(System) 점검을 수시로 하고 어느 부분에 Bottle Neck 현상이 있는지와 그 발생요소와 제거방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열람을 필요로 한다.

일곱째, 수동적이지 말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공사중 얻어 비치하고 있는 여러 Data는 실전에서 획득된 것이며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어려운 공사 수행해서 얻은 값진 교훈이다. 이러한 체험을 근간으로 자체개발 된 절차와 방법 등을 국내 현장에서도 적용하고 감독관이나 감리자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기다리는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그들을 이끌고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솔선하여 품질관리(Quality Control)에 임하고 단지 건설중의 가치 뿐아니라 시공 완료후 효율적인 유지 관리(Operation & Maintenance)까지도 고려 하여야 한다.

결론

주어진 공사를 소정의 품질에 맞도록 수행하려면 여러 요소들의 상호 작용과 반작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인적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담당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고경영진의 품질관리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영진의 부적절한 참여는 품질을 더욱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체 품질개발 조직을 구성하고 그들을 최대로 활용하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품질과 안전을 숙지하고 실행할 때 완숙한 시공자로 태어날 것이다. 오래전부터 Construction Management의 기법을 몸에 익히고 부단히 연구 개발하여 우리 건설사의 약점을 비집고 발 붙이려하는 선진 시공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면과 끈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고품질 시공에 모든 건설인이 관심을 쏟을때 이루어질 것이다.

기지를 모아 국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도시의 흉물이 되지않는 건축물 창조에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새로운 시작에 서서…

Now Comes up to the Starting Point

金錫桓/터 · 울 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목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는 어떤 경우에든 설레임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내가 이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동안 건축을 터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진로 설정에 따라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길 중에서 건축가가 되기처럼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려운 것도 없을 것이다. 건축가가 작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도 어렵지만, 현행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무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도 예술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러한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가가 되어야 할 것을 강요당한다. 하지만 건축가는 사업가가 아니다.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창작에 몰두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수주만을 위해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은 자신을 망살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새로운 시작은 준엄한 현실적 시련과의 싸움에 놓여져 있다. 건축창조는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자기자신과 싸워야 하는 고독한 작업이다. 예술적 창작은 논리법칙의 적용으로 산출되어지지 않는다. 주제와 싸우며 보일듯 말듯한 미로의 세계를 헤매다 탈진에 가깝도록 자신을 소모해야만 비로소 겨우 하나의 작품이 태어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준엄한 사실은 예술가가 현실의 지위나 명예의 영달과는 인연이 없는 오직 자신의 내면세계의 발견만을 위해 자신을 불사르는 고독한 존재인 점이다. 그런점에서 예술가의 괴로움은 업과도 같은 것이다. 대중들은 예술가가 독창적이고 뛰어난 작품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코 관심의 눈길을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중의 갈채마저 예술가의 참다운 성공은 되지 못한다. 예술가는 오랜기간 동안 자신의 작품세계에 침잠하여 자신이 먼저 수긍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실에서 건축가의 창작기회는 대부분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가능하지만 건축창작은 대중들에게 아직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 건축가의 창작기회의 부자유는 타 장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다른 어려움을 안겨준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건축창조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축복이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 가운데 가장 보람찬 일이다. 건축은 인간이 삶을 의식하는데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고마운 도구이다. 건축은 인간을 안정하게 존재케 하며, 인간 존재의 품위를 지니게 하며, 인간이 애정을 갖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며,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갖게 한다.

또한 건축에는 미래에 대한 꿈과 인간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이 담겨진다.

건축은 위치와 양을 결정하는 단계로부터 모든 부분이 형상의 표정으로 인간의 감성과 대화하는 단계로 다다른다. 인간이 건축과 만나는 것은 정량적 계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눈에 의해 감지되어지는 형상의 사물자체에 대한 느낌이다. 그리고 인간의 미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물로서의 전체적 통찰에 의한 미적 질서의 부여와 균정이 필요하다. 건축가는 그들에게 의뢰하는 건물을 직접 짓지 않는다. 진열장에 있는 작품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정신뿐이다. 우리가 건축을 한다는 것은 건축이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만 만족하는 정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상을 어떤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통찰할 상상력이 없는 건축가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구상 또한 실제적인 마감상태의 의식없이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질 수 없다. 오늘날 많은 건축작품이 스터디 모델사진에서는 좋아 보이고 실체 지어진 상태에서는 건축가 자신이 보기에도 볼품이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 인식 위에서 계획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 건축가는 장인이 아닌 프로그래머가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국가 정책가의 실무자들처럼 물량요구의 해결과 벌률저촉여부의 점검만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만든 작품의 얼굴표정을 모른 채 「계획에 의해」많은 건물을 양산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건축가의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막스 베버가 일찌기 "문화 발전의 최종단계는 〈정신없는 전문인〉〈심정없는

“

**내가 건축을 발견하기 위해 걸어온 길은 우직하고 미련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후회와 미련도 없다. 내가 그토록 건축에 다다르지 못할까봐 불안해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이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새로운 인생의 행로를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 오직 이렇게 기도한다.
진정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향락인〉들과 같은 텅빈 인간들이 인류가 지금껏 도달하지 못한 문명단계에 올랐다고 자부하리라"고 간파했던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다. 건축은 예술가의 눈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업적 사고에 맡겨져 있다. 그것은 현대문명의 비극적인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건축가들조차 건축은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우기 대중들의 눈에는 건축이 온갖 산업활동의 산물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건축이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상실한 채 산업화의 도구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점이다. 오늘날 도회지 건축에서는 어떠한 장소적 컨텍스트에 의한 창조적 영감도 떠올릴 수 없는 기계적 질서에 따라 표정없는 거대한 상자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상황때문에 현대건축이 예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대도시안에서도 우연히 마주치는 균형이 잘 잡힌 건물에 마음을 빼앗겨 한동안 멈춰서 있게 되거나 어떤 공간안에서의 분위기에 아름답고 기쁜 마음이 유발되는 것은 진정으로 건축의 예술적 속성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짓는 모든 건물이 모두다 그렇게 느껴지게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15년전 한 위대한 건축가의 생애와 작품에 접하고 건축가로서의 길을 갈 것을 결심하였다. 나는 르꼬르뷔제 작품집의 서문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70세나 되어서도 꾸지람을 듣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행복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온갖 오해와 비난을 감내하며 오직 자신의 신념의 확신에 따라 순수한 창조에의 열정을 가울여 건축사상 가장 빛나는 창조의 업적을 남기고간 것이다.

나는 나의 건축의 길에서 항상 그를 정신적 스승으로 의식해 왔다. 그것은 마치 호오돈의 소설에 나오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던 어네스트의 정신이 성장해간 것처럼 나는 르꼬르뷔제의 생애와 건축을 생각하고 찾아나섬으로써 나의 정신이 고양되어감을 느꼈다.

나는 처음 설계를 시작할 때 건축의 실제모습을 알지 못한 채 도면을 그렸다. 내가 다가설 건축의 실체에는 가까워지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나의 작품을 설계할 기회를 갖고 싶었다. 20세때 고향인 전주에 우리집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나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계획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나는 건축의 원점을 맴돌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꼭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 나는 나 스스로 건축을 찾아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사무실에서나 건축가로 키우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는 법이지만 확고한 철학을 지니고 작품하는 사무실이 아니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어도 건축의 실체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았다.

군에서 설계와 공사행정실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다행이었다. 여러 지역의 많은 건물의 시공을 감독하면서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씩 느껴졌다. 특히 자연지형과 주변환경을 변형시키는 부지조성공사를 보면서 건축과 환경에 대해서 지각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제대후에는 직접 상온전산센터의 전과정을 시공하며 건축의 실체를 이해하였다. 그 이후 다시 건축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확실히 사물을 인식하며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을 사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나는 건축의 올바른 사고와 창의력을 넓히기 위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본질이 아닌 허상과 과장된 디자인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갖추어야 하고 미의식의 함양과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생활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건축을 발견하기 위해 걸어온 길은 우직하고 미련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후회와 미련도 없다. 내가 그토록 건축에 다다르지 못할까봐 불안해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이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새로운 인생의 행로를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 오직 이렇게 기도한다.

진정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건축사 의식형성과 위상 재 정립

The Recovery Direction of Architect's Phase

金基斗/대영건축사사무소
by Kim, Ki-Doo

건축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그 시대의 사회상과 역사를 투영하기 때문으로 건축사는 역사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그 생명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은 적은 것에서 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구분을 두지 않고 역사에 길이 남는 문화적 유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대하고 첨단적인 기술이 반영된 건축물의 대부분이 우리 건축사의 힘과 정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조악한 것이든 쓰기에 불편한 것이든 일단 세워지면 건물의 경직성과 막중한 시설비 때문에 마음대로 없애기는 배우 어렵다.

좋은 건축 또는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사명감 있는 건축사의 자질과 책임감이 중요하고 건축을 이해하는 건축주가 있어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건축사의 작업은 사색을 통한 지적인 작업이 될 때 아름답고 조화된 도시를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안도감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도시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적 내지는 도시적 기능을 살리고 그 고장의 전통과 자랑이 되어 세월과 더불어 살아남는 환경이 된다.

오늘을 사는 건축인들은 자기의 생각 보다는 남(건축주)의 생각을 더 존중하고 한번 세워진 건축물은 지상에 표출되어 만인의 주시속에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건축설계 또는 시공감리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직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21세기를 목전에 둔 건축사는 보다 높은 문화적 자질을 함양하고 서로 경쟁이 아닌 동반의 미덕과 협동으로서 이 시대 건축사의 의식형성과 위상을 재 정립해야 한다.

건축사회가 창립된지도 벌써 29년이 되었고 문민시대로 접어든 지도 1년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의식을 바로잡기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고 또 계속 추진중에 있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에 우리 백성들이 오늘과 같이 잘 살고 오늘과 같이 목에 힘을 주고 살은 적이 또 있었던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며 이 시대가 바로 민주시대인 것이다.

이 민주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하나의 기적인 것이다. 이 기적의 민주시대를 맞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기적의 민주시대를 슬기롭게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준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벌려 놓고는 촌지로 마무리 지을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1월 건축사지에 기고한 조인숙 회원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나 대기업의 발주공사의 설계용역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용기있는 일로 조인숙 회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같은 건축사지에 김화자 회원은 우리 건축사의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였고, 건축에 내려지는 제반규제가 평형을 잃고 있다고 대담하게 기술하였다.

그 많은 전문직 중에서 유독 건축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처분은 건축사로 하여금 잠시도 마음 편하게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주지않는 현실에 비애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건축사에게 가해지는 제반규제는 건축사가 국가건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리라.

나라의 자랑은 자연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건설이다. 건설에는 건축사의 작업이 앞서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는 국가건설의 선봉이라고들 말하지 않은가.

조어면 조일수록 건축사의 가치관은 높아지고 이 조임을 우리 건축사는 영광으로 여길지언정 섭섭함이 앞서서는 안된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가 건축사를 알아주는데 그 이상의 영광이 또 있겠는가.

먼 훗날 우리들의 작품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어 이들이 꾸역 꾸역 몰려올 것을 상상만 해도 현실의 아픔은 지난날의 추억으로 봄눈 녹듯 지워진다.

우리 4천3백여 건축사가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위상으로 재 정립하여 촌지를 모르는 촌지타도에 앞장서는 건축인이 될 때 건축사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일원이 된다고 감히 결론 짓는다.

특 집

21세기를 대비한 건축 3단체의 역할과 변화

나라 안팎에서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제 세계화, 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제2의 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시대상황은 우리 건축계의 보다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건축사」지는 지령 300호를 맞아 세계화 시대에 우리 건축3단체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념적 지표를 찾아보고자 「21세기를 대비한 건축3단체의 역할과 변화」란 주제를 가지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더욱 세분화 할 것인가 ! ····· 朴英健
■ 건축단체와 건축인 ····· 董政根
■ 건축정보관(건축한마당)설립으로 건축계의 초석을 ····· 金慶洙
■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하는 것 ····· 金光鉉
■ 내일을 위한 오늘 ····· 姜 燁

1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더욱 세분화 할 것인가!

To Be United or To Be Divided

朴英健/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
by Park, Young-Kern

흔히 건축 삼단체라고 칭하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는 성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관계가 무척 모호하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부 부처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일 뿐 일반인이 볼 때 참여하는 사람이나 설립목적, 사업내용면에서 대동소이 하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잘못된 한국적 현실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여 스스로 의아심을 갖기도 한다. 서로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나서야 할 때에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이 모두가 출신성분이 애매한 관변단체들인 탓이 아닌가 자문하기도 한다. 때로는 서로가 적자임을 은근히 비쳐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누구의 자식들인지가 분명치 않다. 실제로 건축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일정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다. 다양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복수의 단체로 나누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법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 통합의 원칙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르짖는 해묵은 구호이지만 요즈음 우리앞에 닥친 세계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명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건축삼단체가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루면서 건축계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도하게 밀려오는 외세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 가기에는 역부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작년 UIA 시카고대회에서 우리 건축가협회가 차기 총회 유치를 목적으로 활동한 결과를 보게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법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차원의 지원마저 없을 때 그 결과는 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 건축계 차원에서 통합된 단일기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대내외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으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조심스럽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통합기구는 모든 건축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하며, 국민과 정부에 대하여 건축계를 대표하는 유리한 기구조직 이어야 한다. 기존의 건축삼단체가 갖고있던 모든 기능을 수용하되 이에 걸맞는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건축과 관련하여 유사한 주제를 놓고 이해를 추구하지말고 기준이 서로 다른 집단간에 야기되는 알력과 분쟁은 전부 새로운 기구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우리자신의 환부를 밖으로 내보이기 보다는 안에서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건축계도 이제는 백해무익한 하찮은 집안싸움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관이나 여론에 의존하여 풀어보려는 소아병적인 태도를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때인 것이다.

건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전통사회의 규범을 황폐화시킨 군사정권의 폐해가 우리 건축계마저도 심각하게 오염시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면에서도 부분적인 궤도수정 보다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의 가정에 불과할지도 모를 시나리오를 마련해본다면 기존의 건축삼단체를 모체로하여 새로운 통합기구를 발족시키고 기존의 단체들은 이의 하부조직으로 학술연구나 전문직의 활성화 등을 꾀하는 세분화된 사회단체로 탈바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모든 일의 첫번째 관문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일인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쉽게 예측 할 수 있다. 맹목적으로 개인의 영예와 부를 추구하여 연공서열만을 주장하거나 학연, 지연을 등에 업고 자리차지에만 급급하는 추태가 재현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 세분화된 단체로의 진화

새로운 통합기구를 통하여 건축계의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들을 다루게 되겠지만 앞으로 더욱 다변화, 다양화를 추구하게될 건축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세분화된 조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삼단체로 나뉘어진 현재 상황이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된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 필요한 사항,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삼단체는 마치 학계에 있는 사람,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 건축을 예술적으로 다루려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모임을 만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각 단체가 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만 보더라도 그 명칭에 걸맞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사들의 모임 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현재의 명칭보다는 건축사사무소 협회라 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건축사면허 소지자와 건축사무소 운영자를 동일시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오류일 터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건축사 면허가 마치 건축설계업을 위한 영업허가증인 양 통용되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모든 건축사들의 모임에서는 건축사면허소지자—앞으로는 건축설계분야에 종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권익보호와 자질향상 등에 관한 것만을 다루고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들은 건축사사무소협회, 더나아가서 법에서 규정하는 사무소 형태별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른 두 단체의 경우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와 유사한 모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과거에는 명분을 너무 내세운 나머지 실리면에서 손해를 보아온 경험이 너무나 많았다. 모든 것을 자기 품안으로 끌어안으려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일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모임의 성격이나 목표를 뚜렷이 밝히고 관련범위를 가급적이면 축소조정함으로서 세분화된 하나하나의 단체가 독자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한단계 진화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전문직의 상황

최근에 도착한 금년도 P/A지 2월호에 실린 Thomes Fishor의 '이 직업은 구원 받을 것인가? (Can This Proffesion Be Saved?)', 라는 제목의 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영화 Fountainhead—원작, 우리나라에서는 허종열, 김원에 의해 '마천루'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아인랜드(Ayn Rand)의 동명소설—의 주인공인 게리쿠퍼가 나온 사진과 함께 커버스토리로 실릴 만큼 비중있게 다루어진 이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많다.

요약하면, 건축에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써먹던 방식은 이제 더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전세계적인 경기퇴조의 파급효과로 수입감소, 실업의 증가 등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건축서비스 방식의 변화를 원하는 사회적인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탓이 크다. 건축가의 숫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고 과거에는 건축가의 고유영역에 속했던 일들이 컴퓨터나 팩스 등의 발달로 생산성의 증가와 함께 대중화하는 경향이 있다. CAD의 영향이 특히 커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시차와 거리상의 제약을 해소시켜 버렸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축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조절이 절실한 문제이다. 아울러 건축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정통적인 면에서 건축주에 대한 기반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있다. 건축과 유사한 전문가 집단의 등장과 그들의 입지 강화에 따른 업무영역의 양도로 건축가의 활동무대가 축소 되었다.

건축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일반대중 사이에 싹트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론이다. 일반대중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될 때 벌어질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에 영국 국회에서는 건축사 면허제도와 건축가의 타이틀을 보호해 주던 제도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와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지만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위기상황을 극복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다른 전문직 특히 의료업, 법조계, 엔지니어링업계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글은 "우리 자신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른 영역의 전문직으로부터 배울 단 한가지 교훈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장 나쁜 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있다.

2 건축단체와 건축인

Architecture Organization & Architect

董政根/인하대교수
by Dong, Jeong-Keun

현재 본인은 건축가협회 회원이고 또 건축학회에 가입되어 있다. 건축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건축사협회를 포함하여 이들 3단체와 어떤 의미로든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건축학회 가입은 필수적이다. 건축사협회라는 단체는 정부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축사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가협회는 위의 두 단체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건축문화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인 단체이다. 필자 자신도 6년여동안의 설계사무실 운영 경험이 있으므로 이들 3단체의 체제나 운영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듯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상호의존적인 관계, 즉 건축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축3단체와 관계를 가지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축가협회 회원의 입장에서 본 건축3단체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원고 청탁을 받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필요의 욕구에 의해서

가입했다기보다는 필자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남들이 가입하니까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했고 또 그 활동도 모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거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갖게되면서 기본적이고도 당연하기까지 한 건축3단체의 조직과 역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21세기 문턱에 서 있는 이시대, 우리 건축인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물결속에 휩싸여 있다. 대내적으로는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관에 의해 왜곡되어왔던 부분이 노출되고 부분적으로 정비되어 가거나 혹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으며, 건축전문인으로서 우리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싹트면서 건축계에 다양한 발언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UR로 인해 국제화시대를 앞당기면서 그간 안이하고 편하게 지내오던 우리 건축계에 밥그릇 논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일고있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갑작스럽게 일어날수 밖에 없는 돌발사태 이었는가? 그것은 아마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세력의 안이한 자세나, 자기 울타리만 지키겠다는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집단이기주의자들이 자기들만의 틀속에 안주하면서 내일을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본다. 변화의 주기는 세기 단위에서 이제는 세대단위로 혹은 10년, 아니 몇년단위로 그 주기가 짧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는 열린사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말 쇄국 정책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듯이 우리문화를 통채로 잃을뻔 했던 경험을 이제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건축 3단체는 과연 오늘의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축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각 단체와 회원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단체는 개인들로 구성되며 개인들은 한 사회의 내부에 존재하듯이 각 단체는 회원들을 자체의 운영자로 삼는다. 두존재는 동시대적으로 의미를 가지며 같은 보조로 발전하여야 하는 것이다. 각 단체는 회원들이 가입하므로써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각 개인은 그 스스로의 필요와 단체의 압력에 못이겨 관습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류인 것이다. 건축인은 건축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즉시 각 단체들과 관계를 맺게되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관계속에서 공동결합과 적대관계, 모방과 독존, 협동과 경쟁, 권위와 복종,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건축인의 존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단체의 구속과 영향속에서 자유로와진 한개인은 현실에서 유리된 은둔적 사념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건축단체와 건축인은 복잡한 방정식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원성의 형태로는 표현할 수 없다.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 부는 바람과 흐르는 물살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건축단체의 변화의 원리를 물의 흐름의 원리를 통해 좀 더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 고이면 썩는다

건축학회의 정관에 있는 이 협회의 목적은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건축인의 지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건축가협회의 모임의 목적은 정관 제2조에 '건축가의 자질 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다.

건축사 헌장을 보자.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토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각 모임의 취지나 목적은 참으로 좋다. 그런데 그 참여도가 높지 않다. 각 모임을 주도하게 되는 몇몇그룹이 항상 앞에 나서게 되고 원로들은 원로대로 대접 받기만을 기대한다. 각 단체 모임의 목적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문화 창달은 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몇몇 구성원들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건축계 전체가 이루어야하는 과제이며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닫혀진 기존의 틀속에 순응하며 그곳에 머물며 기생하여 자기 존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보호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개인이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썩어가는 고인물 속에서 도덕성을 저버리고 가치기준마저 마비된 상태로 건축문화를 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제도권의 보호아래 그들의 임무는 매우 크며 그 영향 역시 크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책임 또한 큰것이다.

앞에 나서게되는 임원진은 임원진대로 그들의 역할에 불평을 하면서도 그들의 명함이나 이력서에는 무슨 이사니, 고문이니 하는 식으로 박혀있는 것을 본다. 회원상호간의 모임에서의 직위와 명분을 내세워서는 안될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은 회원들은 소외계층이 생겨 더 모임을 등한히 하게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익명성과 참여도를 높히기 위한 멤버들의 물갈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닫혀져있던 기존의 틀은 이제 변해야 한다. 열린 사회, 열린 단체만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물을 받아 들이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고인물은 썩은물로 변하고 그 속의 물고기는 기형의 물고기로 변하던가 다른 신선한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 막으면 넘친다.

건축가협회의 주요사업은 대한민국 건축대전, 건축세미나및 심포지움, 선배들의 이름이 지워진 특별상에

대한 행사, 3년마다 열리는 UIA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일, 월간으로 나오는 건축가지 발행 등이 있다. 건축학회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건축강연회, 학생졸업전시회, 국내외 관계제학회와의 교류및 회의참석,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및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사업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건축문화창달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겠다. 또 회원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가? 가끔 몇몇 협회지에서는 그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하여 원고를 실지 않는 넌센스가 일어나기도 한다. 회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회가 어떤회원이 다른회원의 의견과 뜻을 달리한다 해서 그것을 막을수는 없는 것이다. 협회가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다양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요구사항도 다양하다. 건축업의 영역별로, 전문분야별로, 각 세대별로 각계 각층에서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기존의 틀로 막으려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다양한 요구를 그저 수공방어 맴으로만 막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길을 막으면 넘친다. 넘친물은 그댐을 파괴시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댐이 터지기전에 다양한 각계 각층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물고를 틀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껍질을 멋고 탈바꿈하는 단체만이 그 존재 가치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물이 있으면 흩어지고, 깊고 넓은 곳이 있으면 모인다

요즘 새로운 단체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있다. 학회, 협회, 위원회, 단체, 모임 등,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자 하는 욕구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단체가 계속 더 생기면 기존 3단체는 원래의 모임의 목적중의 자질향상의 측면은 퇴색되고 단순히 친목 도모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던지, 양로원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건축학회는 단체내에 무려 49항목의 상설위원회(회원자격심사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건축계획위원회, 법제위원회, 건축용어위원회, 건축기초구조위원회 등등…)를 두고 있다. 건축가협회는 건축활동의 분야별 직능에 따라 건축설계, 실내설계, 도시환경, 구조설계, 건축역사, 건축평론, 건축교육등의 연구분과를 두고 있다. 학회는 상설위원회의 작은 분과들이 전문분야별로 분가하여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으며, 사협회는 이권단체별로 분리되며 지방별로 모여 돌고 있으며, 가협회는 세대차이의 계층별로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장애가 되어 흩어지고 있는가? 학연, 지연, 기득권 세력과 신진세력, 전문분야에 대한 배려부족, 이권단체별 집단 이기주의등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많은 장애물을 볼 수 있다.

물길은 장애물이 있으면 흩어지기도 하고, 깊고 넓은 곳이 있으면 다시 모여든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대해진 (별로 비대 하지도 않지만) 단체를 끌어가고 있는 제도권의 운영방법의 미숙이라고 본다. 3단체는 우리건축계의 미래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본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송년회 비용이나 주최자 문제로 논쟁하기 보다는 우리 건축계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논의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고 시행하여 나갈때 모든 건축인은 깊고 넓은 곳을 찾게되며 모여들게 될 것이다.

□ 급류는 주변을 해친다

건축가협회에 가입할 때 받은 회원증에는 '위의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임을 증명하며 건축에 관한 모든 창작활동의 자격을 부여함'이라고 쓰여 있다. 그 때는 2명의 이사급회원의 추천과 작품이 있어야한다는 조건에 어렵사리 들어갔으므로 그런 문구들이 무척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건축에 관한 모든 창작활동의 자격을 부여할'수 있는 자격이 건축가 협회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그런 문구야말로 건축사협회와의 역할분담, 영역분업, 협동에 착오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문이나 T.V.에서는 부실감리건축사, 위법을 눈감아준 건축사, 부실공사자들에 대해 크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그것을 볼때는 마치 건축가들이 큰 죄인이나 된것같은 인상을 주고 사회에 병폐를 끼치기만하는 존재로 볼수 밖에 없다. 극히 일부 회원들의 오류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회에 좀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건축가들의 권익옹호같은 것에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건축계에 변화의 파도는 일파, 이파 그리고 변화의 파도뒤에 안정을 찾으려 하면 또 삼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건축계에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급히 그 방향을 바꾼다거나 사회가 적응하기도 전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을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급류는 주변의 산을 깎아내려 산사태를 일으키고 만다. 졸속한 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인 '하면된다' 식의 밀어 붙이는 변화보다는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서서히 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길을 잃은 건축문화는 어디에서 찾겠는가? 책임전가나 영역싸움, 이권다툼은 이제 멈추고 우리의 건축현실을 직시할 때가 왔다. 건축의 질에 대한 문제로 관과 관을 비호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건축가, 감리단, 전문 감리회사, 건설회사간의 책임전가 문제, 건축업의 영역싸움이나 이권다툼도 건축가, 종합건축사 사무소, 단독건축사 사무소, 법인건축사 사무소, 종합건설업 사이의 문제도 그 단체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건축계 전체가 져야할 문제인 것이다.

건축을 성숙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문제를 논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에서 부터 생산체계 그리고 기술 축적까지 모든문제를 3단체가 모여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건축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건축정보관(건축한마당) 설립으로 건축계에 초석을

The Necessity of Architecture Information Center

金慶洙/명지대 교수
by Kim, Kyung-Soo

유럽통합에 대비하여 교육의 결과를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준들을 연구해 온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의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공과대학(politechnic) 출신은 건축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각국에서는 지금 공과대학체제에 있던 건축학부들이 종합대학속으로 재편되고 있다. 사회의 고급 지식인으로 인정받아온 전통 속에서 공학도 또는 기사와 건축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건축가를 교육하는 데는 현대사회와 사상,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 건축역사에 대한 공부가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 학부를 졸업하여 건축가가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건축역사와 현대건축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자신의 언어를 추구해 가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시험과목에 포함되고 나서야 건축역사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우리 건축계의 현실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 준다.

건축가를 정치가 주조해내던 시대는 갔다. 사업능력이 뛰어나서 상업적인 건물을 많이 그려내는 사람이 위대한 건축가라는 착각도 많이 씻겨졌다. 해외의 유행을 빨리 수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앞서가는 길이라고 믿기에는 정보의 공유속도도 너무 빨라졌다. 결국 건축은 무엇인가?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키워져야 하는가, 장인인가, 지식인인가? 서비스맨인가, 지성인인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그런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건축교육계, 학계, 건축계의 죽음같은 침묵과 보수적 관행을 대변하는 "학문"의 권위이다. 건축사협회는 이제 건축계내에서 그 위상이 크게 바뀌었지만 아직은 설계하는 이들의 최대다수를 회원으로 갖고 있다. 건축설계업협회로 계속 새로운 이권단체로 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으면서 건축계에 기여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을 것으로 보고 제안해 드린다. 전환기에 가장 신속하게 변신을 할 수 있는 실천인들의 유연함을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건축사협회가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건축계의 지식과 정보는 어떤 경로로 소통되고 있는가부터 들여다 보자. 가져다주는 책만을 구입해 온 버릇때문에 서점의 도서목록은 종이장사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정보가 건축인들에게 필요한지 연구할 조직없이 요행수 바라듯이 책을 수입하여 몇년간 꽂아 놓았다가 정 안팔리면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 기증한다. 일본에서 벌써 몇 십년전부터 발행해 내고 있는 건축도서목록을 뻔히 보면서도 그런 것을 만들 생각을 않고 있다. 출판과 서점 업계에 능동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건축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수요가 없을 때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일면 당연하다. 이미 몇년 전부터 선진 각국은 전자파일 상태로 건축도서종합목록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신간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갱신해 주고 있다. 국내 어느 도서관에 세계 모든 지역의 주요 건축신간, 잡지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대학도서관에 새로 신청하는 잡지는 번번히 뒤로 미루어진다. 영미일의 정보가 세계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활발한 움직임에서 우리는 더 자극을 받을 수도 있으며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는 일에 협력할 가능성도 크다. 적어도 건축에 관한 한, 우리가 식민잔재와 군부통치에 갇혀 있던 동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린 자세로 건축하고, 건축계의 풍토를 만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건축의 역사와 이론을 통한 자기확인은 요원하고, 현대건축의 사상적 배경과 진로에 대한 이해도 허술하다고 느끼는 현역건축가들의 재교육도 시급한 문제이다. 서구의 "건축"대신 한자문화권이 역사로 갖고 있는 "조형"의 개념을 현재의 설계에서는 어떻게 연구하고 반영할 수 있는가? 자신의 문화권이 갖는 고전에 대한 교양없이 겉돌고 떠도는 현재의 설계이념은 누가 세우고 그 실험은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한국건축역사학회는 건축설계교육에 건축역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로 학술총회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계건축계의 지식체계와 문제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대건축이 고전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현장와 열기와 표면상의 무질서가 그대로 전달되었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땅에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보편적 지식체계가 왜 시급한지도 제기되었다. 이 격변기에 우리 건축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제시하면서, 역사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살아있는 역사학을 세울 수 있는가? 아직 규모는 작은 단체이나 건축역사학회가 국내의 건축가들에게 이론적 방향정립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건축학회는 국제화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교육의 선진화를 논하려 전국대학건축과 교수세미나를 13년만에 다시 연다. 일제식민지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교육현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교육제도로 개혁하려는 안이 준비되었다 한다. 그 13년 동안에도 우리 교육은 일본과 미국의 열등한 아류로 잠자고 있었다. 8차회의 이후에는 바뀌려는가? 그 권위에도 불구하고 건축학회는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건축계의 이념설정 역할을 자임하기 보다는

친목단체로 남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이번 전환기적 노력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 건축계의 주요 3단체장을 비롯하여 여러 모임대표들이 이마를 맞대고 이 대격변기에 대처하여야 한다. 기득권을 논하고 아름다운 보수적 관행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이 세기말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각 단체별로 시급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선 이 격변기의 정체를 직시하고 협심하여 지금 바로 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급한 일들에 순서를 정한 후 역할 분담을 논의하여도 된다. 3단체와 신생 여러 단체들을 포괄하여 합동으로 건축계의 현황과 세계의 움직임을 즉각 전달할 수 있는 건축정보관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국립건축대학을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그런 정보의 중심을 만들어 활용하면서 그 속에서 건축가들의 재교육과정도 시작될 수 있다. 일과시간 후 야간과정에 두세 과목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제 어느 한 단체가 이런 일을 할 단계는 지났다. 건미준과 행정쇄신위원회의 개혁으로 격변을 겪은 후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제야 건축3단체의 역할과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직능단체가 겸허해져서 회원들의 진정한 복지와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으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건축가와 건축학도들에게 시급한 정보센터를 세우는 일을 주도할 힘이 아직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건축사들이 합의한다면 그간 쌓아놓았던 기금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씨앗으로 쓰면서 21세기의 3단체의 협력 또는 통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4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하는 것

Making this Society to Tell Architecture through its Own Culture

金光鉉/서울대 교수
by Kim, kwang-Hyun

사실 우리나라의 건축을 움직이는 가장 큰 단체인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가 과연 앞으로 몇년 남지 않은 21세기를 맞이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할 것은 그다지 많지 못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 개의 단체에서 별로 중요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각 단체가 해야 할 일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건축가협회 회원의 입장에서'라는 단서를 무시하고 극히 당연한 몇가지 주장을 하고자 한다.

돌이켜 본컨대 이 3개의 단체가 웬지 모르게 각각의 길을 걸어 왔고 건축의 중요한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 사회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강하게 어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같다. 그런데도 이렇게 3단체가 어떤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가를, 그것도 21세기를 향해 새삼스레 묻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에서일까? 아마도 그것은 현재 안팎의 상황이 건축에 대해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과 더욱이 21세기의 여러 상황이 건축에 대하여 매우 복잡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하면 말로는 아주 많이 남은 듯 싶지만, 실은 불과 6년이면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향하는 건축 3단체의 역할'이라 해도 그 테마는 그리 대단한 것도 못되고, 그렇게 먼 미래를 의식하는 것도 못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제까지 해 오던 일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할 일이 있다면 이제까지 해오지 못하던 일 속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야 할 일에 21세기라는 형용어구를 붙인다 한들 SF 영화에나 나오는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대단한 미래를 6년 동안에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소 핀트가 어긋난 이야기가 되겠지만 21세기에는 각종의 정보와 기술 그리고 생활이 '문화'로서 인식된 것이고, 국제화 시대라는 이름 아래에서 외국의 자본이 '문화'의 옷을 입고 침투해 들어 올 것이다. 이제부터 이 '문화'는 70년대나 80년대에 말하던 것과 같이 고상한 레벨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겉핥기식의 의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세기말에 선 바로 이 시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지 오래다. 국제화란 우리가 국제적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제적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제화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물리적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가온다는 데 있다. 기술이 점차 소프트해진다는 것은 기술이 문화적 감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뜻이며, 또 국제적인 자본은 그러한 문화적 감각을 입은 기술을 통해 들어온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 운운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같이 사랑방에서나 가능한 고상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건축을 '문화'로"하면 또 그 이야기냐 하겠지만, 정말로 건축이 21세기에서 제대로 살아 남으려면 이제까지와 같이 사회의 간접자본시설, 건설의 한 분야, 자본축적의 방편, 소비적 인테리어를 두고 생활의 지혜라고 치장하는 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최근 건축(공)학과를 토목과 조선 및 자원공학과와 계열별 통합하겠다는 주장이 몇몇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다. 말하자면 구조는 구조대로 합치고 설비환경은 다른 학과의 유사한 부분과 합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축은 건축디자인과 계획 및 역사만 하나의 계열이 되어 남게 된다. 더구나 이렇게 되면 건축학과라는 이름도 없어지게 된다(사태가 이리한데 건축을 공학과 분리하여 건축

디자인만 가르치는 대학을 만든다고 하니,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나 이것은 우연의 일도 아니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흥분할 일도 아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에 굳건히 서 있는 건축을 '문화'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겠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이들과 같이 이해하는 이들이 많으니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건축을 '문화'로"란 이제는 더 이상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건축이 해체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본질이고 방파제라는 말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건축을 '문화'로"라는 말을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밖에서 주어지는 조건일 터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계 내부에 산적해 있는 제약들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건축계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인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건축을 지망하고 그 속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건축계에 대하여 가장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건축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행위'임을 인식하게 해 달라는 점일 것이다.

개인이든지 공공단체든지 건축사가 건축을 문화행위로 이해하지 못해 건축가가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건축사는 건축행정관서에서 부닥치는 현실의 문제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일단 접어두고 사회에 나가면 건축사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것처럼 논해야 하는 걸치레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고학년이 되면 학생은 이러한 한계를 금방 알게 될 터인데도 말이다. 더 나아가 국가가 입안하는 정책도 진정코 건축을 잘 해 보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을 외면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우리 건축의 3단체가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다고 믿는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이 늘 부르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서 별로 파악해 주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건축학회는 건축을 학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건축사협회는 국가가 제정한 면허제도에 의해 성립된 단체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쪽은 건축의 한정된 영역을 이론과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세분화해 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불리하기만 한 실제의 건축적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직능 단체로서 지속해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건축가협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튼 이 3개의 단체는 이제까지 많은 일을 해 왔지만, 건축을 '문화'로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 긴밀하게 활동하지 못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매우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건축사협회 하면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규정된 대로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감리하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내세운 집단이었지 이를 바탕으로 건축의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실제의 설계 업무를 행하면 그것으로 되었지 그 이상의 목적을 들어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한다면 나역시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건축사협회 등의 각 단체가 앞으로의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이와 같은 지적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내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도 무슨 국가적인 일이 있으면 단체장과 그 임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체육관 같은 곳에 모여 궐기대회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건축사협회지를 통해 볼 때면 정말로보기가 싫고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는 건축사(가)를 콘크리트를 잘 쳐서 건축주의 말대로 지어주면 되는 봉사자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만 여기는 판에,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 와야 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건축사협회 하면 아직도 관제 협회로만 생각되고, 이 사회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건축적 문제에 대처하고 실제의 건축을 통하여 국민을 계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는 단체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건축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기다온의 말을 참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듯 건축을 '거울'로 여기고 이를 미화하던 입장이 이제까지의 건축인 내부에 깔린 논리가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이 말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즉 그것은 건축이란 사회의 종속자요,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저절로 변화하는 대상물이라는 인식이 그 속에 들어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건축은 사회로부터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나 건축은 사회를 규정하고 방향을 정해 주는 '문화'의 한 영역이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회적인 조건을 비춰 주기만 하는 '거울'은 결코 아니다. 건축이 '거울'로만 존재하면 자신을 잃게 된다. 건축에 대해 사회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회에 대하여 '건축'을 말하는 데 있지,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한다는 식으로 건축을 미화하는 일에 있지 않다. 건축을 이런 식으로 '거울'로만 인식한다면 건축은 앞으로도 더욱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말이 다소 불투명하게 들린다면, 다음과 같은 루이스 칸의 말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만일 내가 건축을 말로 정의한다면, 건축이란 공간을 사려깊게 창작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크라이언트가 만족하는 지시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 건축가의 최초의 행동이란 자신에게 온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즉 그것은 프로그램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축의 영역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해 공간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건축에는 건축 고유의 영역이 있으며, 바로 이와 같은 고유의 영역을 인식할 때 건축은 사회에 대하여 '문화'로서 인식될 것이고, 이러한 입장이 투철할수록 건축가는 사회에 대하여 자유로울 것이다.

이 점은 건축학회에 대해서도 그렇다. 건축학회는 교육과 학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역할을 건축학회는 꾸준히 담당해 왔지만 학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세분화되었고, 그 결과 또 다른 많은 학회가 기존의 건축학회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었다. 그만큼 학회는 성장했으며 영향력도 커진 것이다.

그러나 학술이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건축교육은 여전히 매우 커다란 문제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세분화된 학술과 학술 사이에서 건축설계를 중심으로 한 직능교육은 점차 불가능해져가고 있다. 대학의 교육은 각각의 분야가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각분야를 직능적으로 이어야 할 건축설계교육은 점차 왜소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축교육 특히 건축설계교육 문제가 건축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까지 싫증이 날 정도로 많이 들어 온 것이니 또 교육문제냐 하고 외면할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의 근간이 바로 건축교육에 있으며, 그것은 이와 같은 21세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건축계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긴급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교육문제는 더이상 일과성의 이야기거리로 남아서는 안되겠다. 오히려 그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모종의 결과를 얻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앞으로의 건축설계교육은 이 여러 건축의 분야를 사실과 사실로서만 종합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세분화되어 가는 건축학의 여러 분야를 딛고 건축사가 건축을 '문화'로서 다루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대학의 설계교육 대부분은 기술적 사실을 일정한 건물에 적용한다는 평면적인 레벨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니 건축설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축을 '문화'로 말한다는 관념을 익힐 리도 없다. 또 실제로 현실 속에서 작업하는 건축사와 건축가들도 이렇게 말하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이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대학교수가 이 점을 강조한다 한들 그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만 인식하게끔 되어 있다.

건축사가 건축을 문화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노력이 지속적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화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고, 하나의 가치관이 중시되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가치관이 새로운 문화 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칫 이 점을 무시하고 '문화'를 호사가의 고상스러운 치장으로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건축이 지속적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과 비판에 근거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이 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건축의 3단체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변환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축이 '문화'의 관점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작업을 펼쳐 주어야 할 것이다.

건축계에는 여러 단체가 있다. 그 중에서도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는 우리나라 건축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3개의 기둥이다. 그런데 건축사나 건축학자 그리고 건설인들이 회원이 되어 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이 3단체에 기대하고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3개의 단체가 사회에 대해 건축을 말해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통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를 위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란 개인이 사회에 대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모일 때 가능하니까 단체를 만들고 또 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3개의 건축단체가 이제부터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면 이제까지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점, 곧 이 사회가 부디 '건축'을 '문화'로서 인식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 이상 건축이 사회의 하부조직에 속한 것도 아니며, 건축인이 사회에 종속된 대리인 정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3개의 건축단체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점에서만은 서로 연계되어 무언가 획기적인 활동을 펼쳐 주길 바란다.

이제 건축의 3단체가 새로워지기 위해 내가 전혀 모르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 모든 노력은 각 단체의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건축의 의미와 그 진실된 모습을 이 사회를 향해 보여주고 건축을 확고한 '문화'의 영역으로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건축 3단체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게 하는 일에 수렴되었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국제화하고 개방화하는 21세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반드시 다른 나라에 대한 처방책을 만드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란 문화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축이 정말 새로워지려면 적어도 바로 이 땅에 남아 있는 각종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진정코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건축의 3단체가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21세기의 역할과 변화'가 아니겠는가.

5 내일을 위한 오늘
Today For Tomorrow

姜 爀/경성대 교수
by Khang, Hyuk

"21세기를 대비해야 하는 건축 3단체의 조직과 역할"이라는 기획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마련된 것 같다. 즉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21세기는 커다란 변화와 격동의 세기가 될 터인데, 이 험한 격랑 속에서 한국 건축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3단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어떠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이다. 미래를 예견하고 거기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현명한 처사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미리 깔려있는 것 같다. 변화무쌍한 21세기에도 한국 건축계의 지도는 여전히 사협회, 가협회, 학회로 나뉘어져 그려나갈 것이며 3단체가 한국 건축계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될지를?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오늘날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될지, 또 그것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말이다. 더욱이 그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삼단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속할지 상상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고, 미래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할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가늠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약간 회의적인 뉘앙스를 풍겨가며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최근들어 도하 각 언론이 UR이니 NAFTA니 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개방화와 세계화 (혹은 국제화)의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강조하는 가운데 건축계의 내부에도 막연한 위기 의식이 팽배한 것 같고, 본 기획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논의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상황 분석에서 나온, 그래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이라기 보다, 그저 생존적인 차원에서 일회적인 반응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이다. 무엇보다 본 기획 자체가 저널리즘의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한 감이 든다. 좀더 학술적이거나 실제적(현실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한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글은 그저 개인적인 소견과 감상을 피력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 망의 발달과 더불어 진행된 인간과 물자, 정보들 간의 교류의 가속화는 세계를 동일화시키고 있다. 세계의 경제와 산업및 서비스가 통합되어 상호의존하여야만 존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또한 권력과 지식및 가치의 중심들은 급속히 분산되고 다원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인 지역주의와 블럭화 현상이 공고해지는 듯 싶기도 하다. 이런 급변하는 사태에 대해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역량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이다. 특히나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우리 건축계의 수준과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미약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20세기 말에 건축이 맞고있는 변화의 물결은 단순한 환경 상의 변화 정도가 아닐런지 모른다. 건축을 만들어가는(the making of architecture)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 건축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의 전환이 강요되는 그러한 큰 물결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례로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건축 생산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와 건축가의 존재 방식, 건축과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건축의 개념조차 바꿔 놓을지 모른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건축 사회는 이제까지 너무나 안이하게 지내온 감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오늘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인식의 전환일 것이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일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내부에 있는지 미심스런 측면이 있다. 우리 건축계가 공룡같은 존재가 되어 변화를 거부할 때 불가피하게 외부사회는 변화를 강요할 것이고 그것은 가혹한 업보가 될 것이다.

내일에 대한 대비는 우선 우리의 현재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다. 건축의 본질적인 두 측면은 문화와 기술이다. 한국 현대 건축의 현재의 모습은 이 양자 어느 쪽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건축에서의 기술은 결코 하이테크가 아니다. 오늘날의 눈부신 기술 수준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오히려 로우테크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나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선 설계로 부터 건설 관리, 재료의 품질, 그리고 노동자의 끝마무리까지 일관된 양질의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또 거기엔 전문가 정신과 장인 의식이 필수적이다. 한국 현대건축의 기술적 상황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 현대건축이 한국성이 깃든 건물들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진정 한국적인 건축 환경을 만드는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근대 이후 우리의 삶의 환경은 황폐하다.

최근 우리는 국제 경쟁력이란 말 대신에 국가 경쟁력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그것은 특정 분야의 능력 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부문이 합해지는 총체적인 역량을 뜻한다. 이제 모든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힘의 총화가

진정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여 현재의 한국 건축계를 진단하자면 우리에겐 총체적인 취약성이 있다. 건축사의 양성(교육), 건축사의 전문성, 건축사 집단 내부, 대 사회 관계, 건축 지식의 생산 등이 상호 관련되어 악순환을 빚고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도시와 건축을 저급한 것으로 만드는 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한국 사회의 다른 부분의 눈부신 발전에 기대어 그럭저럭 버텨왔다.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으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건축계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건물은 커녕 우리 시대의 삶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조차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계속되는 사고와 하자 때문에 우리 사회도 점차 건축계의 역량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난데없는 개혁과 우루과이가 터져나왔다. 한국 건축계는 본능적 위기감에 몸을 떨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뇌리를 지배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관심이지 내일을 위한 적극적 변신은 아닌 것 같다. 안이한 부분적인 대처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조적 개편(restructuring)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reengineering)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럴 용의가 있단 말인가?

현장과 거리가 있는 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원칙적인 사항 몇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건축계의 삼단체는 조직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벗어버리고 보다 유연한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직의 크기나 세력 과시로 한몫보던 때는 이미 지난 것 같다. 권한과 활동이 보다 분산되고 다원화될 때 변화 대처능력도 커지고 구성원의 요구도 쉽게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의 예를 들자면 모든 학술 활동이 학회로 집중되기 보다 산하에 세분화된 여러 학회들이 생겨나고 학회는 그것들의 조정역 내지 집합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럴 때 진정한 지식 생산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느 직능 집단이 자기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 내부 사회에서의 관행과 기율이 합리성이면서 발전지향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건축인 집단은 이런 점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같은 사태에 매우 무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의 한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건축인의 양성, 라이센스의 발급, 재교육과 재충전, 전문성의 평가와 그 반대 급부의 제공, 내부의 자정 노력, 조직과 운영과정 상의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한 각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몇몇 재야(?)단체들의 현실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후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미래 건축가의 양성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을 키우는 일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현재의 부실한 커리큘럼과 교육 체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불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특화된 교육, 유연한 프로그램, 양호한 교육 환경, 현장실습 기회, 동기와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손실을 줄이는 일이기에 단체 차원에서(특히 사협회에서) 관심과 투자가 있었으면 한다.

전문성의 제고와 맞물려 대 사회와의 관계 설정과 발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다. 각 단체는 사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대 사회 발언을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내부의 담론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외부 사회에 그것이 전달될 때 건축계와 한국 현대건축의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사회를 떠나서 건축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환경과 도시 문제, 주거 문제, 건축과 문화 등에 대한 대 사회 발언이 더욱 커질때 사회도 건축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언론을 잘 활용하는 것은 건축계의 위상을 높이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주요 신문의 일요판에는 매번 건축이 특집으로 실리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가 외래의 가치관, 외래 문화와의 더욱 치열한 부닥임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조건임을 뜻한다면 오히려 더욱 우리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는 무슨 국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번영이 이에 근거하여 좌우될 것이라는 석학들의 진단 때문이다. 한 공동체의 공통적인 삶의 양식을 넓은 의미의 문화로 보자면 문화적 정체성이 없음은 곧 그 존재의 기반이 취약함을 뜻하는 것이 된다. 국제화 시대에는 오히려 지역성, 개별성, 독자성이 더욱 큰 가치로 등장한다고 한다. 상품 하나에도 문화와 철학이 요구되는 시대에 건축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온다. 바깥의 변화의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우리의 중심을 지키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각 단체의 국제 교류나 활동들도 이런 측면을 의식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일반론에 머물고 현재의 문제의 개선책에 그친 것 같다. 그러나 현실 상황의 개선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미래에 대한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고딕 성당 건축 (2)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

朴孝洵/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개요

밀라노는 롬바르디아 지방의 중심도시로 인구, 정치적 영향, 문화예술적인 역할로서는 이탈리아의 두번째 대도시이며, 상공업과 금융활동으로는 이탈리아에서 첫번째 가는 도시이다. 알프스 산맥의 기슭에 위치하면서도 북부 이탈리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 거주민들의 기업 정신과 역사적 환경 등은 밀라노를 이탈리아에서 가장 활력있는 도시 중의 하나로 만들었고 오늘날에도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대성당 만큼 느리고 복잡하게 지어졌던 성당은 드물다.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웅장한 이 건물의 건축은 Lombardie(롬바르디아 : 이탈리아 지방이름)를 넘어서 전 이탈리아의 흥미를 끄는 일이었다. 결국 대성당에 의해 알프스 산맥 서북쪽의 화려한 고딕양식이 밀라노에 들어왔고 이탈리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대성당의 제작은 매우 느려서 고딕 예술 원론을 고수하기는 했지만 5세기가 걸렸다. 9세기의 바실리카식 성당(Sainte Marie Majeure)이 세워졌던 그 장소에 1387년 그 당시 시의 공작이었던 Gien Galeazzo Visconti뿐만 아니라 밀라노의 모든 국민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던 대주교 Antonio da Saluzzo의 희망에 따라 성모 마리아에게 바칠 대성당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 때의 설계사는 Campione의 수많은 대가들을 거느렸던 Simone da Orsenigo였다.

그러나 대성당의 전체설계는 확실히 알프스 서북쪽의 한 대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건축가들이 건축에 참여를 했었지만 대성당은 놀랍게도 전후연결성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징은 전형적으로 알프스 서북쪽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딕양식의 초안은 이탈리아 건축가들의 기질 속에서 본래의 특징을 잃어버렸고 전형적으로 이탈리아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Simone da Orsenigo 주위에는 유명한 석공들이 있었다 : Marco de Frixono de Campione과 Giovannino de Grassi. 1389년 Simone da Orsenigo를 그의 지위에서 해임시키고 Nicolas de Bonaventure를 파리에서 오게했다.

그는 대성당 후진의 대형 유리창에 그림을 제작했다. 그 역시 밀라노에 1389년 5월7일에 와서 1390년 7월31일에 밀라노를 떠났다. 이탈리아의 대가들과 외국의 대가들이 차례차례로 대성당의 건축에 뒤를 이었다 : 독일인들 Jean de Fribourg, Henrich Parler de Gmunden, Ulrich de Fussingen, Jean de Fenach, 이탈리아인 Bernardo da Venezia, Gabriele Stomaloco de Piacenza, Marco de Corona, Giovannino de Grassi, Giacome da Campione. Giovannino de Grassi와 Giacome da Campione는 1392년 부터 계속적으로 건축에 집착을 하여 그들의 과단성있는 자취 즉 장식의 풍부함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화려한 고딕식 건축을 대성당에 남겼다. Giovannino de Grassi가 죽은 후 파리사람 Jean Mignot는 혹독하리만치 그의 사업을 비판하였지만 Bernardo da Venezia와 Bertolino da Novara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는 곧 해고되었다.

이 때부터 밀라노 대성당의 건축은 유일하게 이탈리아의 대가들에 의해 지휘되었다. 1400년 작업의 우두머리는 Filippino deli Ugoni였다. 기둥 윗부분들의 그림, 등근 천장들, 테라스가 그의 작품이다. 대성당의 건립을 위해 부지런하고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1418년 교황 Martin 5세에 의해 주제단이 봉헌이 되었다. 15세기 중엽 Francesco Sforza가 권력을 잡으면서, 예술은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었다.

밀라노시의 전경

밀라노 성당 정면

15세기의 밀라노의 건축과 대성당의 건축은 Solari가문에 의해 3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 이들은 Giovanni, 그의 아들 Guiniforte, Guiniforte의 아들 Pier Antonio, Guiniforte의 사위 Giovanni Antonio Amadeo는 꼭대기 채광탑의 건축을 위해 1490년에 개최된 설계응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그 당시 예술에 적용중인 르네상스의 새로운 흐름에도 불구하고, Amadeo는 대 건축물에 대한 고딕양식의 일관성을 끈기있게 수호하여 1500년에 꼭대기 채광탑을 끝냈다. 10년뒤에 인접한 4개의 종루 중 첫번째 종루가 고딕양식으로 세워졌다. 그러는 동안 화려한 고딕양식의 불길은 Filarete, Luca Fancelli, Francesco di Giorgio Martini와 Leonard de Vinci에 의해 세워진 이론인 새로운 조형방향에 의해 천천히 꺼져갔다.

전체 이탈리아는 이들에게 대성당 건축에 대해 새로운 충고와 의견을 요구했었기 때문이었다. 아주 짧은 독일인의 개입이 있은후 공사의 우두머리로 Charles Ⅱ Borromee대주교가 가장 좋아했던 건축가 Pellegrino Pellegrini—그는 Tibaldi라고도 불렸다—를 앉혔다. Pellegrini는 즉시 포장공사의 설계와 내진의 성직자석의 설계를 하면서 공사에 힘찬 자극을 주었다.

1572년 Charles성인이 대성당을 다시 봉헌했다. 1585년 Pellegrini가 스페인으로 출발할 때 Martino Bassi가 그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Ambrosienne 도서관을 만든 Lelio Buzzi가 다음으로 그 뒤를 잇게 되었다. 다른 Borromee인 Frederic의 주교 임기동안 Fabio Mangone가 대성당의 건축을 지휘했고 그 다음으로 Richini와 Quadrio가 그 뒤를 이었다. 18세기에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 제일 큰 종루는 1765년에서 1769년 사이에 건립되었고 Pellegrini의 정확한 예측대로 정면은 1805년에서 1813년 사이에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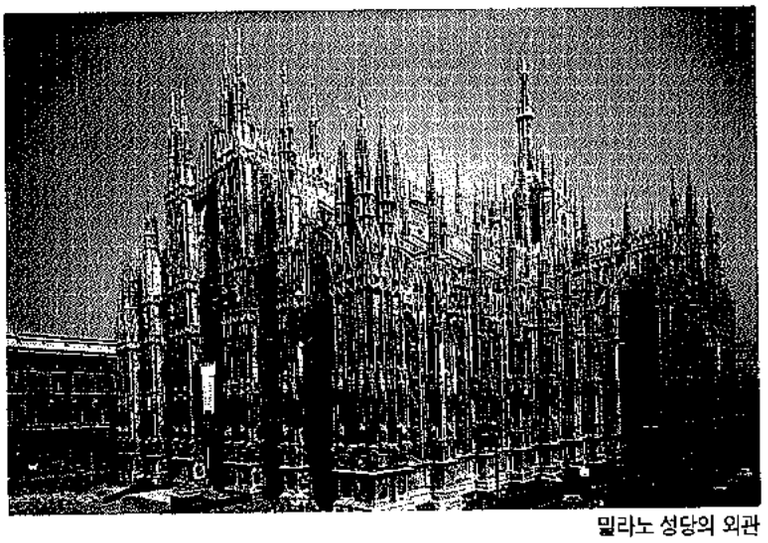
공사는 19세기 동안 내내 계속되어 종루들과 꼭대기 채광탑 주위의 탑, 계단들의 건축을 완공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건축은 언제나 대 복원공사가 필요하였다. 1935년에 첫번째로 복원공사를 했고 1943년 전쟁시 공중폭격 이후 아주 복잡하고도 어려운 두번째 복원공사를 했다. 마지막 복원공사 동안에 포장공사를 새로이 했고 전쟁에 의해 당한 상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입상들과 장식적인 요소들을 대체했다. 드디어 1966년 12월8일 대성당의 새 앞뜰의 낙성식을 거행했다.

—성당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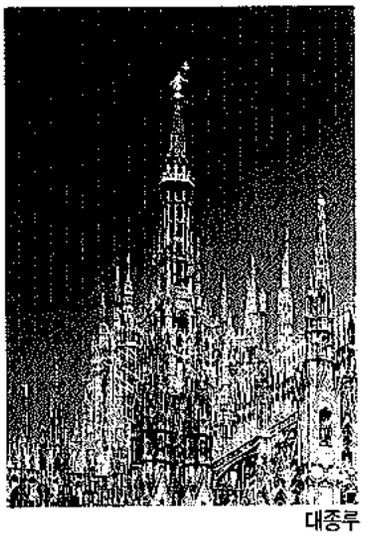
(1) 성당의 외부 길이 : 158m
(2) 성당의 내부 길이 : 148m
(3) 성당의 전체높이 : 108.50m(내부 바닥에서 부터 지붕위 꼭대기 성모상의 머리까지)
(4) 정면의 폭 : 67.90m
(5) 정면의 높이 : 62.20m
(6) 전체의 면적 : 약12,000㎡
(7) 조각(입상)의 수 : 3400개(거인 입상 : 96개)
(8) 창문의 수 : 164개(스테인드 글라스 : 55개)
(9) 뾰족탑 : 135개
(10) 입상받침 S자형 까치발 : 410개
(11) 계단의 수 : 지면에서 지붕까지 158계단(채광탑까지 : 261계단, 종루의 발코니까지 : 500계단)

2. 내부

대성당의 설계도는 다각형의 후진을 가진 라틴식 직각형(십자형)의 바실리카식 성당이다. 기독교의 고대 전통에 따라 대성당의 대칭축은 동쪽(후진)에서 서쪽(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세로 방향으로 5부분으로, 가로 방향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중앙 회중석과 고딕양식의 교차



밀라노 성당의 외관



대종루

궁륭(둥근천정)을 받치고 있는 52개의 높은 기둥들은 장중한 조화를 이루며 보는 사람의 마음을 끈다. 중앙회중석의 높이는 45.55m, 기둥사이의 간격은 19.30m이다.

기둥의 높이는 24m, 여기에 6m의 높은 기둥머리가 포함되어 있고, 기둥머리의 지름은 3.40m이다. 땅에서 꼭대기 채광탑의 입구까지 꼭대기 채광탑의 둥근천정의 내부높이는 64.30m이다. 14세기 말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의 입상들이 내부에도 너무나 많다. 벽감(Niche)속에 각각 8개의 대형입상들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기둥머리로 장식된 기둥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1. 주제단과 내진부분

꼭대기 채광탑의 대형 유리창과 장엄하게 마주 보고 있고 후진의 강렬한 아라베스크 양식의 대형유리창으로 끝이 나는 대성당의 내진 부분은 역사적 변화와 전례상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418년 10월16일 교황 Martin 5세가 밀라노에 왔을 때 내진부분은 후진의 기둥들 사이를 포함하는 반 다변형 부분에 속해 있었다.

1530년 경 내진 부분은 확장되었고 사법관, 농업자들의 대표, 공예협동조합 대표, 시의 대학교 대표들을 위해 원로원 의원들의 내진을 만들었다. 1565년 밀라노의 대주교로 Chales Borromee가 임명되어 교구에 온 후 그가 세운 전례상의 새로운 기준이 Le Concile de Trente(30인의 공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조치로 理路 정연하게 되면서 대성당은 성소의 중요한 개혁과 전례 기능상의 새로운 건축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Charles 성인이 계획하고 Tibaldi라 불리운 건축가 Pellegrino Pellegrini가 설계한 주제단과 내진 부분은 교회의 규율과 신학을 바탕으로 한 용도에 맞게끔 점점 더 높아져 3층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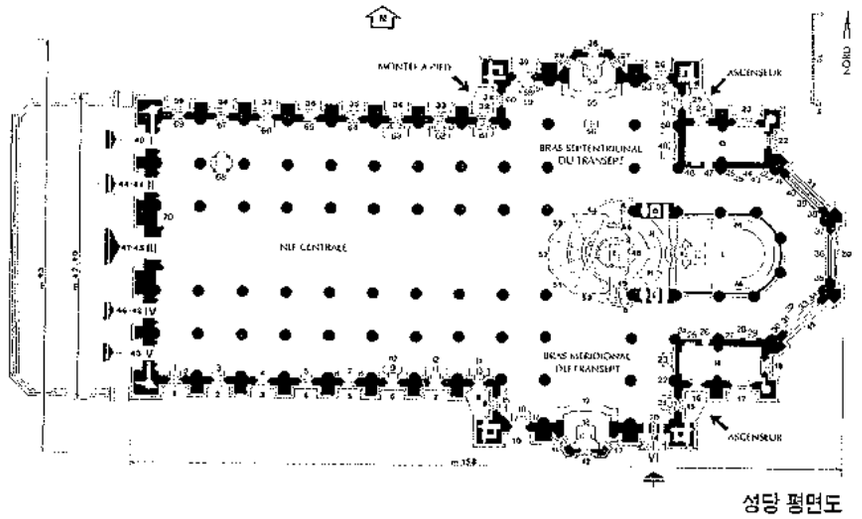
첫번째 층은 대리석으로 된 난간으로 분리를 해서 종교와는 관계없는 시민 대표들을 위해 마련된 원로원 의원들의 자리이고 두번째 층은 미사를 위해 마련되었고, 새로운 계단을 올라가 두번째 난간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세번째 층이 엄밀한 의미로 사제전용 공간(Presbytrere)인데 오로지 대주교와 대주교의 직무와 관계있는 대주교 교회 참사회, 미사 집전 사제들만을 위해 마련되었다.

반원형으로 된 내진 중간이며 사제의 전용공간 한 가운데 높이 세워진 계단 위에다 사실상 주제단에 포함된 채 거의 완전히 숨겨진 감실과 함께 성대한 제단 위에 닫집을 놓았다. 이로써 성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감실과 제단위의 닫집은 대성당의 내부에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있지만 오직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만 허용된, 금지된 구역의 끝에 위치해 있다. 반대로, 설교단은 신자들을 향해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루터교파의 이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사용하는 첫번째 수단으로 돌려주던 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25m 높이로 장엄하게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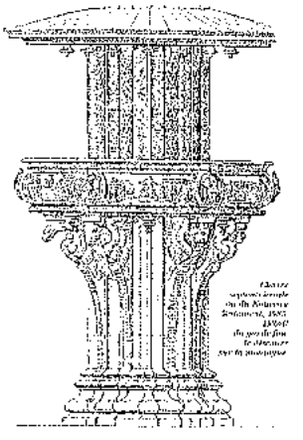
설교단의 뒤에다 대형 파이프 오르간의 멋진 금도금 파이프 오르간톨과 조그만 독방을 하나 놓았는데 그 위로는 나무로 된 작품이 나무로 된 불멸의 내진(주교의 좌석)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진에 표현한 암브로시우스(Saint Ambroise)성인의 삶과 순교자들의 묘사, 밀라노 성인 주교들의 묘사는 주교와 교회 참사회원들에게 기독교 사제의 덕행을 계속 상기 시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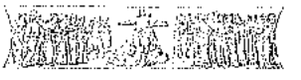
2-2. 설교단

Chalres성인의 시대에 시작이 되어 Frederic Borromee의 시대에 끝이 난 두 설교단은 Pellegrini의 그림을 Giovanni Andrea Pellizzoni가 제작한 것으로서



성당 평면도




북쪽 설교단

청동으로 된 난간에 돋을 새김을 해 금도금을 한 작품으로 아주 화려하며, 인간들에게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나타내었다.

1587년에 시작된 오른쪽 설교단은 구약성서의 장면들, 네 사람의 대예언자들의 Medaillion(인물의 둥근 돋을 새김)이 있는데 1602년에 완성되었다. 원형의 토대는 Francesco Branbilla의 모형을 Giovan Battista Busca가 제작한 것으로 청동으로 된 4명 인물의 흉상에 의해 받쳐져 있다. 청동으로 된 돋을 새김을 한 난간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단계적인 계시와, 그리스도 도래의 알림과 관계있는 구약성서의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다.

4명의 복음사가들의 Medaillion과 함께 신약성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왼쪽 설교단은 1585년에 완성되었다. 설교단을 받치고 있는 4개의 S자형 까치발은 Brambilla와 Busca가 만든 것으로 복음사가들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복음사가 요한(독수리), 루가(황소), 마르코(사자), 마태오(천사)를 표현하고 있는 4개의 Medaillion과 번갈아 나오는 5장면 속에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그 자체가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에게 보내진 말씀이 나타나 있으며 빵의 기적이라는 두 삽화가 그것을 상기키기고 있다.

2-3. 바닥 포장

다색 대리석으로 된 바닥은 불규칙적인 놀포석을 대체했다. 1585년 Pellegrini의 설계로 Martino Bassi가 시작을 했다. 후진주위의 회랑은 예외로 20세기 초 Luca Beltrami에 의해 신 고딕식이 덧붙여진 최근의 설계로 된 바닥이다. 1938년 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 Candoglia의 두꺼운 대리석 포석위에 Arzo의 붉은 대리석과 Varenna의 검은 대리석으로 고딕식과 바로크식 모티브(장식에 있어서 구성단위)를 얼룩무늬로 쪽매 붙임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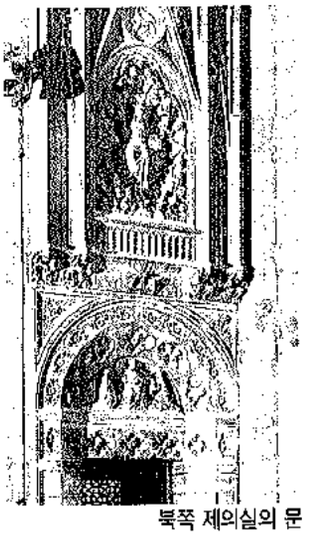
2-4. 제의실의 문

2-4-1. 남쪽 제의실의 문

북쪽 제의실 문과 함께 대성당의 내부 건축에 삽입된 첫번째 조각 작품이다. 성모 마리아의 생애에 바쳐진 이 문은 창의력이 풍부한 구성과 예술가들의 연상 능력면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루가 성인에 의한 복음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 분명한 스타일의 대조는 건축술의 구분과 부합한다. 예언자들의 머리로 장식된 대들보(Architrave)으로 마무리가 된 아랫부분은 아주 단순한 건축양식으로 이탈리아 장인들의 예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14세기 말엽의 Lombardie(롬바르디아) 조각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초상(인물)의 인성과 생동감, 인물들의 차분한 성찰, 정묘하고도 정성들인 태생, 추상적인 관념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 등이다.

위쪽 부분은 잘 조화된 뾰족아치가 있다. Hans Fernach(1391)와 다른 예술가들이 참여를 했다. 현명한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나타낸 아주 아름다운 베네기(벽, 기둥부분에 장식으로 두른 소시리 모양의 돌출부) 위쪽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의 장면이 강한 인상을 준다.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균형잡힌 상태로 놓여 있는 그리스도와 울고 있는 성녀들에 둘러싸인 성모마리아를 나타내고 있다. 천창 속에는 두 성인사이에 있는 위엄있는 성모 마리아가 있고 제일 윗부분에는 신부들과 무릎을 꿇은 백성들에 둘러싸인 왕관을 쓴 성모 마리아가 있다. 매우 장식된 S자형 까치발로 받쳐져 있는 아치의 두 물매진 부분에는 성모 영보, 성모방문 예수의 공현, 예수를 성전에 드리심, 이집트로의 도피, 죄없는 아기들의 학살(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의 순서)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 작품의

설교단과 주제단 내진부분



북쪽 제의실의 문

여러가지 다른 처리솜씨를 볼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맨 꼭대기 장식이다. 홍예의 바깥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화려하고도 힘찬 잎사귀들은 고딕양식의 훌륭한 꽃장식으로 십자가를 받치고 있다.

2-4-2. 북쪽 제의실의 문

1389년에 지어진 고딕양식의 문은 건축학적으로 말하자면 남쪽 제의실의 문보다 더 빈틈이 없지만 덜 환상적이다. 그러나 감탄할만 하다. 이것은 대성당의 건축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에 속한다. 아래부분은 성모 마리아와 죽을 때까지 모든 충성을 바친다는 표시로 큰 쟁반 위에 그의 머리를 담아 그리스도에게 내밀고 있는 세례자 요한 사이에 심판의 왕인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아 있다. 이것은 Giacomo da Campione의 작품이다. 뾰족아치로 된 윗부분은 지품천신인 제2의 천사들로 받쳐진 왕좌 위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가 성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 역시 Giacomo da Campione의 작품이다. 이 문은 아주 강한 색채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었고 그 중 아직도 잘 볼 수 있도록 자취가 남아 있다.

측면으로 문의 조각된 부분의 끝에 둘씩 있는 섬세한 뾰족탑 4개의 작은 벽기둥(벽면에서 불쑥 나오게 만든 장식용 기둥)들 위에 훌륭하게 채색된 성인, 성녀의 완전한 인물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400-1414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2-5. Trivulziano의 7가지 달린 큰 촛대

1562년 4월8일 대성당의 수석 사제였던 Giovanni Battista Trivulziano가 바쳤다. 5m의 높이로 유태교의 전통에서 처럼 7가지가 있다. 12세기 말의 프랑스 금은 세공사였던 Nicola da Verdun가 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많은 연구가들은 다른 작업장이 이 제작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청동과 2000개 이상의 견석(보석의 일종)으로 장식된 이 촛대는 아주 정묘하게 부조되었고 특히 받침대 부분은 중세 예술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생동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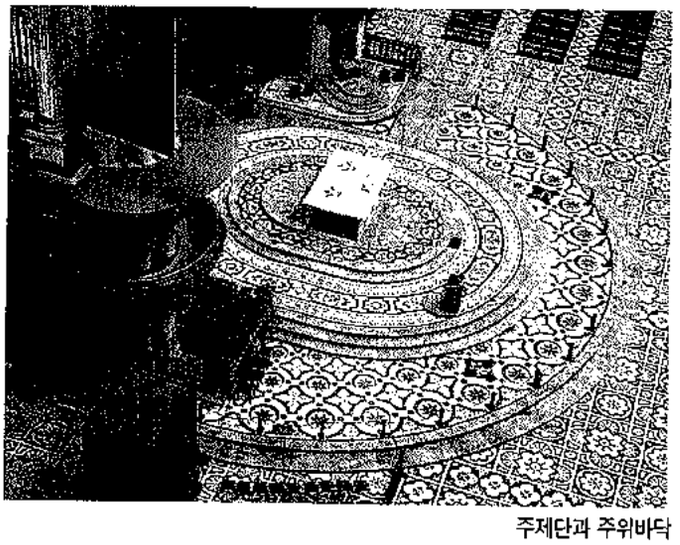
몸체의 중심마디 부분은 왕좌에 앉아 중앙회중석 쪽으로 몸을 향하고 있는 아기예수와 성모 마리아에게 가고 있는 세 동방박사들의 기마 행렬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여러번 복원되었다. 1950년 마지막으로 복원되었는데 피렌체의 Opificio delle Pietre dure에서 공작석, 총금석, 벽옥, 마노, 노랑 옥수와 초록 옥수 등의 견석들로 상감을 박았다.

2-6. 파이프 오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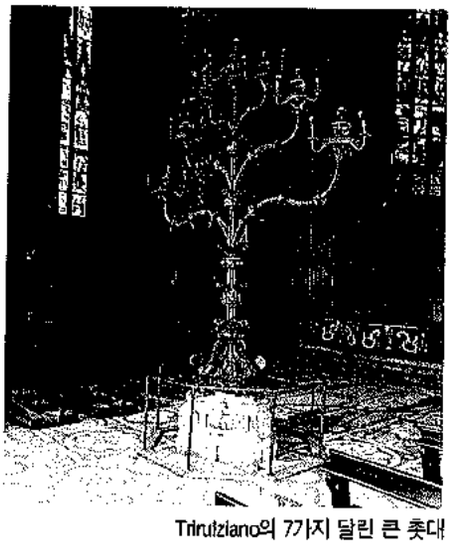
대성당속에서 이 파이프 오르간은 오랜 전통을 가졌다. 1359년 7월18일에 시작된 참고 자료들은 첫번째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성당에 맞는 아주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의 제작을 Martino de Stremidi da Concorezzo가 맡았었고 1397년 완성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교회 참사회와 Veneranda Fabbrica에만 마련했던 두 대형 파이프 오르간은 나무로 된 탁월한 작품으로서 부분적으로 Alessi와 Vincenzo Seregni에게 설계도를 맡겼다. 오른쪽 파이프 오르간은 훨씬 늦게 제작된 것으로 Cristofore Valvassori의 작품이다. 조각가 Delcorno, Santo Corbetta와 Taurini형제들이 나무로 된 부분, 입상들을 1588년에 완성시켰다. 오르간 제조자 Gian Giacomo Antegnati가 1533년에서 1577년 까지 만든 왼쪽의 파이프 오르간에는 조각가 Piantavigna와 G. Battista Mangone가 제작한 나무로 된 부분이 있다. 이 두 파이프 오르간은 나무로 만들어 금도금과 다색으로 처리한 16개의 입상으로 장식된 작은 등근 지붕으로 마무리져 있다.

이것은 Giovanni Taurino와 Pietro Appiano의 훌륭한 작품이다. 이 두 대형 파이프 오르간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사건들을 그린 16폭의 대형 직물로 된



주제단과 주위바닥



Trivulziano의 7가지 달린 큰 촛대

8개의 덧문으로 닫힌다. 16폭의 대형직물 그림 중 두 폭의 그림이 불행히도 1943년 복원시키기 위해 놓아두었던 작업장의 파괴로 인해 불에 타 버렸다. 남아있는 것으로는 남쪽 파이프 오르간의 덧문 그림에 Giuseppe Meda의 '미치광이가 된 사울', '사울을 진정 시키는 다윗'. Ambrogio Figino의 '홍해통과'와 '아기예수의 탄생'. Camillo Procaccini의 '다윗의 승리', '예수의 현성룡'(주 : 예수가 다불산 위에서 자기의 하늘 위에서의 형용을 나타낸일)과 '예수의 부활'. Giuseppe Meda의 '언약의 궤(유대인이 십계명을 새긴 두개이 석판을 보관하였던 상자) 행렬'. 북쪽 파이프 오르간 덧문 그림에는 Meda의 '하아프를 연주하는 다윗', '성모마리아의 탄생', '성모마리아의 승천'. Camillo Procaccini의 '교회앞에 있는 다윗' '성모 영보(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통고함)', '성모의 방문'이 있다.

2-7. 궁륭

처음에는 대리석으로 치장하려고 예정되었던 교차점의 둥근천정은 벽돌로 건축되었다. 교차점의 쇠시리는 Candoglia의 대리석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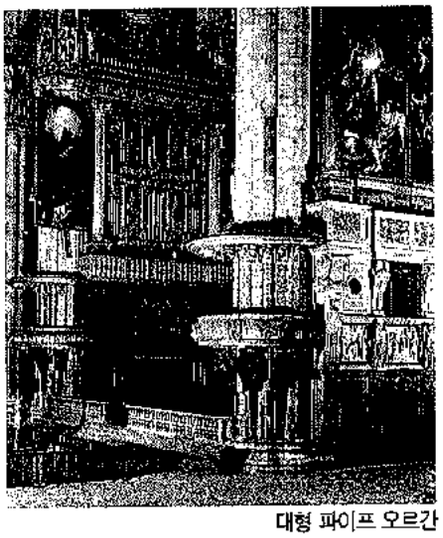
둥근천정은 밀라노 대성당의 특유한 방법인 이중 둥근천정시스템에 속한다. 다른 고딕양식의 대성당에서는 중앙회중석의 교차점 위에 있는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골조는 나무로 된 서까래나 반서까래이다. 교차점 위에 배치된 둥근천정의 다른 열은 둥근천정과 함께 측면의 미는 힘을 견딜 수 있는 정역학의 독창적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경사진 평면 자붕을 받치고 있기도하다. 꼭대기 채광탑 둥근지붕의 천정을 위해서 16세기 초에 채택된 장식적인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면 고딕양식의 가짜 모티브를 재작할 때 1830년 부터는 Voutain[2]을 대리석으로 된 고딕양식의 가짜 투조세공(그물세공)을 모방한 데트랑프화[3]로 그렸다. 먼저 Felice Alberti의 밑그림을 채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Brea의 원근화법의 유명한 학파에 속하는 재능있는 장식가들인 Alessandro Sanquirico와 Francesco Gabetta의 밑그림을 채택했다. 이미 Mangone가 16세기 말 경에 제의를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여론은 옛날 롬바르디아식으로 금빛 별들이 있는 푸른 칠을 한 둥근 천정으로 할것을 원했지만, 투조세공을 모방한 데 트랑프화를 택했다. 둥근천정의 안전과 벽돌공사의 정역학적 복원을 이유로, 1830년이래 5번째로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또 다시 칠이 벗겨진 중앙회중석의 둥근천정장식을 새로 해야만 했었다. 이때 벽돌 배열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앙회중석의 둥근천정 장식을 완전히 지워야만 하였다.

2-8. 채광창

대성당의 다색배합 대형유리창은 찬탄할 만하다. 여러시대를 거쳐 여러 예술가들이 그린 것으로 중앙 회중석의 맨 오른쪽에 있는 대형유리창은 Nicoloda Varallo(1460)의 작품으로 구약성서의 장면들을 나타낸다. 또 독일과 롬바르디아(이탈리아의 지방명)의 대가들에 의해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구약성서 장면들도 있다. 대성당의 측면의 문 위쪽에 있는 대형유리창은 Biagio와 Giuseppe Arcimboldi에 따라 Corrado de Mochis(1556)가 제작한 것으로 알랙산드리아의 까뜨린느 성녀의 전설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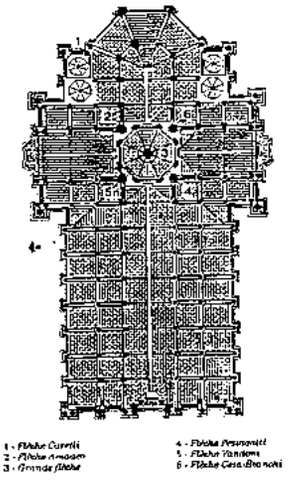
2-9. 그 외의 여러가지 작품들

대성당이 지니고 있는 수 많은 예술 작품 가운데에 오른쪽 익랑(Transept)의 오른쪽 회중석에 있는 Gian Medicis 기념물은 1560년에서 1563년에 그것을 만든 Leone Leoni의 걸작품으로



대형 파이프 오르간

승천하는 성모마리아(채광창)



지붕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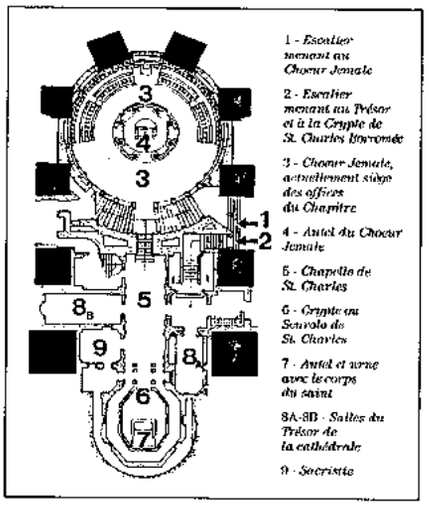
간주된다. 교황 비오 4세와는 형제로 1555년에 죽은 Gian Giacomo Medicis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했다. 청동으로 된 입상들과 저부조들은 전형적인 16세기의 것으로 이 기념물들 가운데 로마의 갑옷을 입은 Medicis의 입상중에 왼쪽 다리를 숨기고 있는 외투의 주름은 Medicis가 다리를 절뚝거린 사실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솜씨이다. 1562년 Marcod'Agrate가 제작한 박피된 Barthelemy성인은 해부학적으로는 너무나 완전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작품으로, Marco d'Agrate는 받침돌에다 'Praxitele가 나를 조각한 것이 아니라, Agrate이다'라고 적어놓았다.

3. 정면과 외부

벽돌로 된 둥근 천정들을 제외하고 대성당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Candoglia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회색과 청색, 보라빛도는 돌결로 연한 진주모 빛의 아름다운 연분홍 석회암은 Candoglia산맥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캐어냈다. 오늘날까지 대리석들은 수로를 통해 밀라노에 운반되었다. 대성당의 외부에는 약 420개의 대리석 입상들이 대성당의 정면과 측면들을 장식하고 있고, 다른 크고 작은 약 1900개의 대리석 입상들이 뾰족탑 위에 있으며, 물의 유출을 위해 석누조(고딕건축에서 괴물 형상을 한 낙수 홈통 배수구)를 받치고 있는 96거인의 큰 조각들이 있다. 모든 종류의 고부조와 장식이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고있다. 정면에 뾰족탑이 135개 측면에 410개이며 정면과 측면위에서 입상들을 받치고 있는 공들여 다듬은 S자형 까치발들과 닫집(baldaquin)들도 같은 수 만큼 있다. 대성당의 외부둘레를 둘러보게 하는 큰 관심거리는 언제나 새로운 원근법적인 관점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서로 꿰맨것 같은 난간들과 불매진 아치들의 빛이 새어들게 된 장식과 크기의 강한 대비이다. 746개의 작은 S자형 까치발의 연속은 상부받침돌을 따라 나가는 3줄의 홍예문 모양의 장식을 지탱하고 있다. 이것들은 대개 작은 머리들, 자연스러운 얼굴들, 괴인의 얼굴들, 환상적인 동물들의 모양이다. 후진의 가를 따라 뻗어 있으면서 transept의 두팔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에 있는 작은 S자형의 까치발들은 15세기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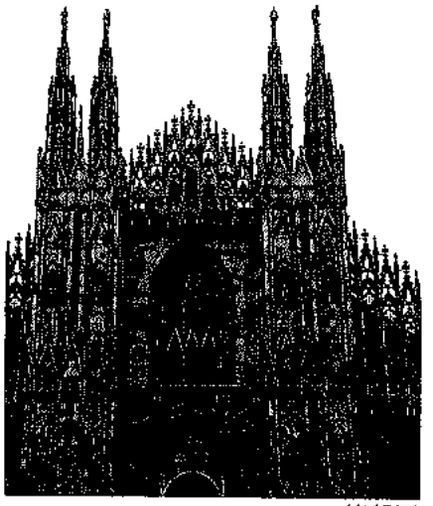
3-1 정면

대성당의 정면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Vincenzo Seregni이다. 그는 1537년 2개의 직각으로 된 강한 탑을 정면에 적용시킨 설계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념비적이며 고전적인 정면의 설계도에 따라 Pellegrino Tibaldi가 약 1570—1590년경에 정면을 세웠으며 1630년경 건축을 맡았던 Francesco Maria Richini가 정면의 윗부분을 다시 손을 대어 바로크풍으로 만들었다. 가운데 세 정문을 건설하고 측면의 두 정문과 중앙의 고전적 창문의 건설을 시작한 후에 기교파의 정면은 이 고딕 양식의 대건물에 조화를 이루지도 못했을 뿐아니라 적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조금씩 중단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Carlo Buzzi가 이미 건립된 것을 완전히 보전하면서 대성당의 둘레를 따라 부벽돌로 기둥들을 대체하고서 고딕양식으로 다시 환원시켰다. 1658년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 시대에 고부조의 2층이 있는 토대, 인상주(人像柱)와 섬세한 쇠시리가 있는 부벽이 만들어졌다. 나폴레옹 1세가 1805년 5월 26일 대성당에서 이탈리아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기 3일전에 Fabbrica에 보낸 간청에 따라 고딕양식의 세창문은 정면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건축가 Zanoja와 Amati가 1807년에서 1814년에 설계에 속하지만 왼쪽의 고전적인 두창문은 18세기 말엽에 제작되었다. 1886년



지하소성당의 평면도

Gian Giacomo Medici의 입상


성당정면

Fabbrica행정부는 후원자중의 한 사람인 Aristide de Togni의 희망을 존중하기 위해 알맞은 스타일의 정면으로 고딕양식의 대성당을 완성하기 위해 응모전을 개최했다. 젊은 밀라노 건축가 Giuseppe Brentano가 2등을 한 이 응모전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갖고오지는 못했지만, 중앙의 문을 청동으로 모형제작하는데는 성공을 했다. 전원일치의 희망에 따라 정면을 바꾸지않았다. 그러나 1911년에서 1935년 사이 1791년 Francesco Soave가 만든 아름다운 설계도에서 영감을 얻은 두건축가 Gaetano Moretti와 Adolfo Zacchi에 의해 더 알맞은 새로운 난간으로 정면은 완성되었다.

3-2. 고부조(高浮彫)들과 정면의 입상들

부벽들에 의해 5개의 기둥사이 간격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나뉘어진 정면은 견고한 인상주에 의해 강조되어있고 전체의 명암을 증가시키는 수직적 쇠시리가 균등하게 곁들여진 모습을 하고있다. 토대의 윗쪽 부분에는 구약성서에서 이용한 에피소드와 상징들을 나타내는 2층의 고부조가 수평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거의 17세기 Lombardie(롬바르디아 : 이탈리아 지방명)조각가들의 작품이다.

1808년에서 1811년사이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조각가들에 의해 제작된 세층의 입상들이 다른 높이로 있다.

맨 아래층에는 제일 큰 문 옆에 사도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의 입상이있고 가운데 층에는 대예언자들의 입상이 있으며 맨 윗층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예언자들의 입상이있다. 카라라산의 대리석으로 제작된 정문의 합각벽에 삽입된 고부조는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A. Castelli와 G. Giacome Bono에 의해 조각된 아름다운 부조가 있는 중앙의 정문에서 그 큰 판은 '이브의 창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박물관속에 있는 다른 문들의 4개의 부조를 스케치한 Gian Battista Crespi의 구상에 의해 Gaspare Vismara가 제작했다. 왼쪽으로 부터 첫번째 측면의 정문위에는 G. Andrea Biffi와 그의 아들 Carlo가 1629년에서 1635년 조각한 Esther와 Assuerus의 고부조가있다. 왼쪽으로 부터 두번째 측면의 정문위에는 Giovan Pietro Lasagna가 1629년에서 1639년 까지 제작한 Sisara와 Jahel의 고부조가 있다. 오른쪽에서 부터 첫번째 정문위에는 Gaspare Vismara가 1629년에서 1631년까지 제작한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에피소드가 나타나있고 두번째 정문위에는 1632년에서 1635년사이의 G. Prevosto와 합작한 Judith와 Holopheme의 고부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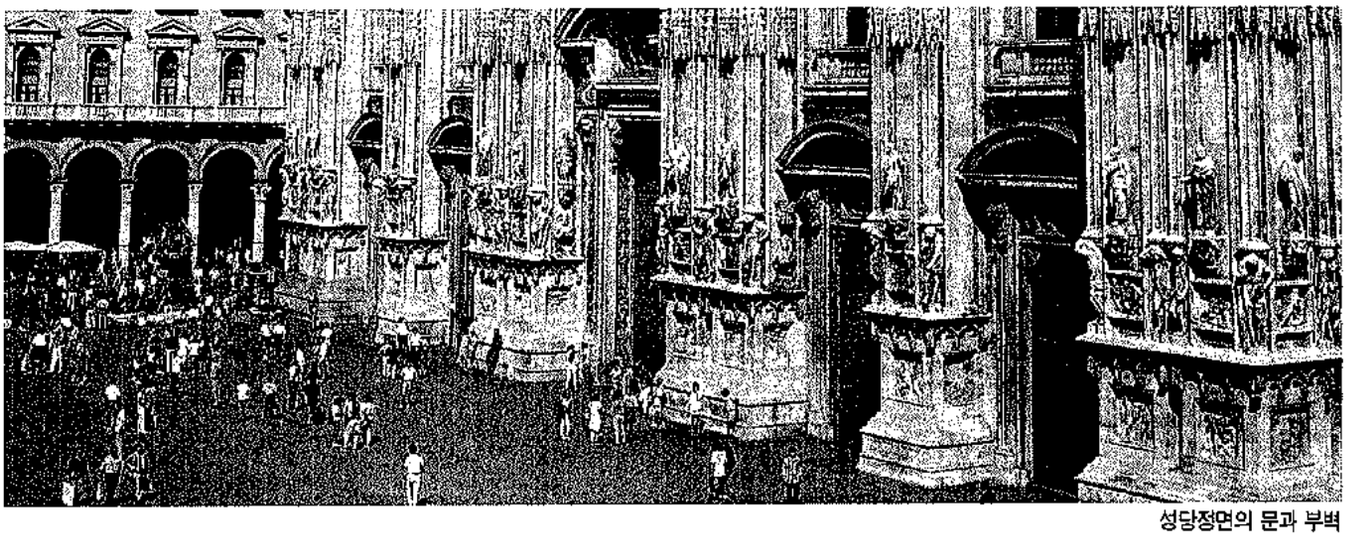
3-3. 정면의 5개의 청동문

3-3-1. 왼쪽에서부터 첫번째 문

1948년에 제막된 것으로 Arrigo Minerbi의 표현인 풍부한 청동 작품이다. 이 문은 기독교의 확립 즉 초대 기독교인들이 313년의 칙령으로 Constantin과 Licinius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기까지 체험한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순교,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와 기쁨 등을 솜씨있게 표현했다. 주추(벽의 굽도리)속에 묘사된 6명의 인물들은 황제 칙서를 가진 예전의 밀라노 주교들이다.

3-3-2. 왼쪽에서 두번째 문

이 문은 강렬한 표현과 함께 예술가의 혼을 청동작품에 융해시킬 줄 알았던 Giannino Castiglioni의 원숙한 작품이다. 밀라노의 주보 성인인 Ambroise성인의 삶을 나타낸 고부조 작품으로 성인의 영세에서 사제서품까지, 로마의 광대한 지방의 통치에서 그의 죽음까지와 천년 뒤 Parabiago의 전투중에 그가 발현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1950년 제막되었다.



성당정면의 문과 부벽

3-3-3. 중앙문

Ludovico Poliaghi가 1894년에서 1906년 제작했다. 문짝위에 예술가는 성모마리아의 고통과 기쁨을 나타내었다. 1908년 덧붙인 문의 틀에는 동정성모의 대관식이 왼쪽에 나타나있다. 수많은 인물들의 귀중한 조형술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조각에 있어서 위대한 전통의 진정한 유산이다. 이 문은 신 고딕양식의 건축구조에 속하며 그 장식적인 요소들은 이미 자유주의 스타일을 예고하고 있다.

3-3-4. 중앙문의 오른쪽에 있는 청동문

조각가 Franco Lombardi의 작품이다. 주제는 게르만 제국과 장렬한 투쟁 당시 독립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찬 밀라노시의 시민과 종교적인 확립이다. 훌륭한 역사적 조상(조각)들이 있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위에서 기독교도의 깃발을 휘두르는 Giovanni da Rho, 거대한 사라센 사람을 쓰러뜨리는 Ottone Visconti, Frederic 1세 황제의 승리와 그 뒤를 이은 파괴 앞에서 밀라노 사람들이 받은 굴종, Barberousse에 대항해 시를 방어하기위해 Carrocio[4]를 마련한 Ariberto d'Intimiano, Compagni de la Morte(죽음의 단체)와 함께 1176년 5월 29일 Legnano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저항을 이끌었던 Alberto da Giussano와 밀라노의 재 건설에서 노고를 아끼지않고 일을 했던 San Galdino 주교가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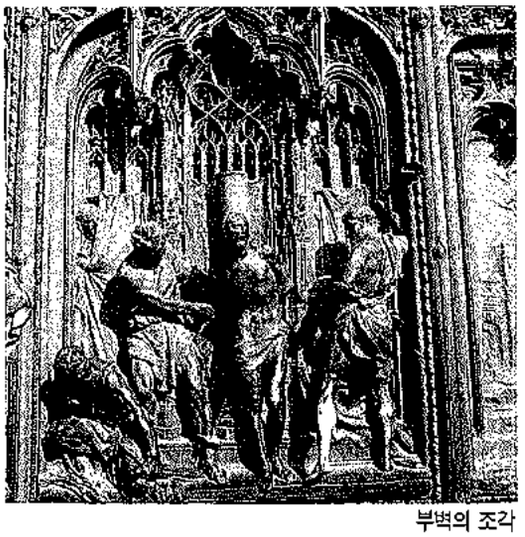
3-3-5. 오른쪽에서 작은문

Charles Borromee 성인까지 대성당 역사의 가장 상징적인 에피소드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적이고 생동감있는 제작에서 조각가 Luciano Minguzzi는 간결하지만 효과적이고, 재치있는 조형술로 강한 극적 조성을 달성했다. Gian Galeazzo에 의해 인도되는 귀족들의 행렬, 국민들의 봉헌(기부), 수로를 통한 대리석의 운반과 페스트 환자들에게 영성체를 주는 Charles Borromee성인이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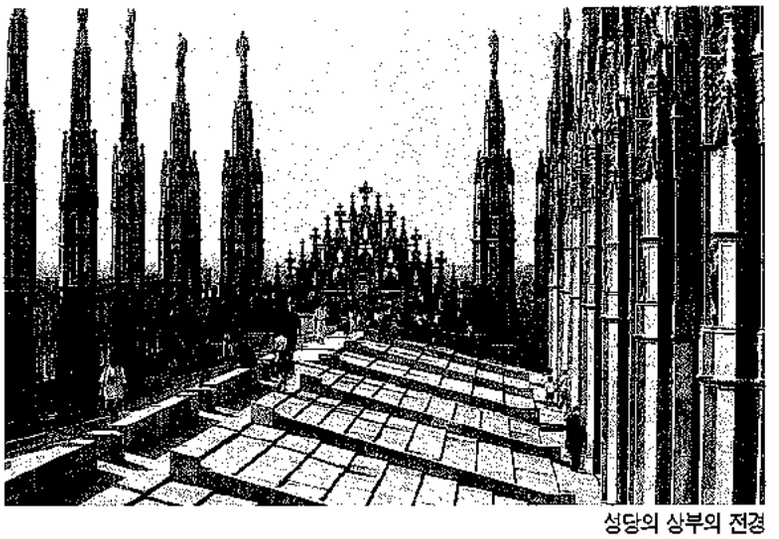
중앙창문의 합각벽에서 대성당을 헌납받은 사람의 이름을 읽을 수 있다. Mariae Nascenti(1645)발코니 위의 큰 두 입상은 Camillo Pacetti의 그리스도의 율법과 Luigi Acquisi의 모세의 율법을 나타내고 있다. 2층의 고딕양식 창문위에는 G. Buzzi의 세례자 요한과 C. Pacetti의 모세의 입상이 있다. 이 모든 입상들은 1810년에 제작되었다.

대성당 둘레의 바깥쪽을 따라가면서 둘러보면 조상술의 중요부분에 감탄하게 된다. 다양하고도 우아한 장식을 가진 S자형 까치발위에 위치한 조각들은 측면들과 transept와 후진의 돌출부분들을 장식하고 있고 창문의 물매지게 깍은 창틀과 부벽의 쇠시리(뼈대)사이에 끼혀 있는 것 같이 박혀있다. 이 조각들은 5세기동안 주로 롬바르디아의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언제나 일등급은 아니라할지라도 수많은 조각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 대건축물은 고딕양식의 대성당 가운데 유일한 경우로, 14세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조형작품의 끊임없는 역사적 스타일의 증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입상들은 transept의 끝에 있는 창문들 위쪽과 후진의 주위에 있다. 다른 입상들은 더 최근의 것으로 주로 바로크 양식과 신 고전양식 그리고 19세기 말엽의 것이다.

위를 향해 쳐다보면 거인들이 생동감있는 강한 조각들과 그 거인들 위로 과감하게 쑥 나온 석누조들을 볼 수 있다. 후진에서 부터 좌우익부(transept)의 양쪽 끝까지 왼쪽과 오른쪽으로 계속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조각들은 대부분 15세기의 것들이다. 가장 알려진 조각가들은 이탈리아인들로 Matteo de Raverti, Jacopino da Tradate, Nicolo da Venezia, Campinone사람들(스위스의 Lugano호수 유역에서 온 사람들, 스위스 영토이지만 밀라노 교구에 속했음)인



부벽의 조각



성당의 상부의 전경

Alberto da Campione, Giorgio Solari 그리고 독일인들인 Annex Marchestrem, Hans Fernach와 Pietro Monich이다. 다른 거인들과 석누조들은 16세기와 17세기의 것으로 그 시대의 롬바르디아(Lombardie : 이탈리아 지방)조각의 전형적인 감탄할 만한 작품들이다. 특별히 Gaspare Vismara, Francesco Zarabatta, Giuseppe Rusnate, Carlo Beretta와 Gerolamo Prevosto의 조각들이 있다.

3-4. 후진과 3개의 대형유리창

후진의 외부 전망은 가장 독특하고도 암시적이다. 이 부분은 고딕양식 대성당의 견고하고도 귀중한 외관으로 모든 고딕식 건축과 예술작품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 중 하나이다. 대형 유리창 하나의 크기는 약 11m × 22.5m로 윗부분은 기하학적으로는 동적이며 매우 아름답고 감명적인 아라베스크 양식의 원화창으로 되어있고 아랫부분은 12개의 섬세한 첨예아치의 쇠시리로 나뉘어져 있다. 1390년 말경 파리사람인 Nicolas Bonaventure가 설계를 했고 Filippino degli Organi da Modena가 1420년이 되기전에 제작을 완성했다.

가운데 방사상의 태양이 있는 이 중앙의 창은 그리스도의 강생에 의한 인간구원의 이야기를 나타낸다. 대천사 가브리엘의 입상과 성모마리아의 입상사이에 정의의 태양, 예수그리스도가 있다.

4. 지붕

4-1. 평면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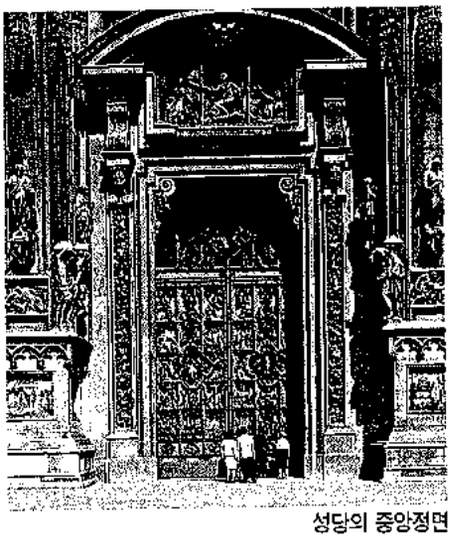
처음부터 성당 제작자들이 예정했던 적지않은 수의 계단들과 경사진 평면 지붕의 고대 건축가들이 방문객들에게 하늘과 땅사이를 독특하게 산보할 수 있는 기쁨을 주기위해 항상 생각해왔던 증거라 할 수 있다. 여러 다른 층으로 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경사진 평면 지붕은 이 대성당만이 가지고있는 특유한 특징이다. 양식에서 하나 밖에 없는 이 평면지붕은 밀라노시 전체를 멀리내다볼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장식돌, 물매진 아치들,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진 난간들,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의 침묵이 깃들인 135개의 뾰족탑들을 감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코스의 다양함과 마음을 사로잡는 원근의 계속적인 변화는 방문객들에게는 깊은 감명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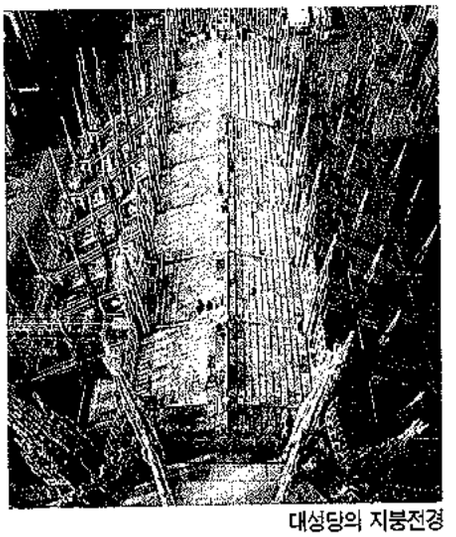
4-2. 지붕위의 입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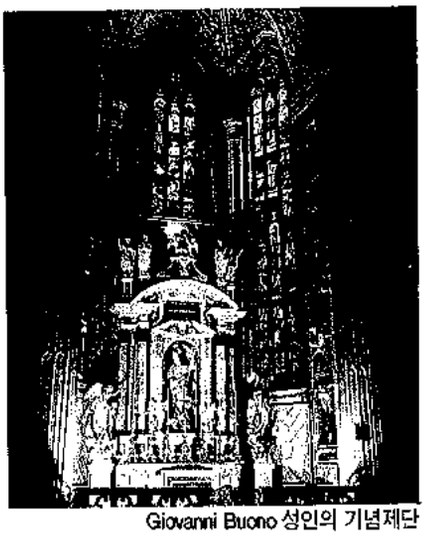
대성당의 경사진 평면 지붕위에는 전시대와 전 학파의 입상들이 약 1900개가 있다. 난간으로 다가가면서 14세기와 15세기의 훌륭한 거인들의 입상과 환상적인 석누조들을 감상할 수 있고, 부벽속에서 물매진 아치의 아랫부분에 있는 통로를 장식하고 있는 저부조(대개는 17세기부터 18세기의 것)속에 교묘하게 삽입한 인물들 뾰족탑들에 있는 모든 크기의 자그마한 입상들과 거의 19세기의 것들인 꼭대기의 크고도 잘 보이는 입상들로 14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롬바르디아의 조각 작품들을 볼 수 있다.

4-3. 대종루

꼭대기 채광탑의 정역학의 불확실한 지식과 대담성에서 기인한 대종루의 설계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꼭대기 채광탑의 설계가 완성된지 8년 후 Amadeo가 1508년 종루의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공사 중단을 야기시킬 이유들을 생각해 보지않고 불완전한 팔각형 구조로 첫번째 망루까지 건축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 다음으로 1537년에 Vincenzo Seigni가 1590년에 Martino Bassi가, 그 다음 세기에는 Francesco Quadrio가 순수하게 이론적인 방법으로 설계도를 신중히 검토했었다. 꼭대기 채광탑의 설계도를 제작하고도 250년이 더 지난 1750년 건축가 Francesco Croce가 천재적 직관에 의해 공사를


성당의 중앙정면


대성당의 지붕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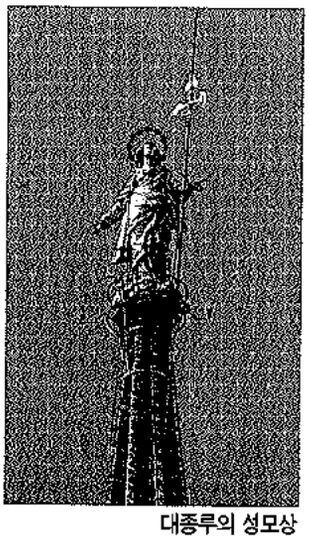

Giovanni Buono 성인의 기념제단

계속할 수 있는 설계도의 연구를 시도해서 Architecte de la Fabbrica의 직에 임명되던 1760년 부터 1764년까지 과학자 De Rege와 Ruggero Boscovitch가 완성한 정역학 검토의 수학적 계산을 사용해 완성했다. 1764년 Amadeo가 세운 인정할 만한 대전제를 다시 다루어 대담한 건축을 시작해 1769년 완성을 했다. 이것은 정역학적 작품으로 찬탄할 만하고도 우아하다.

4개의 뾰족탑들이 버티고 서 있는 꼭대기 채광탑의 윗쪽부분에 있는 뾰족탑 중심의 하중을 일정하게 분배하면서, 작은 뾰족탑들과 물매진 아치들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적합하지 않은 대리석을 사용해 건립했기 때문에 이 과감한 구조가 아주 빨리 훼손되었다. 1842년 건축가 Pestagalli가 전체를 허물도록 권했지만 행정가인 백작 Ambrogio Nava가 쇠로된 금속 접합을 청동으로 대체하고 대리석과 구조의 복구공사를 끈질기게 계속한다는 말로써 용기있고 현명하게 여기에 반대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Croce의 아름다운 작품을 구할 수가 있었다. 대성당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적 요소는 대종루와 성모 마리아(La Madonnia)상이다. 성모 마리아 상은 성모 승천을 나타내는 입상으로 조각가 Giueppe Pereg가 모형제작을 맡았고 금은 세공사 Giuseppe Bini가 동판에 돋을 새김을 해 금박칠로 도금을 했다. 높이 4.16m인 금으로 된 성모 마리아의 입상인 밀라노의 La Madonnia는 1774년 12월 부터 밀라노시를 굽어보며 시를 보호하고있다.

4-4. 꼭대기 채광탑

중앙회중석과 좌우익랑(transept)의 교차점에 다다르면 입체적 장중함과 건축적 대규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꼭대기 채광탑의 건축은 대성당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공사시작 부터 둥근 지붕(천정)의 완성(1500년)까지 거의 120년이나 걸렸다. 큰 종루가 세워진 8각형 다면체에 의해 외부가 가리워진 대형 둥근 천정(couple)은 정사각형의 네모퉁이에 배치된 4개의 큰기둥에 얹혀있다. 이 정사각형에는 4개의 대형 뾰족아치가 있고, 홍예문과 상호관계에 있는 삼각홍예가 정사각형을 8각형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 8각형은 대리석으로 된 견고한 쇠시리를 가진 8각형 둥근천정의 채광창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 구조의 명료함은 롬바르디아 건축의 한 전통으로, 벽돌공사의 고유한 배열속에 결정적인 중요한 정역학적 요소를 숨기고 있다. 이것은 꼭대기 채광탑 전체와, 가벼운 것과는 거리가 먼 상부구조를 받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성당이 지니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주된 근거이기도 하다. 이것은 반원형으로된 4개의 대형 아치를 말하는데 Guinifort Solari가 약 1465년에 놓았고 Amadeo와 Dolcobuono가 1490—1500년 대형 둥근 천정(couple)을 건립해야만 했을 때 직감적으로 4개의 대형 아치가 그들에게 쓰였다. 1390년 Monza 대성당의 건축에 힘을 기울였던 건축가 Matto da Campione은 현명하게 4개의 중심기둥을 넓히도록 충고를 했다. 1세기후, 건축가들이 실시했던 무모한 헛된 연구뒤에, Leonardo da Vinci(1487), Luca Fancelli(1487), Francesco di Giorgio Martine(1490), Simone da Sirtori(1490), Giovanni Battagio(1490)가 개입을 했다. 건축과 구조, 이 대성당의 오랜 건립에 관계되는 최근의 사건들 그리고 Carelli의 종루라고 불리우는 것과 Amadeo의 종루라고 불리우는 두 뾰족탑을 제외한 외부(뾰족탑들, 물매진 아치, 난간들 등) 건축에 대한 어렵고도 오래된 역사들은 정역학적 중요성을 초래했다. 이 중요성들은 기둥들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미 심하게 손상이 가서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는 꼭대기 채광탑의 4개의 기둥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1969년 이 4개의 기둥을 철근 콘크리트로 피복을



대종루의 성모상

지하 소성당의 제단부분

하고 다른 기둥들은 금속으로 강화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 다음으로 매우 단단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마찬가지로 손상이간 부차적인 기둥들도 정역학적 복구작업을 했었다. 1981년 8월 31일 부터 1984년 3월까지 기초에서부터 꼭대기 채광탑 기둥들의 윗부분(기둥머리)까지 임시적인 철근 콘크리트 피복을 제거하고 동시에 손상된 모든 설비를 교체시키는 계획을 따라 복구작업을 했다. 이 작업에 의해 대성당의 본래의 구조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고 같은 재료와 같은 장식으로 Charles성인이 완성한 것을 완전히 개량하면서 바티칸 공의회Ⅱ의 전례조항에 따른 내진을 새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러나 꼭대기 채광탑은 대성당의 투시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건축학적 요소와 채택된 장식적 요소를 유효하게 나타낸 신학적 내용의 중심이기도 하다.

5. 지하분묘 (지하 소성당)

둥근 천정들과 리브와 리브사이의 둥근 천정면들(Voutains)을 처리한 솜씨가 아주 뛰어난 Coro Jemale은 Pellegrini의 그림을 Giovanni Battista Bombarda와 다른 몇몇사람이 부각을 시킨 것으로 스터코(화장벽토)로 장식을 해서 표현의 풍부함은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둥들은 Macchiavecchia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난간들은 바로크 양식이다. 나무로 된 내진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하다. 바닥은 최근에 한 것으로 고전적으로 흰색 대리석, 붉은 대리석, 검정 대리석을 사용하여 상태가 몹시 나빴던 19세기의 나무로된 바닥 포장의 그림을 정확하게 재현시켰다. 몇 계단을 내려가 Scurolo라고 불리우는 8각형 지하분묘에 도달한다. 여기에는 성인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다. 1606년 Richini가 건축한 것으로 17세기말 은으로 된 베내기(벽, 기둥 윗부분에 장식으로 두른 쇠시리 모양의 돌출부)로 장식을 했다. 이 작품에는 성인의 삶 중 가장 중요한 삽화들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다른 장식들은 밀라노의 금은 세공사들과 대주교 Litta, 백작 Borromeo가 기증을 했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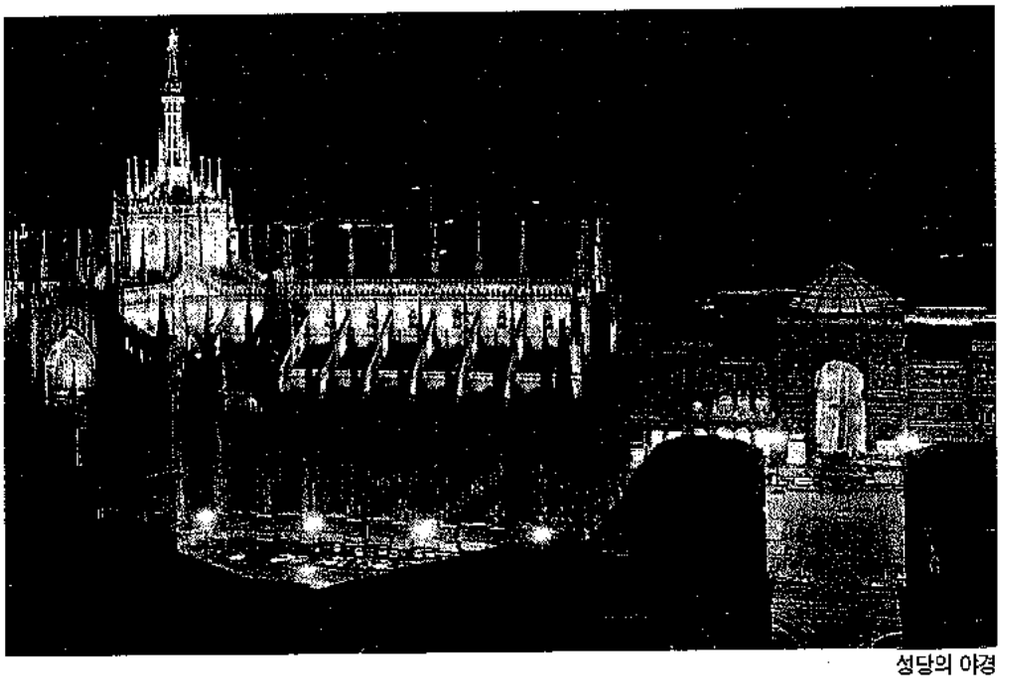
(1) :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수의 몸으로 사제가 축성된 500원 짜리정도 동전크기의 밀떡이며 이것은 아무것도 섞지않은 순수한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다.

(2) : 교차선이나 뾰족아치의 교차점위에 있는 둥근천정의 구획. 리브와 리브사이의 천정면

(3) : 달걀 흰자 또는 갖풀에 물감을 타서 그린 그림. 그림의 색이 손상되지 않음.

(4) : La Carrocio는 Frederic 1세 Barberousse의 지배에 대항해 밀라노 사람들이 만든 자유시의 상징이었다. 1176년 Legnano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밀라노 군대의 한 가운데에는 황소들이 이끄는 큰 이륜 달구지인 Carrocio가 있었다. 그 위에서 한 신부가 제단앞에 서서 외국 압제자에 대항해 승리하도록 전투 부대를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했다. Carrocio에는 종 하나와 밀라노의 군기가 세워진 깃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 : 지난호(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 이어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을 소개하였다. 다음호(94. 6월호)에는 세계에서 첨탑이 제일높은 독일 남부지방에 있는 울름(Ulm)성당을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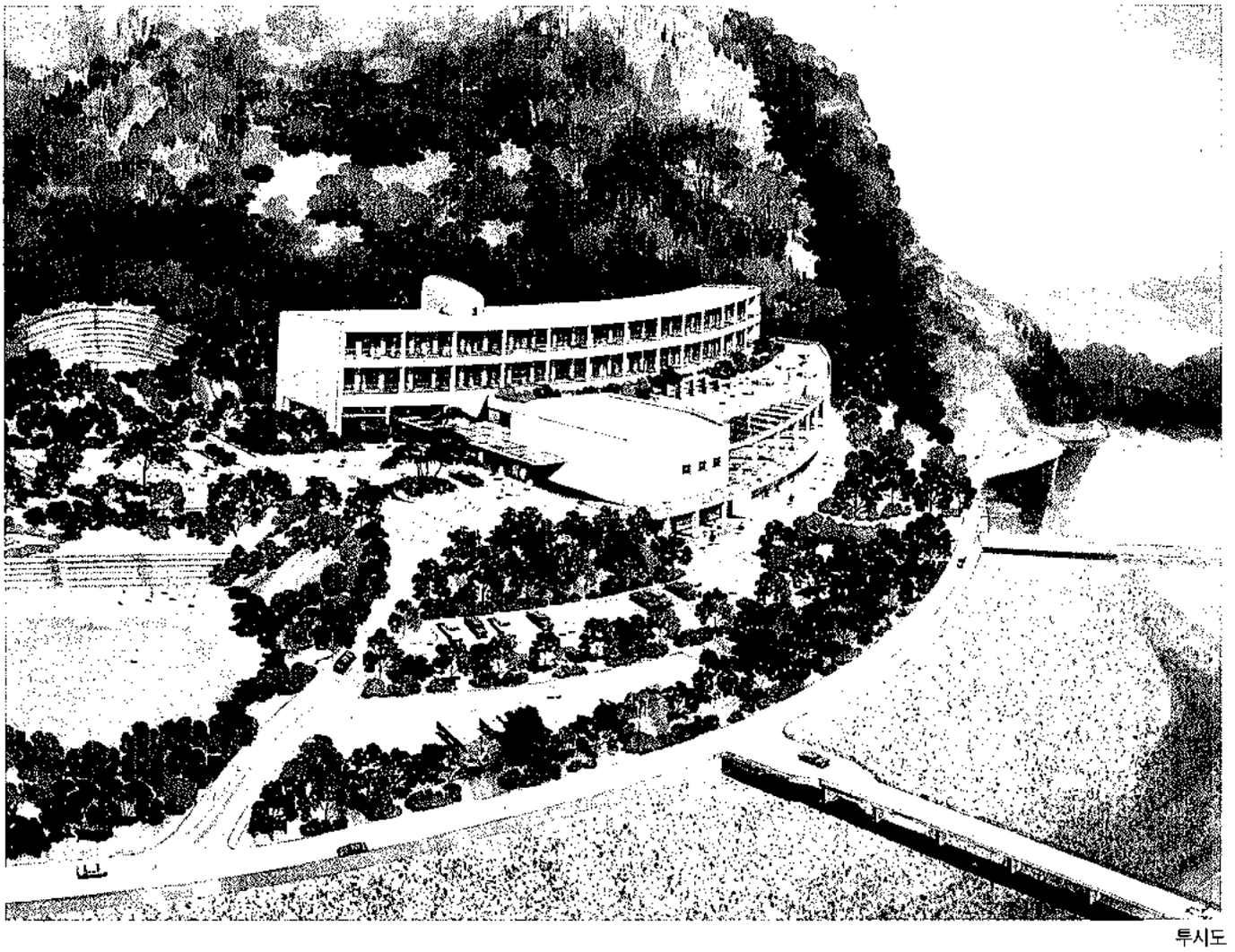


성당의 야경

대전시 중구 실버토피아(노인복지회관)

대전직할시 중구청에서 국내 최초의 노인 종합휴양시설인 『실버토피아』 건립 현상공모를 실시, 지난 2월16일 심사결과를 발표, (주)건설종합기술공사(엄채영)+양우·나우·다리건축(조인숙)안을 당선작으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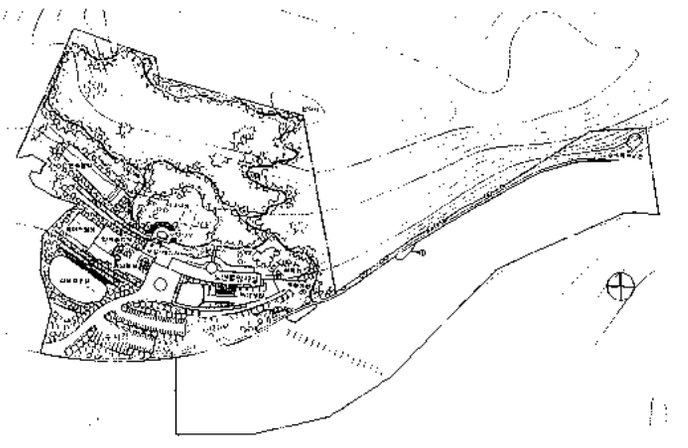
총 4개 작품이 출품된 이번 공모에서 우수작으로는 창우·정(이근+오희영+이근홍)+(주)우대기술단(양현승)안이, 장려작으로는 상화건축(목대상)+(주)삼화기술단(조연재)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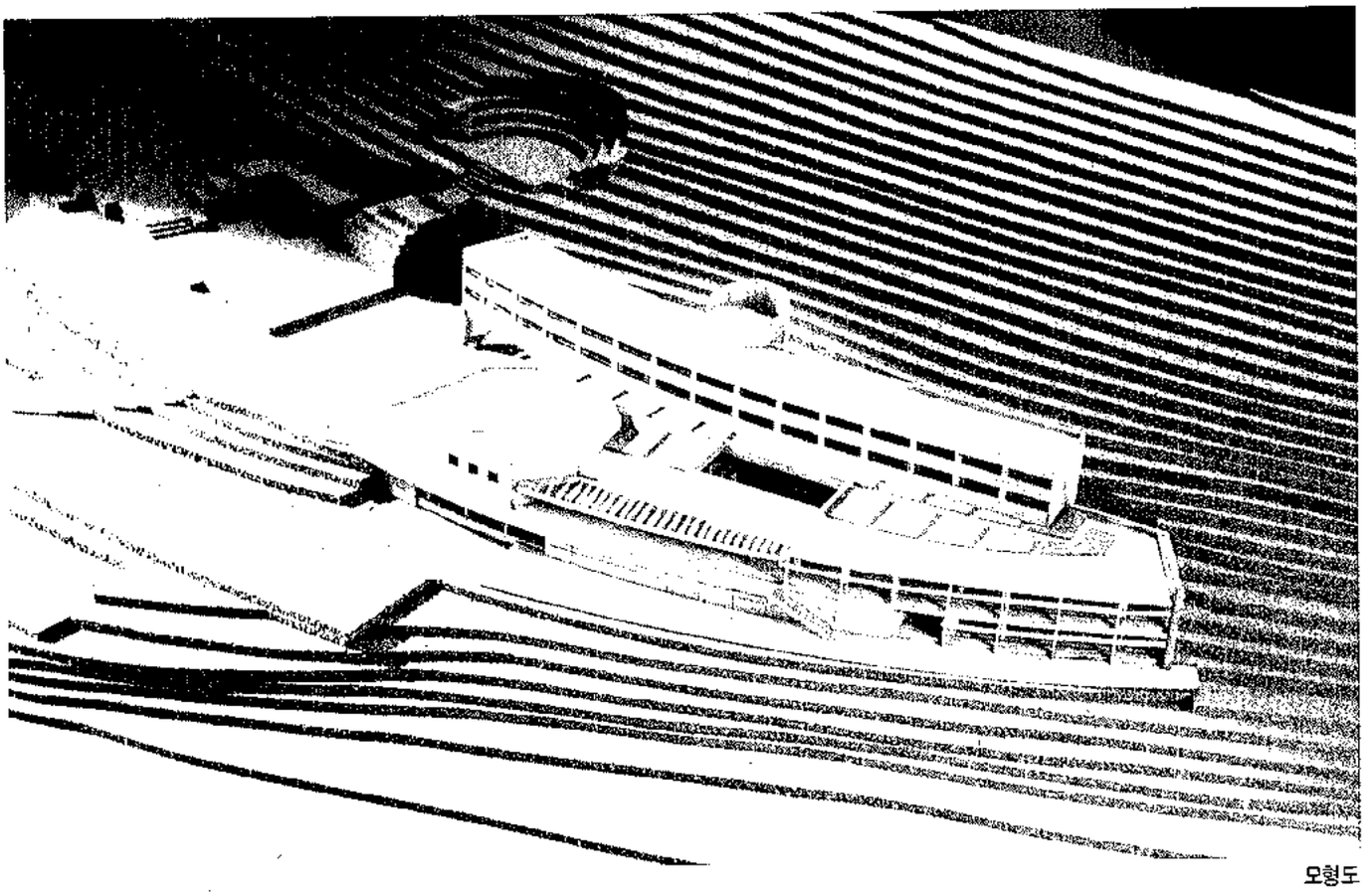
투시도

당선작
(주)건설종합기술공사
(대표 : 엄채영)
+
양우·나우·다리건축
(대표 : 조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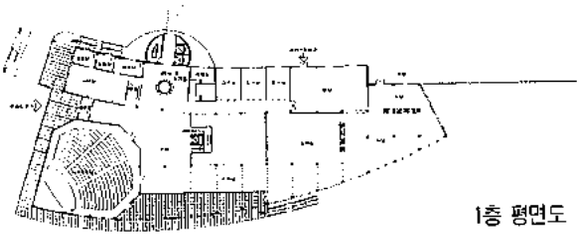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중구 안영동 산7-1번지 일원
대지면적 / 100,657㎡(보문산도시자연공원-54,142㎡, 안영유원지-46,515㎡)
용도 / 노인휴양시설
건축면적 / 2,743.21㎡
연면적 / 6,532.81㎡
건폐율 / 9.97%
용적률 / 14.54%
건물규모 / 지상3층, 지하1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주요외장재 / 외단열시스템(도라이비트)+복층유리
모델 / 최창학, 도규태
투시도 / 양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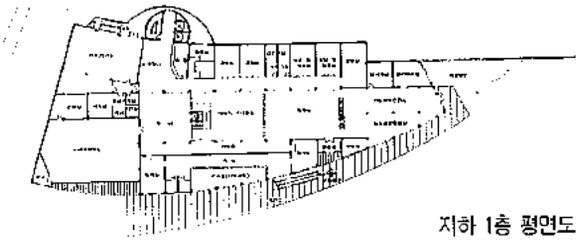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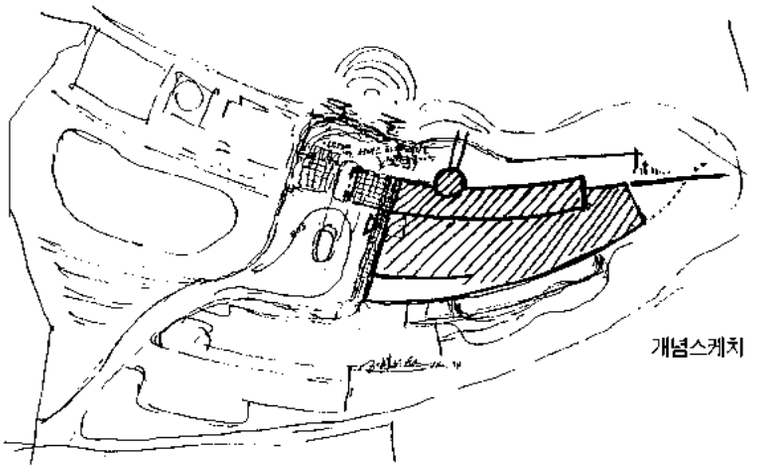
모형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개념스케치

■ 계획의 주안점

• 안정성 추구

지형에 순응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입면에서 수평요소의 강조로 친밀감을 주고, 기능 및 동선구분에 따른 공간배치로 안정감을 주었다.

• 경제성 추구

1동(棟)배치로 공사비 및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서비스와 장방형 남향배치로 에너지절약의 극대화를 꾀했다.

• 쾌적성 추구

햇빛, 통풍, 조망의 최적화로 건강한 공간과 다목적 옥내정원을 둠으로서 쾌적한 중심공간, 다양한 용도변화에 대비한 융통성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 배치및 외부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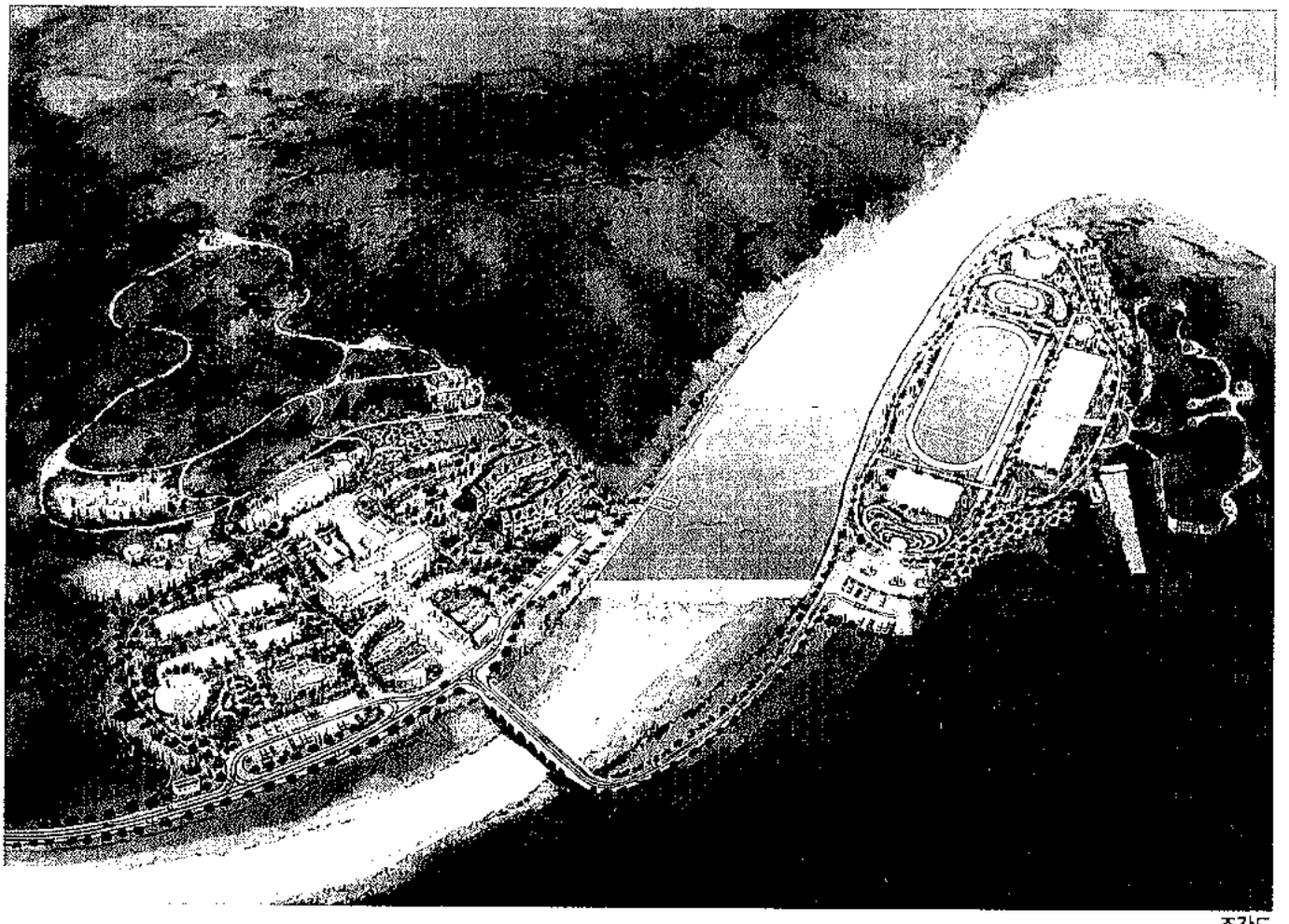
- 자연수림대의 최대보존, 훼손면적의 최소화
- 기존지형에 순응하는 선형배치
- 남향배치로, 건강한 실내공간 유지및 에너지 절약에 부응
- 유기적인 내외부 공간 구성 (중정및 후정, 옥상정원, 테라스)
- 진입부분에서의 교통처리로 건물의 프라이버시 확보
- 서비스 동선의 연결로 비상시 대비

■ 평면및 구조방식

- 최대의 자연채광 및 조망, 동선의 최소 추구
- 관리, 운영/교육, 문화/의료, 건강/스포츠/숙실 등의 명확한 공간구분및 융통성 있는 공간활용
- 노인특성에 맞는 장애물 없는 설계, 안전시스템 확보
- 그리드 구조방식 채택으로 원호부분 공사의 어려움 해소 6x6, 6x10.5, 6x12등의 기본스판적용

■ 단면및 수직동선

- 지형을 최대로 활용 절토, 성토 면적을 비슷하게 함
- 각층마다 각자의 외부공간 확보 (지하층-테라스, 1층-옥외휴양시설, 2층-옥상정원, 3층-기존수림)
- 진입층(관리, 운영/교육문화시설)을 중심으로 1일 이용자 동선과 주간 이용자 동선의 수직분리, 지하층은 의료, 건강/스포츠시설, 2,3층은 숙실배치, 수직동선의 최단화로 공용부분 이용의 극대화



조감도

설계
창우 · 정건축
(이근+오희영+이근홍)
+
(주)우대기술단(양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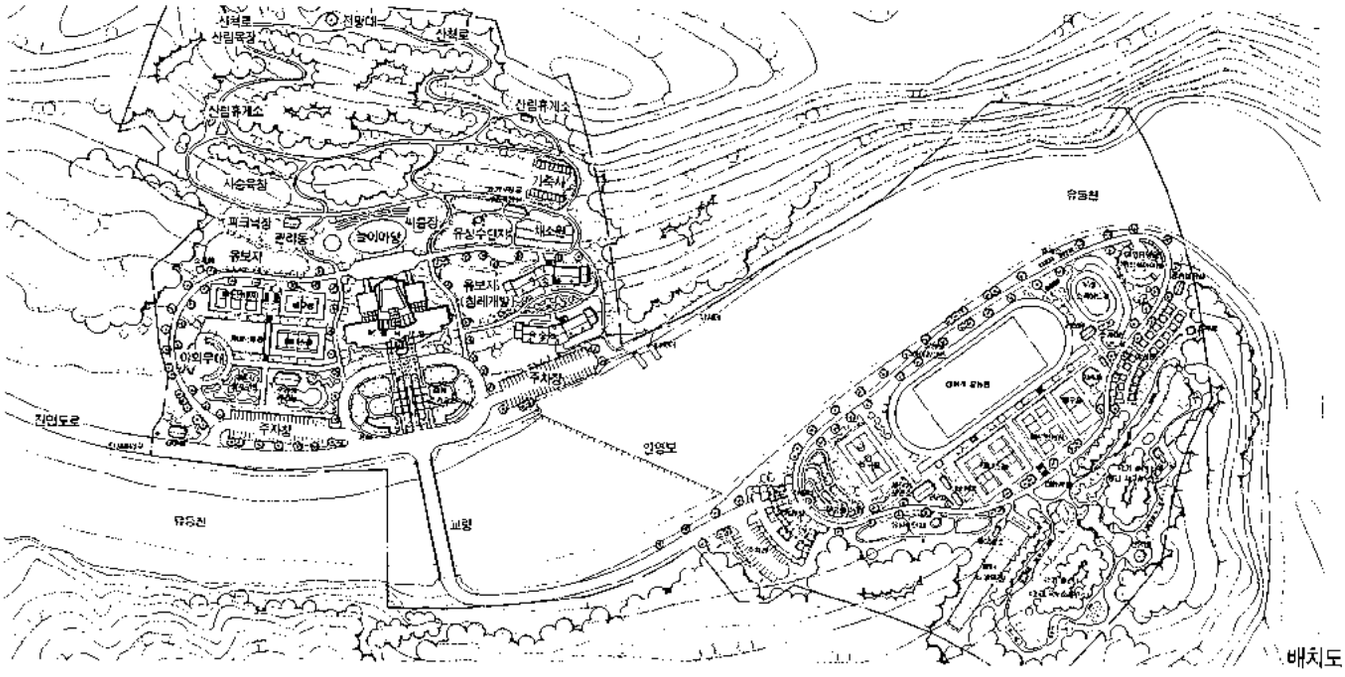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중구 안영동 산7-1번지 일원
대지면적 / 100,657㎡
건축면적 / 2,739.39㎡
연면적 / 5,100.31㎡
건폐율 / 2.72%
용적률 / 4.5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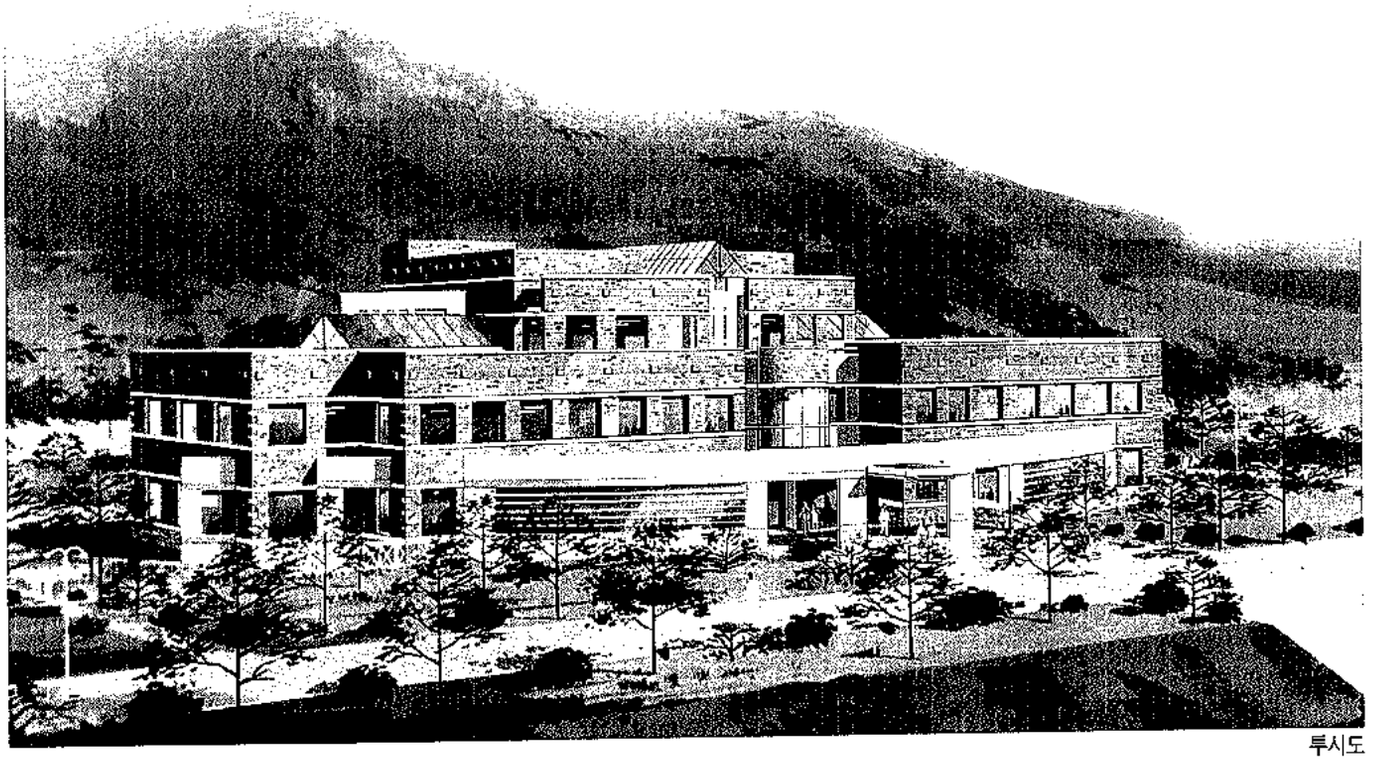
노인들의 신체적(기능저하), 심리적(고독감등) 특성을 감안한 계획으로 모범적인 노인시설로서 효율적인 노인관리 시스템을 위한 공간 창출과 이용자 분석에 의한 적정규모 및 도입시설의 설정 그리고 주변환경 및 지형에 순응된 건축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남향배치를 꾀했다.

■평면개념

문화복지동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를 고려하여 램프를 설치하고, 이용회수가 빈번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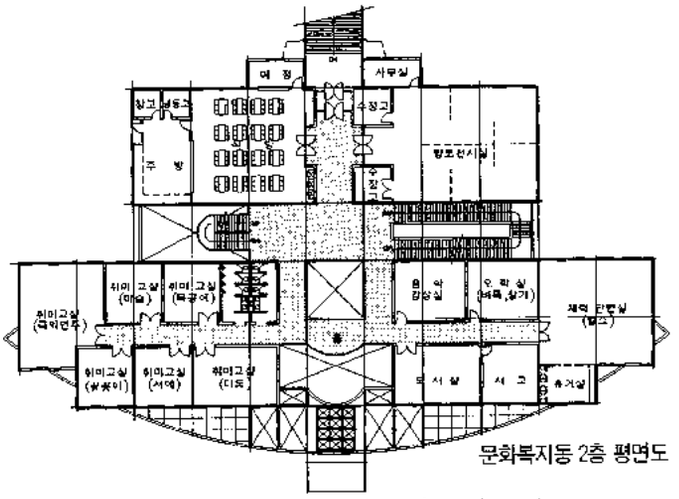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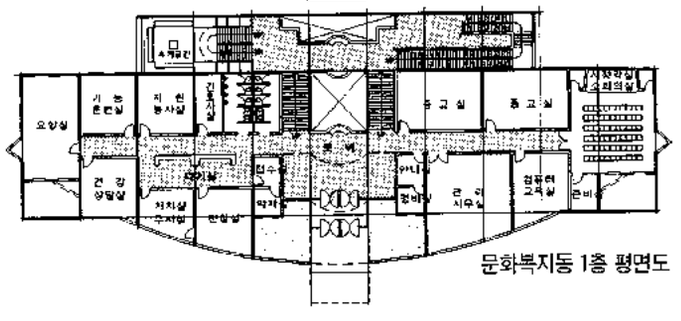
투시도

설(식당, 의료시설)을 저층부에 설치했다. 비상시 대비 및 타시설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각층에 외부출입구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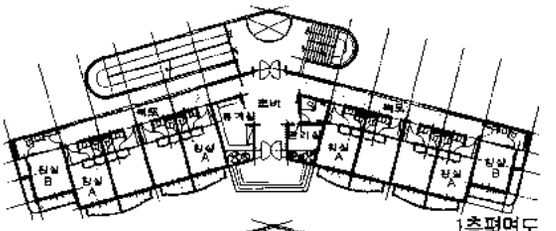
숙소동은 각층에 휴게공간을 두어 담소의 장을 마련하고 각 실에 반침을 두어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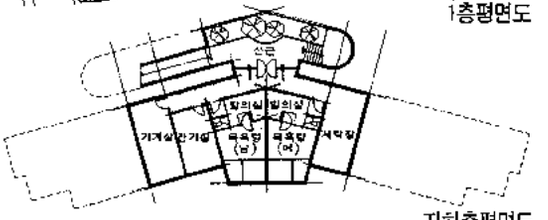
문화복지동 2층 평면도



문화복지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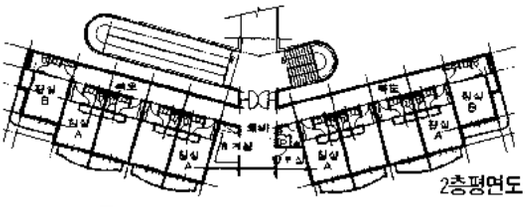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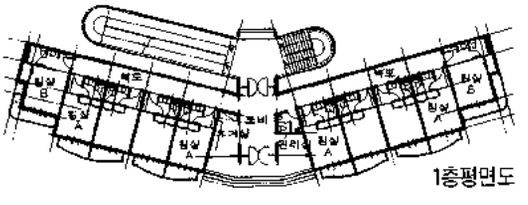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숙소 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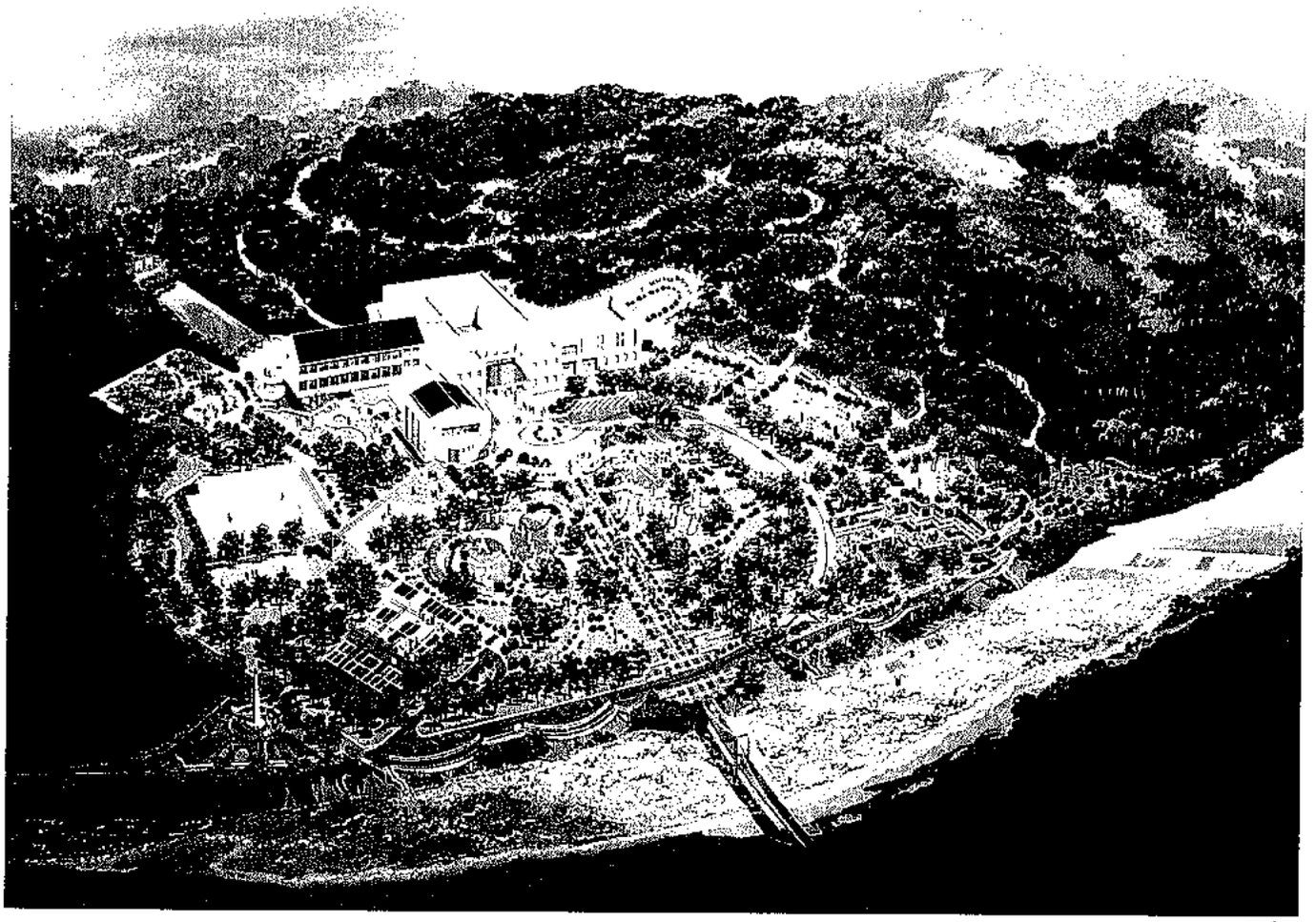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숙소 2동



조감도

정림건축
상화건축(대표 : 목대상)
+
(주)삼화기술단
(대표 조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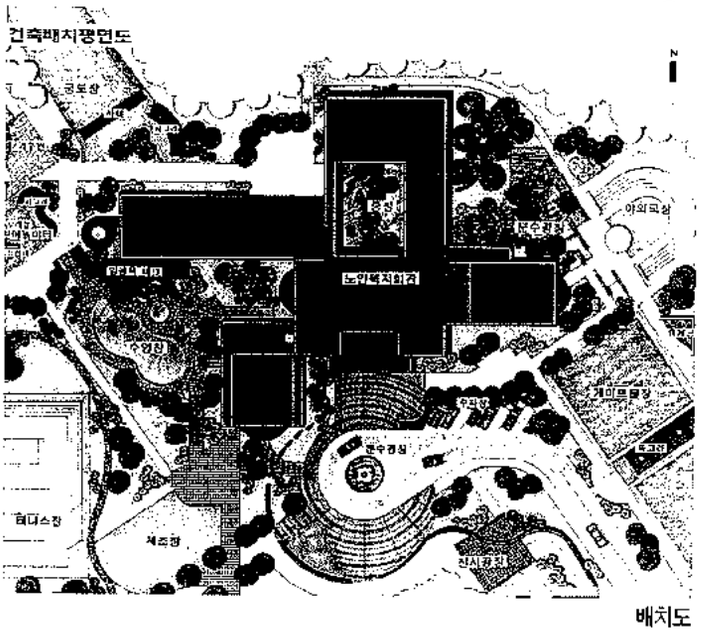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중구 안영동 산 7-1번지 일원
용도위치 /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 및 자연녹지(일부 개발제한구역 저촉)
부지면적 / 100,657㎡
시설면적 / 38,190㎡
건축면적 / 바닥면적 2,165.87㎡
연면적 / 4,365.13㎡

■계획배경

- 고령인구의 증가
  -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관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증가
- 노인문제의 심각성 대두
  -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인한 노년층의 고립감 심각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미약
- 노인복지시설 및 제도 미흡
  -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질적 수준 저하
  - 노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프로그램(Service Program)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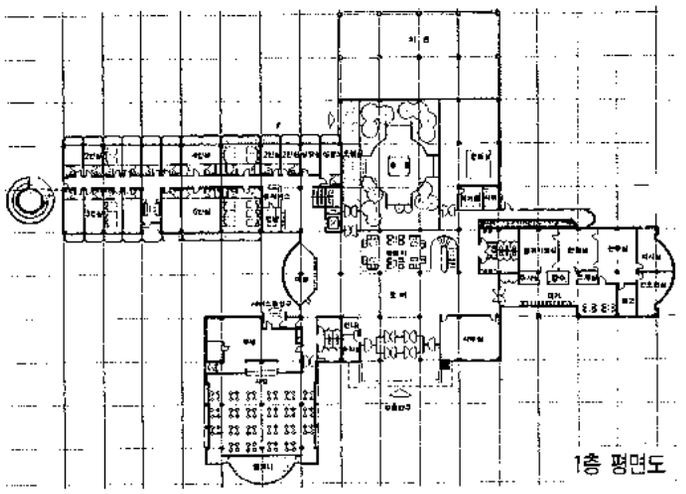
■계획목적

- 노인복지시설의 새로운 전형 창출
  - 노인복지시설및 여가시설의 적절한 조화유지
  -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시범사례 제시
- 효율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이용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용효율증대
  - 노인들의 건강관리, 문화, 교양 등과 일상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제공
- 쾌적한 노인활동공간의 조성
  -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수립
  - 활동 및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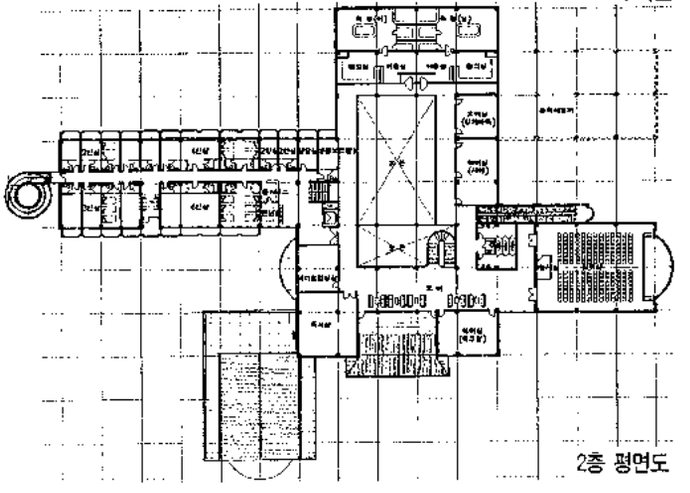


배치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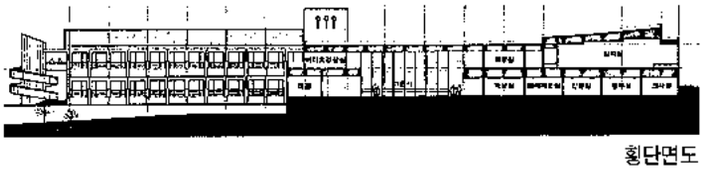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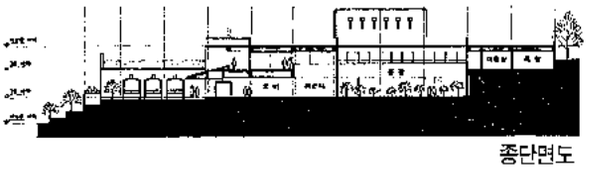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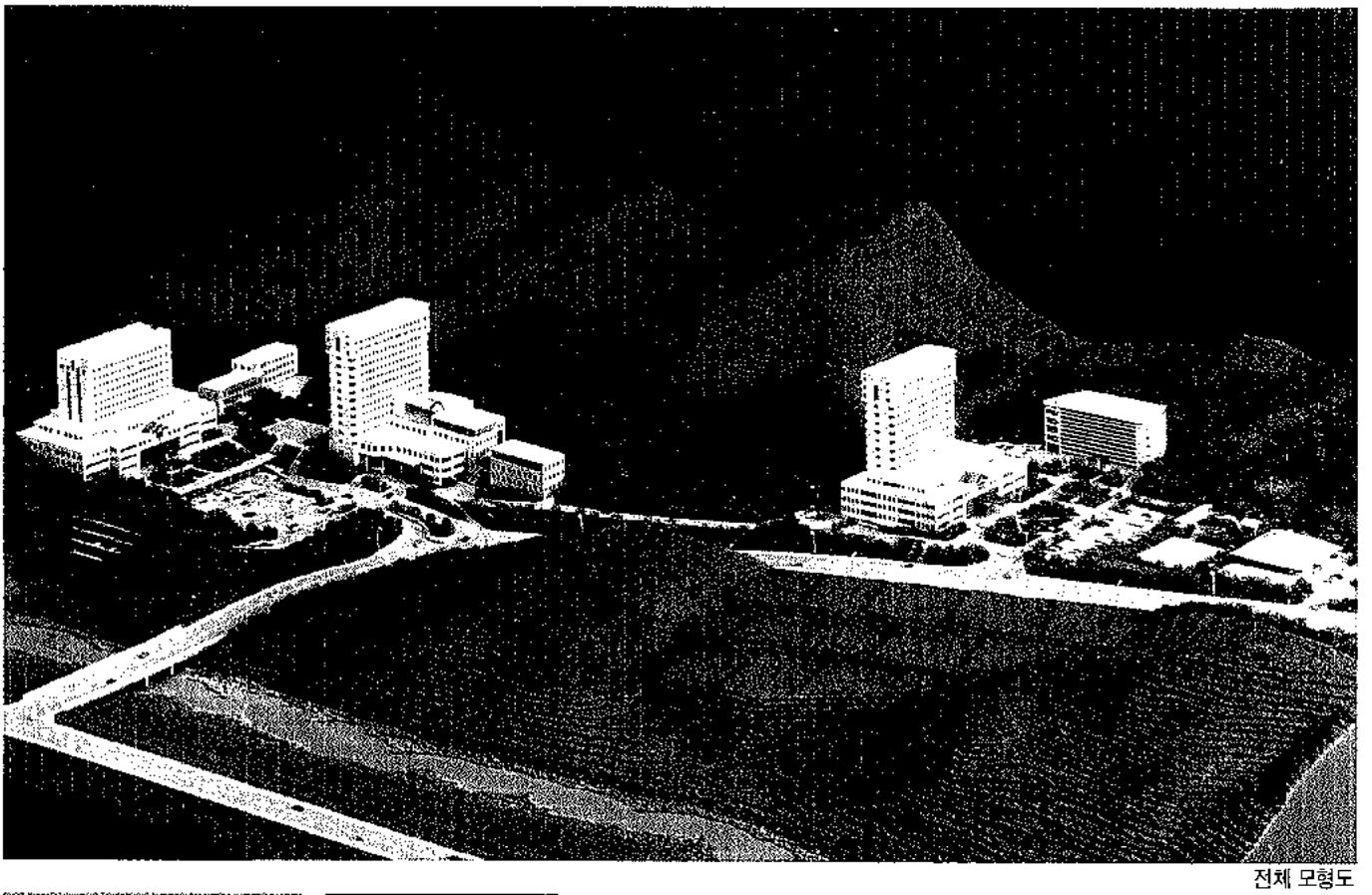


종단면도

서울대학교병원 분당병원건립 부지이용계획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분당병원 건립 부지 이용 계획 설계를 공모하여 총7개 사무소에서 참가, 심사 결과 (주)우일건축(방의재)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한편, 가작으로 현신건축(김희수)안과 범아건축(김준호)안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가작 중 범아건축안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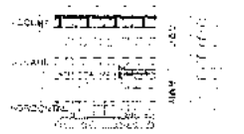


전체 모형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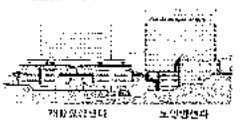
(주)우일종합건축
(대표 : 방의재)

■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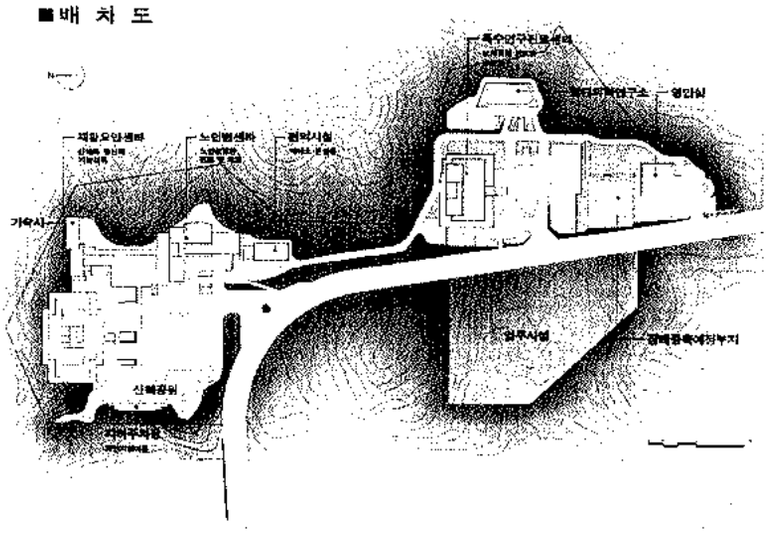
입면도 입면도 모서리

■ 입면도(A지역)



■ 입면도(B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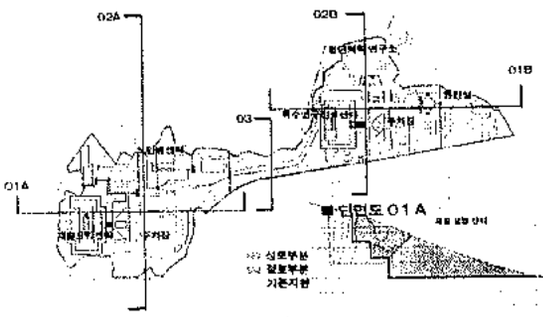
■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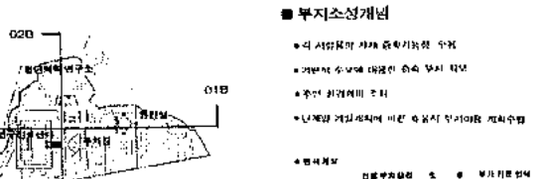
■ 전체입면도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F3-17
대지면적 / 122,388㎡(37,021평)
A지역-84,466㎡
B지역-50,864㎡
C지역-7,058㎡
용도 / A지역-노인병센터, 제활요양센터
B지역-특수연구진료센터, 첨단의학연구소
C지역-영안실, 기숙사, 편의시설, 복지시설, 경비동

■ 부지조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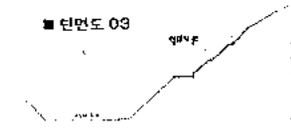


■ 부지조성개념



■ 단면도 0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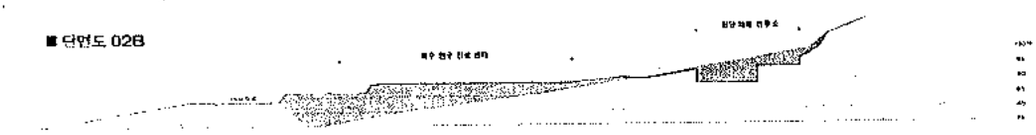
■ 단면도 03



■ 단면도 0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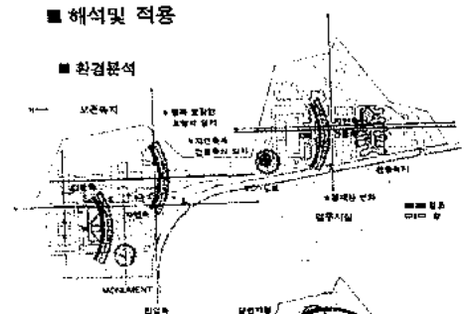
■ 단면도 01B

■ 단면도 0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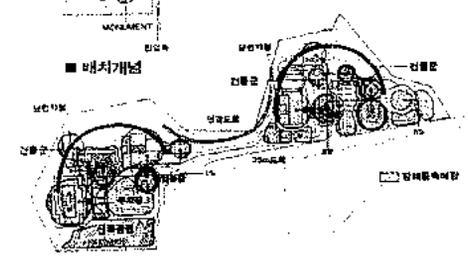


■ 해석및 적용

■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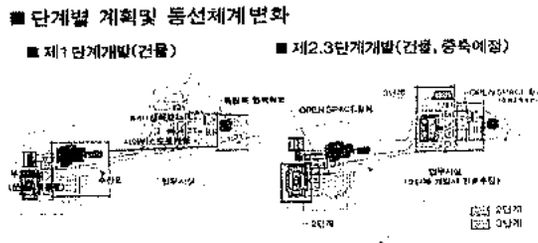


■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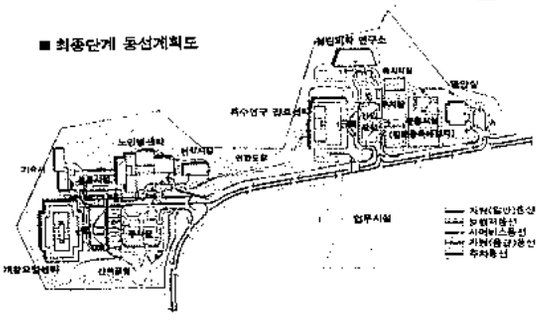


■ 단계별 계획및 동선체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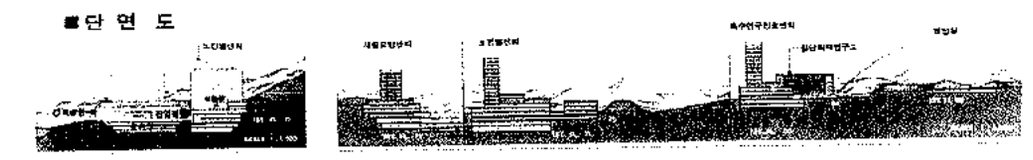
■ 제1단계개발(건물)　■ 제2.3단계개발(건설, 증축예정)



■ 최종단계 동선계획도



■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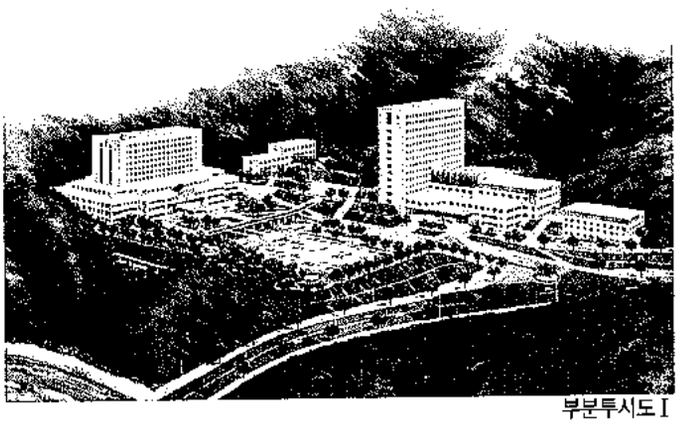


성남, 분당의 남단에 위치한 본 계획대지는 후면(동측)으로 보존녹지와 공원녹지가 에워싸고 있고, 전면(서측)으로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탄천으로 구분되어 의료시설로서 최적의 부지이지만, A지역/B지역이 해발45~105m/75~120m의 경사가 심한 조건으로 부지활용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내포한 곳이다.

A,B지역의 평균고도는 해발 75m와 85m로 A,B지역의 레벨차가 심하며, 따라서 전면도로가 심한 경사로로 A,B지역을 구부러지게 연결하고 있어 주진입을 확보하는데 곤란한 진입조건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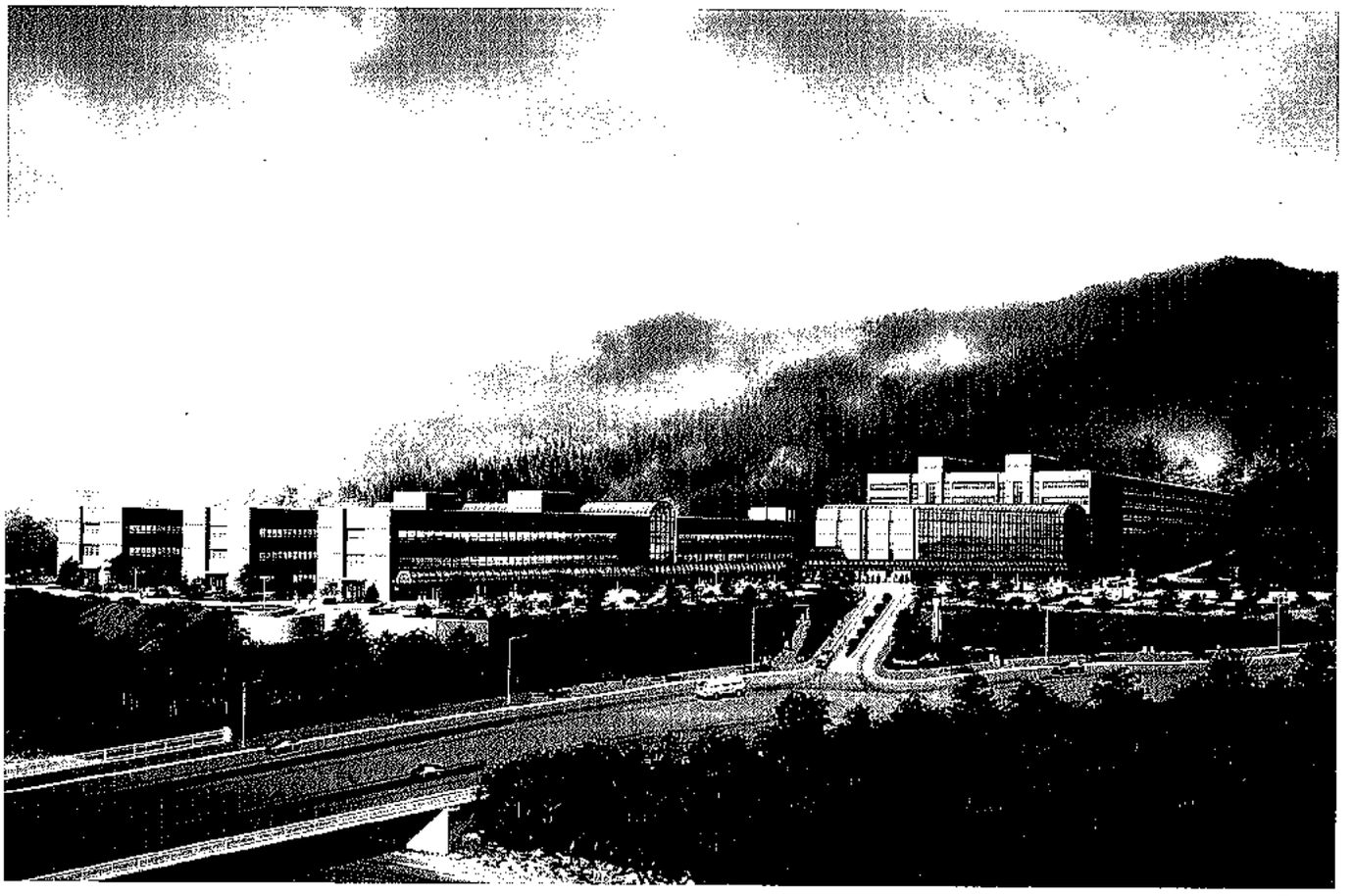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보존적이용을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였으며, 각 건물의 독립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주동선과 건물별 진입동선을 연관성을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건물별 증축을 고려하여 장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가변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부지를 확보하여 운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Open Space를 활용하였다.

경제적인 부지조성 계획을 위해 단계별 개발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안하였으며, 1단계 개발계획인 노인병센터는 물론 차기단계에서의 변경요인도 최대한 고려하여 무리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분투시도 I

부분투시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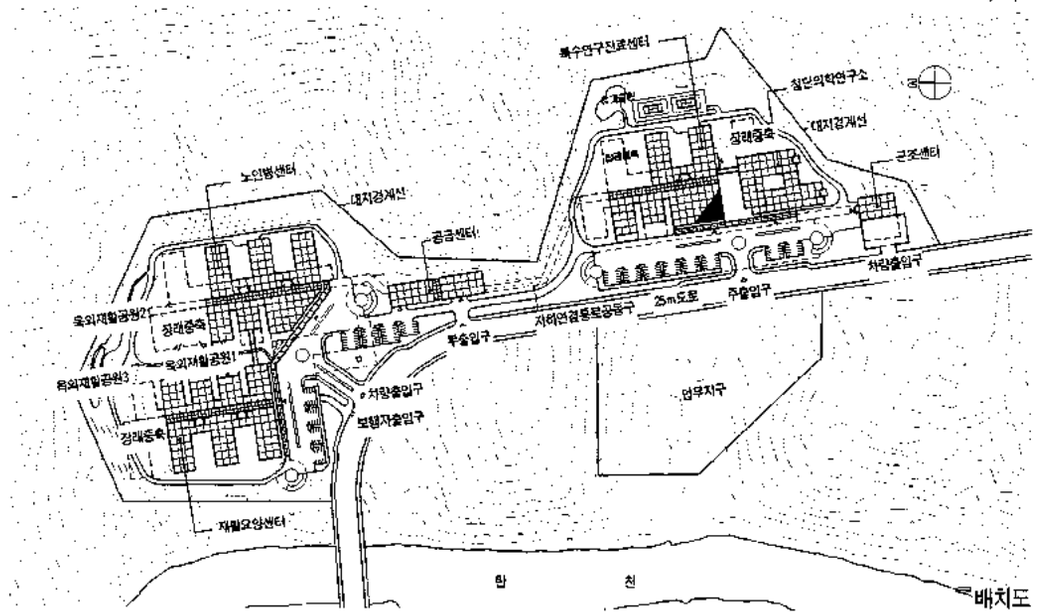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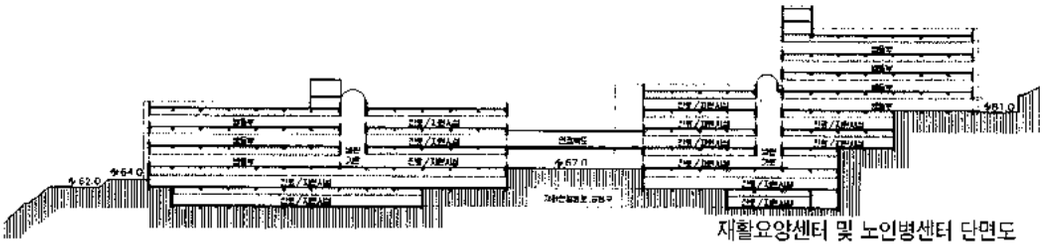
가작

범아건축+문창호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F3-17
지역지구 / 중심/일반 상업지역, 종합병원용지
대지면적 / 122,386.00㎡
건축면적 / 23,631.40㎡
연면적 / 127,195.60㎡
지상층 연면적 / 90,626.90㎡
건폐율 / 19.30%
용적률 / 74.10%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붉은 벽돌
주차대수 / 1,957 대
총병상수 / 1,300 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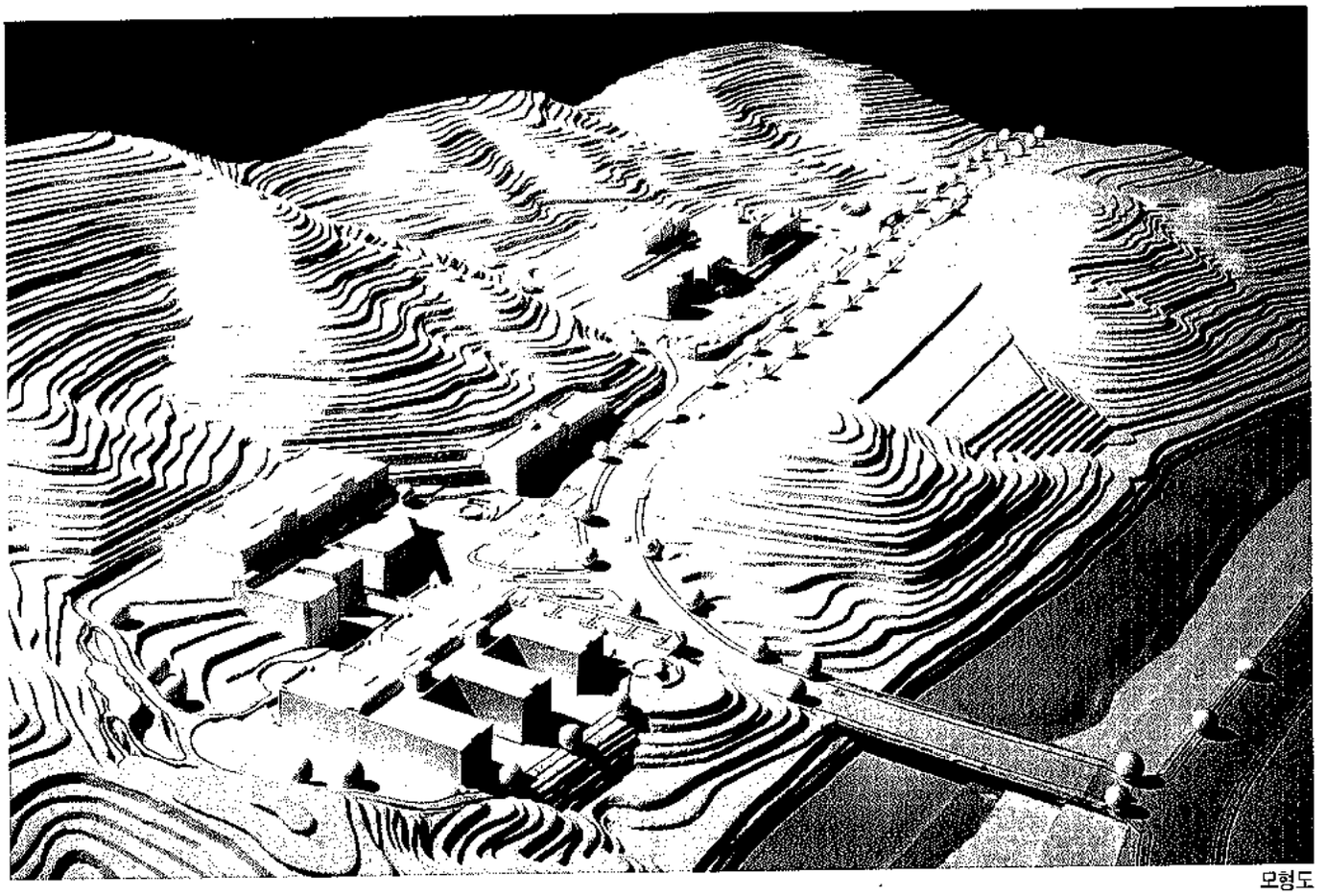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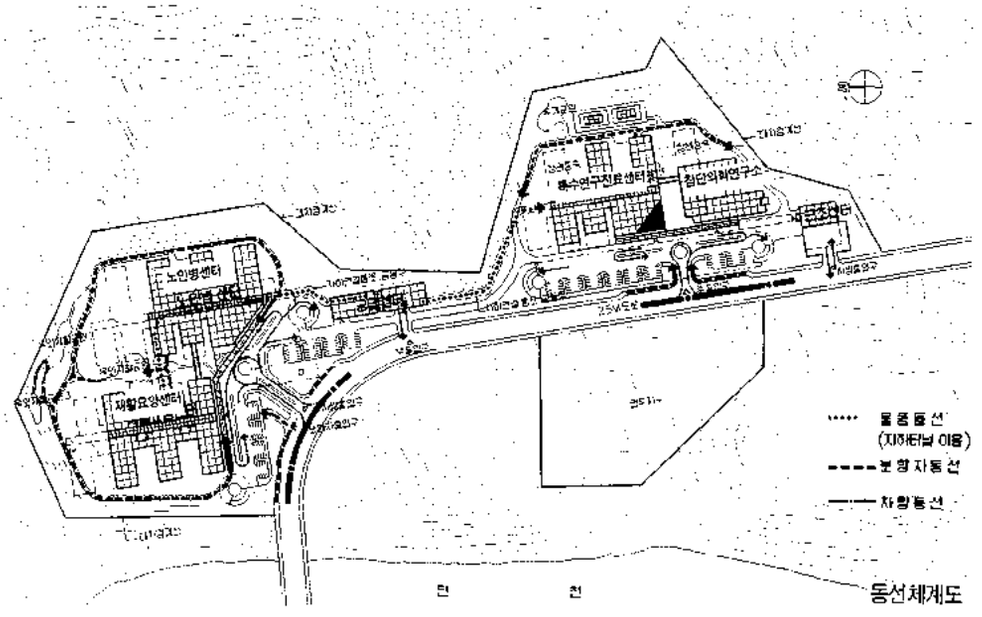
재활요양센터 및 노인병센터 단면도

대지이용계획이 작성되려면, 대지에 건립될 시설의 개념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병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대지이용계획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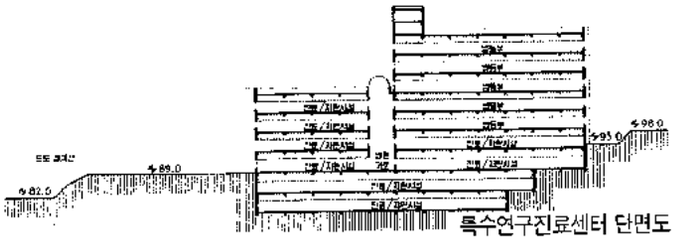
1. 저층형 병원으로 지상 3-5층 규모의 작은 블럭으로 분절하여 인간적 스케일을 추구하였고, 환자, 방문객, 직원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전통적인 붉은 벽돌을 외장재로 선택



모형도



동선체계도



륵수연구진료센터 단면도

하면서 옥외 녹지공간을 확보하였다.

2. 블럭단위별로 레벨에 차이를 두어 경사대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평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따라서 급경사 절개지를 최소화하고 외부공간을 가능한 한 자연대로 보존하였으며, 수평적 건물형태를 채택하여 기계시설에 의존하는 수직이동의 양을 줄였고, 분절된 블럭으로 자연환기를 최대화하고 천창을 설치하는 등 환경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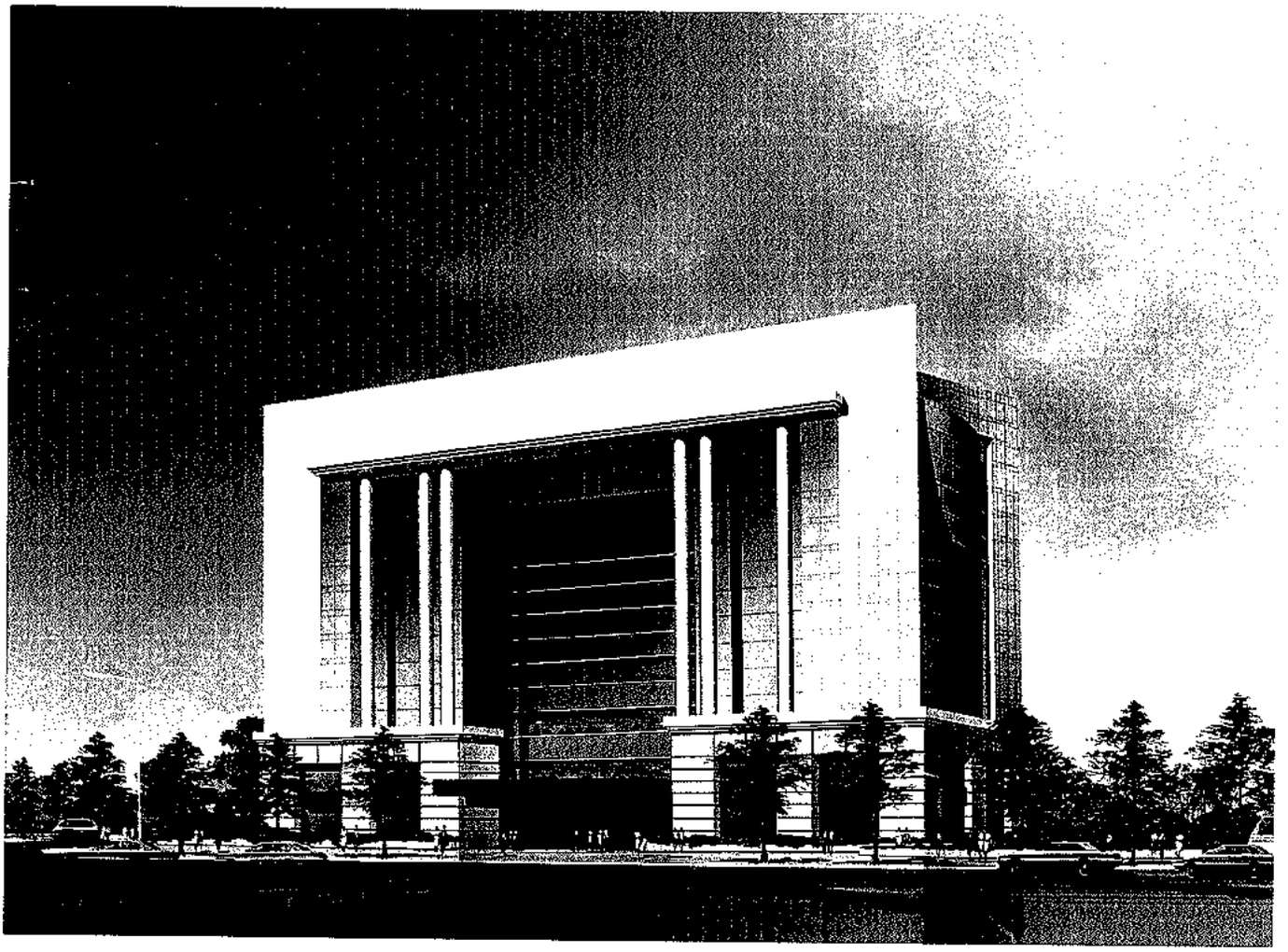
3. 노인병센터와 재활요양센터의 경우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입체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였고, 구내 순환도로는 평상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산책로로 활용하여 옥외 재활시설 기능을 갖는 쾌적한 옥외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4. 병원가로 (Hospital Street)를 중심으로 병동부와 진료/지원시설을 배치하여 성장변화에 쉽게 대응하도록 하였고, 병동블럭과 진료/지원부서 블럭의 폭을 통일하여 기능의 대체가 용이하게 하였으며 장래 증축에 대비한 여유공지를 확보하였다.

5. 건물자동관리시스템과 통신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종합적인 시스템구축을 예상한 계획이 세워졌으며, 물품과 에너지 공급을 중앙화한 공급센터 및 공급센터와 병원건물들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제안하였다.

6. 두개로 형성된 듯한 대지의 건물들에게 연결성을 주기 위하여 공급센터를 중앙에 배치하였고, 병원건물에는 병원가로 (Hospital Street)를 도입하여 쾌적한 통행공간을 조성하고,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길찾기가 용이하게 하였으며, 모든 병동은 남향이 되게하였다.

신협 대전시 연합회 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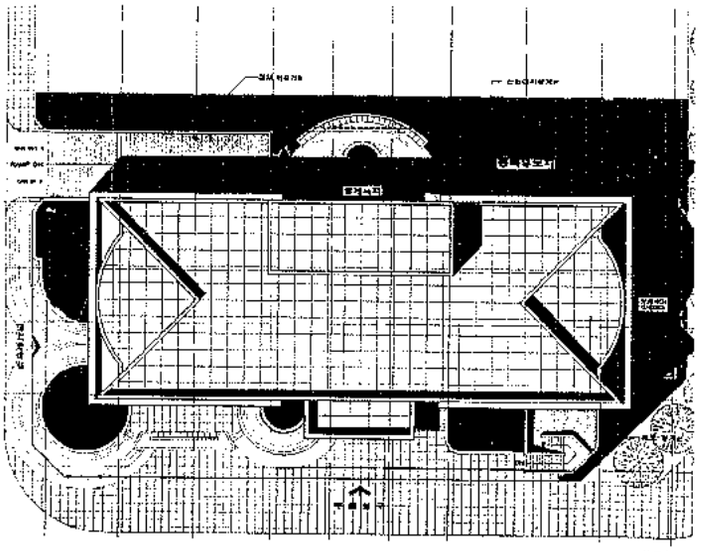
투시도

입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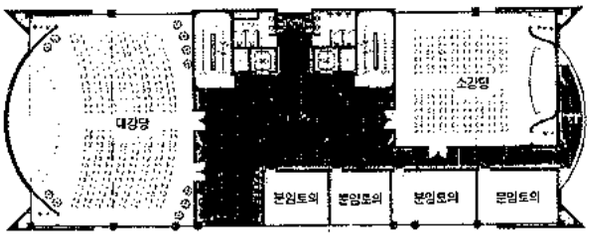
청전건축(안)

(대표 정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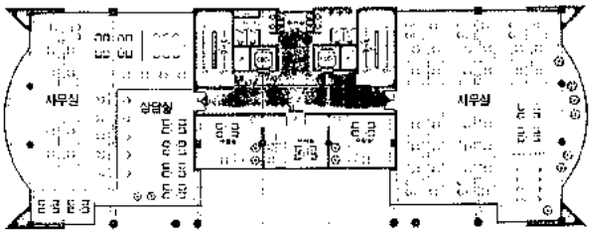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둔산지구 180-47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및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 1,950㎡ (590평)
설계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증축후 : 지하 2층 지상 9층》
건축면적 / 760.72㎡ (230.12평) 《증축후 : 317.57평》
연 면 적 / 8,549㎡ (2,586.07평) 《증축후 : 3,603.24평》
건 폐 율 / 39.01% 《증축후 : 53.83%》
용 적 률 / 278.98% 《증축후 : 451.32%》
조경면적 / 409.50㎡ (21%)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 120대 《증축고려》
주요외벽 마감 / 화강석, 18㎜복층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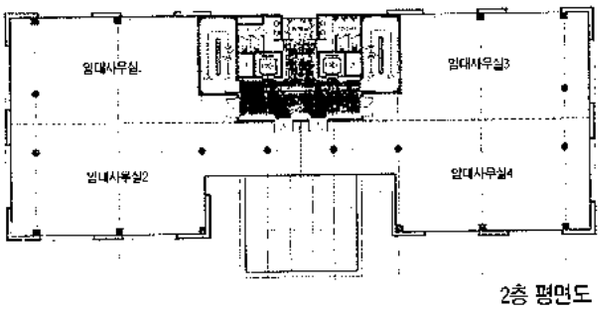
배치도



8층 평면도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계획의 기본방향

- 건물의 상징성 및 신협 연합회 회관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 주변환경과의 조화(정부 제3청사, 대전 시청 등)
- 합리적인 동선체계와 공간의 융통성및 쾌적성
- 장래 증축에 대한 고려
- 경제성-렌터블비(Renterble Ration)의 극대화

■대지 현황 분석

둔산 신도시의 중심지에 자리하여 접근 교통체계가 비교적 양호하며 인접지는 공동주택과 행정업무, 상업용지및 준주거용지등이 자리한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강한 자연 경관축과 동서로 가로지르는 녹도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형조건은 신시가지로 평탄한 장방형 부지.

■배치계획

- 대지의 효율적 이용과 일사조건 및 주변현황과 어울리는 배치계획
- 보행자 출입과 차량의 진출입을 분리, 보차분리의 원활한 동선체계 수립
- 녹지 및 썬큰가든등을 통한 휴식 공간의 제공
- 증축시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증축 유보공간의 설정
- 기준층 평면은 크게 업무공간과 서비스 공간으로 나누어 업무공간은 자연채광과 전망을 위하여 외곽으로 배치하고 서비스 공간은 중앙에 배치하여 에너지 효율 및 사무공간의 쾌적성, 코아로서의 기능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입면 및 조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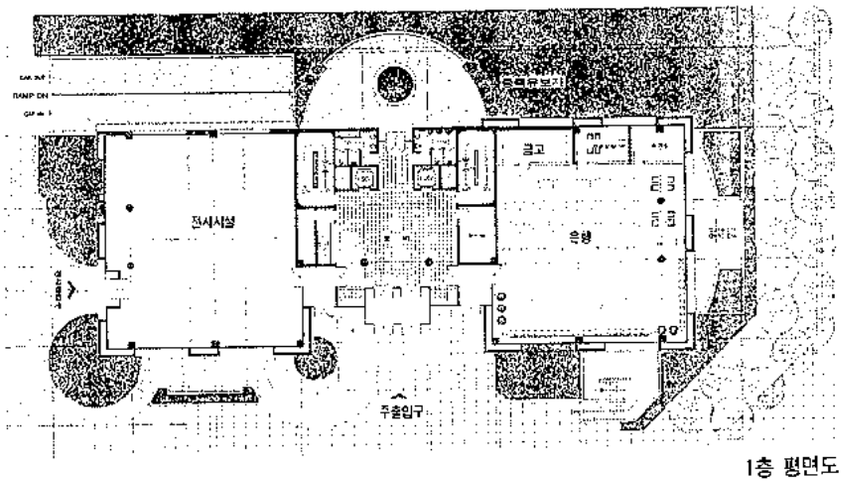
- 신협 회관으로서 필요되어지는 C.I.P 계획을 바탕으로 건물이 갖는 이미지와 조형성, 중심 지구의 가로와 Urban Context내용에 대한 도시적 조형성
- 기하학적 변화 Massing과 적절한 비례, 매스(Mass)가 가져야 할 안정감을 이미지화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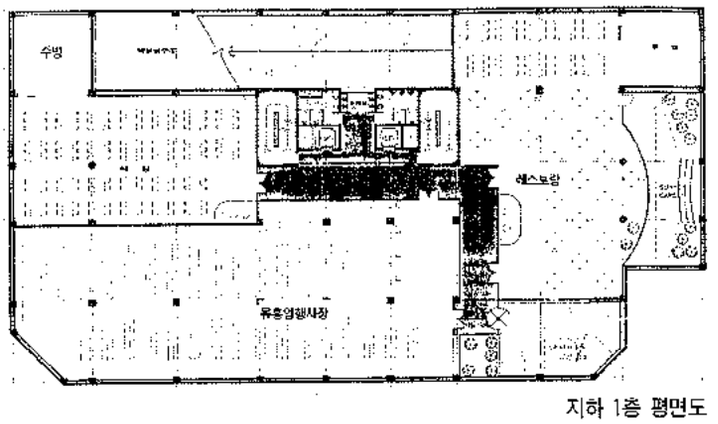
- 사무공간의 쾌적성 확보, O.A기기의 활용, 공간의 Vertical Zoning(공간을 기능별로 층별 집중)및 각 시설별 융통성을 감안한 적절한 층고의 설정 및 설비 계획을 고려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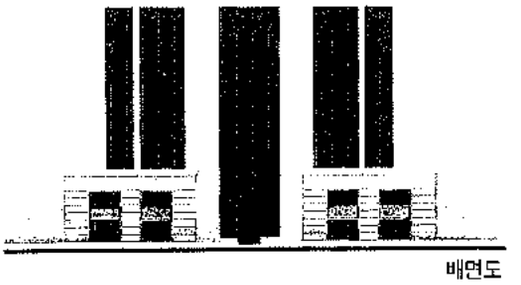
- 저층부와 상층부의 동선을 통합과 분리를 통한 동선의 기능적인 개방과 폐쇄
- Zoning별 동선의 분리와 연계
- 보차분리 및 융통적이고 기능적인 동선 처리개념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배면도

영국의 건축(2)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in Britain

— 18세기 ~ 현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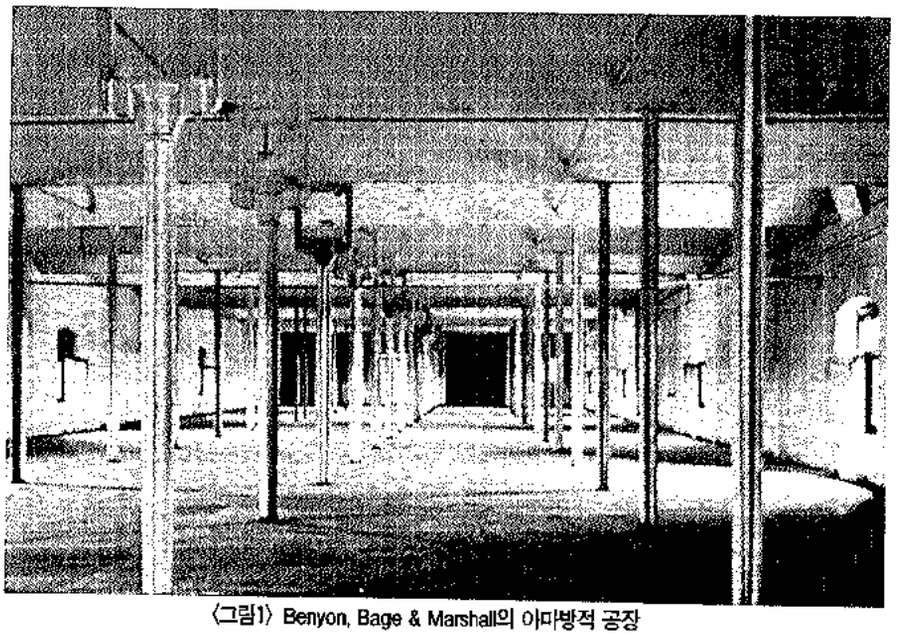
金龍昇/한양대 건축공학과 강사, 공학박사
by Kim, Yong-Seung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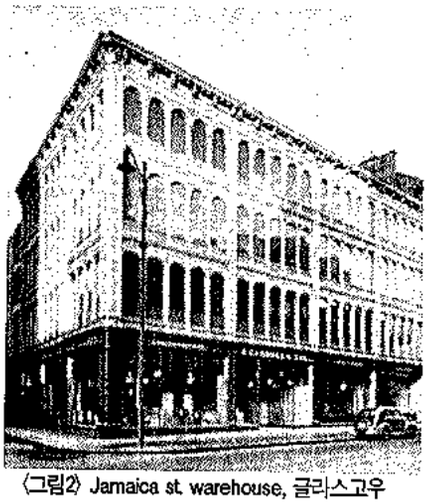
본 글에서는 전편의 고딕양식의 부활에 이어 19세기의 본격적인 산업혁명으로 인한 건축 발전을 살펴본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철의 발달과 이것을 사용한 공학의 발전은 새로운 건물형태 즉 다리, 철도역사, 공장건물 등에 커다란 도움을 주며 건축의 발달에 기여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퓨진과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윌리암 모리스의 건축과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개혁을 통한 수공예운동을 주창하면서 스타일과 장식을 배타하는 예술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20세기에 태동하는 새로운 건축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글은 건축의 근대주의운동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영국의 공학과 수공예운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유럽대륙과 전혀 다른 영국만의 건축발달을 알아보고자 한다.

2. 19세기의 공학과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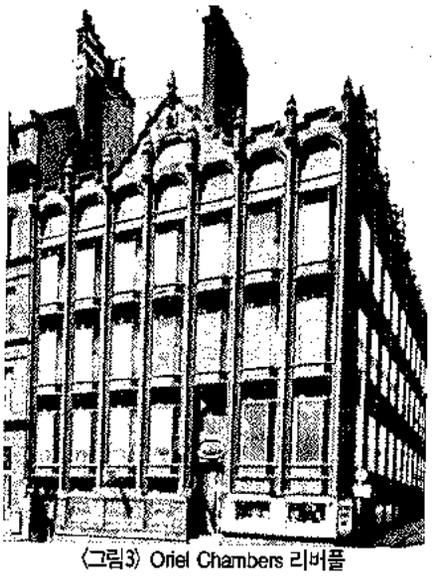
20세기의 근대건축이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의 하나였던 19세기 공학가들의 작품들은 주로 철의 개발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초기 건축에 사용된 철은 미학적인 이유보다는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에서 나무대신에 선택되어졌다. 더비의 William Strutt는 방적기를 발명한 Arkwright와 함께 철구조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면서 1792-1795년 사이에 노출된 철기둥을 상요하여 여러개의 6층건물들을 계획하였다. 그 이후 철사용의 결정적 진보는 1796년에 쉬루스베리에 있는 Benyon, Bage, & Marshall의 아마방적공장(그림 1)에서 보여지고 있다. 벽돌벽으로 된 5층 높이의 건물로서 내부는 주철기둥과 주철보로서 전체가 지지되어 있으며 목재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공장건축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을 제공했으며 이후로 주철보와 기둥이 영국전역의 많은 공장건축에서 사용되었던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다. 1855-6년에 지어진 글라스고우의 자마이카거리에 있는 창고건물(그림 2)과 1864-5년에 Peter Ellis에 의해 디자인된 리버풀에 있는 Oriel Chambers건물(그림 3)이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벽에서 튀어나온 창과 수직의 지지대가 있는 뒷부분의 커튼월에 사용된 철작업의 뛰어남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것이었다. 1864년 무렵 런던에서는 철기둥과 보의



〈그림1〉 Benyon, Bage & Marshall의 아마방적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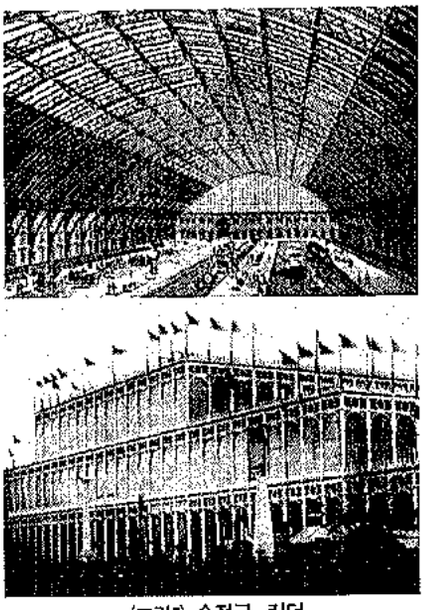


〈그림2〉 Jamaica st. warehouse, 글라스고우



〈그림3〉 Oriel Chambers 리버풀

〈그림4〉 Clifton 현수교, 브리스톨



〈그림5〉 수정궁. 런던

사용없이 지어진 큰 건물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건축에서 철의 사용은 일반적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진 건물들에서는 미를 위한 재료로서 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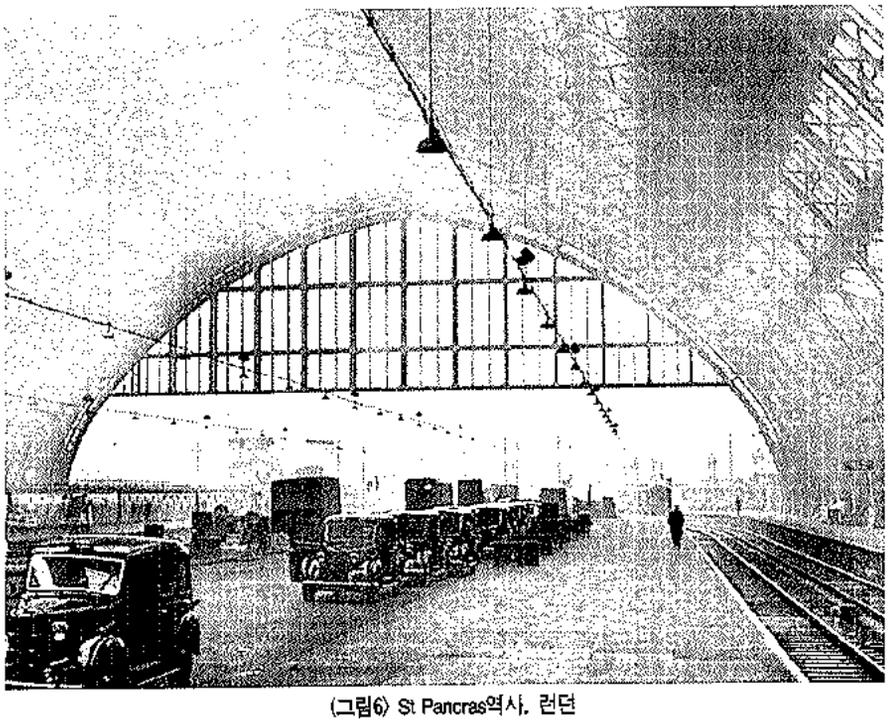
사실 철이라는 재료가 미적인 것을 위해 사용된 것은 건축에서보다는 다리에서였다. 아치형태의 철다리들이 만들어지고 뒤를 이어 현수교가 개발되면서 철이 지니고 있는 미적인 성격이 점차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였다. 브리스톨에 있는 Brunel이 디자인한 Clifton현수교는 이러한 철의 미적 표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그림 4). 700피트에 걸쳐 놓여진 순수히 가능적이고 무게가 없는 철부재는 특히 이집트양식으로 된 두개의 탑문과 뛰어난 대조를 이루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1851년에 있었던 런던 대박람회를 위해 Paxton이 디자인한 수정궁(Crystal Palace : 그림 5)는 그 거대한 크기에 의해 19세기 중엽의 철과 유리건축의 가장 뛰어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어떤 다른 재료의 사용없이 1851피트 길이의 건물을 짓는 것은 24피트의 그리드를 채택하여 그 그리드에 맞게 철과 유리를 이용한 천재적인 조립시스템을 응용함으로써 가능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의 조립이라는 수단만이 16주라는 짧은 공사기간에 그처럼 거대한 크기의 건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팍스톤 자신도 이러한 과감한 계획과 디자인이 박람회 후에 없어질 임시건물이라는 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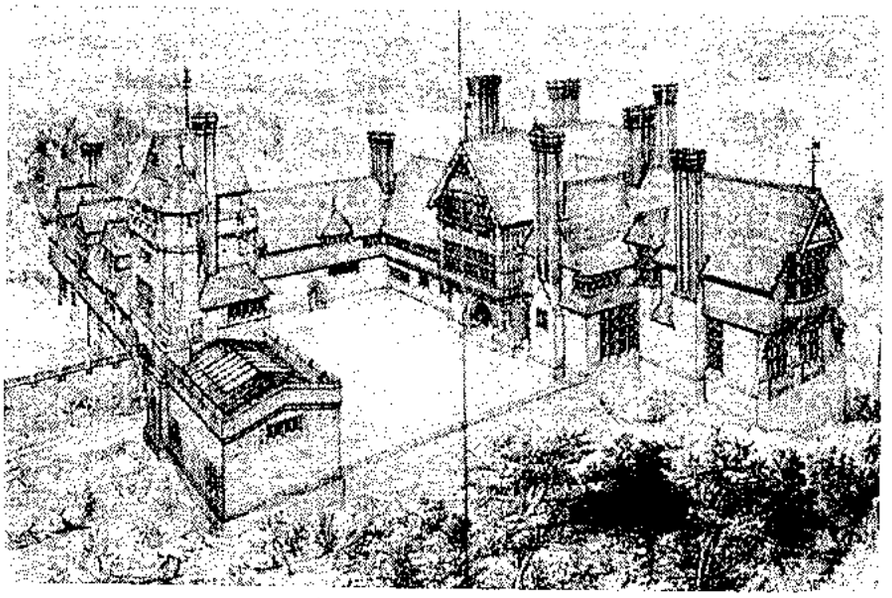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다른 곳에 영구적인 건축물로서 재조립되면서 수정궁은 철과 유리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건축물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았다. 퓨진과 러스킨은 이 건물이 순수한 건축이 아닌 일종의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비난하였다. 그러나 많은 건축가와 이론가들은 이 건축물에서 새로운 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차역사는 건축과 공학이 만났던 분야였다. 런던의 St Pancras에 있는 Barlow가 디자인한 거대한 플랫포옴(그림 6)과 그정면에 위치한 Scott의 벽돌과 대리석으로 지나치게 치장된 고딕양식의 호텔은 당시의 건축과 공학의 대립을 가장 흥미롭게 나타내고 있다.

사실 19세기 중반의 건축비평가들은 그들의 글에서 건축과 공학을 놓고 사회적 고려와 미적 고려사이에서 방황하는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러스킨과 모리스 등은 기계를 싫어했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철과 유리건축을 좋아하지 않았다. 러스킨의 경우는 주로 재료의 미적인 성질에 근거를 두었으며 모리스의 경우는 사회적인 것이었다.



〈그림6〉 St Pancras역사. 런던



〈그림7〉 Leys wood. Sussex

그의 경우 산업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때문에 새로운 재료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공학가들은 그들의 놀라운 발견에 너무 몰두함으로써 그들 주위에 만연되었던 사회적 불만을 알아채지 못했으며 모리스의 경고에 귀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19세기의 예술과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특색이었던 두가지 힘 즉 수공예운동과 공학이 힘을 합치지 못했던 것이다.

3. 리차드 노만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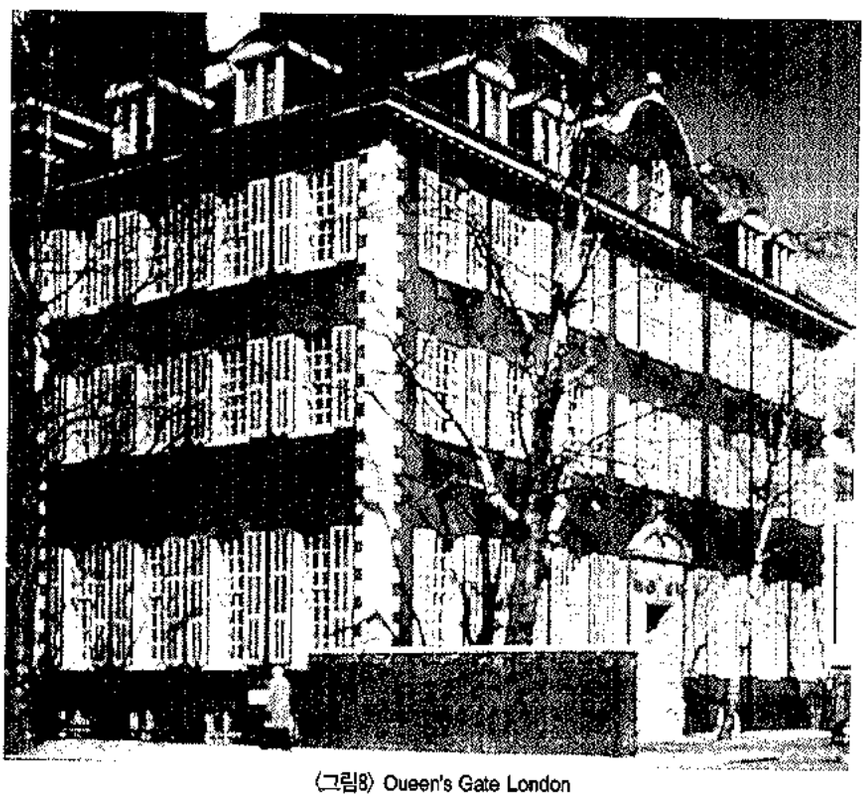
후기 빅토리아시대의 가장 뛰어난 건축가는 Richard Norman Shaw(1831-1912)였다. 그는 Sir Edwin Lutyens (1869-1944)과 함께 1860년대와 2차대전 사이에 영국건축을 지켜온 위대한 건축가였다. 그는 특히 주택건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하였으며 1866년에 디자인한 웨스트 써섹스에 있는 Leyswood저택에 의해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그림 7). 19세기의 전반부에 유행했던 고딕이나 이태리양식으로 된 웅장한 저택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그 지역의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며 보다 작고 아담하게 보이는 주택을 원하는 것이었다. 이 레이스우드에서 쇼는 "옛 영국" 스타일을 창조하는데 일조하였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벽돌로 된 높은 굴뚝 등의 여러 독특한 건축요소들의 조합이 극적인 방법으로 계획되어졌으며 특히 그의 투시도는 건축잡지에 나타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레이스우드에서 사용한 테마를 쇼는 런던근교의 Grims Dyke (1870-72)에서 보다 진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림스 다이크는 레벨의 차가 있는 주택으로서 건물 여기저기를 통하여 이동하게 하는 주계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후기 작품들에서 점점 더 개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간층에서 주택의 주인인 화가의 스튜디오가 있는 부속동이 기울어진 각도로 튀어나와 있다. Violliet-le-Duc은 이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교착되는 계획은 이 주택이 여러 세기를 걸쳐 성장해온 것같은 매력적인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옛 영국스타일은 도시건축에 적당하지 않아서 쇼는 도시에 알맞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였는데 "앤 여왕" 스타일로 알려져있다. 이 스타일의 특징들인 흰 칠의 나무로 된 발코니와 베란다, 17세기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박공벽, 그리고 조각된 벽돌작업 등은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고있다. 1880년대 쇼의 스타일은 다시 한번 발전하였으며 이것은 신 조지스타일로 알려지며 20세기의 건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런던의 Queen's Gate 170번지는 이 스타일의 상징적 주택이다(그림 8). 복잡한 공간의 다양성과 각 층이 서로 다른 독립적 평면계획은 칠과 철보의 사용으로 보다 쉽게 지어지게 되었다.

4. 수공예 운동

위에서 언급한 쇼의 건축은 수공예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수공예운동은 고딕양식부흥과 연관되어 탄생하였으며 특히 장인정신과 재료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보이고 있다. 1853년 옥스포드대학시절 러스킨의 대표적인 저서 '베니스의 돌(The Stones of



〈그림8〉 Queen's Gate London

Venice)'을 읽고 깊은 영향을 받은 William Morris (1834-1896)는 이러한 수공예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모리스의 회사는 1861년에 시작되었으며 그의 가까운 친구들인 건축가 Phillip Webb와 화가인 브라운, 로제티, 번-존스 등과 같이 협력하여 운영되었다.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모리스는 러스킨보다는 좀 더 현명하였다. 즉 러스킨은 그의 주장을 펴는데 너무 혁명적이었다. 그는 수정궁을 싫어하였으며 거대한 철골구조물인 기차역은 건축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건축가들이 추구하고 있던 그의 시대만이 갖는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필요성도 부정하였다. 즉 그에게는 이미 알려진 건축의 형태들은 충분히 훌륭하며 당시의 어떠한 건축가보다도 훨씬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리스는 이러한 역사주의에 기본을 둔 주장을 다른 사람의 버려진 옷으로 변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박하였다. 그러나 모리스는 건축가들에게 고대의 건축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는 혁명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중세시대를 좋아했으며 자연과 훤히 트인 지방을 선호하였다.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에 대한 그의 미움은 처음에는 시각적인 것이었으나 곧 사회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런던은 추한 헛간들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사기꾼들과 그들의 노예들로 가득찬 도시였다. 반면에 중세시대는 그의 눈에 시각적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구조도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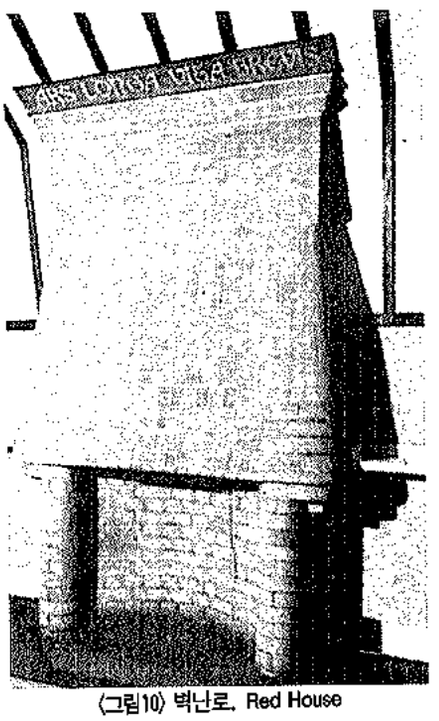
중세시대에 예술은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나누어지지 않았다. 예술가들은 지금처럼 고도로 문명화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금의 예술가들은 대중들이 살고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과거세계의 업적이나 영광만을 찬양하며 자신들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세기의 예술가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으며 일상의 노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예술이라는 일상적인 창조에 의해 즐거움을 얻곤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모리스는 예술이란 "노동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예술은

〈그림9〉 Red House

따라서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예술은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여야 한다. 모리스는 "나는 몇명의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예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중을 위한 예술을 강조하였다.

1851년에 있었던 런던박람회의 카타로그에 나와있는 상품들을 보면 모리스의 이러한 주장들을 이해할 수 있다. 중세기에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어느정도 아름다웠으나 당시 문명화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의 모든 상품들은 초라하며 추한 것들이었다. 그에게 당시의 주택들은 이러한 수많은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그나마 부엌용품들은 정직하고 단순하다는 이유로 좋게 여겨졌다. 그는 이러한 정직성과 단순성은 당시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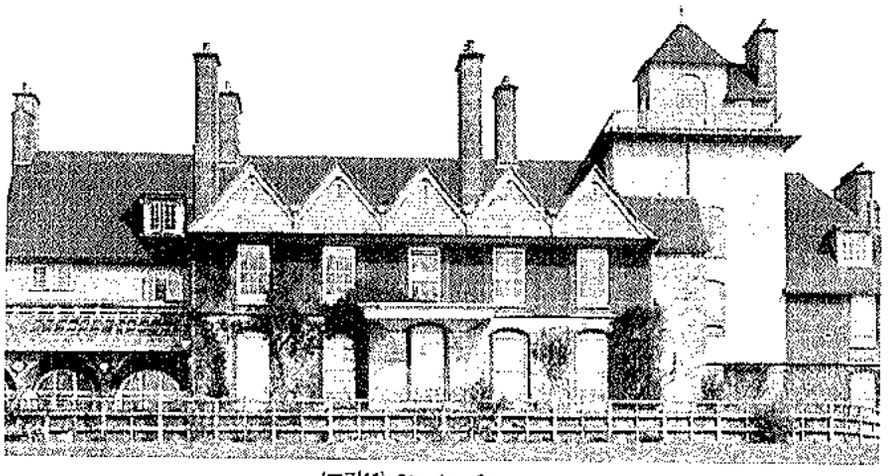
모리스가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옳았으나 기계를 인정하지 않는한 값싼 제품들을 생산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었다. 사실 모리스의 회사에서 만든 것은 비싼 제품들이었으며 따라서 대중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한 것은 젊은 건축가와 화가들을 공예나 디자인의 길로 인도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예술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들을 돕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그림10〉 벽난로, Red House

것이다. 물론 Henry Cole을 비롯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모리스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노력을 하였으나 모리스만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이었고 직접 디자인한 중세풍의 가구들로 런던에 있는 그의 방들을 장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결혼 후 런던근교의 벡슬리 히스에 그의 친구였던 Philip Webb에게 주택디자인을 부탁하였고 그 내부를



〈그림11〉 Standen, Sussex

웨브와 그 자신이 디자인한 가구들로 장식하였다. 이 주택은 '붉은 집(Red House, 1860; 그림 9)'이라 하여 이후의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붉은 집은 많은 점에서 과감하게 시도되었다. 치장벽토없이 붉은 벽돌을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계획을 하였다. 보통의 경우 항상 처음에 고려되는 건물의 파사드가 이 주택에서는 이차적인 고려사항이 되면서 내부의 구조를 정직하게 그대로 외부에서 나타내고 있다. 내부의 벽난로 디자인이 보여주는 디테일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기간의 스타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히 기능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그림 10). 이러한 붉은 집의 특징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오랫동안 예외적인 것이었으며 20세기에 가서야 근대주의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웨브는 숙련된 장인들의 무명의 조정자로서 건축가와 함께 진정한 건축은 기능과 재료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모리스 그룹의 한사람이었던 Taylor는 "우리는 어떠한 스타일도 원하지 않는다. 성격상 영국적인 것을 원할 뿐이다. 스타일이란 베끼는 것을 뜻하며 좋은 작품은 스타일의 부재에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는데 웨브의 작품들은 이러한 테일러의 충고를 실제에서 과감하게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붉은 집 이외에 그의 주요작품 가운데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스트 에섹스에 있는 Standen(1891-94, 그림 11)이다. 이 주택은 성공한 변호사를 위한 주말주택으로 주위의 계곡과 연관되어 아름답게 위치하고 있다. 1층에 13개의 침실이 있는 거대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웨브가 원하는 것은 겸손한 규모의 느슨한 농장주택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노력이 다소 복잡하고 무리한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너무 많은 종류의 지방재료를 사용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웨브의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는 실제적인 건축방법을 찾는 노력은 E.S. Prior (1852-1932)와 W.R. Lethaby (1857-1931)의 두 유능한 건축가에 의해 20세기로 인도되어졌고 많은 실험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연합되어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C.R. Mackintosh (1868-1928)의 스코틀란드의 지방양식, 기능주의, 그리고 아르 누보를 합성한 고유한 건축양식은 유럽대륙에 알려진 유일한 영국적이었던 것이다.

5. 전통주의 : 에드윈 루티엔스

Lutyens(1869-1944)의 뛰어난 경력은 그의 고향 써리의 수공예운동에 기본을 둔 주택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뛰어난 건축가인 Ernest George(1839-1922)로부터 Shaw의 방식으로 비대칭적인 주택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의 초기 대표작은 1897년에 지어진 먼스테드 근처의 Orchards이다(그림 12). 이 주택은 외부에서 거대한 홀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중정을 가진 2층 스튜디오다. 외부형태가 제안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떠한 부분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며 공간적인 조절은 매우 뛰어난 것이었다.

웨스트 써섹스에서 1902년에 그 지역의 부드러운 사석으로 지어진 Little Thakeham은 독특한 방식의 공간적 취급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외부형태는 대칭적인 튜더양식이지만 내부에서 방문객은 주택의 앞부분과 평행하여 달리고 있는 긴 복도와 만나게 된다. 이것은 주택의 뒷부분에 있는 두층높이의 큰 홀과 보다 큰 대조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홀에는 열려진 스크린의 위와 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윗층으로부터 공간은 가로지르는 아래층 복도를 떠나 발코니를 통과하여

〈그림12〉 Orchards Surrey

〈그림13〉 Little Thakeham, Sussex

〈그림14〉 Heathcote, Y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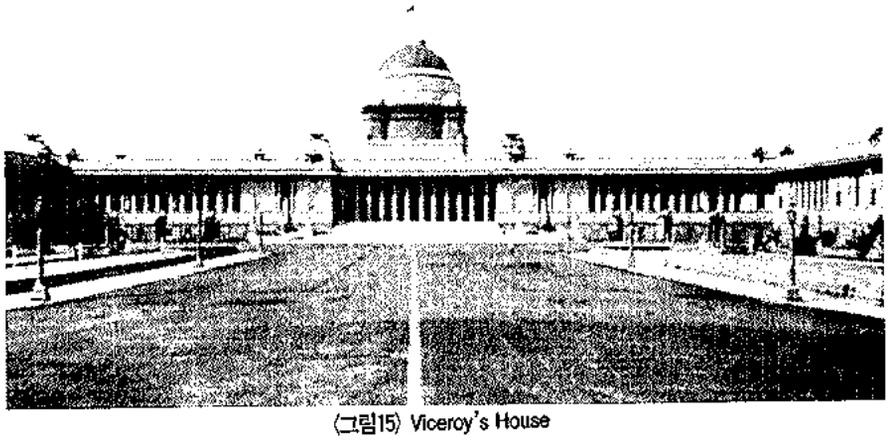
벽난로 위의 방을 관통하고 있다. Shaw로부터 배운 이러한 공간적 드라마는 그 자신의 특색이 되었으며 그의 많은 주택에서 보여지고 있다.

새로운 경향은 1906년 요크의 Heathcote에서 시작된다(그림 14). 이 주택에서는 Sanmicheli같은 건축가가 고전기둥양식물을 다루었던 엄격한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둥양식의 발견과 사용은 루티엔스의 건축에 새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공공건물가운데 그의 대표적 작품은 New Delhi에서 1912년에 시작된 Viceroy's House이다(그림 15). 인디아의 정부청사가 캘커타에서 델리로 옮기면서 그에게 주어진 델리전체를 위한 계획의 중심부 건물이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분명한 고전양식의 건물이지만 그의 스타일은 개인적인 것이었다. 즉 그것은 고전언어의 추상적인 합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건물은 고전주의 부수적인 것들보다는 본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책에서 나타나는 고전적인 특징들이나 요소들이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의 엔타시스에 대한 시스템은 고대 그리스의 그것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도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선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는 한 편지에서 델리에서의 작업에서 고전적인 기둥양식의 사용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기둥양식은 잘 소화되어 본질만이 남아 있어야 한다. 기둥양식의 완벽성은 부수적이나 충동적으로 생겨나는 것보다는 보다 자연에 가까움으로써 이루어진다. 모든 선과 곡선은 수세기에 걸쳐 일시적인 충동에 반하여 생겨난 힘의 결과이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전통주의적 테마는 그를 1890년대와 1930년대 사이의 가장 위대한 영국건축가로 만들었으나 전통주의를 추구한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전통주의는 1940년대까지 영국건축의 규범이었던 것이다. 20세기 초기에 C.F.A.Voysey (1857-1941)를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이 튜더나 조지양식으로부터 개발된 형태로 수많은 공공건물과 주택들을 생산해냈다.

전통주의에 기본을 둔 이러한 건축은 1950년에 가서야 유럽대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근대주의운동 이전까지 영국의 건축을 지배하며 발전되고 있다.



〈그림15〉 Viceroy's House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운영지침

(건설부고시 제1993-578호, 1994.1.4)

◇주요내용

- 설계방식은 참가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한다.
- 시행기관은 참가자격, 추진일정, 설계조건, 입상내용 등 세부프로그램을 일간지에 공고한다.
- 참가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도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설계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부여한다.
-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반수 이상은 건축사 등 건축설계전문가를 위촉, 설계내용 위주로 평가되도록 한다.
- 심사위원의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한다.
-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후 응모자에게 반환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경기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경기"라 함은 특정사업 또는 구상에 대하여 2인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일반공개경기"라 함은 응모대상설계자를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
3. "제한공개경기"라 함은 응모대상설계자를 주최자가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
4. "지명초청경기"라 함은 주최자가 설계자를 지명하여 응모하도록 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
5. "주최자"라 함은 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6. "응모자"라 함은 설계경기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7. "공모안"이라 함은 응모자가 주최자에게 제출하는 설계안을 말한다.

제4조(설계경기의 종류) ①설계경기는 응모대상 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및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경기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주최자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당해 설계경기의 2이상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계경기의 시행공고) ①주최자는 특정사업 또는 구상에 대한 설계경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설계경기의 목적 및 방식
3. 응모자격
4. 설계경기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5.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7.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8.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9.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10.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11. 기타 주최자가 설계경기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는 경기시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일반공개경기 및 제한공개경기 : 일간지공고
2. 지명초청경기 : 초청대상자에게 서면통보

제6조(설계경기의일정) ①주최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경기를 시행하는 일정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 응답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성격등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 ①응모대상 설계자는 주최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경기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지침서 및 설계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

관계 등 주최자가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업지침서) 주최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응모자가 자의적으로 설계조건으로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질의응답)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당해 과업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도서 등) ①제출도서의 종류는 심사위원이 당해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응모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주최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경기 심사위원회) ①주최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경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주최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반수이상을 건축사 등 건축설계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최자가 과당경쟁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설계경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최자는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주최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최자 및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13조(입상작)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주최자는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주최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등 저작권과 관련한 세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모안의 전시) 주최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공모안의 반환) 주최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응모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주최자는 이 지침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설계경기운용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정한 설계경기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세부기준) 주최자는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과 석조기술'에 관한 제 1차 국제회의

'94.4.25~28일까지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건축과 석조 기술'에 관한 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행사에서는 세계각지로부터 유명한 건축사, 기술사, 시공업자 및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게 되며, 다채로운 행사내용과 신중한 연사 선정 그리고 산업관광청을 대신하여 이 행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확신합니다.

○주 제 : ① 2천년대의 인조석 사용
② 석조사용기술
③ 석조와 환경
④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인조석
⑤ 장식용 석조

○기 간 : 1994.4.25~28

○장 소 : 브라질 살바도르 바히아 컨벤션 센터

○등록비 : 일반-US$ 200 학생-US$ 120

○기 타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Av. Sete de Setembro, 2195
40080-002-Salvador/Bahia/Brazil
Phones : 0055-71-4447/5198
Telefax : 0055-71-336-6689

1994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 4백79만2천7백78㎡ 보다 32.8%(1백57만4천3백99㎡) 증가 한 6백36만7천1백77㎡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월 누계 4백79만2천7백78㎡보다 32.8%(1백57만4천3백99㎡) 증가 한 6백36만7천1백77㎡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12월분 1천1백71만7천1백54㎡보다 45.7%(5백34만9천9백77㎡) 증가 한 6백36만7천1백77㎡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 圖書申告 槪況(地域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93년도	1994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부산	393,211	914,441	521,230	132.6%
	대구	231,505	464,666	233,161	100.7%
	인천	150,186	182,472	32,286	21.5%
	경기	819,128	1,391,451	572,323	69.9%
	강원	73,228	210,583	137,355	187.6%
	전북	141,716	310,716	169,000	119.3%
	전남	120,626	180,946	60,320	50.0%
	경북	242,831	476,721	233,890	96.3%
	경남	477,629	767,618	289,989	60.7%
	제주	22,617	65,305	42,688	188.7%
감소지역	서울	896,794	609,544	(287,250)	-32.0%
	광주	351,518	179,304	(172,214)	-49.0%
	대전	205,895	136,520	(69,375)	-33.7%
	충북	251,689	228,113	(23,576)	-9.4%
	충남	414,205	248,777	(165,428)	-39.9%
합계		4,792,778	6,367,177	1,574,399	32.8%

全國 圖書申告 槪況(用途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도별	12월분	1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781,770	766,291	(15,479)	-2.0%
다세대주택	216,419	247,093	30,674	14.2%
연립주택	208,182	93,493	(114,689)	-55.1%
아파트	4,412,653	1,316,868	(3,095,785)	-70.2%
근린생활시설	1,817,241	1,258,305	(558,936)	-30.8%
종교시설	143,445	99,240	(44,205)	-30.8%
의료시설	95,957	86,394	(9,563)	-10.0%
교육연구시설	339,230	181,483	(157,747)	-46.5%
업무시설	550,645	172,771	(377,874)	-68.6%
숙박시설	203,957	99,593	(104,364)	-51.2%
공장	1,376,941	800,223	(576,718)	-41.9%
기타	1,570,714	1,245,423	(325,291)	-20.7%
계	11,717,154	6,367,177	(5,349,977)	-45.7%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槪況(1月分)

구분 / 건축사회	1993년			1994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876	1,915	896,794	1,179	1,204	609,544	(697)	(711)	(287,250)	-32.0%	
부산	559	749	393,211	725	749	914,441	166	0	521,230	132.6%	
대구	598	640	231,505	1,008	1,133	464,666	410	493	233,161	100.7%	
인천	262	275	150,186	293	300	182,472	31	25	32,286	21.5%	
광주	156	218	351,518	244	282	179,304	88	64	(172,214)	-49.0%	
대전	208	227	205,895	277	289	136,520	69	62	(69,375)	-33.7%	
경기	1,164	1,298	819,128	1,580	1,805	1,391,451	416	507	572,323	69.9%	
강원	215	232	73,228	449	508	210,583	234	276	137,355	187.6%	
충북	378	472	251,689	526	605	228,113	148	133	(23,576)	-9.4%	
충남	323	328	414,205	345	381	248,777	22	53	(165,428)	-39.9%	
전북	85	120	141,716	262	307	310,716	177	187	169,000	119.3%	
전남	247	299	120,626	389	497	180,946	142	198	60,320	50.0%	
경북	317	432	242,831	525	714	476,721	208	282	233,890	96.3%	
경남	537	686	477,629	882	1,015	767,618	345	329	289,989	60.7%	
제주	42	43	22,617	177	182	65,305	135	139	42,688	188.7%	
합계	6,967	7,934	4,792,778	8,861	9,971	6,367,177	1,894	2,037	1,574,399	32.8%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 용도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2,816	2,874	534,386	3,286	3,324	766,291	470	450	231,905	43.4%	
다세대주택	579	629	274,207	521	566	247,093	(58)	(63)	(27,114)	-9.9%	
연 립 주 택	35	40	38,848	58	76	93,493	23	36	54,645	140.7%	
아 파 트	75	403	1,536,935	93	270	1,316,868	18	(133)	(220,067)	-14.3%	
근린생활시설	2,136	2,181	864,399	2,917	2,988	1,258,305	781	807	393,906	45.6%	
종 교 시 설	59	81	52,807	93	112	99,240	34	31	46,433	87.9%	
의 료 시 설	12	12	31,455	18	23	86,394	6	11	54,939	174.7%	
교육연구시설	58	69	120,905	82	106	181,483	24	37	60,578	50.1%	
업 무 시 설	76	87	271,799	68	82	172,771	(8)	(5)	(99,028)	-36.4%	
숙 박 시 설	71	73	90,006	110	112	99,593	39	39	9,587	10.7%	
공 장	387	646	486,201	603	917	800,223	216	271	314,022	64.6%	
기 타	663	839	490,830	1,012	1,395	1,245,423	349	556	754,593	153.7%	
합 계	6,967	7,934	4,792,778	8,861	9,971	6,367,177	1,894	2,037	1,574,399	32.8%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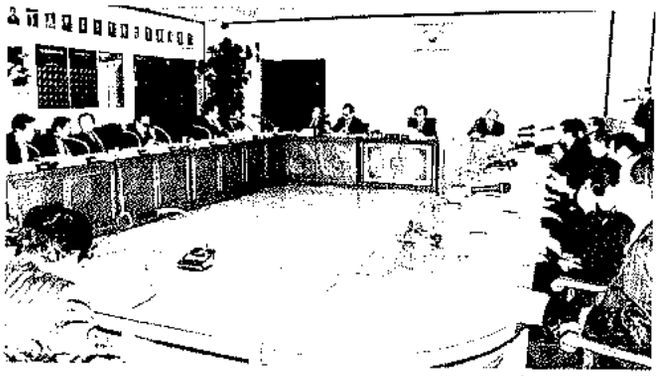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 건축사회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1,103	1,124	558,945	75	79	50,025	1	1	574	1,179	1,204	609,544
부 산	619	638	858,834	87	92	39,053	19	19	16,554	725	749	914,441
대 구	638	697	334,562	345	411	85,374	25	25	44,730	1,008	1,133	464,666
인 천	244	251	144,569	34	34	31,590	15	15	6,313	293	300	182,472
광 주	199	233	153,628	38	42	23,483	7	7	2,193	244	282	179,304
대 전	220	232	120,238	25	25	6,457	32	32	9,825	277	289	136,520
경 기	1,405	1,611	1,165,225	146	164	176,851	29	30	49,375	1,580	1,805	1,391,451
강 원	381	429	177,153	64	75	31,416	4	4	2,014	449	508	210,583
충 북	435	506	198,503	73	81	27,857	18	18	1,753	526	605	228,113
충 남	270	294	186,692	62	74	55,356	13	13	6,729	345	381	248,777
전 북	236	280	293,321	26	27	17,395	0	0	0	262	307	310,716
전 남	296	384	159,097	79	99	20,438	14	14	1,411	389	497	180,946
경 북	433	595	399,531	83	107	72,441	9	12	4,749	525	714	476,721
경 남	740	851	662,602	133	155	95,187	9	9	9,829	882	1,015	767,618
제 주	128	133	61,106	49	49	4,199	0	0	0	177	182	65,305
함 계	7,347	8,258	5,474,006	1,319	1,514	737,122	195	199	156,049	8,861	9,971	6,367,177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2,931	2,965	717,877	341	345	45,838	14	14	2,576	3,286	3,324	766,291
다세대주택	471	515	243,088	44	45	3,408	6	6	597	521	566	247,093
연 립 주 택	53	71	93,433	2	2	44	3	3	16	58	76	93,493
아 파 트	84	252	1,296,120	8	17	5,651	1	1	15,097	93	270	1,316,868
근린생활시설	2,493	2,556	1,106,858	334	342	84,655	90	90	66,792	2,917	2,988	1,258,305
종 교 시 설	59	75	69,257	31	34	29,520	3	3	463	93	112	99,240
의 료 시 설	6	6	12,423	7	12	60,567	5	5	13,404	18	23	86,394
교육연구시설	36	44	115,176	36	52	58,969	10	10	7,338	82	106	181,483
업 무 시 설	38	50	139,187	26	28	29,654	4	4	3,930	68	82	172,771
숙 박 시 설	91	93	93,089	16	16	5,163	3	3	1,341	110	112	99,593
공 장	366	599	534,150	215	295	245,937	22	23	20,136	603	917	800,223
기 타	719	1,032	1,053,348	259	326	167,716	34	37	24,359	1,012	1,395	1,245,423
합 계	7,347	8,258	5,474,006	1,319	1,514	737,122	195	199	156,049	8,861	9,971	6,367,177

이사회 개최



제8회 이사회 광경

본 협회는 주요 당면 과제 협의를 위한 이사회를 지난 2월22일(5회), 3월8일(6회), 3월15일(7회), 3월18일(8회)에 각각 개최,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의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5 회

· 행정쇄신위원회의 국민제안에 대한 협의

—행정쇄신위원회의 국민제안 건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정쇄신 과제 검토서를 작성, 제출키로 함.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

—본 협회 의견을 법제위원회에서 정리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제 6 회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에 따른 회비수납 기준 승인의 건

—사무처에서 작업을 하고 이춘상, 이일윤 이사가 결정, 차기 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 건축사보수교육 일정 계획(안) 승인의 건

—교육시간 배정은 김택성 연수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본협회 상근부회장인 박경환 부회장을 연임하기로 함.

·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안) 승인의 건

—일부 문안 수정, 승인함.

· 건설자재시험소 설치 계획(안)에 대한 협의

—시험준비위원회(김규태, 이종만, 김택성)에 위임함.

·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안)에 대한 협의

—감리 위원장과 설계위원장이 최종 협의 후 시행키로 함.

· 건축용역업 진출규제 완화 반대서명 결의에 대한 협의

—집행부에서 결의문 및 서명양식을 작성, 각 건축사회에 송부하기로 함.

○제 7 회

·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이사 3인(이춘상, 김인곤, 김규태)에게 검토,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이사 3인(이춘상, 김인곤, 김규태)에게 검토,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부결하되, 총회에서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사용 방법은 결의할 수 있도록 함.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건축사신문 발간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사업내용은 승인하되, 예산에 대하여 이춘상, 김인곤, 김규태 이사에게 검토,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제 8 회

· 건축사 수급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승인의 건

—연구용역계획은 승인하되, 연구용역 제목은 김인곤이사에게 위임함.

·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예비비 1억4천만원 중 4천만원을 조사연구비에 추가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함.

·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주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건축사신문 발간사업 및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개정(안) 승인의 건

—시·도건축사회 의견 제출 내용을 보완, 삽입하여 승인함.

· 건축통신 발간 계획(안)에 대한 협의

—건설부에서 자료를 받아본 후 결정하기로 협의함.

서울건축사회, 건축사법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비상대책회의 광경

「국민 제안」으로 행정쇄신위에 건의된 「대형건설업체의 건축설계권요구」에 대해 각 시·도 건축사회는 다단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 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3월14일 본협 강당에서 건축사법 개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단호한 대처방안 강구와 단결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오웅석 본협 회장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부실공사 방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기된 이 제안을 건설부도 일정한 한계를 지어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의 경위와 현재상황을 설명하고, 4천여 건축사를 대형건설업체의 직원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이 법개정에 적극 개입,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대형건설업체 설계진출 결사반대한다」,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책임을 감리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린 이날 회의장은 건설부와 대형건설사를 성토하는 발언이 계속 이어졌으며, 실천방안으로는 현재 서명날인 받고 있는 것과 결의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해 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것을 결의했다.

'94 건축사 연수

본 협회는 지난 3월21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전국 4천3백여 회원을 대상으로 94년도 건축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건축행정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주차장법 해설, 건축사의 직업윤리 등을 주 내용으로 실시되며, 전국 5개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나뉘어 순회, 실시된다. 교육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간계획	교육내용	강사	비고
08:30~09:20(50분)	등록 및 접수		사무국
09:20~09:30(10분)	인사말		교육진행 건축사회 회장
09:30~10:50(80분)	건축행정관련제도 해설	이용탁 사무관(건축계획과)	
11:00~12:30(90분)	주차장법 해설	장기상 서기관(도시정비과)	
12:30~13:30(60분)	중식		
13:30~14:50(80분)	건축사의 직업윤리	안병의 회원((주)김중업 종합건축사사무소)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현안문제	박경환부회장(대한건축사협회)	
	부실방지(새롭게 시작하는 건설)	VTR 상영	감사원 제작
15:00~17:00(120분)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정무웅 교수(단국대학교)	서울지역
		강기세 회원(종합건축사 사무소(주)범건축)	
		김태웅 회장(경북 건축사회)	지방지역
17:00~17:30	교육 정리		사무국

서울지역 연수 광경

일자	교육장소	건축사회	인원	비고
3.21(월)	본 협회 강당	강남1	440	강남1(440)
3.22(화)		강서2, 강동,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440	강동(44), 강서(42), 관악(58), 구로(45), 노원(12), 도봉(43), 강남2(196)
3.23(수)		서초, 서대문, 은평	441	서초(346), 서대문(42), 은평(53)
3.24(목)		동작, 성동, 성북, 영등포, 용산, 종로, 중구, 중랑	436	동작(39), 성동(177), 성북(31), 영등포(85), 용산(44), 종로(77), 중구(45), 중랑(38)
3.30(수)		동대문, 마포, 송파, 양천, 인천, 제주	458	동대문(38), 마포(59), 송파(142), 양천(26), 인천(149), 제주(44)
4.1(금)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부산, 경남	691	부산(448), 경남(243)
4.6(수)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대구, 경북	419	대구(308), 경북(111)
4.8(금)	광주신양파크	광주, 전북, 전남	273	광주(129), 전북(90), 전남(54)
4.11(월)	대전시민회관 소강당	대전, 충북, 충남	281	대전(130), 충북(87), 충남(64)
4.13(수)	본 협회 강당	경기, 강원	441	경기(373), 강원(68)
15개건축사회 계 4,320명				

94년도 각 시·도건축사회 제1회 임시총회 성료

대구건축사회 임시총회 광경

올해 첫 임시총회가 지난 2월 한달중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를 비롯한 15개 각 시·도건축사회별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참가속에 9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수지예산(안)결산과 94회계년도 추가경정수지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93년 주요 사업 업무 및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특히 각 시·도건축사회에 따라서는 대의원 선출, 공사·감리비 예탁시행지침(안), 회장단 선거관리 규정(안), 분회설치 등에 대한 안건도 주요 의결사항으로 다루어졌다.

건축학회, 「제8차 전국대학 건축과 세미나」 개최

대한 건축학회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부터 건축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제8차 전국대학건축과 교수 세미나를 본 협회 강당에서 개최했다.

지난 81년 7차 세미나 이후 18년만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교육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그간 논의만 계속 되어왔던 건축교육의 개선방안과 그 실천적 추진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정부 건의와 대학차원에서의 추진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소주제의 발표에 이어 학계 및 실무계의 약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김정신(단국대)/국내 대학의 건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신동우(아주대)/건축교육제도 개선방향

—전영일(동국대)/건축교육제도 개선안

—김형우(홍익대)/선진외국의 건축교육제도와 새로운 움직임

콘크리트협회, 기술강좌 개최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기술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최광규건설부토목사무관은 「건설기술의 당면과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건설기술연구개발5개년 계획으로 97년까지 16개 대형연구사업과 15개 중요연구사업을 선정,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와관련 산·학·연·관의 연구체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운용기준을 곧 마련, 기술개발 보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고건축 기초강좌」개설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는 3월19일부터 5월14일까지 10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삼성출판사 세미나실에서 고건축에 대한 기초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고유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어, 5월21일부터는 한국건축강좌가 기획·실시될 예정이다.

• 문의 :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 협회(547-9757)

일 시	강 의 제 목	강 사
3월 19일	우리의 옛건축(1)	신영훈(문화재 전문위원)
3월 26일	쉽게 익히는 고건축 용어	유문용(〃)
3월 27일	(창덕궁)현장강의	유문용(〃)
4월 2일	사원건축	황의수(문화재보존협회이사)
4월 9일	돌로 다듬은 건축물	황의수(〃)
4월 16일	우리 땅, 우리 산줄기	이우형(광우당 대표)
4월 23일	한국의 살림집	김왕직(명지대 강사)
4월 30일	한국의 원야	이재근(조경학 박사)
5월 7일	아름다운 단청	박준주(한국단청협회회장)
5월 14일	우리의 옛건축(2)	신영훈(문화재전문위원)

공동주책 아이디어 공모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대상 : 도심형 초고층 공동주택(20층이상), 저층형 공동주택, 고층형 공동주택(15층기준) (각 형태 혼합 가능)

• 평면 :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 도입

• 외관 : 건축적으로 참신한 디자인 제시

• 응모마감 : 94년 5월 15일

• 문의 : 현대산업개발 (519-9371)

제12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 이를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주, 시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서울시 건축상」의 올해 수상작이 지난 2월 28일 발표됐다.

올 해로 열두번째를 맞는 이상의 금상은 총 16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최영집(탑건축)회원의 「탑 스튜디오」가 선정, 영예를 차지했다.

예술성이 돋보인 금상작품외에 6작품이 수상했으며, 수상작품은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 금년 11월경 대규모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장작품은 다음과 같다.

• 금상 : 탑스튜디오(최영집, 탑건축)

• 은상 : 삼부빌딩(정종영, 공간건축)

• 동상 : 큰길타워(최완영, 일선건축), 서울오페라극장(김석철, 아키반건축)

• 장려상 : 서울대박물관(임응, 서울건축), 이화여대 목동병원(김창일, 정림건축), 방배동 삼호교회(우시용, 시공건축) 이상 7개 작품.

가협회 새 회장에 윤승중 회원 선출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18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있던 윤승중(원도시 건축)회원을 관례에 따라 회장으로 추대, 선출했다.

한편, 공석중인 부회장에는 김한근(한건축)회원을 선출했다.

「한국의 건축문화」, 비디오 제작

KBS 영상사업단에서는 「우리땅에 우리의 건축을 심어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한국건축의 공간미를 통해 3차원적 입체 개념에서 포괄적인 공간 개념으로 인식시킨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작, 공급하고 있다.

이 비디오에는 전통건축의 외부공간/기와/민속건축(담장)/옛집(너와집)/한국의 문/전통목가구/단청(사원건축)/한국의 정자/한국의 성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의 : KBS 영상사업단 방송문화미디어(235-3195)

무 지 보 역 타 설 공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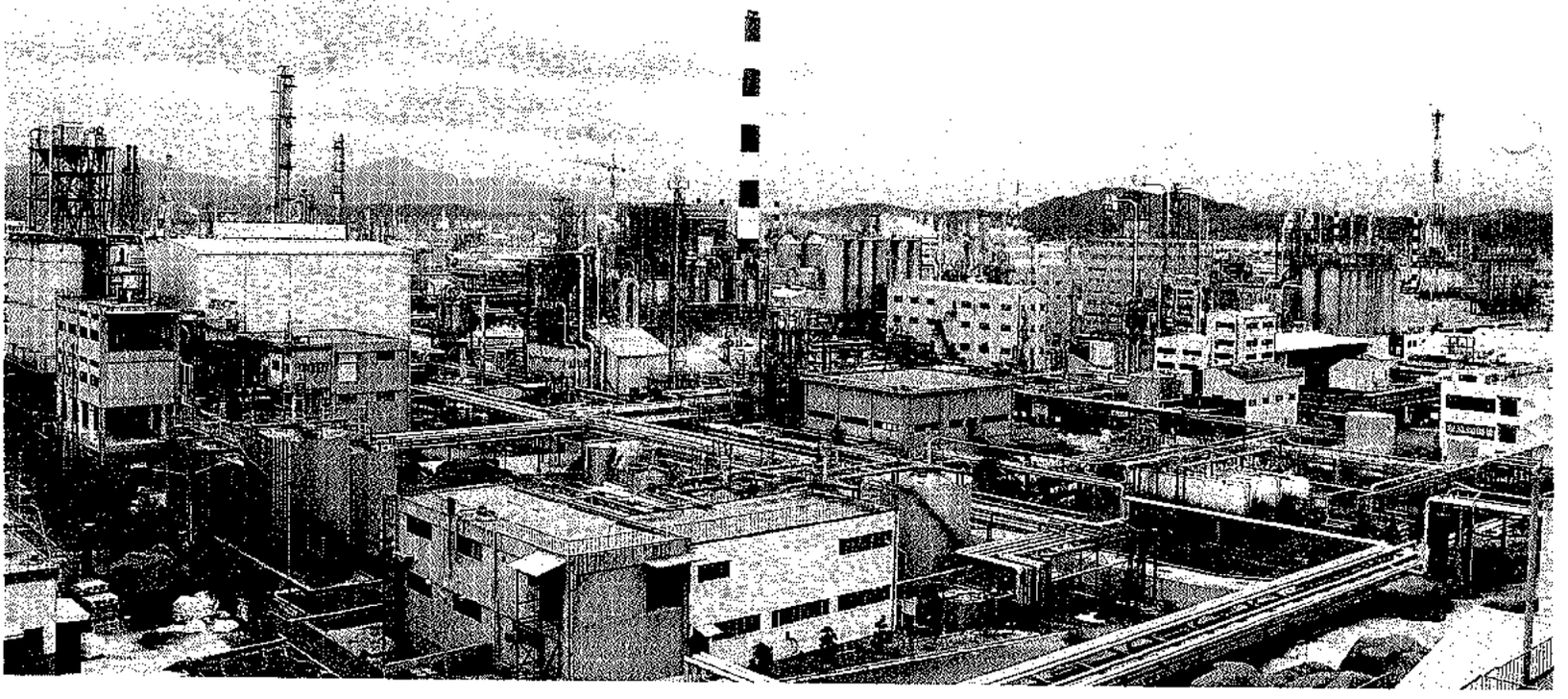
굴토공사 피해민원 예방대책

무지보 역타설(N.S.T.D.)공법은 기존의 모든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으로 종래 역타설 공법의 굳은암층, 선굴착 [illegible] 거푸집 받침 동바리([illegible]해)가 필요하지 않고 [illegible] 엄지말뚝(H-PILE)또는 건축구조물의 철골기둥(STEEL COLUMN)에 기 제작된 철골틀(강재거푸집)을 설치하여 상, 하향 자유자재 이동하며 Con'c를 타설하는 공법이며 철골틀이 강기둥(STEEL COLUMN)의 LIFT BLOCK에 의하여 매달려 있으므로 지하굴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굴토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종래 TOP DOWN 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 절감과 중장비 작업대기, 동바리, 거푸집 설치해체, 소운반품등의 삭감이 15%의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무지보 역타설 (N.S.T.D.)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 지하굴토 공사로 인한주변 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주식회사 정　　　담
TEL:(02)594-8100 / 9



한남화학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주)미원유화

21세기 석유화학산업 –
미원유화가 선도하겠습니다.

국내 유화산업 발전에 앞장서온 한남화학 –
한남화학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21세기 초우량기업이 되고자
94년 1월 1일부터 미원유화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미원유화는 첨단 신소재 개발과
최상의 서비스 실현에 더욱 주력하여
미래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MIWON 주식회사 미원유화